



마을과 민족

토지 이용과 인구 변화

농업

임진강 어로

유통과 상업

물질문화

마을 공동체 조직

문중과 제사

관혼상제

민간신앙

세시와 놀이

설화와 민요

구술 생애사



토지 이용과 인구 변화

편찬실

파주 민속의 특징

민속에서 거리距離는 매우 중요하다. 거리는 민속의 지역적 특성에 반영된다. 그래서 오래전에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 천리부동속千里不同俗’이란 속담이 풍속이란 말로 압축되었다. 경기도 일대에는 지역마다 서울과의 관계를 거리로 나타내는 통념들이 있었다. 서울 동쪽 경기 지역인 양평, 가평 등지에서 건물의 위치를 표현할 때 흔히 동대문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이라고 말한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울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광고문안과도 흡사하다. “동대문 밖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다”라고 말하면 최고의 맛집이라는 뜻이다. 경기 서북쪽인 파주에도 ‘동대문까지 90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주민 스스로도 “원래는 150리쯤 떨어져 있었지만 서울에서 100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었겠냐”고 말한다.

현재의 파주는 과거 군현 네 곳을 합친 거대한 구역이다. 또한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길어 양 극간의 거리를 생각하면 지역 내에서도 공통된 정서나 문화요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남쪽의 조리읍만 해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지

만 북쪽의 적성면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적성면의 인력시장은 기본적으로 숙박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파주로 들어오는 버스가 유독 붐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개의 군현이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이다 보니 나머지 3개 읍치의 변화가 간단치 않고 파주읍에서 문산읍을 거쳐 금촌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면서 주민들이 겪은 변화도 궁금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상은 앞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고랑포와 문산포의 명성은 임진강 수운에 의지하던 과거의 생활 패턴을 말해 주는 것이며, 현재 시청이 과거 교하읍의 읍치로 들어온 것은 이전의 중심지가 휴전선에 가깝다는 이유 말고도 이 일대에 있었던 근현대사에서의 대사건, 즉 개간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전국 15대 장시 중 경기도에 광주 사평장과 송파장, 안성읍내장에 이어 교하의 공릉장, 즉 현 봉일천장을 꼽았다.

파주에는 설화 중에, 또는 신장申樞의 묘를 찾은 신광휴의 행적에서처럼 조상 묘를 찾아다니고, 또 이를 동물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곳이 상층 계급의 묘터로 각광을 받아온 곳이었음을 증명한다. 영조 임금 때는 왕실의 능묘가 이곳에 집중되어 파주뿐 아니라 고양 백성들까지 조묘군造墓軍으로 부역에 동원되었다. “고양 밥 먹고 파주 구실한다”는 속담은 자기가 맡은 일은 없고 남의 일 해주는 싱거운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지역의 실상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마을 조사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6·25전쟁의 피해다. 대개가 산신제인 마을 제사가 이때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는 곳이 흔하고, 폭격으로 1950년 이전의 모습을 모두 잃은 마을도 많다. 그래서인지 파주에는 고문서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이 생겨 그동안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마을 문서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해온 문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었고, 전쟁 이전 사진도 많이 나와 차후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파주 지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삼팔선을 끼고 전쟁을 맞이하여 휴전선으로 고착되다 보니 고향을 지척에 두

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 마을이 많은 것도 파주의 특징이다. 교하읍 상지석리나 조리읍 장곡리에는 장단군 출신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가 있고, 적성면 식현2리에는 역시 장단면 답곡리에서 나온 김씨, 곽씨, 장씨 3성이 모여 살고 있다.

종전 후에는 미군부대를 매개로 생계를 꾸리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곳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구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예식장 결혼식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행해지고 신부 신행에 택시가 동원된 흑백사진을 보다 보면 파주만의 특수한 도시적인 분위기가 일찍 형성되었음을 느낀다. 파주의 어떤 사람이 미군 비행기에서 떨어진 달러가 잔뜩 든 더블백을 주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로또복권 신화처럼 당시에 널리 회자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6·25전쟁을 때놓고는 해석될 수 없다.

삶의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생활에서 파주만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은 앞서의 모든 상황들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분야의 과거 모습들은 이제는 현장에서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의생활과 주생활은 옛 사진을 모은 사진 자료집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길쌈은 6·25전쟁 전까지 했고 그 이후엔 안 했다고 한다. 더러는 전쟁이 끝나고도 몇 년 더 길쌈을 해서 명주나 무명을 만들어 장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젊은 남녀 복장의 특징은 남자가 주로 양복을 입은 반면 여자는 학생의 경우도 양단 옷감으로 만든 저고리에 단추를 단 한복을 착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진 속의 서울 여학생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 모양은 당시대의 유행을 따랐다. 나이 든 남자들은 한복 누비바지와 마고자를 입었다. 예식장 결혼식 사진에서도 신랑은 양복을 입은 반면 신부는 한복에 면사포를 썼다.

파주만의 것은 아니지만 파주민의 입맛을 잘 대변해 주는 음식으로 툄레기 매운탕이 있다. 미꾸라지 등을 넣은 탕에 갖은 야채, 국수, 양념류 등을 다 툄어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배가 고프고 고기가 귀하던 시절에 분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도 있다. 주로 천렵할 때, 주변에 있는 야채면 어느 것이나 넣어 툄레기 매운탕을 끓인다.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파주민의 식성과 궁합이 맞는 것 같다.

광탄면 용미4리에서 이장직을 오랫동안 맡아온 이영복 씨(1937년생)의 일기를 보면 1980년에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박을 키워 간표干瓢라고 표기하는 박꼬지를 만들어 서울백화점에 납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박을 말려서 만드는 호박꼬지도 파주민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황복으로 만드는 복어 요리는 이제는 너무 비싸서 대중과는 거리가 먼 음식이 되었고, 과거에도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음식이다. 청장관 이덕무李德懋(1741~1793)의 하돈탄河豚歎이란 시를 보면 임진강의 황복이 자연히 연상된다. 시가 너무 길어 여기서는 그 서문만 소개한다.

“이삼월 사이에 어선이 강에 정박하면 하돈이 왕왕 나타나므로 촌사람들이 잡아서 먹는데, 먹고서 중독되어 죽는 자가 자못 많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리 어리석단 말인가. 이 시를 써서 일면으로는 스스로 경계하고 일면으로는 하돈을 즐겨 먹는 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명절 차례 음식에도 지역 음식의 특징이 드러난다. 설음식으로 떡은 가래떡 말고도 인절미를 하고 고기 중에 닭고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제사 음식에 나물류가 적게 올라가는 것도 특징이라는데, 실제 제사 현장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설 차례 음식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떡국, 쇠고기, 두부적, 나박김치, 간장, 소적(두부), 어적(복어), 육적(쇠고기), 빈대떡, 누름적(녹두전), 전, 갈랍(간납), 탕, 조기,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다식, 산자, 식혜, 수정과, 술떡, 인절미 및 조율이시 과일 등이다. 떡국에 만두를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다.

경기도 지역 가옥의 한 특징은 튼 미음자집 구조다. 기존의 거꾸로 된 기억자 집에 나온자 행랑을 붙이면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혼인한 자식의 동거로 방이 모자랄 때, 아니면 행랑살이 머슴을 두게 될 때 튼 미음자집 구조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파주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일제 시기 고랑포 사진에는 미음자, 기억자, 튼 미음자 구조가 혼재되어 있었다.

미음자집이란 사방이 모두 막힌 네모반듯한 구조인데 소위 '파리집'이라고 한 것은 초가로 지붕을 들러 이으면 뱀이 파리를 뜯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미음자집은 지붕을 이을 때 안채와 바깥채를 나누어 작업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엉을 엮었으며, 지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격년으로 지붕갈이를 하지 않고 매년 하였다. 그리고 지붕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어다가 울타리도 새로 해야 한다. 이엉을 새로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 품앗이로 작업하였지만, 기와를 올리는 것은 기술자들이 하였다.

1970년대 전후로 서울 한옥들이 해체되어 팔릴 때 이곳 부자들도 그 자재들을 사들여 집 짓는 일이 유행했는데, 그 이후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지붕 개량 기술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와를 잇기 전에 흙을 저다가 지붕 위에 얹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하였다. 지붕을 다 벗겨내고 기와를 올리기 전 흙을 바르는데, 그래야 덥거나 추운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기와가 붙어 있을 수 있었다.

미음자 구조 집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안 변소와 바깥 변소 등 변소가 둘인 집이 많다는 것이다.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뒷간을 '안뒷간', 그리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뒷간을 '밖뒷간'이라고 불렀다. 안뒷간에는 쪼그리고 앉아 소피를 보거나 똥을 누기 좋게 돌맹이 두 개를 나란히 얹혀 놓았다. 여기에 발을 디디고 앉아 소피를 보거나 똥을 싸는 대로 재에 버무려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안뒷간을 '잣간'이라고도 하였다.

법원읍 오현리 권씨댁의 밖뒷간은 시멘트벽으로 직사각형의 동통을 만들고 그 위에는 쪼그리고 앉아 똥을 눌 수 있게 사다리를 얹어놓았다. 그래서 밖뒷간을 '동통'이라고 불렀다. 시멘트벽 동통은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변소 개량 사업'을 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권씨댁에는 그 흔적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다. 그 이전에는 땅을 파서 그대로 동통을 삼았다. 안뒷간의 재거름이나 밖뒷간의 똥거름은 밭농사나 논농사 때 거름이 되었다.

집 대문을 풍수상의 이유로 옆으로 낸 집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덧문을 단 집도 있는데 교하읍 신촌리의 양천 허씨댁이 그러하다. 금촌경로당을 방문하여 만난 박목만 씨(1935년생)는 교하읍 오금리에서 살다가 온 분으로, 그곳에서는 흙, 돌, 짚으로 만든 40칸 파리집에 살았다. 방 4개에 할

아버지, 부모, 형 등 다섯 식구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파주 지역에는 거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과 호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이 뒤섞여 있다. 대개 굳은 땅, 탄탄한 땅은 거리, 즉 소 두 마리로 간다. 그래서 조리읍처럼 파주 남쪽 지역도 토질에 따라서 거리로 농사를 지었다. 법원읍이나 적성면 등 산골에서는 화전火田 경영도 나타났다. 파주 지역 화전은 1년차에 조(또는 메밀), 2년차에 콩, 3년차에 콩 등의 순으로 돌아갔다. 그만큼 파주 지역 내에서도 농업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소를 매개로 한 ‘타작소’, ‘맷소’ 등 다양한 소 임대방식과 노동 교환방식이 있었다.

민간신앙에서는 대감신을 모시는 가정신앙이 널리 분포하였고, 마을 동제는 산신제가 대세를 이루었다. 대감신은 대감옷과 병거지 모자, 그리고 향아리 등으로 형상화되며 주로 단골무당이 만들어 준 것들이다. 조상 묘가 많고 문중 전통이 강한 파주 지역의 특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감향아리는 진등향아리라고도 하는데, 추수가 끝나 햇곡이 나오면 햅쌀을 넣어두고 건드리지 않으며, 혹 밥을 해먹더라도 외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토지 이용의 변화

파주 방천防川은 공릉천 하류 지역을 칭하는 지명이다. 공릉천은 한강 하구에 위치한 지류로서,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를 거쳐서 한강으로 합류한다. 교하읍은 공릉천의 가장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서는 공릉천을 방천이라 불렀다. 방천 주변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조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포락이생浦落泥生이 자주 일어났다. 주민들은 하천 정비 이전 가변적인 방천의 상황을 “을之자로 흐르는 개울이 옮겨 다녀서 홍수 때 조수가 치고 가면 땅이었던 곳이 개가 되기도 하고 개였던 곳이 땅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천 주변의 개간은 조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논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동독[洞-] 쌓기, 개울을 돌려서 경작지를 넓히는 개울 돌리기, 개울 주변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보漲 쌓기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또는 개~)', '~구비', '~방죽(또는 ~방축)'과 같은 논 이름이나 '~보'와 같은 보 명칭은 이 일대의 지형뿐만 아니라 개간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천', '마근개', '축동', '뒷방죽'과 같은 마을 지명에도 이 지역에서 행해졌던 개간 방식의 흔적이 남아 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 방천 일대에서 행해졌던 세 가지 개간 방식의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 특히 이전까지의 축보는 지형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천이 아니라 방천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에서 이루어졌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 방천의 하류를 막아서 그 물로 교하, 탄면, 아동 3면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거대한 보가 축조되기에 이른다. 개울 돌리기의 경우에도 한강과 합류되는 하구의 물길을 돌리는 대역사大役事가 이루어졌다. 두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교하읍 연다산리의 박필훈 씨이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개간 사업에서 동독 쌓기, 개울 돌리기, 보 쌓기가 동시에 행해지지 않았는데, 그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개간을 통해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냈다.

방천 하구를 바꾸는 대역사를 처음 벌인 이는 박필훈 씨가 아니라 서울 출신의 육종만 씨라고 한다. 육 씨는 물길을 바꾸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새로 확보한 땅을 논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땅을 박필훈 씨에게 팔게 되었다. 개울 돌리기를 통해 하구를 바꾼 후에도 사람이 등짐으로 흙을 날라서 바닥을 골라야 했기 때문에 작답 과정에만 5~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흥리 약산골의 논은 거의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는 방천 하구를 개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울을 돌리는 작업을 벌였다. 교하읍 오도리 마근개 마을에 거주하는 김영기 씨(1922년생)는 당시 물길을 돌리는 작업에 인부로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영기 씨가 개울 돌리기 작업에 인부로 참여했을 때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으며 해방되기 전까지 3~4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한다.

둥글게 굽은 개울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구부러진 곳의 한 지점을 막으면서

동시에 새로 물길을 낼 자리를 정해서 흙을 파내기 시작한다. 원래의 물길을 차단하면서 새로 물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새 물길 자리로 물만 드나들기 시작하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수로를 낼 수 있었다. 하루에 두 번 조수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조수의 힘에 의해서 흙이 패이면서 자연스럽게 물길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의 물길을 막고 새 물길을 내는 작업은 모두 인력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삽으로 물길을 파고 또 한쪽에서는 이 흙을 가져다가 쌓아서 원래의 물길을 막았다. 개울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간과 인원은 개울 모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김영기 씨가 개울을 돌리는 일을 할 때는 하루에 20~3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개울을 돌리고 나서는 조수가 주변 논으로 넘치지 않게 동독을 쌓았다.

개울을 돌리는 작업은 매년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수해가 나면 동독이 터질 뿐만 아니라 포락이 일어나 한쪽 개울 변에 있던 논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쪽에 새로운 땅이 생기게 되는 등 하천 모양이 바뀌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물길을 바꾸는 수해는 10년에 3~4년 정도 발생했다.

수해가 나서 조수가 치고 가면 개울 변의 땅은 높낮이가 들쭉날쭉했다. 따라서 개울을 펴고 동독을 쌓은 후에는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뒤따라야 했다. 이를 작답이라 하는데, 작답 과정 전체도 지주가 주관하였다. 논바닥을 고르는 일은 모두 인력으로 이루어져서 높은 곳을 삽으로 파낸 후 이 흙을 지게로 저다가 깊은 곳을 메웠다. 노동력 동원 방식으로는 '일공'과 '평뜨기', '우깨도리[受取]'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일공은 하루 품값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날일'이라고도 하였다. '평뜨기'란 일정한 평수를 정해 주고 일한 평수만큼 품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깨도리란 도급을 뜻하는 일본어로 일정한 구역을 일꾼들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을 가리킨다. 평뜨기는 개인끼리 하는 것이지만, 도급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하였다.

문산천 주변의 땅은 일제 시기에 길본吉本이라는 일본인이 개간을 하였는데, 이 땅을 작답할 때는 평뜨기뿐만 아니라 '구루마질'도 하였다. 구루마질이란 논바닥에 레일을 깔 뒤 광산에서 쓰는 궤도차로 흙을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루마질은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흙을 파고 구루마에 실어서 밀고 다니면서 깊

은 자리를 메워나갔다.

개울 변의 땅은 조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쌓인 개흙이었기 때문에 염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 작담 후에는 논바닥에 맑은 물을 잡아서 염기를 우려내야 했다. 이렇게 간을 우려내는 것을 “삭힌다”라고 하였다. 염기가 센 곳은 삭히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해야 했다.

방천 주변의 논에서는 개울을 가로질러 보를 쌓아 조수를 차단해야만 하천의 물을 관개수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 쌓았던 보는 추수가 끝난 뒤 쌓았다가 다음 해 모내기 즈음에 터버리는 일 년짜리 보였는데, 이 일대에서는 이 보를 가리켜 ‘능거리보’라고 하기도 하고 ‘방천보’ 또는 ‘영천보’라고 하기도 했다. 방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이 보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수로를 타고 올라오는 조수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였다. 방천보를 쌓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류로 내려가지 못하여 방천 주변에 있는 탄현, 교하, 아동 3개 면의 논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다. 매년 보를 막을 때마다 약 3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원될 만큼 방천보의 규모는 매우 컸다.

방천보는 하천을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범람의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의 물길 밖으로 퇴수로退水路를 만들고 수문을 달아서 비상시 보 안의 물을 빼낼 수 있도록 하였다. 퇴수로는 보 하류에 있는 원래의 물길과 다시 연결되었다. 퇴수로는 수로라고는 하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방천보를 막을 때 하루에 동원된 인원은 200~300명이었으며, 전체 작업 기간 동안 동원되는 인원은 3000명 정도가 되었다. 일꾼에게는 품값이 지불되었는데, 탄현, 교하, 아동 3개 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품값을 벌기 위해서 축보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품값을 주는 방식은 ‘일공’과 ‘만보’ 두 가지가 있었다. 일공이란 하루 단위로 품값을 받고 하는 일을 말한다. 작업의 중반까지는 일공으로 일꾼을 부리다가 절수를 하게 되는 2~3일 전부터 ‘만보주기’를 하였다. 만보는 지게로 흙을 운반하는 횟수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수록 품값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노임으로 받은 전표는 보 쌓기가 끝나고 나서 돈으로 교환하였다. 만보주기

방식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30~50전까지 품값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 정도의 돈이면 쌀 한 말을 살 수 있었다. 품값을 많이 받는 대신 식사는 일꾼들 각자가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화로에 점심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나르는 부인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매해 약 3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했던 품값은 봇물을 쓰는 작인들에게서 걷은 수세水稅로 충당했다. 방천보 수세는 한 마지기당 벼 두 말이었다.

방천보를 쌓게 되면 금촌까지 물이 차서 3개 면에 펼쳐져 있는 들이 마치 바다처럼 보였다고 한다. 지대가 높은 논외 경우에는 무릎 정도까지만 물이 찼으나 깊은 자리인 경우에는 수심이 한 길에 넘는 곳도 있었다. 모내기(芒種, 양력 6월 5일 전후) 무렵에 시작하는데 지대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울변으로 내려왔다. 하지가 지나고 사나흘 뒤에 보를 트고 깊은 자리에 있는 물을 빼낸 후 모내기를 마쳤다. 보를 막을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틀 때는 한두 사람이 가서 물만 드나들게 조금 터놓으면 물이 흘러가면서 흙이 자동적으로 패여서 몇 시간 안에 터지게 되었다. 한 사람의 경작지가 방천 남쪽과 북쪽에 흩어져 있어서 개울을 건너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방천보는 사람들이 쉽게 강의 양편을 왕래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보를 트게 되면 나룻배로 건너다녀야 했다.

방천보를 쌓기 이전에는 관개가 어려워 이앙을 하지 않고 건파(乾播)로 벼를 심거나 피를 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건파를 하게 되면 한 마지기에 벼 두 가마가 나는 것도 힘이 들었다. 방천보를 쌓은 이후에는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올라서 수해를 입지 않는 한 한 마지기에 벼 네 가마를 생산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방천보를 쌓았던 자리에 수문 5개를 설치하고 그 옆으로 남은 부분만 보 쌓기를 하였다. 당시는 농지개혁으로 대지주가 사라진 이후였으며, 수리조합에서 이 일을 주도하였다. 점차 수문의 개수가 늘어나서 현재는 20개의 수문만으로 물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수문 증설로 인하여 보 쌓는 일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처음 수문을 설치한 후에도 수리조합에서 수세를 걷었는데, 당시 수세는 한 마지기에 벼 서 말로 방천보의 수세보다 비쌌다.

수문의 설치로 방천보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수문은 현재의 방천 경관에서 방천보의 역사를 지우고 있으나 보를 쌓고 붓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는 방천보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교하군 소재 장토도서문적」에 실려 있는 총 8편의 보기지 매매문기는 방천 및 방천 지류에 있었던 보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문서들은 맥금리 금수교 갈방축평 소재 보 매매문기, 갈현리 하평 소재 보 매매문기, 1902년 영친왕궁 축보 기지에 편입되는 전답 매매문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금수교 갈방축평 보와 갈현리 하평 보의 매매 역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방천 일대 보기지 매매 일람표

맥금리 금수교 갈방축평 소재 보	문서번호	교하-1	교하-2	교하-3
	작성일	1902년 3월	1901년 4월	1870년 3월
	매도자	금수교 집강, 영좌, 소임	이 진사댁 노씨 장길	이 참판댁 노 대성
	매입자	영친궁 축보 감관 박기온	맥금리 금수교 이중 _中	이 오위장댁 노 장길
	매매 대상	금수교 갈방축평 보 총 1곳	금수교평 갈방축천 보 총 1곳	초당우보, 황의답두보, 갈현전평간포보, 장곶교보 총 4곳
	수세 면적			
	가격(량)	2,000	당오전 2,500	1,950
갈현리 하평 소재 보	문서번호	교하-5	교하-6	
	작성일	1902년 3월	1885년 10월	
	매도자	이중원	홍 판서 댁 노 완철	
	매입자	영친궁 축보 감관 박기온	이 생원 노 중득	
	매매 대상	갈현평 보	갈현리 하평 보	
	수세 면적			
	가격(량)	당오전 2,400	500	

출처 : 「교하군 소재 장토도서문적」

파주의 인구 변화

파주의 인구는 전체적인 증가 추세 속에 18세기 중반 3만 8000여 명에서 19세기 중후반 4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인구 증가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이후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호구총수戶口總數』(1789),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및 19세기 중반 이후 편찬된 각 군현의 『읍지邑誌』 등을 참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서울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

파주 지역의 인구 변화

지역	18세기 중반		18세기 말		19세기 중후반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파주	3,109	9,703	3,227	10,153	3,300	10,320
교하	2,267	9,070	2,474	7,997	2,673	10,493
장단	4,806	14,787	5,332	16,143	5,286	16,136
적성	1,418	4,934	1,698	5,909	2,074	8,420
합계	11,600	38,494	12,731	40,202	13,333	45,369

교하의 행정구역 변동

	지석면	외동면	석관리	청암면	현내면	신오리면	탄포면	아동면	합 계
18세기 중엽 여지도서 輿地圖書	후율리 상지석리	당하리 와동리 야당리 목동리	산북리 산남리 서패리	오도리 다율리 연다산리 신촌리 송촌리	갈현리 범흥리 맥금리 검산리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축현리 오금리 금송리	야동리 아동리 금성리	27개
19세기 말 교하군읍지 交河郡邑誌 여지도 邑地圖	후율리 상지석리	당하리 와동리 야당리 목동리	산북리 산남리 서패리 동패리	오도리 다율리 연다산리 신촌리 송촌리	갈현리 범흥리 맥금리 검산리 하지석리 약산동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축현리 오금리 금송리	야동리 아동리 금성리 신화리 등원리	32개

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에는 파주 지역의 제언堤堰이 교하에 4개, 장단에 16개, 파주에 2개, 적성에 4개라고 했고 그중 파주 1개, 적성 2개는 폐지되었다고 기록했다. 이후 19세기 중반 작성된 『경기도 각읍 제언군 결성책京畿道各邑堤堰郡結成冊』(1848, 현종 14년)에는 교하에 4개, 장단에 19개, 파주에 2개, 적성에 4개의 제언이 있었고 폐지된 곳이 2개였다고 기록했지만 제언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한강, 임진강변에 발달한 퇴적지를 농경지화하기 위해 간척[堰田]과 개간[開田]이 이루어져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실제로 적성과 교하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적성의 경우 18세기 중반 4900여 명이던 것이 19세기 후반 842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하의 경우도 18세기 말 8000여 명이던 인구가 19세기 후반 1만 49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교하의 경우 두 개의 대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경기만으로부터 밀물이 운반·퇴적하여 형성된 간석지성 충적지로 평야를 이루고 있어, 17세기에 들어 조정에서는 교하에 유이민을 모아 토지를 개간시킬 정도였다. 더욱이 교하 지역의 강안 저습지 토양은 피와 보리를 바로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개간이 활성화되었다.

당시 증가한 인구는 교통의 편의와 생계 유지를 위해 보통 읍치 주변이나 강변, 대로 부근에 거주했다. 파주의 경우는 한강,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주로 천변川邊에 거주했다.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에서 파악되는 파주 지역 면별 평균 호구 수는 약 251호였는데, 읍치를 제외하고 400호 내외인 곳이 대부분 천변이었다. 임진강변에 있는 파주의 천현면에는 413호가 거주했으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되는 곳인 장단의 중서면에는 379호가 정착해 살고 있었다. 또한 교하의 경우도 강변인 석곶면[石串面]과 현내면縣內面, 공릉천변의 아동면衙洞面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1910년 내무경찰국[內部警務局]에서 편찬한 『민적 통계표民籍統計表』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개항 이후 경기 지역의 직업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상업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개성·강화·안성·진위·과천·인천 등이었다. 개성과 강화는 과거 유수부 설치 지역으로 도성과의 연계 관계에 의해 상품의 중간 집산지 역할을 하며 상업이 성장했던 곳이다. 안성·진

개항 이후 경기 지역 직업별 인구 비율

단위 : 명

군현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광업	일용직	기타	총 인구 수	인구 대비 상업인구 비율	취업자 대비 상업인구 비율
수원군	147	127	78	1,284	13,716	37			315		74,661	1.71%	8.17%
시흥군	14	31	18	169	2,021		97		80	82	15,005	1.12%	6.72%
과천군	18	22	16	431	3,026		69		350	3	17,944	2.40%	10.95%
광주군	25	12	3	710	12,896		53			306	61,224	1.15%	5.06%
양지군	19	20	31	71	2,371		3		2	89	17,060	0.41%	2.72%
용인군	23	15	3	247	7,230		41			2	34,045	0.72%	3.26%
진위군	23	5		286	3,469				1		16,548	1.72%	7.55%
남양군	25	17	3	293	8,939	210	6	1	6	437	48,881	0.59%	2.94%
안산군	23	11		109	4,005	211				61	21,742	0.50%	2.46%
안성군	9	52	6	555	5,073		68		58	6	25,300	2.19%	9.52%
축산군	26	7	7	148	5,263		19				25,776	0.57%	2.70%
양성군	19	12	6	62	2,769		19		8	8	12,617	0.49%	2.13%
인천부	91	12		1,580	4,491	986	163		2,365	102	43,762	3.61%	16.13%
부평군	26	6	6	131	3,440	12	3		8	140	17,777	0.73%	3.47%
양천군	13	1		38	1,366	6	6				7,031	0.54%	2.65%
김포군	9	1	1	51	2,088		9			29	11,163	0.45%	2.33%
통진군	20	16	32	112	3,780	2			29	151	19,579	0.57%	2.70%
강화군	81	7	21	1,339	9,487	722	84		201	390	52,369	2.55%	10.85%
고동군	32			60	1,565	3	7		38	73	8,275	0.72%	3.37%
개성군	130	162	105	3,537	9,374	203	493		1,258	643	67,385	5.24%	22.23%
장단군	98	27	20	584	9,562	9	29	5	278	267	48,775	1.19%	5.36%
풍덕군	92	2	15	236	5,029	34	44	1	87	410	29,158	0.80%	3.96%
파주군	79	20	27	429	5,306	6	3	9	64	57	27,206	1.57%	7.15%
교하군	83	16	37	64	2,907	9	30		54	17	14,789	0.43%	1.98%
연천군	7	2	3	163	2,688				144	45	15,037	1.08%	5.34%
마전군	8	6		120	2,802		1			61	13,777	0.87%	4.00%
적성군	3	7	2	66	2,102		70		30	9	1,090	20.65%	2.88%
삭녕군	7		2	149	4,527				6		22,131	0.67%	3.17%
양주군	51	224	252	794	16,703	44	140		18	131	85,667	0.92%	4.32%
고양군	25	59	13	208	5,408	68	39		30		28,653	0.72%	3.55%
가평군	17	8	17	254	4,833		31		94	41	25,567	0.99%	4.79%
포천군	18	44	126	238	5,834		73		8	15	27,822	0.85%	3.74%
영평군	21	14	76	134	3,796		14	5	11	20	18,329	0.73%	3.27%
여주군	40	176	109	357	10,208	3	11		65	108	43,994	0.81%	3.22%
양평군	49	646	83	354	12,917		121		194	6	60,590	0.58%	2.46%
이천군	27	79	167	76	5,590		21		9	13	24,905	0.30%	1.27%
음죽군	17	13	12	175	8,196		11		47		14,657	1.19%	2.06%

위·과천은 삼남의 산물이 육로로 도성에 이르는 중계 지점이었으며, 인천은 개항 이후 외국인들까지 드나들며 상업 활동을 하던 상업 중심지였다. 파주 지역도 파주, 장단을 중심으로 상업인구 비율이 높아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단의 경우 조선 후기 대상권을 이루었던 안성보다도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 개항 이후까지도 상업이 번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

고광민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봉석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파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진 작업에 몰두해 온 이용남 씨의 소개로 법원읍 오현리에서 한 집의 처마 밑에 걸려 있는 매우 우람한 겨리쟁기를 만날 수 있었다. 동네 분들은 발갈이는 겨리, 논갈이는 호리라고 하였다. 이 마을에서 겨리가 두 마리의 소를 지워 밭을 가는 쟁기라면, 호리는 한 마리의 소를 지워 논을 가는 쟁기를 두고 이른 말이었다. 법원읍 오현리의 농가는 대개 집집마다 논과 밭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다.

교하읍 하지석리의 80호 되는 농가들은 논 60%, 밭 40%를 소유하였는데, 이 중에 일소는 대개 10호당 한 마리를 소유하였다. 일소가 없는 농가에서는 이웃 집의 일소를 빌어다가 논과 밭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일소가 없는 농가에서 일소를 빌어다 논과 밭을 갈고, 그 값을 노동으로 되갚는 일을 두고 '소품앗이' 라고 하였다. 일소 한 마리를 하루 동안 빌리어 논과 밭을 갈았을 때는 하루의 노동으로, 그리고 일소 한 마리와 밭가는 이 한 사람을 빌리어 논과 밭을 갈았을 때는 3일의 노동으로 그 값을 갚았다. 하루 노동의 양을 두고 '품' 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교하읍 하지석리는 발갈이나 논갈이를 모두 호리로만 이루어내었다.

파주 지역에는 겨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과 호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이 뒤섞여 있었다. 대개 굳은 땅, 탄탄한 땅은 겨리, 즉 소 두 마리로

갈며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겨리 위에 어린아이를 앉히기도 했다. 논은 호리로 갈지만 밭이나 습기가 없는 땅은 소 두 마리로 갈고, 좋은 땅은 한 마리로 간다. 파주 지역의 농부들은 겨리와 호리로 밭농사를 어떻게 이루어내었을까.

밭농사

겨리쟁기는 여러 부품마다 나무가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성에는 전나무, 한 마루는 자작나무를 고집하였다. 겨리의 목재는 겨리의 주인이 마련하였고, 겨리의 제작은 전문적인 목수에게 부탁하여 이루어내었다. 목수가 겨리를 만드는 데는 꼭 하루가 걸렸다. 겨리를 만드는 목수의 품삯은 쌀 한 말이었다. 쌀 한 말은 보통 밭 일꾼 한 사람의 4일 품삯이었다. 그리고 보습을 하나 마련하는 값은 쌀 3말이었다. 보습 하나의 값은 한 사람의 밭 일꾼이 12일 동안 이루어내야 할 노동의 값과 같았던 셈이었다.

이 마을에서 겨리로 일주일쯤 밭을 갈면 이랑이 서지 않을 만큼 보습은 쉬 닳아빠지고 말았다. 이런 모양의 보습을 두고 ‘무트래기’라고 하였다. 그러니 겨리의 주인은 하나의 보습을 마련하면, 12일 정도 겨리로 밭을 갈아야 본전을 건진다고 믿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겨리, 밭가는 이, 일소 2마리를 모두 사서 밭농사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품삯으로 쌀 한 말을 내어놓거나, 아니면 4일 동안의 노동으로 그 품삯을 갚았던 것이다.

보리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는 두 마리의 겨리소를 끄는 이 2인, 밭가는 이 1인, 재거름에 뒤섞인 보리 씨앗 뿌리는 이 1인, 그리고 씨앗을 묻는 이 1인이 필요하였다. 그러니 일소 2마리와 농부 5인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보리농사의 파종을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하나의 조직을 두고 ‘컬레’라고 하였다.

법원읍 오현리에는 보리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3개의 컬레가 있었다. 3개의

컬레는 권 씨, 심 씨, 그리고 김 씨의 성씨에 따라 서로 갈렸고, 컬레마다 겨리 1개와 일소 2마리를 갖추고 있었다. 겨리와 일소는 공동 소유의 것이 아니었다. 부잣집에서만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마을의 겨릿소는 황소만을 고집하였다. 겨리 좌측의 일소를 두고 '안소', 그리고 우측의 일소를 두고 '밧소'라고 하였다. 안소는 비교적 힘이 강한 황소, 그리고 밧소는 비교적 힘이 약한 황소이었다. 다만, 심 씨네 컬레에서만 안소는 황소, 그리고 밧소는 암소를 고집하였다. 심 씨네 어느 조상이 황소에 찢려 목숨을 잃는 일이 있는 후로부터 겨릿소 한 마리만은 반드시 암소를 고집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법원을 오현리 권영상씨댁 겨리쟁기 사례

이 마을의 밭농사는 겨울농사로는 보리, 그리고 여름농사로는 조와 콩이 뼈대를 이루었다. 권 씨는 '장특굴'에 1500평, 그리고 '절골'에 1500평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한 마지기가 300평이었으니, 1500평은 다섯 마지기의 밭이었던 셈이었다. 그리고 1500평의 밭을 두고 '하루갈이'라고 하였다. 하루갈이는 보리를 파종하는 하나의 조직, 곧 하나의 컬레가 하루 동안에 이루어 낼 수 있는 넓이의 밭이었다.

1) 겨울농사

보리농사는 상강霜降 안팎에 씨를 뿌렸다가 하지夏至에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보리의 씨뿌리기는 여름농사의 거두어들이기를 끝낸 밭에서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보리의 파종은 밭갈이, 씨뿌리기, 그리고 씨앗 묻기를 동시에 이루어 내었다. 보리의 파종에 앞서 밭의 주인은 인분人糞(이하 '똥거름'이라 이름)이 뒤섞여 있는 재거름에 보리 씨앗을 뿌려주며 삼으로 뒤섞었다.

- ① 밭갈이 : 밭을 가는 이 한 사람은 겨리를 이끌며 두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어나갔다. 이때 겨릿소의 고삐를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나누

어 잡아 끌어주었다. 밭을 가는 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겨리로 밭을 가는 것은 버거웠으니, 겨릿소를 끄는 사람과 수시로 교대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두둑은 너 자[尺], 고랑은 두 자’라는 말이 전승하였던 것처럼 두둑의 폭은 120cm, 고랑의 폭은 60cm 안팎이었다. 고랑은 보리 씨뿌리기의 씨앗 구덩이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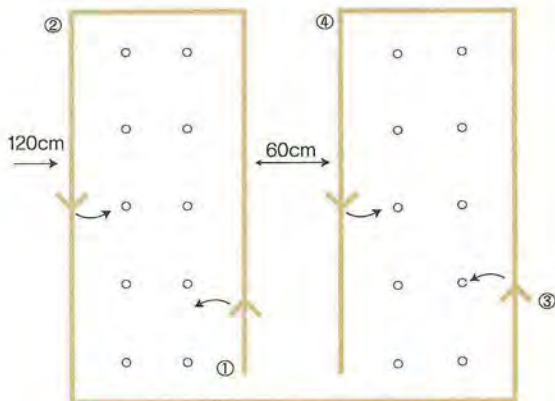
- ② 씨뿌리기 : 한 사람은 재거름에 뒤섞인 보리 씨앗을 삼태기에 담아 고랑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줄줄이 한 줄로 뿌려나갔다. 이런 일을 두고 “재 뿌린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보리의 씨뿌리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 ③ 씨앗 묻기 : 한 사람은 고랑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쇠스랑으로 두둑에 있는 흙밭을 고랑으로 쓸어내리며 보리 씨앗을 덮어나갔다. 이런 일을 두고 “보리밭 덮는다”, 또는 “골 덮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보리의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본격적인 복토覆土(이하 ‘씨앗 묻기’라고 이름)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 ④ 김매기 : 춘분 안팎에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 ⑤ 웃거름 : 청명淸明 안팎에 오즘을 웃거름으로 주었다. 서너 말 들이의 ‘오즘 장군’에 오즘을 지고 보리밭으로 가서 ‘오즘동이’에 오즘을 담아내며 조금씩 주었다.
- ⑥ 거두어들이기 : 하지 안팎에 보리를 거두어들였다.

2) 여름농사

이 마을의 여름농사는 조[粟]와 콩이 빼대를 이루었다. 다만 콩밭에 수수를 간작間作(이하 ‘사이갈이’라고 이름)으로 심는 수도 더러 있었다. 여름농사의 씨뿌리기는 입하立夏, 그리고 거두어들기는 한로寒露 안팎이었다. 그러니 겨울농사인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전에 여름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커다란 의문점이 드러나고 만다. 이 마을에서 보리의 씨뿌리기는 상강(양력 10월 23일경), 보리의 거두어들기는 하지(양력 6월 21일경)이니,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훨씬 전인 입하(양력 5월 6일경)에 여름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와 콩의 씨뿌리기는 한해씩 밭을 돌려가며 이루어내었다.

조, 수수, 콩의 밀거름은 조금씩 서로 달랐다. 오줌, 똥, 재를 차곡차곡 쌓아둔 거름을 뭉뚱그려 ‘재거름’이라고 하였다. 재거름은 체에서 찼다. 이때의 체를 두고 ‘재체’라고 하였다. 재체 위에 남은 거친 거름은 수수나 콩의 밀거름, 그리고 재체 아래로 빠진 고운 거름은 조의 밀거름으로 삼았다. 거친 거름과 고운 거름에 각각 씨앗을 넣어 뒤섞었다.

- ① 발갈이 : 두둑에서만 이루어졌다. 이것도 쟁기로 밭을 가는 본격적인 발갈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며 쟁으로 두둑을 일구는 정도이었다.



거리갈이와 파종법

- ② 씨뿌리기와 씨앗 묻기 : 우선 조와 콩의 씨뿌리기만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한 사람은 재거름에 뒤섞인 씨앗을 ‘종댕이’라는 파종 바구니에 담아 앞으로 나아가며 오른발 뒤꿈치로 씨앗구덩이를 좌우 두 개씩 만들었다. 씨앗구덩이와 씨앗구덩이의 간격은 가로 세로 40cm 정도이었다. 그리고 종댕이라는 파종 바구니에서 씨앗을 집어내어 씨앗구덩이에 넣고, 왼발의 앞면으로 흙바를 쓸어 밀거나 당기며 씨앗을 묻어주는 것이었다. 이때 콩의 씨앗은 하나의 씨앗구덩이에 3~4방울, 그리고 조의 씨앗은 하나의 씨앗구덩이에 7~8방울을 집어넣었다. 콩과 조는 하나의 두둑에 두 줄로 심는 것이었

다. 그러나 콩밭의 수수 사이갈이는 가운데 한 줄뿐이었다. 수수의 씨앗구덩이와 씨앗구덩이의 간격은 120cm이었다. 수수도 씨앗구덩이에 똑같은 방법으로 7~8방울을 씨앗을 집어넣고 묻어주는 것이었다. 여름농사의 씨 뿌리기와 씨앗 묻기를 두고 '싱금질'이라고 하였다. 첫 발매기 때 콩은 3그루, 조는 3~4그루, 그리고 수수는 2그루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미련 없이 솟아내 버렸다.

- ③ 김매기 : 여름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2~3 차례의 발매기가 이루어졌다.
- ④ 거두어들이기 : 한로 안팎에 거두어들였다.

교하읍 하지석리 신웅현씨택 호리쟁기 사례

교하읍 하지석리 신웅현 씨(남 1932년생)의 한 사례를 통하여 파주 지역에서 호리쟁기로 하는 밭농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마을의 밭농사에서는 겨울농사로는 보리, 그리고 여름농사로는 콩이 뼈대를 이루었다.

1) 겨울농사

이 마을의 보리 씨뿌리기는 상강 무렵에, 그리고 보리의 거두어들이는 하지 무렵에 이루어졌다.

- ① 발갈이 : 네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었다. 겨리의 권역에서 두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며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 마을에서는 네 개의 거웃을 두고 '네꼬치기', 두둑을 두고 '둔덕', 그리고 고랑을 두고 '골' 또는 '골창'이라고 하였다.
- ② 씨뿌리기와 씨앗 묻기 : 오줌, 똥, 재가 뒤섞인 거름을 고랑에 주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쇠스랑으로 좌우 두둑의 흩밥을 긁어내리며 씨앗을 묻어주었다.
- ③ 김매기 : 한 차례 정도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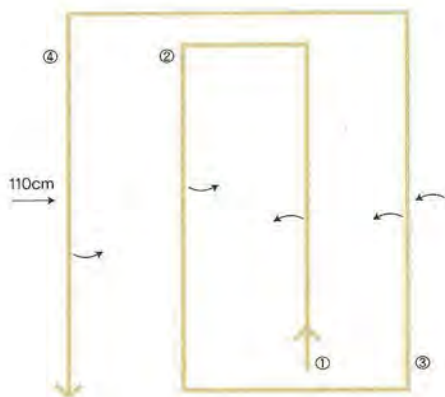
④ 거두어들이기 : 하지 무렵에 거두어들였다.

2) 여름농사

콩의 씨뿌리기는 보리를 베어내기 전인 망종,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한로 무렵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이 마을의 콩 씨뿌리기는 보리 수확기인 하지보다 보름 앞선 망종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망종 때 보리뿌리가 끊어진다”라는 말이 전승하였다. 이 말은 보리의 뿌리가 노쇠하여 이제는 영양분 섭취를 멈추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① 발갈이 : 본격적인 호리로의 발갈이가 아니라, 쇠스랑으로 콩을 심을 두둑을 파 얹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두고 “대우판다”라고 하였다.

② 씨뿌리기와 씨앗 묻기 : 두 줄로 콩을 심어나갔다. 발뒤꿈치로 씨앗구덩이를 내고, 바가지에 콩의 씨앗을 담고 다니며 하나의 씨앗구덩이에 3~4방울의 씨앗을 넣고, 다시 발바닥으로 씨앗구덩이 주변의 흙을 쓸어 밀거나 당기며 씨앗을 묻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두고 “자욱 심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발자국으로 콩의 씨앗을 심거나 묻는다는 말에서 비롯하였음은 물론이다. 가끔 수수와 들깨를 사이같이하는 수도 없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부룩친다”라고 하였다.



호리의 발갈이법

③ 김매기 : 세 번쯤 이루어내었다. 이런 일을 두고 “콩밭 맨다”라고 하였다.

④ 거두어들이기 : 상강 전에 거두어들였다.

겨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에서는 두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어내었다면, 호리 지역에서는 네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어내었다. 겨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에 있는 밭의 물리적 조건은 호리로 밭농사를 이루어내는 지역에 있는 밭의 물리적 조건보다 열악하였기 때문이었다. 열악한 물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소의 힘을 빌려 이루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겨리인 것이었다. 겨리와 호리의 권역에서는 모두 겨울 농사는 보리, 그리고 여름농사는 조, 콩, 수수, 피이었다. 그러나 겨리의 지역에서는 여름농사를 짓는 법이 다소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겨리나 호리의 권역을 불문하고 파주 지역 여름농사의 씨뿌리기는 입하,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한로 무렵이었다. 겨울농사인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전에 여름농사를 지었다.

대우치기도 다소 지역 차이가 있었다. 대우치기는 입하 안팎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는데, 두 가지가 전승하였다. 팽이로 이루어내는 것과 호미로 이루어내는 것이었다. 법원을 오현리에서는 팽이로만 대우치기를 이루어낸 반면 적성면 주월리에서는 팽이와 호미로 동시에 대우치기를 이루어내었다.

호리의 밭농사 권역에 있는 교하읍 하지석리의 여름농사의 하나인 콩의 파종 법만으로 들여다 볼 때 겨리의 권역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발뒤꿈치로 씨앗구덩이를 내고, 바가지에 콩의 씨앗을 담고 다니며 하나의 씨앗구덩이에 3~4방울의 씨앗을 넣고, 다시 발바닥으로 씨앗구덩이 주변의 흙을 쓸어 밀거나 당기며 씨앗을 묻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두고 “자욱 심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밭자국으로 콩의 씨앗을 심거나 묻는다는 말에서 비롯하였음은 물론이다. 가끔 수수와 들깨를 사이갈이로 뿌리는 수도 없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부룩친다”고 하였다.

파주 지역의 겨리와 호리의 권역은 해발 고도의 차이만은 아니었다. 밭농사에서 겨리와 호리의 권역은 토양의 물리적 조건이 크게 좌우하였던 것 같다.

논농사

파주 지역의 논농사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호리로만 논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겨울농사로 보리를 가는 이모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논이 조건의 건답이 아닌 골답이라는 점, 그리고 기후로 볼 때 논보리를 갈기가 걸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원을 오현리 권영상씨댁 논농사 사례

논농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법원을 오현리의 권영상權寧相 씨(남, 1929년생)의 사례를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1) 못자리 앞히기

권 씨는 앞자리에 1185평, 새창모탱이에 530평, 그리고 샘골에 985평의 논을 소유하고 있었다. 권 씨의 논은 모두 골답이었다. 못자리는 논밭마다 물이 충분한 곳에 앞혔다. 곧 앞자리에 심을 모의 못자리는 앞자리에 앞혔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곡우穀雨 못자리’라는 말이 전승하였다. 그러니 곡우 안팎에 못자리를 앞혔던 것이다. 못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못자리 앞힌다”고 하였다. 못자리를 앞히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아기자기하게 이루어졌다.

못자리는 가래로 일구는 수가 많았다. 가래는 한 사람이 손잡이를 잡아 흙뺨을 뜨고, 또 좌우에 두 사람이 가래의 줄을 잡아당기며 못자리를 일구는 것이었다. 손잡이를 두고 ‘장추’라고 하였고, 가래의 손잡이를 잡아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장부꾼’이라고 하였다.

우물의 물은 못자리로 퍼올렸다. 이런 일을 두고 ‘고두레질’이라고 하였다. 고두레는 우물의 물을 논바닥으로 퍼내는 그릇의 이름이다. 바닥이 좁고 위가 넓게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릇 네 귀퉁이에 줄을 매었다. 고두레는 두 사람이 서

로 줄을 맞잡고 우물의 물을 퍼올리게 만들어졌다.

이어서 울퉁불퉁한 못자리바닥을 씨레로 편편하게 골랐다. 못자리바닥을 씨리고 나서는 물을 빼어주었다. 재거름과 똥거름을 주는 일도 없지 않았다.

모판은 논바닥에 골을 내어 마련하였다. 골과 골의 폭은 120cm 안팎이었다. 골과 골 사이의 두둑을 ‘모판’이라고 하였다. 염수선(鹽水選)한 볍씨를 모판에 뿌렸다. 이런 일을 “볍씨 친다”라고 하였다. 볍씨는 모판에 콕콕 박혔다. 그러니 두문 데는 볍씨를 다시 끼었었다. 볍씨가 배게 박히면 키만 크고 대는 홀쭉하여 모의 균형을 잃었다. 그렇지 않게 볍씨를 골고루 잘 끼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볍씨는 정성을 쏟아 마련하였다. 탈곡하는 연장을 ‘그네’라고 하였다. 그네에서 벼를 탈곡하였는데, 볍씨로 삼을 나락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다. 껍질이 벗겨진 볍씨는 손으로 골라 내버렸다. 볍씨로 삼을 나락은 반드시 섬이나 가마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볍씨는 그만큼 통풍이 강조되었기 때문이었다. 흉풍에 따라 볍씨를 마련하는 양이 달랐다. 흉년에는 그만큼 쪽정이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볍씨를 치고 나서 모판에 물을 대었다.

2) 피사리

모판의 잡초를 손가락으로 뽑아내는 일을 두고 ‘피사리’라고 하였다. 피사리는 수시로 맨손으로 이루어내었다. 모판에는 ‘올미’가 많았다.

3) 모내기

모판의 모가 18cm 정도 자랐을 때 모내기를 하였다. 모내기에 앞서 소만(小滿) 안팎에 호리로 논밭을 갈아두었다. 이때의 논갈이를 두고 “애간다”라고 하였다. 본격적인 모내기의 논갈이는 망종 안팎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논갈이를 두고 “두벌간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논갈이는 못자리를 마련하듯 쟁기질, 물대기, 씨레질, 물 빼기, 거름주기, ‘고물개’로 논바닥 밀기, 물대기를 하고 나서 모내기를 이루어내었다. 씨레질은 두벌논을 갈고 나서 2~3일 후에 이루어내었다. 두둑을 가로지르며 씨리고 나서 다시 두둑의 방향으로 씨렸다. 앞의 씨레질을 두고 ‘곶씨리’, 뒤의 씨레질을 두고 ‘장씨리’라고 하였다. 눈짐작으로 기늙하

며 모를 심어나가는 것을 두고 ‘막모’, 못줄을 대고 심는 모를 두고 ‘줄모’ 라고 하였다.

모내기는 조직을 이루어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보통 농가에서는 노동 교환으로 모내기를 이루어내었는데, 이를 ‘품앗이’ 라고 하였다. 논밭이 넉넉하지 못하여 고지를 먹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은 논밭이 넉넉한 지주네 논에서 모내기를 하였다. 가난한 농민들은 농번기에 이르기 전에 식량을 대기 위한 수단으로 논 마지막에 값을 정하여 모내기나 김매기의 일을 해주기로 하고 지주로부터 미리 샅을 받아썼다. 이런 샅을 고지라고 하였다.

고지를 먹은 농군들은 두레를 이루고 지주네 논밭에서 모내기를 하였다. 이런 일을 두고 ‘자리품’ 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하루에 200평의 모내기를 이루어냈다. 기량이 뛰어난 농군은 300평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자리품으로 모내기를 이루어낼 때는 점심밥이나 새참에 술이 나오지 않았다. 술기운이 모의 간격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4) 애벌매기

논밭의 첫 번째 김매기를 “애논맨다” 라고 하였다. 모내기를 한 벼모는 20~30일 후면 30cm 정도 자랐다. 벼모가 이쯤 자란 논밭에서 애벌매기가 이루어졌다. 농군들은 논이 호미로 잡초가 매어지는 족족 논바닥 속으로 묻어나갔다. 논호미로 논바닥을 긁다 보면 벼모의 뿌리도 잘려나갔다. 벼모는 그럴수록 새 뿌리를 힘차게 내뻗었다. 애벌매기는 자리품이나 품앗이로 이루어졌다. 이때는 점심밥이나 새참에 술이 곁들어졌다. 애벌매기가 흥겹고 힘차게 이루어질수록 벼모는 더욱 힘차게 뿌리를 내렸다. 농군 한 사람이 하루에 200평의 논밭을 매었다.

5) 두벌매기

두 번째 이루어지는 논매기를 “두벌논맨다” 라고 하였다. 애벌매기 15~20일 뒤에 두벌매기가 이루어졌다. 농군들이 호미나 맨손으로 잡초를 훑치며 논바닥으로 묻어나갔다. 음력 7월 중에 마을에서는 날을 정하여 집집마다 쌀을 모아 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다. 이를 두고 ‘호미씻이’ 라고 하였다.

6) 거두어들이기

벼 이삭이 뻗다. 서서히 물알이 잡혔다. 이쯤에 논바닥의 물을 뺐다. 골담의 논바닥의 물은 잘 빠지지 않았다. 물알이 여물어 갔다. 음력 10월 중에 벼 베기가 이루어졌다. 한 마지기 200평당 100뭇이 나왔다. 이는 하루 한 사람이 베는 양이었다. 파주 지역의 논농사는 주변 지역의 논농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 남부 지역보다 일찍 이루어내었을 뿐이다.

화전火田

금병산(표고 293m) 동남쪽 골짜기인 샛골에서 한때나마 화전농법으로 생계를 꾸렸던 김은섭金殷燮 씨(남, 1927년생)로부터 화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임진강 건너 진동면 하포리에서 태어났다. 6·25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진동면 하포리에는 소개 명령疏開命令이 내려지고 말았다. 김 씨는 임진강을 건너 지금의 광탄면 발랑리로 이주하였다. 김 씨는 광탄면 발랑리에 머물고 있는 동안 금병산의 한 골짜기인 샛골에서 4년 동안 화전농사로 생계를 꾸리다가 법원을 금곡리로 이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금병산 샛골의 화전농법

그 당시(1950년대) 금병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30년생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딸기나무와 칙닝쿨 따위가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 당시 소나무를 벌채하면 위법이었지만, 그 이외의 자잘한 나무와 칙닝쿨, 그리고 잡초를 베어내어 화전을 일구는 일은 위법이 아니었으니,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 산하 어디에서건 화전농사가 가능하였던 때이었다.

화전을 일구고자 하는 농부는 우선 화전의 터전을 선점先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 농부는 먼저 화전의 터전 중심부에 약 20~30평쯤 딸기나무나 철넝쿨 따위를 낮으로 베어두는 것이었다. 이렇게 화전을 선점하겠다고 하여 의사전달意思傳達의 수단으로 초목을 베어두는 일을 두고 ‘화전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깃은 ‘자기가 차지할 물건이나 몫을 두고 이르는 말’에서 비롯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화전깃을 잡아두는 일은 음력 2월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그리고 음력 3월 중에 화전깃 주위로 한 2000평 안팎의 초목을 낮으로 모조리 베어내고 말렸다.

베어낸 초목이 마르면 불을 질렀다. 불을 지르는 일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말린 초목을 갈퀴로 긁어 띄엄띄엄 더미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불이 바깥으로 번지지 못하게 방화벽을 두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을 붙이는 날에는 우선 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다. 비가 축축 내리는 날에 불을 지르면 마른 초목이 시원하게 타지 않아 성가시었고, 햇볕이 쨍쨍 나는 날에 불을 지르면 초목이 너무 빨리 타들어가며 불꽃이 날려 걱정이었다. 그러니 흐린 날을 골라 화전자리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우선 산비탈 위쪽에 있는 초목더미를 하나씩하나씩 조심스럽게 불을 질러나갔다. 이는 산 위쪽으로 방화벽을 치는 셈이나 다를 바 없었다. 산 위쪽의 방화벽을 어느 정도 쳐놓고 나서 아래쪽에서 불을 왕창 질러버리면, 불은 산 위쪽의 방화벽까지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이었다.

1) 1년차의 농작 : 조 · 메밀

금병산 화전에서 1년차 농작의 파종법은 곡종穀種에 따라 살파撒播(이하 ‘흩뿌리기’라고 이름)와 조파條播(이하 ‘줄뿌리기’라고 이름) 두 가지가 있었다. 조는 흩뿌리기와 줄뿌리기, 그리고 메밀은 흩뿌리기만을 고집하였다. 그리고 곡종에 따라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조금씩 달랐다. 조의 씨뿌리기는 입하 전후, 그리고 메밀의 씨뿌리기는 하지 전후에 이루어내었다. 그러니 1년차의 화전농작은 흩뿌리기와 줄뿌리기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흘뿌리기와 줄뿌리기, 그리고 씨앗 묻기

흘뿌리기는 조와 메밀의 씨뿌리기에서 이루어졌다. 조와 메밀은 씨를 뿌리는 시기만 달랐을 뿐 파종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전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나 메밀의 씨앗을 흘뿌렸다. 그리고 화전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뒷걸음질하며 팽이로 화전을 일곱과 동시에 씨앗을 묻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조와 메밀의 흘뿌리기에서는 화전 일구기와 씨앗 묻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팽이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팽이는 두 가지가 있었다. 날이 비교적 얇고 끝이 뾰족한 팽이를 두고 '가짓잎팽이', 그리고 날이 비교적 두툼하고 끝이 뭉툼한 팽이를 두고 '화전팽이' 라고 하였다. 가짓잎팽이가 숙전熟田을 일구는 팽이라면, 화전팽이는 말 그대로 화전을 일구는 팽이었다.

줄뿌리기는 조의 씨뿌리기에서만 강조되었다. 화전팽이로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일을 두고 "골창낸다"라고 하였다. 골창을 내는 일은 산비탈을 따라 가로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물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 화전의 두둑은 뱀처럼 꾸불거리는 수도 없지 않았다. 두둑의 폭도 들쭉날쭉했다. 비교적 비탈진 곳의 두둑 폭은 20cm, 그리고 비교적 편편한 곳의 두둑 폭은 30cm 안팎이었다.

오줌, 똥, 재거름 썩은 것을 잘 말려두었다가 체로 쳤다. 이를 '화쟁이재' 라고 하였다. 화쟁이재에 조의 씨앗을 뒤섞었다. 그리고 두둑을 따라가며 오른발 발뒤꿈치로 씨앗이 들어갈 파종혈播種穴(이하 '씨앗구덩이' 라고 이름)을 내었다. 씨앗구덩이에 씨앗이 뒤섞인 화쟁이재를 넣었다. 그리고 왼발바닥으로 두둑의 흠뻐를 쓸거나 당기며 씨앗구덩이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씨뿌리기와 씨앗 묻기를 동시에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② 김매기

김매기는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이루어내는 김매기를 두고 "애맨다"라고 하였다. 애매기는 씨를 뿌리고 난 후 15일 안팎에 이루어내었다. 조의 씨앗을 흘뿌렸을 때에는 조의 모종을

한 조리 폭으로 숙아주었고, 조의 씨앗을 줄줄이 뿌렸을 때에는 하나의 씨앗구덩이에 3~4그루만을 남겨둔 채 그 나머지는 미련 없이 숙아 내버렸다. 그리고 메밀의 씨앗을 흠뿌렸을 때에는 사방 30cm 간격으로 한 그루씩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미련 없이 숙아 내버렸다.

두 번째 이루어지는 김매기를 두고 “두벌맨다”라고 하였다. 두벌매기는 애매기를 하고 나서 15일 안팎에 이루어졌다. 흠뿌린 조의 모종이 벤 데는 숙아 내버렸고 또 드문 데는 심어주었다. 그리고 가라지는 무조건 뽑아내버렸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김매기를 두고 “삼동맨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김매기는 낫과 호미로 이루어내었다. 딸기나무나 칙녕쿨 따위는 낫으로 베어냈고, 또 잡초는 낫으로 베어내거나 또는 호미로 매어주었다.

③ 거두어들이기

조의 거두어들기는 음력 8월 추석 이후에, 그리고 메밀의 거두어들기는 상강 무렵에 이루어내었다. 조는 흠뿌렸을 때보다 줄줄이 뿌렸을 때가 수확량이 훨씬 높았다. 조의 흠뿌리기는 노동력이 덜 든 만큼 수량은 떨어졌고, 조의 줄뿌리기는 노동력이 더 든 만큼 수확량은 올라갔던 것이다.

2) 2~3년차의 농작 : 콩

2~3년차의 화전에는 바랭이라는 잡초가 무성하여 애를 먹었다. 입하에 콩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1년차 때 조와 메밀을 흠뿌리기 하였거나 줄뿌리기 하였던 자리에 화전괭이로 두둑을 만들었다. 줄뿌리기 하였던 화전자리의 두둑을 깨버리고, 고랑이 있던 화전자리에 새로운 두둑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 두둑의 폭은 20~30cm 간격이었다. 그러나 지형 조건에 따라 그 폭은 들쭉날쭉했다. 이 때에도 화전자리에 화전괭이로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일을 두고 “골창낸다”고 하였음은 물론이다.

① 씨뿌리기와 씨앗 묻기

콩은 두둑 위에만 심었다. 콩을 심을 때는 1년차 때 조를 줄줄이 뿌릴 때처럼

거름을 주는 일은 없었다. 파종법은 세 가지가 동시에 전승하였다. 첫째는 호미로 씨앗구덩이를 내고, 씨앗 3~4방울을 집어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덮어주는 것이었다. 둘째는 발뒤꿈치로 씨앗구덩이를 내고, 씨앗 3~4방울을 집어넣고, 다시 발바닥으로 흙밥을 쓸거나 당기며 묻어주는 것이었다. 셋째는 한 사람이 팽이로 씨앗구덩이를 내면 나머지 한 사람은 뒤따라가며 씨앗 3~4방울을 집어넣고, 발바닥으로 흙밥을 쓸거나 당기며 묻어주는 것이었다. 어느 경우든 씨리나무로 만든 '콩종대'라는 파종 바구니를 허리에 차고 씨뿌리기를 이루어내었다. 씨앗구덩이와 씨앗구덩이의 간격은 35cm 안팎이었다.

② 김매기

김매기는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애매기는 파종하고 나서 15일 안팎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콩이 다섯 잎이 되었을 때쯤이었다. 두벌매기 때는 호미로 김을 매어주거나 고랑의 흙밥을 두둑으로 올려주었다. 호미로 고랑의 흙밥을 두둑으로 올려주는 일을 두고 "북준다"라고 하였다. 삼동매기 때는 곡식보다 잡초가 훨씬 커버린 것도 없지 않았다. 그러니 잡초를 맨손으로 뽑아주거나 낫으로 베어내는 수가 많았다.

③ 거두어들이기

한로 안팎에 거두어들였다.

파주 지역 화전의 윤환 체계輪環體系는 1년차 조(또는 메밀), 2년차 콩, 3년차 콩이었다. 참고로 강원도 원주 지역 화전의 윤환 체계는 1년차 조, 2년차 콩(또는 팥), 3년차 옥수수이었다.

1년차의 조 씨뿌리기에서 파주 지역은 흙뿌리기와 줄뿌리기, 그리고 원주 지역은 흙뿌리기가 빠대를 이루었다. 줄뿌리기에서의 씨앗구덩이는 파주 지역과 원주 지역이 썩 달랐다. 파주 지역에서는 두둑, 그리고 원주 지역에서는 고랑이었다. 원주 지역에서는 고랑을 두고 '곡식골', 그리고 두둑을 두고 '헛골'이라고 하였다. 파주 지역의 화전에서는 원주 지역과는 정반대로 두둑은 곡식골, 고랑은 헛골이 되었던 셈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파주 지역의 금병산은 흙밥이 가난하여 깡마른 화전이었기에 두둑 위에 씨앗을 심었다면, 원주 지역의 산야는 흙밥이 부자인 화전이었기에 고랑에 씨앗을 심은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원주 지역의 화전에서 3년차에 옥수수를 심은 데 반해 파주 지역에서는 3년차에 다시 콩을 심었던 것도 바로 흙밥의 차이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화전은 산야의 조건마다 화전농법을 저마다 달리 하였다.

노동 교환

농사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 소의 힘을 빌리는 것은 아주 중요했다. 파주 지역의 농민들이 일소를 소유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법원을 오현리는 전통적으로 22농가로 이루어진 자연마을이었다. 그중 5~6농가에서만 일소를 매고 있었다. 일소를 매고 있는 농가를 두고 ‘와우장농(臥牛長農)’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일소가 있는 농가는 부농가(富農家)라는 것이다. 그러니 일소가 없는 농가에서는 품을 팔기로 하고 일소를 빌리어 쓸 수밖에 없었다. 일소가 없는 농가에서 품을 팔기고 하고 일소를 빌려 쓰는 일을 두고 “소를 사서 간다(耕)”라고 하였다. 또 일소를 거느리고 있는 농가에서는 나중에 큰일이 있을 때 품을 돌려받기 위하여 품을 제공하는 수가 많았다. 일소를 매개로 한 노동 교환에서 품값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

파주 지역에서는 소를 매개로 한 타작소, 맷소, 그리고 노동 교환 등 다양한 민속이 전승하였다. 파주 지역과 그 주변에서 타작소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쓰이지만,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한 해 또는 여러 해 동안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리는 소를 두고 파주 지역에서는 맷소라고 일렀다. 이때의 맷소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도짓소와 다를 바 없었다. 여기에서 ‘매’는 ‘곡식의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의 뜻을 지닌 ‘매끼’에서 온 말이 아

닐까 싶다. 이럴 때 멧소는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리는 소’가 되는 것이다.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에 따르면, 멧소를 부리기로 하고 소의 입자와 일정 기간 동안 소를 부릴 사람 사이에 쌀의 수량을 정하는 일을 두고 “매를 정한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파주 지역의 타작소는 수소의 송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법원읍 오현리나 금곡리의 타작소 계약 기간은 거의 2년이었다. 2년 동안 타작소를 먹인 소작인 한 사람에게 그 이익금으로 부록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떨어졌던 것 같다.

파주 지역에서는 도짓소를 두고 멧소라고 일렀다. 멧소는 법원읍 오현리에서는 황소, 법원읍 금곡리나 교하읍 하지석리에서는 암소이었다. 법원읍 오현리와 금곡리, 그리고 교하읍 하지석리에서는 청명에서부터 음력 10월 말까지의 농작 기간에만 멧소를 대차賃借하였다. 그 값은 쌀 한 가마니 또는 나락 2가마니이었다. 그리고 멧소를 매고 있는 동안에 암소가 새끼를 치면, 암소의 새끼는 무조건 멧소의 입자의 몫이 되고 말았다. 멧소를 부릴 일이 거의 없는 월동 기간까지 멧소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멧소를 빌린 값은 쌀 2가마니로 훨씬 비싼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멧소의 소작인에게도 멧소가 생산한 송아지를 차지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교하읍 하지석리 신웅현 씨(남, 1932년생) 소품앗이 사례

이 마을은 논농사와 함께 밭농사도 이루어졌는데, 한 마리의 일소로만 논갈이나 밭갈이를 했다. 일소가 없는 농가에서 논이나 밭을 갈려고 이웃집의 소를 하루 동안 빌리었을 때는 소 한 마리당 하루의 노동으로 품을 갚았다. 그러나 일소는 물론 경부耕夫(이하 ‘밭가는 이’라고 이름)까지 빌리어 논이나 밭을 갈았을 때에는 일소 한 마리와 밭가는 이 한 사람당 3일의 노동으로 그 품을 갚았다. 이렇게 소를 빌어 논이나 밭을 갈고, 또 그 값을 노동으로 갚는 일을 두고 ‘소품앗이’라고 하였다.

법원을 오현리 권영돈 씨(남, 1936년생) 타작소 사례

권 씨는 19세 때 양주군 광정면 비암리의 아무개와 타작소를 먹일 것으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권 씨와 아무개는 같이 양주군 남면 갯바위 우시장으로 가서 두 살짜리 수소[牡牛] 한 마리를 샀다. 아무개는 자본금을 투자하였고, 권 씨는 이 소를 집으로 끌고 와서 2년 동안 잘 길러내었다. 아무개와 권 씨는 2년 동안 길러낸 소를 팔기로 하고 다시 갯바위 우시장으로 소를 끌고 갔다. 2년 전에 수소를 살 때 투자하였던 자본금은 아무개가 돌려받았고, 그 나머지 이익금은 아무개와 권 씨가 똑같이 나누었다. 아무개가 소임자라면 권 씨는 그 소의 소작인이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권 씨는 소를 소작하여 번 돈으로 생후 1년의 부록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 그 소를 1년을 키워내어 밭갈이 훈련을 시켜 10년 동안 부릴 수 있었다. 법원을 오현리는 겨리(쌍)로만 밭을 가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겨리를 끄는 소는 수소만을 고집하였다.

법원을 금곡리 김은섭 씨(남, 1929년생) 타작소 사례

김 씨는 40세 안팎에 같은 마을 신 씨와 타작소를 먹일 것을 구두로 계약하였다. 김 씨와 신 씨는 같이 봉일천에 있는 공릉장으로 가서 부록소 한 마리를 샀다. 신 씨는 자본금을 투자하였고, 김 씨는 이 소를 끌고 와서 2년 동안 잘 길러내었다. 다시 신 씨와 김 씨는 함께 공릉장으로 소를 끌고 가서 팔았다. 2년 전에 부록소를 살 때 투자하였던 자본금은 신 씨가 돌려받았고, 그 나머지 이익금은 신 씨와 권 씨가 똑같이 나누었다. 신 씨가 소임자라면 권 씨는 소작인이었던 셈이었다.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씨댁 멧소 사례

권 씨는 1952년 안팎에 황소 한 마리를 팔아 돈을 샀다. 그러니 갑자기 일소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권 씨는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에서 멧소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최 부잣집으로 가서 멧소를 빌리어왔다. 권 씨가 살고 있는 법원읍 오현리는 겨리에 황소만을 매어 밭을 가는 마을이었다. 멧소를 빌리는 기간은 청명에서부터 추수가 끝나는 음력 10월 말까지로 하였고, 멧소를 빌린 값으로 나락 두 가마니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권 씨는 1년 동안 멧소를 빌리어 부린 값으로 그해 음력 10월 말에 멧소에 나락 두 가마니를 싣고 가서 주인에게 갚았다. 그 당시 나락 두 가마니는 쌀 한 가마니의 값이나 다름없었다.

법원읍 금곡리 김은섭 씨(남, 1929년생) 멧소 사례

김 씨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동면 하포리에 있었다. 그 무렵 김 씨네 집안에서는 멧소 두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 씨네 멧소는 암소이었다. 멧소는 해마다 이웃사람들이 청명에서부터 음력 10월 말까지 빌리어가는 것이었다. 멧소를 빌리어갔던 사람은 음력 10월 말이면 멧소에 나락 2가마니를 싣고 왔다. 이때의 나락을 두고 '쇠매' 라고 하였다.

멧소를 매는 동안 새끼를 낳으면 3개월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여러 해 동안 멧소를 매는 수도 없지 않았다. 이럴 때에 쇠매는 쌀 두 가마니이었다. 3년 동안 세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생산한 송아지는 생후 3개월에 멧소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세 번째 생산한 송아지는 멧소를 빌리어 맨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멧소를 빌리어 쓴 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벌려고 그다지 멧소를 부릴 일이 없는 삼동三冬에도 멧소를 먹여야 했고 쇠매의 값도 배로 훨씬 높았다.

노동 조직

1. 두레

탄현면 만우리에서는 일제시대에 주로 가구 노동력으로 모내기를 했고, 부족할 경우 금촌역에 가서 품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내기를 했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에는 쌀 한 말이면 세 명의 품을 살 수 있었다. 도급을 맡기면 한 마지기에 쌀 한 말씩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모내기를 할 때는 인력이 부족하여 인천, 서울 등 외부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김매기는 두벌까지 댔다. 첫 번째는 호미로 매고 두벌은 손으로 흙쳤다. 김매기는 마을에서 두레로 하기도 하고 품앗이로 하기도 했다. 두레는 집집마다 나와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김을 매는 것이다. 두레로 작업을 하면, 농기도 들고 다니고 호적도 불면서 놀았다. 두레가 끝나면 다섯 마지기에 돈 얼마씩 기준을 정해서 평수를 따져 품값을 계산해 주었다. 이를 '매기다짐'이라고 하였다. 두레 품값과 일반 품값을 비교하면, 두레 품값이 더 싼다고 한다. 두레는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일을 다닐 수 없는 나이든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두레에서는 사람 수대로 품값 계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 나가든 상관없었다. 두레로 일을 할 때 식사는 일하는 사람이 함께 내는 것으로, 논이 평수를 따져서 무엇을 얼마나 해올지를 정해서 마련하였다.

두레가 끝나고 음력 7월 7일경에는 추렴을 해서 먹고 놀았는데, 이를 '호미걸이'라고 하였다. 호미걸이를 위해 추렴을 할 때는 동네잔치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났는데, 잘 사는 사람은 돼지, 개, 소를 잡기도 하였다. 오금리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논을 만 평 정도 소유한 사람으로, 머슴을 한 명 두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지었던 사람은 일제 때부터 마을 일손으로는 부족하여 밖에서 두레패를 사오기도 하였다. 주로 축현리, 문지리의 두레패를 많이 사왔으

며, 인천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다. 박시재 씨는 탄현 쪽은 벌이 넓기 때문에 농토가 크고 사람이 적어서 사람을 사오는 경우가 일제시대부터 더러 있었다고 하였다. 오금리의 두레는 제초제가 나오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금파리에도 두레가 있었다. 두레는 금파1리와 금파2리에 따로 있었는데, 큰 동네인 금파1리 앞을 두레가 지나가려면 절을 하고 지나가야 했다. 그러면서 조그만 동네 두레는 큰 두레 앞에서 “맥을 못 춘다”고 하였다. 두레로 김매기를 한 뒤 ‘평수 나눔’을 해서 논마다 품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따져서 품값 계산을 했다. 7월 칠석 때쯤 일이 거의 끝나면 ‘호미씻이’라는 동네잔치가 열려 국수 한 그릇씩이라도 얻어먹고는 했다. 정태호 씨는 해방되고 나서 두레가 끝난 것으로 기억하였다.

2. 탄현면 만우리 농사개량 구락부

6·25전쟁 이후 만우리에서 개간 사업을 했던 농사개량 구락부와 관련한 문서에는 1967~1997년까지 연도별·날짜별 자금의 입출금 기록과 탈곡 현황, 양수 현황, 기자재 사용료, 잡비, 수리비, 유류, 경운기 가동, 농장 수입, 탈곡 수입, 수세 수입, 타작료 등 종목에 대한 사항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농사개량 구락부는 4H와 다른 것인데, 4H는 청년층이 참여하는 농사개량구락부보다 젊은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조직이었다. 장부를 대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6·25전쟁 이후 1956~1957년경 마을로 들어와서 90가구 중 32명이 개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32명이 조직원이었던 것 같다. 문서에서 1967년에는 8인회, 1968년에는 9인회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 가입 회원 수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32명이 함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둘 탈퇴하고 8명이 남아 8인회가 되었다.

농사개량 구락부에서는 경운기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많이 하였는데, 쌀을 몇 가마 옮겨주었다는 기록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경운기는 논갈이·밭갈이 용도보다는 운반할 때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운기가 일찍 도입된 것

같다고 묻자, “대한민국에 경운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스타트였다”고 하면서 탄 현면에 나온 것을 제일 먼저 만우리에서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이 해산할 때 자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묻자, 농사개량 구락부 재산의 매각 대금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명당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하였다.



임진강 어로

고광민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봉석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에서 시작하여 황해로 흘러드는 강의 이름이다. 임진강은 남북 분단의 상징으로 그 하류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으로 묶여 있으니, 민간인 통제선은 임진강의 생업 활동을 가로막는 통제선으로도 작용하였다. 임진강에서 어느 정도 생업 활동이 허용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임진강 물고기의 생태와 그에 따른 어법을 알아본다.

원래 강은 늘 바닷물의 영향이 미치는 해수역海水域, 바닷물과 강물이 마주치는 합수역合水域, 그리고 강물의 영향만 미치는 강수역江水域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세 개의 수역을 넘나들고, 강가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왔다. 파평면 장파리와 장좌리는 임진강의 합수역이나 다름없었다. 파평면 장파리까지는 조금 때라도 해수의 영향이 미쳤고, 파평면 장좌리의 자지포紫芝浦까지는 사리 때에만 해수의 영향이 미쳤기 때문이다.

임진강 물고기 생태生態와 어법漁法

임진강의 물고기 생태와 어법은 세 지역에서 한평생 임진강의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왔거나 꾸려가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하여 이를 들여다본다.

파평면 장파리의 김경오金敬吾 씨(남, 1937년생)는 원래 파평면 장파리의 강 건너 마을인 진동면 용산리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이후 파평면 장파리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의 임권상林權相 씨(남, 1954년생)는 원래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마을은 농경지가 협소하였으니 전통적으로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온 마을이나 다름없었다. 임 씨는 그의 부친이 사용하였던 물고기를 잡는 연장들을 보관하고 있을 만큼 물고기의 생태와 생업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지금 임 씨는 이 마을에서 매운탕집을 경영하고 있다.

물고기의 생태는 제각각이다. 산란기 때 바다에서 합수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산란기 때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고기, 그리고 정착성의 물고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산란기 때 바다에서 합수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① 황복

황복은 곡우에서부터 망종까지 먼 바다에서부터 합수역에서 산란을 위하여 거슬러 올라왔다. 산란장은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장좌리에 걸쳐 있는 임진강변 중에서도 백모래밭이었다.

파평면 장파리에서는 황복을 ‘뭇’이라는 삼지창으로 쏘아 잡거나 그물로 걸러 잡았다. 삼지창으로 황복을 쏘아 잡기는 두 사람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다니며 이루어내었다. 삼지창은 기다란 박달나무의 자루에 박혀 있었다. 한 사람은 삼지창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노를 저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노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다 황복이 보이면 잠시 배를 멈추어 세우고 삼지창을 날려 쏘아 잡는 것이었다.

황복을 잡는 그물은 조금과 사리에 따라 치거나 걷어올리기가 썩 달랐다. 조금에는 저녁에 쳤다가 아침에 걷어올렸고, 사리 때에는 밀물이 한창 올라올 때 그물을 쳤다가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후에 걷어올리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홉 물 날(음력 8일, 23일)인 경우 오전 9시에 그물을 쳤다가 11시 안팎에 그물을 들어올렸다.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못이라는 삼지창으로 황복을 쏘아 잡거나 몽둥이로 때려잡았다. 삼지창으로 쏘아 잡기는 앞의 파평면 장파리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은 이 마을을 끼고 있는 임진강의 생태 조건과 견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마을은 여울이 매우 발달하였다. 여울은 자갈과 모래가 수북하여 수심이 매우 얇은 곳이다. 여울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황복을 몽둥이로 때려잡았던 것이다.

② 눈치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업 속담이 전승하였다. “눈치는 못자리 앉힐 때 바다에서 갈이하러 온다”라고. 이 지역에서는 곡우 때 못자리를 앉혔다. “갈이하다”란 물고기가 강바닥에 몸을 비벼대면서 알을 스는 모양을 두고 이른 말이다. 그러니 눈치가 알을 스는 모양을 두고 ‘눈치갈이’라고 하였다. 눈치의 갈이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어미 눈치는 알을 슬고 나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눈치의 어획은 산란기 때만 이루어졌다.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알을 슬러 온 눈치를 그물로 잡았다.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2~4개의 바늘이 달린 낚시로 알을 슬고 있는 눈치를 낚아채었다. 이런 낚시를 두고 ‘공갈낚시’라고 하였다.

2. 산란기 때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고기

① 송어

송어는 청명 때 어린 송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 성장하고 나서 대설과 동지 안팎에 산란을 하려고 바다로 내려갔다. 파평면 장파리에서는 송어가 강을 거슬러 오라오는 청명 안팎에는 그물로 송어를 잡았고, 성장기와 산란을 위하여 내려갈 때는 ‘오리’라는 어구로 걸러 잡았다. 오리는 낚아채는 어구이었다. 12m의 줄에 오리라는 갈퀴를 묶어 만들었다. 줄과 갈퀴 사이에 자그마한 봉돌이 붙어 있었다. 갈퀴는 세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 가운데는 쥐꼬리 모양이었고, 양쪽은 미늘의 날을 세운 날카로운 갈고리이었다. 그 위에 새하얀 소(草)의 뺏조각을 붙였다. 송어가 새하얀 소의 뺏조각 위를 지날 때 재빨리 낚아채면 갈고리에 꿰어져 잡히는 것이었다. 그러니 소의 뺏조각은 송어를 쉬 알아보려는 표지의 수단이나 다름없었다.

② 뱀장어

뱀장어는 산란을 위하여 먼 바다로 내려갔고, 그 새끼는 입하와 소만 사이에 모천회귀(母川回歸)하여 모천에서 성장하였다.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여름에는 ‘몽치질’, 겨울에는 작살 어법으로 뱀장어를 잡아내었다.

몽치질은 예사로운 어법이 아니었다. 길이 3.6m, 폭 4.5cm의 방추형(紡錘形)의 장대를 두고 ‘몽칫대’라고 하였다. 몽칫대를 방추형으로 만든 것은 강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에서였다. 몽칫대 위에는 줄이 묶여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바닥줄’이 묶여 있었다. 몽칫대 위의 줄은 몽칫대가 배에서 떠내려가지 못하게 배의 한쪽에 묶는 줄이었고, 바닥줄은 뱀장어를 낚는 줄이나 다름없었다. 바닥줄은 바느질실 두 발 길이에 20~30마리의 지렁이를 띄엄띄엄 끼우고 나서 네 손가락에 빙빙 감아 몽친 줄이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다니며 배 위에서 몽칫대를 강바닥에 대고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면 뱀장어는 지렁이를 먹으려고 바닥줄을 질근질근 씹다가 그만 바느질실이 이빨에 끼고 마는 것이었다. 바닥줄의 바느질실은 뱀장어에게

는 낚시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어구는 적성면 주월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겨울에 이루어지는 뱀장어 작살 어법은 ‘찌리’라는 곽팽이로 강의 얼음장을 뚫고 작살로 쏘아 잡는 것이었다.

③ 참게

참게는 추분(秋分) 안팎에 임진강의 하구에서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갔다. 이듬해 입춘 무렵에 어린 참게들은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왔다. 참게는 입춘에서 추분까지 7회에 걸쳐 껍질을 벗으며 성장하였다. 참게 잡기는 주로 추분 안팎에 산란을 위하여 내려갈 때만 복합적으로 전승하였다.

파평면 장파리 주변 개울에서는 참게가 산란하러 내려갈 때 ‘게막’을 설치하여 잡는 수가 많았다. 게막은 참게를 잡으려는 함정 어구나 다름없었다. 개울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대나무로 엮은 발을 쳤다. 발에 부딪뜨린 참게는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었다. 그 자리에 오두막을 지어두었다. 이것이 게막이었다. 이곳에 숨어 있다가 게막으로 몰려드는 참게를 잡아내는 것이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게발’과 ‘게낚’이라는 어법이 전승하였다. 게발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강에 찌리나 수수깥으로 엮은 발을 V자 모양으로 쳐 놓고,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 향아리를 묶어두었다. 산란을 위하여 내려가는 참게가 발에 부딪뜨리면 저절로 향아리에 빠져들기 십상이었다. 한번 향아리에 빠져버린 참게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다. 향아리 안에 빠져버린 참게는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어법을 두고 게발이라고 하였다. 게발은 참게를 잡는 발(簾)이라는 말이다.

게낚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벚짚으로 엮은 줄에 띄엄 띄엄 15cm 길이의 수수대를 끼웠다. 수수대는 반드시 솔에서 삶아낸 것이어야 했다. 게낚은 강을 가로질러 설치하였다가 30분 간격으로 게낚을 들어올리며 잡아내는 것이었다. 게낚에 달라붙은 참게는 떨어질 줄을 몰랐다. 참게는 야행성이었기에 밤에만 게낚을 들어올리며 참게를 잡아나갔던 것이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 이러한 어법을 두고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이라고 하였다.

3. 정착성 물고기

① 잉어

잉어는 청명에서부터 소만 사이에 수심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이동하여 수초 밑에서 산란하였다. 그리고 겨울에는 수심 깊은 곳에서 월동하였다. 그러나 잉어잡이는 산란기와 월동기에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두지리에서, 산란기에는 못이라는 삼지창으로 쏘아 잡았다면 월동기에는 '방그물'이라는 그물을 설치하여 잉어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삼봉낙시로 낚아 올리거나 삼지창으로 쏘아 잡았다. 방그물의 어장은 임진강의 진동면 용산리 일대에 있는 '구내기'라는 곳이었다. 구내기는 이 일대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었다. 이곳의 결빙 기간은 양력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이었다. 그물로 잉어를 가두어두는 자리를 두고 '방'이라고 하였다. 강의 하류 쪽으로 아가리를 벌리고 ㄱ 모양으로 그물을 고정시켰다. 그물의 규모는 그물코 11cm, 폭 1.2m, 길이 18~27m 정도이었다. 그 위에는 부표, 아래에 봉돌이 매달려 있었다.

부표는 참나무 껍질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웃푹'이라고 하였다. 봉돌은 흙으로 구워 만든 것이었다. 이를 두고 '아래푹'이라고 하였다. 얼음장 줄줄이 구멍을 뚫고, 장대로 그물의 끝을 보내고, 걸이로 그물에 묶인 줄을 얼음장 위로 빼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열두 개의 그물을 이어붙이며 그물을 쳤다. 장대를 '대장대', 걸이를 '걸잇대'라고 하였다.

그물을 드리운 쪽으로 잉어를 모는 일이 이어졌다. 직경 50cm, 높이 180cm, 무게 50~60근의 통나무 위에 동아줄을 걸어 묶었다. 이것을 두고 '머리토막'이라고 하였다. 머리토막 양쪽에서 두 사람이 동아줄을 잡아 들어올렸다가 얼음장 위로 내려치는 것이었다. 머리토막이 얼음장으로 내려치는 소리에 놀란 잉어는 방그물 안으로 도망치듯 몰려들었다. 그러면 그물을 내려 막아버렸다. 방그물 안에는 잉어들이 수북하게 가두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뒤, 썩리라는 곡괭이로 얼음장을 뚫고 삼봉낙시나 삼지창으로 잉어를 낚거나 쏘아 잡는 것이었다.

1950년 1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삼봉낙시꾼의 사진과 함께 잉어잡이 수
업까지 소개되어 있다. 임진어부계의 계원 53명과 가족 200여 명은 매년 11월부
터 익년 3월의 결빙기까지 5개월간 잉어잡이를 하여 생계의 재원으로 삼는데,
당시 생산고가 1만 3000원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고 한다. 잉어잡이는 그해 일어
난 6·25전쟁으로 중단된 이후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② 쏘가리

쏘가리는 입하와 소만 사이에 여울 자갈밭에서 갈이를 하였다. 이 일대에는
'고랑포 여울', '두지리 여울', '주월리 여울' 등이 발달하였다. 쏘가리는 여울
에서만 산란을 하였다.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여울에서 몽둥이를 잡고 기다리다
가 산란하러 올라오거나 산란 중인 쏘가리를 몽둥이로 때려잡았다. 연천군 미산
면 아미리에서는 저녁에 견지낙시를 강물에 던져 내버렸다가 아침에 걷어올리
며 낚았다. 낚싯대는 고무줄에 묶어두었다. 견지낙시는 눈치가 물기 십상이었
다. 그러면 쏘가리가 낙시에 물린 눈치를 물고 마는 것이었다. 쏘가리는 입에 미
끼가 있을 때 잡아당기면 내뱉어버리기 일쑤이었다. 그러니 쏘가리는 미끼가 창
자에 들어가야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견지낙시에 물린 눈치는
결국 쏘가리의 미끼가 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어법을 두고 이 마을에서는 '넋물
이' 라고 하였다.

임진강 물고기의 생태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까지 포함시켜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되는데 생태와 어법은 지역에 따라 같거나 다른 점이 있었다. 그 어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란기 때 바다에서 합수역으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는 황복과 눈치가
대표적이었다. 황복은 곡우에서부터 망종까지 먼 바다에서부터 임진강의 합수
역으로 산란하러 올라왔다. 이때 임진강의 어부들은 황복을 어획 대상으로 삼았
다. 합수역에서 동떨어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황복을 어획 대상으로 삼
을 수 없었는데, 이곳은 황복의 산란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눈치는 곡우 무
렵에 먼 바다에서부터 임진강의 합수역과 강수역으로 산란하러 올라왔다. 이때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그물, 그리고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공갈낙시로 낚

아채며 눈치를 잡았다.

둘째, 산란기 때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물고기는 송어, 뱀장어, 그리고 참게가 대표적이었다. 파평면 장파리에서는 송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청명 안팎에는 그물로 잡았고, 성장기와 산란을 위하여 내려갈 때는 오리라는 어구로 걸러 잡았다.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산란하러 내려갈 때 떡밥에 낚시를 감추어 놓은 견지낚시로 송어를 낚아 잡았다. 전자에서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를 때, 성장기 때, 그리고 산란을 위하여 강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 어획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후자의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산란을 위하여 강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만 어획의 대상으로 삼았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여름에는 뭉치질, 겨울에는 작살로 뱀장어를 잡았다면,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장마 때 지렁이를 미끼로 하여 낚시로 낚아 잡았을 뿐이었다. 참게잡기는 오직 산란을 위하여 강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추분 무렵에만 이루어졌는데, 파평면 장파리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의 임진강 주변 개울에서는 게막을,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항아리를 이용한 ‘게발’을, 그리고 적성면 두지리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수숫대를 이용한 ‘게낚’이 전승되었다.

셋째, 임진강의 정착성 물고기는 잉어와 쏘가리가 대표적이었다. 산란기 때 잡는 방법은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삼지창으로 쏘아 잡았다면,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견지낚시로 낚아 잡았다. 월동기 때의 잉어잡이는 파평면 장파리, 적성면 두지리, 그리고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 모두 방그물에 잉어를 가두어 놓고 삼봉낚시로 낚아 잡았고 삼지창으로 쏘아 잡는 일은 전승하지 않았다. 이는 수심이 매우 깊었기 때문인 것 같다. 쏘가리는 적성면 두지리에서는 여름에서 뭉둥이를 잡고 기다리다가 산란하러 올라오거나 산란 중인 쏘가리를 때려잡았다면,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저녁에 떡밥에 견지낚시를 묻고 강물에 던져 내버렸다가 아침에 건어올리며 낚았다.

임진강 어업권

최영선 씨(60세)는 임진강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2선단의 선단장이다. 1968년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하였으니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잡은 물고기는 부인이 주로 광탄장이나 문산장에 나가 판다. 주로 미꾸라지와 참개를 판다.

고기잡이 나갈 때는 모터배 2대에 분승하여 강물에 던져놓은 통발(10개 가량, 참게잡이)과 5m 외통발을 10개씩 묶은 통발 2열로 참게, 가물치, 장어 등을 잡는다. 모터배의 마력은 현재는 20마력이나 30마력으로 올릴 예정이다. 위의 어종들은 수온이 내려가는 10월 중순경이 되면 많이 잡힌다고 한다. 고기잡이는 어업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주월 나루 지역의 어업권 소유자는 5가구다. 어업권은 파주시에서 발행한다. 배 1대, 모터 1대, 출입증 2장으로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다. 매매 가격은 주월리의 경우 8000만 원이고 임진 나루의 경우 6000만 원이라고 한다. 현재 시에서는 어업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임진강에 어업이 허가된 것은 1965년부터였고, 모터배가 허가된 것은 3년 전 부터였다. 그동안 모터배 허가를 내지 않았던 것은 월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모터배 허가를 위해 어민들은 군부대에 CCTV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등 각종 지원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강가 철조망 제거 작업을 요청 중이다. 파주시는 임진강 전체를 5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파주시 선단 구성과 어업 활동 구간

선단	지역	배(척)	어업 활동 구간	비고
1선단	적성	15	어유지리~자장리	자율 어업
1선단	파평	13	고랑포~전진교	
2선단	임진	12	전진교~초평도 상류	통제 어업 (군 관리)
3선단	장산	16	초평도 상류~장산리(통일대교)	
4선단	사목	10	통일대교~사목리	
5선단	내포	18	내포리 일대	



유통과 상업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서대승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물자 유통

교하읍 한강변인 신촌리에 거주하는 양천 허씨 허권 씨(남, 1923년생)는 8.15 해방 후 정미소를 운영하였다. 마포까지 배로 쌀을 운반하는 일도 함께 하였다. 정미소는 전부 현금 장사로 밀지는 일이 없어서 옛날부터 “장사할 줄 모르면 곡물 장사를 하고, 곡물 장사하다가 돈이 생기면 철물 장사를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배는 벼 100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삼판배였다. 삼판배는 뜻이 두 개이고 2명이 탔다. 주변 지역에서 쌀을 100가마 정도 모아서 나가면 그 대가를 돈으로 받기도 하고,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사다주었다. 배를 부린 주된 목적은 쌀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였다. 배가 마포 모래사장에 도착하면 거간들이 나왔다. 거간들은 가져온 물건에 맞추어 쌀장수나 잡곡장수 등과 거래를 하여 마포 상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한 가마에 20~50원 정도 구전을 받았다.

교하읍 송촌리에 사는 노승묵 씨(1928년생)는 농사를 지으면서 뱃일을 다녔다. 농사는 주로 동생과 조카들이 짓고 노 씨는 쌀과 돌을 나르는 일을 했다. 송

촌리에 쌀을 운반하는 배는 2대, 어선은 3~4대 있었다. 쌀 운반은 음력 10월 한 달간 주로 하였고, 돌 나르는 일은 봄부터 여름까지 했다. 돌은 소라지 나루에서 나갔다.

여기서는 마포로 쌀을 운반할 때 ‘맞배’를 이용하였다. 맞배는 돛이 한 개이고, 사람이 5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다. 쌀은 20가마 정도를 실을 수 있었는데, 쌀을 실으면 사람 두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었다. 두 명 중 한 명은 키를 조정했다. 쌀은 소라지 나루에서 마포로 나갔다. 돌을 나르는 배는 ‘주냄비’라고 하였다. 송촌리에는 이 배가 4대 있었다. 주냄비는 돛이 2개이고 두 명이 타는 크고 둥그렇게 생긴 배였다. 장명산의 횃돌은 불에 넣고 구우면 하얀 가루가 나왔다. 노승목 씨는 이 횃돌을 주냄비로 서울 마포까지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다. 배에 실을 수 있는 돌의 양은 1t 정도였다고 한다. 돌을 옮기는 것은 등짐으로 했다.

새터골에서 뱃일을 했던 집은 노승목 씨와 선주뿐이고, 송촌리에서 주냄비를 가진 집은 노재민 씨 하나였다고 한다. 마포까지 가는 품값은 한 번에 얼마씩 일당으로 받았다. 배의 운송으로 벌어들이는 일당은 농사짓는 것보다 나았다. 노재민 씨 배가 1·4후퇴 때 미군에 의해 불타 없어진 이후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마포로 나가는 것은 바람이 잘 맞으면 여기서부터 두 시간, 바람이 안 맞으면 하루가 걸렸다.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있을 때 돛을 달면 천천히 가도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마포로 내려갈 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노승목 씨는 주로 행주에서 쉬었다고 한다. 그래서 행주에는 주막집이 많았다. 행인선은 사람을 나르는 배인데, 물길이 변하기 때문에 때때로 정착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임진강 상류인 고랑포로 장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문산에서 고랑포로 올라가는 길에는 여울이 있어서, 삼판배는 못 올라가고 네모반듯하고 넓직한 널배만 올라갈 수 있었다. 고랑포 상류는 산골 마을로 해산물을 먹기가 힘들어 새우젓 등을 가져가 팔았다. 산세가 좋다는 장단에 산소들이 많아 시체가 많은 가을이면 제수품인 감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이러한 장사꾼을 ‘원장사꾼’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임진 나루에서 아래쪽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 위쪽에서는 잡곡

을 가지고 내려와서 교환했다. 임진강 상류에서는 주로 잡곡이 내려왔다.

적성면 어유지리에 사는 경주 이씨 이재준 씨(63세)는 일제 시기에 금광업을 하던 조부가 양평에서 이곳으로 들어와서 임진강변인 연천군 삼화리 토막골에서 산판을 하였다. 조부와 부친 이승택 씨는 삭녕에서 벌목하여 뗏목으로 행주 나루를 거쳐 마포 나루까지 실어 뿔감으로 팔았다. 개성으로도 가서 팔았다.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센 날에 출발하였으며, 뗏목을 통째로 팔고 돌아올 때는 배로 조기, 북어, 새우젓을 토막골로 가져온다. 토막골에서는 조모와 모친이 객주를 운영하였는데, 이것들을 지게꾼 장수들에게 도매로 팔았다. 임진강물로 담근 막걸리가 늘 있었고 며칠에 한 번은 돼지를 잡았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고 한다. 6·25전쟁으로 이러한 활동은 모두 중단되었다.

나루

파주 일대의 나루는 임진강을 건너는 나루와 한강 하류를 건너는 나루로 나뉜다. 나루를 옛 이름으로 보면 두기진頭着津은 적성면 두지리斗只里에 소재한 두지 나루다. 두지리 위로는 강을 건너다니는 나루터만 있었다. 좌장리에는 좌장리 나루터가 있었고, 주월리에는 강신제의 나루터, 가월리에는 가월리 나루터, 그 위로는 신지강 나루터, 학곡리에는 돌마돌 나루터가 있었고, 왕건 태조 사당이 있는 아미리에는 에밀리 나루터가 있었다. 정자진亭子津은 군내면 정자리에 있었고, 파평면 금파리 나루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하포 나루터(아포 나루터)가 있었다. 임진강 하류에서 올라가다가 초평도를 지나 물길에 조금 꺾이는 율곡리 부근에는 임진 나루가 있다. 임진 나루는 많이 알려져 있고 의주대로를 소개한 '파주의 옛길'이란 제목으로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다.

① 파평면 금파리 나루

금파리 나루터에는 마포로 드나드는 배가 많았다. 여기서의 땔나무 장작과 콩이 주로 나갔다. 땔나무는 '애기산'에서 해왔다. 애기능 700여 정보를 포함해서 파평산 큰 두 덩어리가 모두 이 씨네 개인 땅이어서 땔나무를 해도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주워 모은 것이다. 땔나무를 실은 배는 상선배, '넬배'라고 했다.

② 임진강 하류의 지루목 나루, 사루재 나루, 오금리 나루, 낙화리 나루

만우리 등 임진강 하류 지역에서 장단군이나 개풍군을 건널 때 이용했던 나루가 오금리 지루목 나루와 사루재 나루다. 개성과 서울을 오갈 때는 기차를 이용하였다. 서울은 금촌으로 걸어 나가서 하루 세 번 다니는 기차를 타고 갔다. 오금리 인근의 나루로는 낙화리 나루와 오금리 나루가 있다. 오금리 나루에서는 장단, 개성 등을 드나들 수 있었고,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입하였으며, 잠시 쉬기 위해 이곳에 정박하는 서울 배도 있었다. 오금리 나루는 개울이 넓어 인천에서 새우젓배가 들어오기도 했다.

③ 교하 신촌리 반석 나루

교하읍 신촌리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마을로 반석 나루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루터를 '항구'라고 하였다. 반석 나루는 유명하여 마포에서도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강화도에서 올라온 배들은 반석 나루까지 오면 물이 거세어 올라가지 못해 '강가에 달라붙어 있어야' 했다. 6·25전쟁 이전까지 교하읍 쌀은 모두 반석 나루로 모였다. 쌀을 저장하는 창고는 연다산리와 교하에 있었다. 반석 나루터에는 밑에다 나무를 깔고 몇 천 가마, 몇 만 가마씩 쌀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영을 엮어서 둘러놓았다. 그렇게 해놓으면 비가 와도 물이 안 샐다고 한다. 6·25전쟁 전에는 반석 나루가 제일 커서 여기서 쌀을 서울로 보냈다. 일제 때는 반석 나루터가 '공판장' 기능을 담당하였다.

새우젓, 조개젓, 굴 같은 것들도 인천에서 반석 나루터로 들어왔다. 허분 씨는 새우젓을 싣고 오는 배는 '중선'인데, 쌀을 나르는 배는 '무거울 중重'자를 쓰는

중선이고 새우젓 배는 '가운데 중' 자를 쓰는 중선이라고 하였다. 새우젓은 100독, 200독씩 배로 싣고 와서 배를 타고 온 남자들이 직접 지고 다니면서 마을로 팔러 다녔다.

포구

① 문산포

6·25전쟁이 나기 전까지 문산포는 일대에서는 가장 큰 포구였다. 『한국수산지』(1911)에는 문산포를 '파주군의 입구에 있고 경의선이 지나는 데다가 배가 드나들어 번성한 장' 이라고 소개하면서, 인천이나 고랑포와 거래가 많았다고 하였다. 문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임월교가 있는데, 그곳이 문산포 자리다. 원래 문산은 임진면에 속해 있었는데 월롱면과 합쳐지면서 임월교라는 다리 이름이 생겼다. 자유로 임진각 쪽으로 가는 터널 입구까지 배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곳이 자주 물바다가 되어 제방으로 막기 시작했다. 독이 자주만 높아졌다. 임월교에서 옆으로 가면 웅벽을 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계속해서 높이 쌓았다. 강바닥이 자주 높아졌기 때문이다.

② 고랑포

고랑포는 현 연천군 장남면과 파평면 주변 지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나룻배가 항시 있어서 일 년에 벼 한 말과 보리 한 말을 내면 마음대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고랑포에는 시장이 있어서 필요할 때 고기도 한 근 사올 수 있었고, 화신연쇄상에서 간단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 고랑포에는 금능시장이 있었고,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는 등 간단한 의료 행위를 했다. 또 고랑포에는 정부기관 금융조합이 있어서 돈도 맡기고 빌려 쓸 수도 있었다. 일제 시기 고랑포에는 일본인 장사꾼도 많았다.

고랑포에는 강을 건너가는 나룻배와 콩을 350~500가마까지 실을 수 있는 삼판배라는 짐배가 있었다. 짐배는 대략 6~7척 정도 운영되었다. 똑딱선 기관선도 다녔는데 장파리 부근 수심이 얕아서 평소에는 올라오지 못하다가 조수가 들어오면 그 틈을 타서 올라왔다. 고랑포까지는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돛이 하나인 상선들이 많이 들어왔다. 큰 배도 고랑포까지는 조수물을 타고 올라갔지만,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널배는 두지리 나루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두지리 나루는 최근에 황토돛단배 정박장으로 유명해졌다.

고랑포에서 두지리 사이에 위치한 자지포의 구내기라는 곳은 물이 얕아서 무릎 밖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널배도 물을 타고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은 성화대로 바닥을 조정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배에 끈을 묶어서 육지에서 끌어당기며 두지리까지 올라갔다. 두지리까지 올라갈 때는 어렵지만, 내려갈 때는 쉽다. 성화대는 노하고는 다른 기구다.

자지포는 동네만 다를 뿐 고랑포하고 연결된 포구라고 한다. 그외에도 장파리의 건너편을 다니려면 장단 쪽 용산리의 용산 나루를 이용하였다. 고랑포가 제일 컸던 포구이고 장파리는 작은 포구였다.

포구와 시장

① 문산포와 문산장

문산포에는 소금배, 조깃배, 새우젓배가 들어왔는데, 새우젓 포구로 유명했다고 한다. 겨울철 장날이면 강화배가 조기를 싣고 들어왔다고도 한다. 큰 배는 돛을 세 개 단 목선으로 문산포까지 못 들어오고 임진강변에 정박시킨 뒤 작은 배들이 밀물 때 오가며 물건을 운반했다. 그외에 임진강에는 빨리 달리는 삼판배도 다녔다. 또한 문산포에는 작은 배를 만드는 목수도 있었다고 한다.

문산포와 함께 문산장도 번성하였다. 문산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지역 범위

는 적성, 주내, 천연, 탄현, 법원 등 파주 각지에 이르고 양주에서도 왔었다고 한다. 특히, 법원에는 장이 없어서 문산장으로 많이 왔다. 문산장의 장날은 5, 10 일이었다. 문산장은 오일장에서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다. 문산장에는 우시장이 없어서 해방 이후 우시장을 개설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시장은 봉일천장으로 다녔다.

② 고랑포와 고랑포장

적성면 장좌리에서 태어난 이재근 씨(1917년생)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16세부터 고랑포의 한 포목상점에서 사원으로 일했다. 포목상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장사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포목점 사원으로 일하면서 이재근 씨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외상 거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포목은 서울이나 개성에서 사왔는데, 대체로 중국산이 많았다. 서울로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문산으로 걸어나가서 기차를 타고 갔다. 물건은 종로백화점이나 중국인들에게서 샀다.

2, 7일에 서는 고랑포장은 배가 드나들어 물류 유통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의 기능과 함께 우시장도 있었다. 윗(상)고랑포는 일반 장시가 발달하여 가게나 점포가 많았는데, 포목상은 3~4개 정도, 그밖에 잡화·어물전이 있었다고 한다. 우시장은 아랫고랑포가 커서 우시장 외에는 장사꾼은 없었다고 하였다. 윗고랑포와 아랫고랑포에서는 각각 우시장이 있어서 날짜를 번갈아가면서 서로 다른 날에 장이 섰다. 고랑포 우시장에는 주로 황해도 소가 모여 들었다.

한때 번성했던 고랑포가 쇠퇴하게 된 것은 짐차가 나오면서부터라고 한다. 이재근 씨는 16세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고랑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미 '후도차'가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후도차란 미국산 8인승 포드(Ford) 차로 지프차와 비슷한데, 10명까지 탈 수 있었다. 후도차는 문산에 사는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적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노선을 개통해서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이재근 씨가 해방이 되고 장좌리로 돌아왔을 때에도 고랑포에 배가 드나들었지만 이미 차가 다녀서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고랑포시장은 여전히 주변

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이재근 씨는 당시에 고랑포 다음에 봉일천장이 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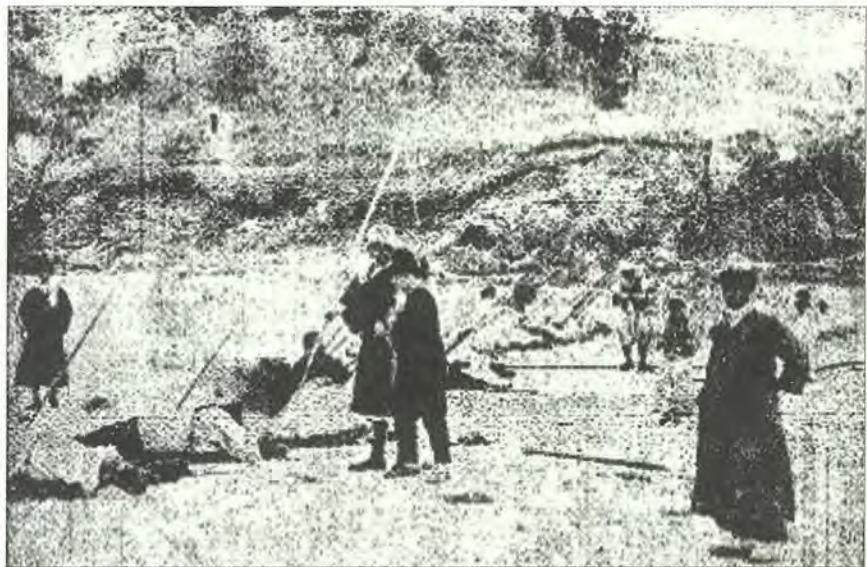
③ 우시장과 소 장사

현재 적성면 식현리에 사는 박대영 씨(1929년생)는 과거 자장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장사를 했다. 당시에 우시장은 양주군 남면, 고랑포, 그리고 60리 떨어진 봉일천에 있었다. 문산읍에는 우시장이 없었다. 소 장사는 이북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를 사다가 이남에다 팔았다. 6·25전쟁이 나기 전까지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삼팔선 넘나드는 것에 대해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북에서 소를 사가지고 고랑포의 우시장이나 양주군 남면에 가져가서 팔 수 있었다. 일제 시기에 강원도와 황해도의 소 값은 이곳의 반값밖에 되지 않았다. 그곳은 상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판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랑포에서 거래되는 소는 농사꾼이 농사에 쓰려고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서울로 올라가는 소였다. 걸어서 하루면 서울까지 갈 수 있었지만 바로 서울로 가기 보다는 의정부로 가서 소가 안 팔리면 동대문시장으로 들어갔다. 반면 봉일천에서 파는 소는 서대문을 통해서 바로 서울로 들어갔다.

강을 건널 때는 소를 자동차 싣는 배인 평배에 싣고 건너갔다. 평배는 바지선 같은 배인데 배 바닥이 깊으면 소가 못 들어가니까, 밑에는 깊게 만들더라도 위에는 판자를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10톤 정도는 싣을 수 있었다.

문산읍 내포리에서는 소를 사고팔기 위해 30리 떨어진 봉일천시장을 다녔다. 서울 북쪽에서 우시장으로는 봉일천시장이 제일 컸다. 고랑포에서도 봉일천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소를 사려면 새벽에 나가서 일찌감치 사야 했다. 북파주, 고랑포, 적성, 고양, 장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천의 소들도 봉일천장으로 모였다. 파평면 금파리에서는 고랑포시장이나 봉일천시장으로 다녔다. 금파리에서 문산으로 짐을 나를 때는 소달구지를 주로 이용하였다.



겨울철 임진강 잉어잡이 모습(1929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 4면)

④ 어류 판매

교하 지역 한강변에서는 배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물때를 예측한 도부꾼들이 몰려들어 고기를 사갔다. 도부꾼은 10여 명으로 주로 연다산리에서 왔다. 도부꾼은 쌀이나 보리쌀을 주고 고기를 사갔다. 도부꾼들은 고기를 말려서 팔기도 했다. 송촌리 새터골에서는 배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이르지기 그물’ 이라고 해서 송어잡이를 많이 했다. 음력 7~8월경 물이 마른 갯벌에서 15m 간격으로 ‘말짱’ 을 박고 400m 정도 되는 그물을 묻어놓았다가, 물이 들어올 때 송어를 잡았다. 그물을 묻는 데만 5시간이 걸렸으며, 송어를 잡을 때는 5명이서 작업했다. ‘말짱’ 으로 쓰는 나무는 장단에서 가지고 온 참나무를 사용했고, 그물은 인천에서 사왔다. 그물은 서로 추렴해서 장만하였다. 잡은 송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팔기도 했다.

장시 개장일과 변화

군현 郡縣	장시명 場市名	소재지 所在地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1770년	임원경제지 林園經世志 1830년	동여도지 東輿圖志 1834년	읍지 邑誌 1843년	여도비지 輿圖備考 1850년대 간행	조선지리지 朝鮮地誌 1888년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08년	한국수산지 韓國水産誌 1908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22년	시가지의 상권 市街地の商圏 1923년	조선의 시장경제 朝鮮의市場經濟 1925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38년	최신 국토 구역 총람 1963년	한국 농촌 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 1976년
파주 坡州	봉일천장 奉日川場	조리동면 條里洞面 남 30리	○	○	○	○	○ 공동장 共洞場	○	○		○ 2, 7		○ 2, 7	○ 2, 7	○ 2, 7	거의 폐쇄 2, 7
	문산포장 汶山浦場	석정면 七井面 북 10리		○		○	○ 4, 9			○ 5, 10	○ 우시(牛市) 5, 10		○ 5, 10	○ 5, 10	○ 5, 10	상설
	눌노장 訥老場	파평면 坡坪面 북 30리		○ 4, 9							○ (폐지)				덕천장 2, 7	생량(生量) 포함 2, 7
	원기장 院基場	천현면 泉峴面 동 10리		○ 1, 6											천현장 3, 8	천원(天元) 포함 5, 10 용담(龍潭) 폐쇄
	주내 州內														○ 4, 9	구읍 舊邑 4, 9
	읍내장 邑內場				○	○ 3, 8	○	○	○							
	이천장 梨川場		○		○		○	○	○							
교하 交河	광탄장 廣潭場		○		○			○	○							○ 5, 10
	장파장 長坡場	파평면 坡坪面	○		○	○		○	○							
	신화리장 新花里場	이동면 衙洞面 동 7 리		○							○ 4, 9	금촌장 金村場	금촌장 1, 6	금촌장 1, 6	금촌장 1, 6	금촌장 1, 6
적성 積城	삼교장 緡橋場	석권면 石串面 서 15리			○		○ 삼교장 緡橋場			○	○ 1, 6	○	○ 1, 6	○ 1, 6		
	청수장 淸水場							○								
	적성장 積城場	적성면 積城面													○ 5, 10	○ 5, 10
	수유현장 水鎭峴場	읍내시 邑內市								○ 1, 6						
	두일장 斗日場	북면 北 20리		○ 5, 10												
적성 積城	오목천장 梧木川場	동면 東 20리		○ 2, 7												
	압암장 笠巖場	남면 南 30리		○ 2, 7												

군현 郡縣	장시명 場市名	소재지 所在地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 1770년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1830년	동여도지 東輿圖志 1834년	읍지 邑誌 1843년	어도비지 輿圖備考 1850년대 간행	조선지리지 朝鮮地志略 1888년	중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08년	한국수산지 韓國水産誌 1908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22년	시가지의 상권 市街地の商圈 1923년	조선의 시장경제 朝鮮의市場經濟 1925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38년	최신 국토 구역 총람 1963년	한국 농촌 시장의 제도 및 기능 연구 1976년
정단 長湍	부내장 府內場	동 10리		○ 3, 8					○ 3, 8		○ 읍내시 縣內市	군내면 읍내리 3, 8	○	○ 군내 郡內		
	사천장 沙川場	서면 서 20리		○ 1, 6					○ 1, 6							
	사미천장 沙味川場	강남면 동 40리		○ 4, 9			사미천장 沙味川場									
	구화장 駒化場	강서면 북 60리		○ 1, 6							○	강서면 구화리 1, 6	○	○ 1, 6		
	고랑포장 高浪浦場	정서면 동 30리	○	○ 2, 7	○		○		○ 2, 7	○	○ 우시市	정남면 고랑포리 2, 7	○ 2, 7	○ 2, 7		
	도장장 道井場	서도면 북 30리		○ 2, 7												
	원우장 院羽場								○ 4, 9							
	사곡시 糸谷市										○	전남면 동상리 4, 9	○			
	원천리시 淵川里市										○	대남면 원천리 5, 10	○			

주요 거래 물품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1830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22년	시가지의 상권 市街地の商圈 1923년	조선의 시장경제 朝鮮의市場經濟 1925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38년	한국 농촌 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 1976년
봉일천장		축우축우, 백미白米, 조혜草鞋 출장 상인 : 300명(일일 평균) 구매자 수 : 1,600명 거래 수량(1개월분) 축우 320두 (매매가액 23,966원) 백미 600원, 조혜 150원	1개년 매상고(円) 농산물 : 12,853 수산물 : 1,265 직물 : 2,623 축류 : 21,774 기타 : 20,891	미곡米穀, 면포綿布, 마포麻布, 주단紬織(명주와 비단), 어염魚鹽, 목기木器, 옹기甕器, 사기沙器, 유기漆器, 인석硯席, 우독牛槽 출장 상인 : 57명 구매자 수 : 1,600명 1개년 매상고 농산물 : 12,673엔 수산물 : 856엔 직물 : 5,760엔 축류 : 315,420엔 잡품 : 25,669엔 계 : 360,387엔	연 거래액 654,064원	거래액(가축 제외) 일일 : 500,000원 일일 이용자 : 290명
고랑포장					425,200원	
임진면 문산시장		곡물, 식료품 매매 출장 상인 : 500명(일일 평균) 구매자 수 : 1,300명			554,250원	상설 시장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1830년	조선의 시장 朝鮮의市場 1922년	시가지의 상권 市街地の商圏 1923년	조선의 시장경제 朝鮮の市場經濟 1925년	조선의 시장 朝鮮の市場 1938년	한국 농촌 시장의 제도와 기능 연구 1976년
교하 신화리장				미곡, 면포, 어물, 과물果物, 인석, 연초煙草		
아동면 금천시장		곡물, 식료품 매매 출장 상인 : 20명(일일 평균) 구매자 수 : 500명			34,748원	5,410,000원 1,600명
파주군 청석면 삼교시장		곡물, 식료품 매매 출장 상인 : 65명(일일 평균) 구매자 수 : 410명			10,899원	
파평면 두포시장			곡물, 식료품 매매 출장 상인 : 20명 (일일 평균) 구매자 수 : 50명			
장단 구화					337,906원	
장단 군내					13,830원	
장단 장단					510,072원	
장단 동하리 부내장				미곡, 면포, 명주明軸, 웅기, 우독		
적성 두일장				미곡, 면포, 마포, 어물, 조粟, 울렛, 연초, 우독		
광탄시장						800,000원 200명
주내시장						1,650,000원 500명
천현시장						2,880,000원 500명
파평 덕천 샘내시장						573,000원 80명
적성시장						1,000,000원 250명

주요 산물

지역	조선산업지圖産業誌(하, 1911년)	
금촌	발저화물發著貨物 : 米 233톤, 석재石材 210톤, 신탄薪炭 43톤	
문산	수출품 : 米, 대두大豆, 소두小豆, 소맥小麥, 조粟, 밀나무薪, 목탄木炭 수입품 : 소금鹽, 생어生魚, 명태明太魚, 염해로鹽海老, 곤포昆布, 권연초卷煙草, 석유石油	연 78,950원 연 91,695원
임진강(파주군 마정리)	발저 화물 : 대두 424톤, 목재 161톤	
장단	발저 화물 : 쌀 180톤, 대두 272톤, 석재 1,278톤	
고랑포	장단대두長端大豆	
연천	미, 맥粟, 두, 속粟	



물질 문화 物質文化

고광민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봉석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파주 지역에서는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주소가 있는 물질문화의 자료를 어느 정도 전시하고 있고, 특히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남, 1929년생)의 경우 한평생 같이하여 온 겨리를 비롯한 모든 물질문화의 자료들을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어서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적성면 두지리 임권상 씨(남, 1954년생)는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어 사용하였던 몇 점의 어구를 보관하고 있었고, 법원읍 금곡리 김은섭 씨(남, 1927년생)는 화전을 일구던 화전팽이와 숙전을 일구던 가짓잎팽이를 간직하고 있었다.

농구 農具

겨리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 집에 있는 것으로, 권 씨가 1960년대에 마련하여 쓰던 것이다. 이 겨리는 그 당시 권 씨가 여러 가지의 나무를 마련하고 목

수에게 부탁하여 꼬박 하루 걸려 만든 것이다. 그 당시 겨리를 만드는 목수의 품삯은 쌀 한 말이었다. 쌀 한 말의 품삯은 보통 잡일꾼의 4일 노동의 품삯이었다. 이렇게 겨리를 마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겨리로 하루에 1500평의 밭을 갈 수 있었다. 겨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① 몸 : 겨리의 중심을 이루는 나무이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② 보습 : 쌀 3말을 주고 오일장에서 구입하였다. 겨리로 7일쯤 밭을 갈면 보습은 밭이랑이 서지 않을 만큼 낡아빠져 버렸다. 이런 모양의 보습을 두고 '무트래기' 라고 하였다. 그래도 하나의 보습을 사면 12일은 밭을 갈아먹어야 본전을 건진다고 믿었다.

③ 벧 :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이다. 벧은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벧을 한번 마련하면 보습과는 달리 제법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④ 겨리귀 : 겨리의 몸 좌측에 돌출한 나뭇조각이다. 밤나무로 만들었다. 이것 있어야 흙밥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⑤ 성에 : 몸의 위쪽에 끼워져 있으면서 두 마리의 소가 끌어당기는 기다란 나무토막이다. 이것은 전나무로 만들었다. 그 앞에 있으면서 멍에의 줄을 묶는 나뭇조각만은 물푸레나무를 고집하였다.

⑥ 한마루 : 겨리의 몸과 성에를 고정시켜 주는 나뭇조각이다. 자작나무로 만들었다.

⑦ 손잡이 : 겨리를 컨트롤하는 나뭇조각이다.

⑧ 탕개 : 한마루와 손잡이를 조여주는 줄이다.

⑨ 멍에 : 좌우 두 마리의 소의 목에 얹는 나무토막이다.

호리멍에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으로 호리의 멍에이다. 이 마을에서 밭갈이는 겨리, 논갈이는 호리로 이루어내었다. 호리는 소의 목 위에 씌



겨리 1



겨리 2



멍에



호리명에

우는 八 모양의 나뭇조각과 소의 목을 조이는 두 개의 나뭇가지로 이루어졌다. 앞의 것을 '명에', 그리고 뒤의 것을 '목젓개'라고 하였다. '명에'는 소나무, 그리고 '목젓개'는 물푸레나무를 고집하였다. 이 마을에서 논갈이 때나 논을 써릴 때의 일소는 암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목젓개'의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은 암수에 따라 서로 달랐다. '목젓개'의 구멍과 구멍의 간격은 암소보다 수소의 것이 길었다. 수소용 '목젓개'의 구멍과 구멍의 간격은 3치 5푼이었다. 그러니 이것은 수소용의 호리명에인 셈이었다. 원래 법원을 오현리의 거리는 두 마 리 소 모두 수소만을 고집하였으니, 논갈이도 수소로 이루어내었을 것임은 물론 이다.

괭이

이것은 법원을 금곡리 김은섭 씨가 쓰던 것이다. 김 씨는 두 가지의 괭이를 간 직하고 있다. 날이 비교적 얇고 끝이 뾰족한 괭이를 두고 '가짓잎괭이', 그리고 날이 비교적 두툼하고 끝이 몽툰한 괭이를 '화전괭이'라고 하였다. 가짓잎괭이가 호리나 겨리로 갈 수 없는 밭 구석을 일구는 괭이이었다면, 화전괭이는 말 그 대로 화전을 일구는 괭이이었다. 특히 경사도傾斜度가 심하여 겨리나 호리로 도 저히 갈 수 없는 화전에서는 하는 수 없이 화전괭이로만 화전을 일구어내기도 하였다.

가래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가래는 판과 손잡이 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가래의 몸은 '뺏나무'를 고집하였다. '뺏나무'는 물을 먹어도 잘 으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못자리를 앉히거나 논두렁을 쌓을 때 가래로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가래는 한 사람이 손잡이를 잡아 흙밥을 뜨고, 또 좌우에 두 사람이 가래의 줄을 잡아당기며 못자리를 일구거나 논두렁을 쌓았다. 가래의 손잡이를 두고 '장추'라고 하였다. 가래의 '장추'를 잡아 일 하는 사람을 두고 '장부꾼'이라고 하였다. '장부꾼'은 약골인 농부는 염두도 못 내는 일이었다.



괭이



가래

쇠스랑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세 개의 발이 달린 쇠스랑의 날은 오일장에서 구입하였고, 자루는 권 씨가 스스로 마련하여 박았다. 자루는 노간주나무이었다. 파주 지역에서 쇠스랑은 경기구(耕起具)나 복토구(覆土具)로 쓰이는 수가 많았다. 겨리나 호리로 갈 수 없는 논이나 밭의 귀퉁이를 일굴 때는 경기구의 기능을 하였고, 보리 씨앗을 뿌리고 나서 흙밥을 긁어 덮어줄 때는 복토구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삼태기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는 찌리로 만든 삼태기와 짚으로 만든 삼태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삼태기는 집안이나 밭에서 운반 도구로 쓰이는 수도 없지 않았지만, 보리를 파종할 때 호리나 겨리 권역을 가리지 않고 파종 바구니로 쓰이는 수가 많았다. 보리를 파종할 때는 한 사람이 재거름에 뒤섞인 보리 씨앗을 삼태기에 담고 고랑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줄줄이 한 줄로 뿌려나갔다. 이런 일을 두고 “재 뿌린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보리 파종에 있어서 본격적인 씨뿌리거나 다름없었다.

종댕이

‘종댕이’는 콩을 파종할 때 그 씨앗을 담는 파종 바구니의 지역어이다.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권 씨는 1980년대 어느 해 음력 7월에 찌리나무를 베어다가 이것을 만들었다. ‘대리키’가 찌리나무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만들었다면, 이것은 찌리나무의 껍질을 벗겨두고 만들었다. 이것은 씨앗바구니의 무게를 줄여줌과 동시에 찌리나무의 껍질에 습기가 배어 쉬 낡아 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찌리나무의 껍질은 소고뼉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였다.



쇠스랑



삼태기



종댕이



오줌장군

오줌장군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검은빛이 감도는 옹기 모양이다. 이것도 물레에 얹혀 돌려가며 만들어야 했으니, 한쪽은 항아리의 밑바닥처럼 평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위쪽에 부리를 만들었다. 오줌장군은 3말들이와 4말들이가 있었다. 이것은 4말들이의 오줌장군인 모양이다. 파주 지역에서는 청명 안팎에 보리밭에 오줌거름을 웃거름으로 주었다. 이 무렵에는 보리밭의 발매기가 거의 끝나고 보리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때이었다. 이때 오줌거름을 먹은 보리는 더욱 왕성하게 성장하였던 것이다.



오줌동이

오줌동이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으로 검은 빛이 감도는 옹기이다. 좌우에 손잡이가 달렸다. 그리고 아가리 한쪽에 부리가 달렸다. 양손에 오줌동이를 들고 조심조심 보리의 포기마다 오줌거름을 주게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아가리 쪽에는 부리에 의지하여 철사를 감아주었다.



고물개

고물개

‘고물개’는 고무래의 이곳 말이다. 이것은 법원을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들어 쓰는 것이다. ‘고물개’의 사다리 모양의 판자는 소나무, 그리고 손잡이는 밤나무이다. ‘고물개’는 못자리를 앓힐 때와 곡식을 넣어 말릴 때 등 두루 쓰였다. 이 마을에서 못자리를 앓힐 때는 가래로 논바닥을 일구었고, 씨레로 못자리를 씨리고 나서 ‘고물개’로 못자리의 바닥을 골랐던 것이다. 또 나락이나 보리를 명석에 넣어 말릴 때 골고루 햇볕을 들게 하려고 저어줄 때도 쓰였다.



발고물개

발고물개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둥그런 나무토막에 네 개의 발과 함께 손잡이가 박혀 있다. 한 사람은 보리 씨앗을 뿌리는 고랑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이것으로 두둑에 있는 흙밭을 고랑으로 쓸어내리며 보리 씨앗을 덮어주었다. 법원읍 오현리에서는 발고물개 대신 쇠스랑으로 이런 일을

이루어내었다. 이런 일을 두고 “보리밭 덮는다”, 또는 “골 덮는다”라고 하였다.

씨레와 번지

이것은 법원을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씨레는 무엇보다도 ‘바탕’이라는 몸통과 발뚝이 강조되었다. ‘바탕’은 누릅나무를 고집하였다. 누릅나무는 가벼울 뿐만 아니라 물에 젖어도 잘 으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씨레의 발은 ‘버르수나무’를 고집하였다. ‘버르수나무’는 강하여 더디 닳아빠졌을 뿐만 아니라, 논흙이 씨렛발에 붙어도 쉬 떨어져서 좋았기 때문이었다.

파주 지역의 논농사에서는 두둑을 가로지르며 씨리고 나서, 다시 두둑의 방향으로 씨려내었다. 앞의 씨레질을 두고 ‘곱씨리’, 뒤의 씨레질을 두고 ‘장씨리’라고 하였다. ‘장씨리’ 때에는 기다란 나무판자를 붙이는 수도 없지 않았다. 이때의 나무판자를 두고 ‘번지’라고 하였다. ‘번지’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 그리고 씨레의 발은 모두 9개가 달려 있었다. 권 씨네 씨레는 좌측에서부터 두 번째의 발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좌측에서 세 번째의 발과 일곱 번째의 발은 유난히 길고 굽었다. 이렇게 유난히 길고 굽은 씨레의 발을 ‘번지’의 구멍에 끼우고, 안전하게 씨레질을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씨레와 번지

호미

파주 지역에는 ‘논호미’와 ‘밭호미’가 동시에 전승하였다. 이것은 모두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논호미’와 ‘밭호미’의 날의 폭은 비슷하였지만, 손잡이와 날의 각도가 서로 달랐다. ‘논호미’가 ‘밭호미’보다 호미의 손잡이와 날의 각도가 훨씬 짧았다.

법원읍 오현리에서는 망종 때 모내기를 이루어내었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25일 후쯤에 첫 논매기가 이루어졌다. 첫 논매기를 두고 “애논맨다”라고 하였다. 논에서는 주로 이때만 ‘논호미’로 논을 매었던 것이다. ‘밭호미’는 화전과 숙전에서 밭매기 때 두루 쓰였다. ‘밭호미’로 씨앗구덩이를 내고, 콩의 씨앗 3~4방울을 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굽어 덮어주는 수도 없지 않았다. 그러니 ‘논



밭호미



논호미

호미'는 제초구除草具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호미'는 제초구는 물론 씨뿌리기와 씨앗 물기의 도구로도 쓰였던 것이다.

호미는 자루, 목, 날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호미의 자루 끝에서 지면까지의 폭을 '아귀'라고 하였다. 아귀가 헤벌어지면 논바닥의 흙밥이 많이 뜨이나 당기기 버거웠고, 또 좁아지면 흙밥은 적게 뜨이나 헤집기 비교적 손쉬웠음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호미의 아귀가 벌어져 억지로 좁히려다 목이 부러지는 수도 없지 않았다. '발호미'보다 '논호미'의 아귀의 폭이 짧았으니, 그만큼 밭보다 논의 흙밥을 헤집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과 논매기가 완전하게 끝이 나는 음력 7월 중, 어느 날을 정하여 집집마다 쌀을 모아 농악을 울리며 잔치판을 벌였다. 이런 잔치판을 두고 '호미씻이'라고 하였다.

낫

법원을 오현리 권영상 씨가 구입하여 쓰던 것이다. 조선충독부 시절에 보급된 일본의 낫과 구분하여 '조선낫'이라고 하였다. 일본 낫은 알팍하여 곡식을 베어 낼 때만 안성맞춤이었고, 조선낫은 두툼하여 곡식을 베어내는 일은 물론 나뭇가지도 거뜬하게 잘라낼 수 있었다.

도리깨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1960년대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도리깨는 타부打部, 손잡이, 연결부連結部로 짜여졌다. 타부를 두고 '아들'이라고 하였다. 물푸레나무로 아들을 만들었다. 손잡이를 두고 '장추'라고 하였다. 노간주 나무로 '장추'를 만들었다. '장추' 길이는 사용자의 키에 따라 비례하였다. 연결부를 두고 '꼬꼬마리'라고 하였다. '꼬꼬마리'는 뽕나무로 만들었다. 뽕나무로 만든 '꼬꼬마리'는 질겨서 오래갔다. 도리깨로 조, 콩, 팥, 깨는 물론 홉이에서 홉어내다가 남은 나락의 찌꺼기까지 탈곡하였다.



조선낫



도리깨

매통

이것은 파주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두 개의 굵은 소나무의 통나무를 잘라 만든 두 개의 마구리에 요철凹凸로 이를 파고, 위쪽의 윗마구리는 우긋하게 파서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벼를 담고 위쪽 양쪽에 자루를 가로로 박아서 그것을 손잡이로 하여 이리저리 돌려 벼의 겉껍질을 벗겼다.

탈곡을 끝낸 벼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벼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두고 “애벌 쫓는다”라고 하였다. 애벌 쫓는 일은 매통이나 절구에서 이루어내었는데, 이때 현미玄米가 탄생하였다. 애벌이 끝난 현미를 두 번째로 쫓는 일을 두고 “두벌 쫓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쫓는 일은 절구에서 이루어내었는데, 이때 백미白米가 탄생하였다. 두 번째 쫓아낸 백미를 세 번째 쫓는 일을 두고 “세벌 쓴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 쓰는 일은 절구에서 이루어내었는데, 이때 겨가 빠져버린 더욱 고운 백미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벼의 껍질은 세 번에 걸쳐 벗겨내었던 것이다.

그러니 매통은 벼의 껍질을 첫 번째로 벗겨낼 때만 쓰였던 정미 용구精米用具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없는 집에서는 하는 수 없이 절구에서 그 일을 대신하였다. 그러니 매통은 부잣집에서나 갖추고 있었던 정미 용구이었다.

절구통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나락의 껍질을 벗길 때, 곡물을 넣고 쫓아 떡가루를 낼 때, 그리고 메주나 고추를 빻을 때 등 두루 쓰였다. 이 절구통은 6.25전쟁(1950) 때 폭격을 맞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얼마나 오래 썼는지 통의 밑창이 썩 들어가 버렸다. 이럴 때는 밑창에 소나무 조각을 대어 붙였다. 이런 일을 두고 “봉 박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봉’은 ‘그릇 따위의 뚫어진 구멍이나 이의 썩은 부분을 메우는 판 조각’의 뜻을 지닌 말이다. 그러니 이 절구통은 봉을 박은 절구통인 셈이다. 공이는 돌맹이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다. 돌맹이로 만든 것을 두고 ‘돌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을 두고 ‘나무괭이’라고 하였다.



매통 1



매통 2



돌괭이

나무괭이



키



맷돌



맷돌 질 때 쓰는 망치

키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키는 곡식에 섞인 뉘 따위를 걸러내는 용구이다. 키의 바닥과 날개는 버들가지를 나일론 줄로 걸어 만들었다. 그것을 테두리에 대고 찰의 줄로 얹어매었던 것이다.

맷돌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권 씨의 할머니가 생전에 적성면 주월리 경주 김씨 집안에 주문하여 만들었다. 그 당시 맷돌을 사는 값은 쌀 한 말이었다. 쌀 한 말은 밭 일꾼 4일 품삯, 그리고 겨리 목수의 1일 품삯과 같은 값이었다.

임진강의 맷돌 내력을 더 들여다보려고 적성면 주월리로 가서 김교익金敎益 씨(남, 1921년생)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맷돌의 재료는 임진강변의 석벽에서 채취하였다. 이런 돌맹이를 두고 ‘고속돌’이라고 하였다. ‘속돌’은 구멍이 숭숭한 돌맹이라는 말이니, ‘고속돌’은 매우[高] 구멍이 숭숭한 돌맹이라는 말일까. 임진강의 ‘고속돌’은 제주도의 현무암玄武岩을 빼닮았다.

맷돌은 한 3년을 쓰면 무디고 말았다. 그럴 때마다 끝이 뾰족한 망치로 쪼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딘 맷돌을 쪼아주어 날카롭게 만드는 일을 두고 “쥘다”, 그리고 이때의 망치를 두고 ‘죄망치’라고 하였다. “쥘다”는 “죄다”에서 온 말로, “쪼아서 깎아내다”라는 말에서 비롯하였음은 물론이다. 권 씨는 ‘죄망치’도 간직하고 있었다.

파주 지역에는 맷돌을 죄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맷돌 죄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일렀다. 그 사람은 피난민으로 적성면 장현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맷돌 죄러 다니는 사람’은 “맷돌 쥘니다!”라고 소리치며 여러 마을을 휘돌아 다녔었다. 맷돌의 위쪽과 아래쪽을 죄는 데 한나절이 걸렸다. 맷돌 한 짝을 죄는 값은 보리쌀 3되이었다.

‘맷손’은 스스로 마련하였는데, 소나무를 으뜸으로 쳤다. ‘맷손’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 “맷손 베러 갔다가 못 마련하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전승하였다. 그러니 하다못해 뿔나무 맷손이라도 베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

다. 뽕나무의 맏손은 나무가 거칠었기에 맏손을 돌리다 보면 못 견딜 정도로 손이 따가웠다. 그러니 맏손은 소나무로 만든 것을 으뜸으로 썼던 것이다.

어구漁具

뱀장어 작살

이것은 적성면 두지리 임권상 씨가 쓰던 것이다. 뱀장어는 산란을 위하여 먼 바다로 갔고, 그 새끼는 입하와 소만 사이에 모천으로 회귀하여 모천에서 성장하였다. 겨울에 이루어지는 뱀장어 작살 어법은 씨리라는 곡괭이로 강의 얼음장을 뚫고 작살로 쏘아 잡는 것이었다. 작살은 네 개의 날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위쪽 3.2cm의 홈에 두어 발 길이의 박달나무 자루를 박게 되었다. 뱀장어 작살의 박달나무 자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날의 끝은 뭉툼하였다. 뱀장어를 보고 이것으로 찌르면, 뱀장어의 몸은 미끄러지면서 작살의 날의 틈으로 끼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톱날에 걸려 잡히고 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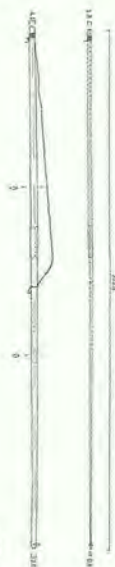
뭉치대

이것은 적성면 두지리 임권상 씨의 부친 임종수(林鍾洙 씨(1919년생)가 생전에 쓰던 것이다. 이것으로 뱀장어를 낚는 일을 두고 뭉치질이라고 하였다. 뭉치질로 뱀장어를 낚는 일은 주로 여름에 이루어졌다. 뭉치질은 예사로운 어법이 아니었다. 길이 3.6m, 폭 4.5cm의 방추형(紡錘形)의 장대를 두고 뭉치대라고 하였다. 뭉치대를 방추형으로 만든 것은 강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에서였다. 뭉치대 위에는 줄이 묶여 있었고, 아래쪽에는 '바닥줄'이 묶여 있었다. 뭉치대 위의 줄은 뭉치대가 배에서 떠나려가지 못하게 배의 한쪽에 묶는 줄이었고, 바닥줄은 뱀장어를 잡는 줄이었다.

바닥줄은 바느질실 두 발 길이에 20~30마리의 지렁이를 띄엄띄엄 끼우고 나



뱀장어 작살



뭉치대

서 네 손가락에 빙빙 감아 만든 줄이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다니며 배 위에서 뭇치대를 강바닥에 대고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면 뱀장어는 지렁이를 먹으려고 바닥줄을 질근질근 씹다가 그만 바느질실이 이빨에 끼고 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어구는 적성면 주월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축 사양구 家畜飼養具

밀낫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밀낫은 봄에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땅바닥에 붙어 있는 풀에 낫을 대어 밀어 잘라내는 낫이다. 그러니 낫의 낫은 안쪽에 있어 수확물을 한쪽 손에 잡고 낫의 낫을 대어 잡아당기며 베어낸다면, 밀낫의 낫은 등 쪽에 있어 땅바닥에 붙어 있는 풀을 밀어 깎아내게 된다. 그리고 낫은 쪼그리고 앉아 풀을 베는 것이니 자루가 짧고, 밀낫은 선 채로 풀을 깎는 것이니 자루가 길다.



밀낫

작두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작두는 마소가 먹을 여물을 썬 연장이다. 이 마을에서는 한로에서부터 이듬해 입하까지 하루에 세 번 여물을 솥에서 달여 소에게 먹였다. 아침에 만든 소죽으로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만든 소죽으로 저녁을 먹였다. 그러니 소가 있는 집안에서는 작두로 하루에 두 번은 여물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두는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위에 짚막한 쇠기둥 두 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긴 칼날의 끝을 끼워 박아 여물을 발로 디며 가며 썰게 되어 있었다.

두툼한 나무토막을 두고 '바탕' 이라고 하였다. 바탕은 비교적 무른 나무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 이것의 바탕은 소나무이었다. 이 바탕에 긴 칼날을



작두

췌조각으로 고정시켰다. 짊막한 쇠기둥을 두고는 ‘고두쇠’라고 하였다. 긴 칼날은 ‘작돛날’이라고 하였는데, 작돛날의 끝에는 넓적한 나무토막이 박혀 있었다. 이를 ‘발판’이라고 하였다. 작두와 발판 사이에는 줄이 묶여 있었다. 한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 작두는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작돛날 아래로 여물을 먹여나갔다. 그러면 줄을 잡아당겼던 사람이 발판을 밟아 내려치며 여물을 썰어나가는 것이었다. 이 마을의 여물은 벳짚, 조짚, 콩깍지, 그리고 산에서 마련한 마른풀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죽젓개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소죽을 썬는 동안에 여러 번 저어주는 막대기를 두고 ‘죽젓개’라고 한다. 죽젓개는 주로 뽕나무나 소나무를 고집하였을 뿐, 밤나무는 절대 삼갔다. 밤나무는 한없이 쓴 기운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소죽바가지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의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쇠죽을 푸는 바가지인 쇠죽바가지의 이곳 말이다. 파주 지역의 ‘소죽바가지’는 피나무로 만드는 수가 많았다. 법원읍 오현리에서는 오일장에서 구입하여 쓰는 수가 많았다.

어리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으로, 싸리나무로 만들었다. 농경사회 때에는 집집마다 닭을 길렀다. 닭은 거의 외양간에서 키웠다. 외양간 어귀에는 등지와 해를 마련하였다. 등지는 암탉이 들어앉아 알을 낳는 그릇이었다. 등지에는 달걀을 놓아두었다. 달걀이 없으면 암탉이 등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 달걀을 낳는 수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달걀을 밀알이라고 하였다. 밀알은 닭 등지에 놓아두는 알이라는 말이다. 밀알 대신 보시기를 놓아두기도 하였다. 암탉은 그게 밀알인 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달걀을 낳았다.

그리고 암탉은 등지에서 알을 품었다. 수탉과 같이 자란 암탉의 몸에서 나온



죽젓개



소죽바가지



닭어리

달걀이어야 종란種卵이 될 수 있었다. 20~21일쯤 종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왔다. 병아리는 어미 품에서 1개월쯤 자랐다. 술개는 병아리를 노리다가 달려들었다. 이를 막으려고 어리 안에 가두어 길렀다.

의식주에 따른 용구

체



체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체는 곡물을 탈곡하고 조정調整하는 동안에 곡물의 찌꺼기를 골라내거나 가루를 걸러내는 그릇이다. 체는 기능에 따라 ‘얼레미’, ‘도두미’, ‘곤체’ 세 가지가 있었다. 어느 것이나 얇은 나무로 쳇바퀴를 만들고 말총이나 철사 따위로 쳇불을 씌워 만든다. 체는 그 제작이 쉽지 않았기에 장사꾼으로부터 구입하여 쓰는 수가 많았다.

쳇다리



쳇다리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네 집에 있는 것이다. 쳇다리는 체로 받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나 멧돌을 올려놓는 Y자 모양의 나뭇조각이다. 쳇다리를 만들 때 그 재료로 밤나무만은 쓰지 않았다. 밤나무에는 쓴 기운이 있기 때문이었다.

파주 지역의 멧돌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였다. 물에 젖은 곡식을 가는 멧돌질을 두고 ‘물매’, 그리고 마른 곡식을 가는 멧돌질을 두고 ‘건매’라고 하였다. 물매는 함지박 위에 ‘쳇다리’를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멧돌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건매는 멧방석 위에 멧돌을 앉혔다. 조선 산하에는 하나의 멧돌로만 물매와 건매를 이루어내는 곳이 있었는가 하면, 물매는 물멧돌, 그리고 건매는 멧돌에서 따로 이루어내는 곳도 있었다.

동구리

이것은 파주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버들가지를 엮어 상자처럼 만든 물건이다. 파주 지역에서는 이처럼 작은 동구리를 두고 ‘엿동구리’,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큰 동구리를 두고 ‘행담(行擔)’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음식물을 담아두거나 나르는 뚜껑이 딸린 바구니는 전국적으로 전승하였다.

수수비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든 것이다. 수수로 만든 빗자루이어서 ‘수수비’라고 이른다. 이 마을에 빗자루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수수로 만든 빗자루는 방이나 마루를 쓰는 것이고, 싸리로 만든 ‘싸리비’는 마당을 쓰는 빗자루이었다. 수수비는 수수껍질이 붙어 있어야 방이나 마루가 비교적 잘 쓸렸다. 그리고 비의 모습은 반드시 다섯 개를 고집하였다. 이렇게 모습을 홀수로 매어야지 짝수로 매어서는 불길(不吉)하다는 민간신앙이 전승하기도 하였다. 수수 대신 왕골로 빗자루를 매는 수도 없지 않았다.



동구리



수수비

기타 용구

왕갈퀴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권 씨에 따르면, 왕갈퀴의 살은 오일장에서 구입하였고, 왕대나무의 자루만 본인이 만들어 붙였다고 하였다. 왕갈퀴는 음력 10월에서부터 이듬해 2월까지 땔감으로 쓸 가랑이이나 솔잎을 긁어 걷는 도구이었다.



왕갈퀴



짚갈퀴

짚갈퀴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소나무의 자루에 철사를 박아 만들었다. 맨손으로 짚을 추리면 손이 따갑고 헤어지기 십상이었다. 그러니 이것으로 짚을 추렸던 것이다.



대리끼(다래끼)

대리끼

‘대리끼’는 싸리나무로 만든 바구니의 이름인 다래끼의 지역어이다. 이것은 법원읍 오현리 권영상 씨가 1980년대에 만든 것이다. 음력 7월에 베어낸 싸리나무라야 질길 뿐만 아니라 대리끼를 만들기도 좋았다. 파종 바구니나 다름없는 ‘종대이’도 이처럼 만들었다. 다만 대리끼는 싸리나무의 껍질을 벗기지 않았지만, 종대이는 그 껍질을 벗겨 만들었다. 어느 것이나 바구니의 바닥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야 허리에 차도 다니기가 편하였다. 그의 부인은 이것을 허리에 차고 산으로 다니면서 산나물을 캐어 담는 데 사용하는 수가 많았다. 이 마을에서는 칼을 들고 다니며 산나물을 캐는 일을 두고 “산나물 오린다”라고 하였다.



자갈체

자갈체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싸리로 성기게 삼태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것에 밭에 깔려 있는 자갈을 담아 나르면 성긴 구멍으로 흙이 빠질 것은 물론이다.

바소쿠리

이것은 파주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에 있는 것이다. 싸리로 결어 만들었다.



바소쿠리

맷는 말

파주 지역에는 겨리와 호리가 동시에 전승하고 있었다. 그러니 파주 지역의 겨리는 조선 산하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파주 지역의 겨리와 호리의 권역을 들여다볼 때, 농경지의 물리적 조건과 상관이 깊어 보였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그리고 파주 지역에는 화전의 팽이와 숙전의 팽이가 동시에 전승하였다.

파주 지역에는 2년 3작 지대의 대표적인 파종 바구니나 다름없는 종대이가 전승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전에 콩을 심는 조선 산하의 대표적인 2년 3작 농법의 유산이기 때문이었다.

파주 지역의 맷돌은 적성면 주월리에서 생산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맷돌로 건매와 물매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었다. 적성면 주월리에서 생산한 맷돌의 제작 방법과 그 분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뱀장어의 음식 문화는 일제 시대 때 일본인의 영향 때문에 비롯하였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적성면 두지리와 주월리에는 일본 열도에서도 전승하지 않았던 ‘뭉칫대’라는 뱀장어 낚시가 전승하는 것으로 보아, 파주 지역에서는 일제 시대 이전부터 뱀장어의 음식 문화가 왕성하게 전승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뱀장어를 낚는 ‘뭉칫대’는 조선 산하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어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산하에서 강의 얼음장을 뚫고 물고기를 잡는 어법은 한강이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이었다. 그 위쪽에 위치한 임진강에서도 얼음장을 뚫는 씨리, 그리고 삼봉낚시 등이 전승하였음이 드러났다.

파주 지역의 가축 사양구는 소와 닭에 쏠려 있었다. 파주 지역은 조선 산하의 중부 지역이었기에 겨울에 소를 사양함에 있어 소죽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소죽을 끓이기 위한 작두, 죽젓개, 그리고 수죽 바가지가 발달하였던 모양이다.

조선 산하에서 닭의 어리는 싸리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것이 전승하였다. 그러

나 파주 지역은 예로부터 대나무가 귀한 곳이었기에 싸리나무로 만든 어리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간단한 운반 용구나 다름없는 바구니의 경우도 싸리나무로 만든 것이 대부분을 이루었음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조선 산하의 맷돌은 풀맷돌과 맷돌이 동시에 전승하였다. 풀맷돌이 물에 우려두었던 곡물을 뺀다는 것이라면, 맷돌은 곡물을 조정調整하여 쌀이나 가루를 내는 것이었다. 파주 지역에서는 앞의 일을 두고 물매, 그리고 뒤의 일을 두고 견매라고 하였다. 그런데 파주 지역에서 물매는 함지박 위에 찻다리를 올려놓아 이루어내었고, 견매는 맷방석 위에 맷돌을 얹혀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파주 지역에서는 하나의 맷돌을 가지고 물매와 견매를 동시에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향기로운 파주 술 이야기

허시명_자유기고가, 술평론가

파주에 향기로운 술이 있어 유유자적 소를 타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송강 정철(1536~1593)이 그 주인공이다. 제 집에 술이 익고 있다고 소문을 내서, 술꾼 정철을 홀린 사람은 우계 성혼(1535~1598)이다.

재 너머 성 권룡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운 쇼 발로 막차 언치 노하 지줄 타고
 아해야 네 권룡 제시나, 정 좌수座首 왔다 하여라

권룡은 마을에서 농사일을 권장하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특별한 직책을 이룬 게 아니라 마을 어른의 뜻으로 사용한 호칭이다. 성 권룡은 동국 18현으로 문묘에 배향된 성리학자 성혼이다. 성 권룡이 살던 재 너머는 파주 우계牛溪로 여겨진다. 성혼은 우계라는 지명을 따서 호를 삼았는데, 우계는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파산서원 앞을 흐르는 개울로 추정된다고 우계의 후손들은 이야기한다. 이울곡의 발의로 세워진 파산서원에는 성수침(성혼의 아버지), 성수중(성혼의 숙부), 백인걸(성혼의 스승), 그리고 성혼이 배향되어 있다. 파산서원의 서쪽으로 100m 떨어진 산 밑에 우계실牛溪室 표지석이 있는데, 이곳이 성혼이 머물며 학문에 정진했던 공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소를 타고 다니는 게 낯설지 않은 풍습이었는데, 언치는 소 등에 깔린 안장 밑의 덮개를 칭한다. 단출하게 언치를 놓아 눌러 타고 성 권룡 집을 찾아가



우계 성혼을 배향한
파산서원

정 좌수는 송강 정철이다. 좌수는 향소(鄕所)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벼슬에서 물러나 그저 동네 어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처지를 뜻한다. 정철과 성혼은 한 살 차이이고, 같은 서인(西人)으로 번갈아 영수 노릇까지 했으니 뜻이 통하는 가까운 사이였다.

정철이 살았던 동네는 고양시 신원동 송강마을이다. 송강마을에는 지금도 송강고개가 있고, 송강보가 있는데 모두 송강 정철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다. 정철은 고양시 신원동에서 35세에 부친상을 당해서 2년 4개월 동안 시묘살이를 했고, 37세에 연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2년 3개월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정철은 선산이 있고 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신원동에 머물곤 했는데, 죽어서도 신원동에 묻혔다. 묻힌 지 72년이 지나 몇자리에 물이 난다하여, 충북 진천으로 묘가 옮겨졌지만 정철의 부모님 묘소는 아직도 신원리에 있고 근래에 송강문학관도 마련되었다.

송강이 살던 고양시 신원동에서 파주 우계까지는 약 100리(40km) 떨어진 거리라, 걸어서 10시간이 걸린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길이니, 소를 타고 가면 시간을 줄이기는 어려워도 몸의 고단함은 줄일 수 있었겠다. 그렇다면 송강은 어떻게 하여 성권룡 집에 술 익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 성 권룡 집 하인이 직접 소식을 전해와 알게 되었거나, 파주를 거쳐서 한양을 가는 인편에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당시 고양시 신원동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조선 제1로인 의주로(義州路)의 주요 경유지였다. 의주로의 주요 경유지는 홍제원, 신원, 벽제역, 고양동, 해음령, 분수원, 신탄막, 마산역, 서작포, 배내, 임진 나루, 동파역, 장단, 개성, 평양, 의주로 이어진다. 해음령에서 장단까지가 파주 구간이다. 파주 우계는 임진 나루에서 2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아마도 성 권룡은 의주로를 지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손이나 지인에게 고양 공릉천을 지날 무렵, 그 부근 동네 사람들이 정 좌수택을 알고 있을 테니 성 권룡택에 술 익었다는 소문 좀 전해 주고 가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한 잔(盞)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것거 산(算) 노코 무진무진(無盡無盡) 먹새 그려”로 시작되는 「장진주사(將進酒辭)」의 저자이기도 한 호주가(好酒家) 정철이 탐했던 술이라면 성권룡 집의 술이 제법 맛있었겠다. 그렇다면 성권룡 집에서 빚었던 술은 어떤 술이었을까? 궁금하여 우계문화재단에 물어보니, 우계 집안에 전하는 술이 없고 제사를 지낼 때에 직접 술을 빚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파주 막걸리 한숨에 들이키니 온 세상이 내 것이어라”

예전에는 제주를 직접 빚어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종가집이라 하더라도 술 빚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파주에서 오래된 내력을 지닌 술을 찾기로 쉽지 않다. 그나마 현재 맛볼 수 있는, 이름을 얻은 술로는 파주탁주를 꼽을 수 있다.

파주탁주 제조장은 파주읍 파주리에 있다. 정확한 이름은 (주)파주탁주인데 1970년에 생긴 이래 35년 동안 파주탁주 합동제조장이란 이름을 써왔다. 파주탁주 주주 12명이 파주 안에서 제각기 술을 빚고 있었는데, 1970년에 국가 정책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술을 빚게 되면서 설립된 회사다.

막걸리는 농주이자 대중주로서 1970년대 중반에는 전체 술 소비량의 70%를 차지했다. 맥주와 소주에게 주도권을 뺏기기 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렸는데, 차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체 술 소비량의 4%로 추락하였다. 그래도 파주 막걸리의 소비는 다른 지역보다는 전성기를 좀 더 오래 구가했고, 소비량의 위축도 더디게 진행되었다. 파주에서는 막걸리를 농주로 소비하는 농업 인구가 많고, 단체 생활 하는 군인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막걸리의 명성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에 지어진 파주탁주 제조장은 1500평에 터를 잡고 있는 건평 527평의 단층 건물이다. 건물은 마당을 면한 쪽으로 사무실과 제품 반출 창고가 있다. 건물의 중간에 뜨거운 술밥을 식히는 냉각대가 있다. 시멘트로 만든 냉각대는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전체 4개가 있었는데 제조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1개로 줄어들었다. 건물의 제일 안쪽으로 술 제조장과 발효실이 있다. 막걸리는 고두밥을 찌서 식힌 뒤에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섞어 만든다. 술을 발효시키는 용기는 어른이 들어가



항아리를 사용하여 술을 빚는 파주탁주 발효실



술항아리에서 발효되고 있는 탁주

고도 남을 커다란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쌀 80%, 밀가루 20%가 들어간 막걸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파주탁주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인 서희동 씨는 증조부 때부터 양조업을 해왔다. 큰아버지는 월롱양조장을 했고, 아버지는 주내양조장을 했다. 증조부와 조부는 개풍군 중면에서 양조장을 했는데, 전쟁 뒤에 파주로 내려와 술을 빙게 되었다. 현재 파주탁주의 다른 주주들도 길게는 4대, 짧게는 2대째 양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만화가 신동우 화백이 그린 파주탁주 포스터

파주탁주 사무실은 39년 전 모습에서 그대로 세월만 더해온 것 같다. 이미 작고한 만화가 신동우 씨가 그린 포스터가 사무실 입구 게시판에 걸려 있는데, 포스터에는 “임진강 푸른 물이 굽이쳐 흐르고 푸른 송림이 울창하여 백구가 모여들던 곳, 파주 막걸리 한술에 들어오니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더라”라고 쓰여 있다. 사무실 책상 뒤편 벽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의 판매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었다.

2001~2007년까지 다달이 팔린 막걸리의 통계를 보니, 1년 중에 5월에 막걸리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 다음이 4월과 9월과 10월 순이었다. 5월이면 모내기철이고 4월, 9월, 10월도 야외 활동 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막걸리가 농주農酒로서 노동의 피로를 풀어주는 술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80년 막걸리 판매량이 634만ℓ 인데, 2007년 판매량은 54만ℓ로 줄었다. 1980년의 1개월 판매량이 2007년 1년 판매량과 맞먹는 셈이다. 1970년대 중반에 막걸리가 전체 술 소비량의 70%를 차지

하다가 지금은 4%로 추락한 실정이 파주 막걸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막걸리는 흘러간 유행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파주 막걸리의 상황은 좋은 편이다. 요즘은 매일 술을 빙고 있는 양조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파주탁주는 직원 4명이 매일 술을 빙는다. 주주 서희동 씨는 “특별히 제품을 홍보하지도 않고 전담 판매사원을 두지 않았는데도 파주탁주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파주 시민들의 사랑 덕분이죠”라고 했다. 파주탁주가 파주 시민들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희동 씨는 지금까지는 오로지 맛 하나만 가지고 회사가 유지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설이나 홍보에 신경을 쓰

고 새로운 투자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형 포도주, 감악산 머루주

파주 막걸리가 파주 토박이 술로서 기능을 해왔다면, 파주에 새로 입주해 들어온 술로 감악산 머루주를 꼽을 수 있다. 머루는 낙엽성 덩굴식물로 전국의 산야에 분포하는데 포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개량머루는 새머루와 양조용 포도나무인 콩코드를 교배시켜 육성한 신품종 머루로 알려져 있다. 머루 재배 지역으로 파주, 무주, 함양, 산청, 평창, 고성 등지가 있는데, 이 머루 재배 지역 확산에 대부 노릇을 한 이가 감악산 머루주의 대표인 서우석 씨다.

적성면 소재지에서 전국 쪽으로 5km쯤 가다 보면 적성면 객현1리 표지석이 나온다. 정보화마을, 산촌마을로 지정된 객현리의 마을 안쪽에 산머루농원이 있는데, 서우석 씨는 그곳에서 근 30년째 머루를 재배하고 있다.

서 씨는 경기도 장호원에 살면서 뽕나무를 심었다가 실패하고, 흑염소를 기르기 위해 1977년에 감악산 아래로 옮겨왔다. 그때까지도 뽕나무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다시 심어 볼까 하고 묘목을 신청하러 농촌지도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머루 묘목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묘목을 공급하는 이는 농민대학에서 강연을 들어 알고 있던 김홍집 씨였다.

남양주에 사는 김홍집 씨는 보리와 콩 다수확왕을 차지한 농민이었다. 왜 소득이 낮은 보리와 콩을 재배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가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애국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보리와 콩을 연구하게 되었다. 총칼 든 사람만이 애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말이 서우석 씨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틀림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함께 머루를 심어 보자고 권하고 1980년 무렵에 1만 5000평 땅에 1500그루를 심었다. 이웃 사람들은 토박이가 아닌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혹시 묘목 장사꾼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래서 혼자서 시작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1983년에 영하 29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닥쳤다. 거름을 많이 주어 웃자란 머루나무가 대부분 얼어 죽고 겨우 다섯 그루가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보라며 혀를 찼다. 그는 오기가 생겼다. 남은 다섯 그루에서 가지치기를



감악산 머루주의
발효 탱크들



감악산 머루주 지하
저장고의 오크통들

해서 묘목을 늘려갔고 차츰 터를 잡게 되어 8000평에 8000주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머루는 세계적으로 재배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많이 재배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품종이 우월한 편이다. 머루의 크기는 포도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씨앗의 크기는 포도와 같아, 껍질과 씨앗을 빼고 나면 과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머루는 생과로는 먹을 것이 없어 대부분 머루즙이나 머루주로 가공된다. 압착 수율을 보면 포도는 75% 가량이 즙으로 나오는데, 머루는 55% 가량이 즙으로 나온다. 게다가 머루 가격은 1kg에 2000원이 넘는데 포도는 1000원이 안 된다. 머루주의 제조 원가가 포도주보다 3~4배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 씨는 1995년에 머루주 양조 면허를 내고 본격적으로 머루주 생산에 들어갔다.

2008년 현재 서 씨가 사는 적성면 객현리에서 48농가가 15만 평에서 머루를 재배한다. 감악산 기슭에 위치한 객현리가

머루 재배지로 알려지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화마을로, 산림청으로부터 산촌마을로 지정되었다. 파주시 전체에서는 70여 농가가 20만 평에서 머루를 재배하고 있다. 2008년에 파주의 머루 수확량은 600톤이었고, 그중에서 서 씨는 400톤을 수매했다. 머루 수매가는 1kg에 2500원이었는데, 재배 농가로서는 다른 작물보다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선호하는 작물이다.

머루주를 담는 방법은 적포도주를 담는 요령과 똑같다. 우선 머루를 수확하여 줄기에서 머루알을 떼어내고 통에 담아 으깬다. 발효를 촉진시키는 효모를 넣고 15일

가량 발효시킨다. 압착하여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아황산염을 넣어 살균한다. 모든 포도주에는 아황산염이 들어가는데, 부패와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에서도 요즘은 스테인리스통에서 숙성시키는 게 흔하지만, 서우석 씨는 정통 포도주처럼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방법과 항아리에 숙성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220ℓ 크기의 오크통 100개를 구해와 머루주를 저장하고 있고, 전남 보성의 칠량옹기에서 제작한 술춘에 머루주를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1년 이고 3년이고 숙성시킨 뒤에 상품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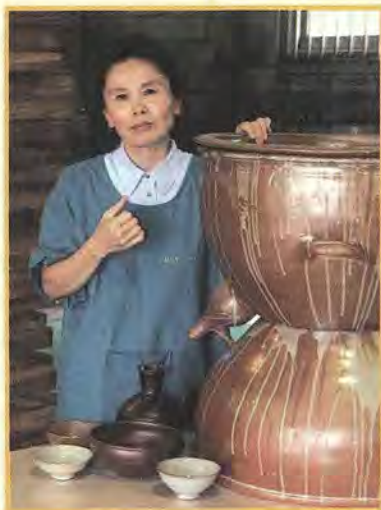
서 씨가 만든 감악산 머루주는 자주색을 띠는데, 진하면서 단맛이 돈다. 한국의 와인 소비자들은 시고 텁텁한 맛보다는 단맛에 익숙한 편이라, 그 취향을 쫓은 것이라고 했다. 술은 12도여서 노인과 여성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45도 머루주 브랜디도 생산하고 있다.

감악산 머루주의 산머루농원은 단순한 양조장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머루 농사를 앞서서 지어, 한국에서 머루 농사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서 씨가 머루 농사를 짓고, 머루 와인을 빚는 것을 보고서 다른 지역 농민들도 힘을 얻어 머루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최대의 머루 재배 산지가 되고 머루 클러스터 사업장으로 지정된 무주, 그리고 경상도 함양, 강원도 평창과 고성의 머루도 모두 서 씨에게서 공급 받은 묘목이 밀거름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감악산 머루주를 빚는 산머루농원은 대한민국의 머루 재배와 머루주의 큰 형님격이라 할 수 있다.

감악산 머루주의 또 다른 미덕은 지하 와인 저장고에 있다. 100m 정도 감악산 방향으로 파들어간 지하 저장고에는 오크통과 오지항아리에 담긴 머루주와 병입된 와인이 보관되어 있다. 통상 17도를 유지하는 지하 저장고에서 3년 정도 숙성된 머루주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서우석 씨는 감악산 주변으로 머루 재배 단지를 늘려가고, 감악산에 지하 터널 저장고를 만들어, 장차 감악산을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포도주 머루주의 관광단지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파주에 터잡은 평양 명주, 감홍로

파주에 신도시가 생겨난 것처럼, 파주에 새로 전입해 들어온 명주가 또 하나 있



예전에는 감홍로를
소줏고리로 내렸다

다. 감홍로다. 감홍로甘紅露는 38이북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다. 옛 문헌에도 곧잘 등장하는 명주로, 평양 기생들이 술잔에 많이 따랐던 술이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에서 조선의 3대 명주로 감홍로, 이강고, 죽령고를 꼽았다. 『춘향전』에도 『별주부전』에도 감홍로가 나온다. 18세기 문헌 『고사십이집』을 비롯하여 19세기 문헌 『임원십육지』, 『동국세시기』에도 등장한다.

이슬 ‘로露’ 자는 소주를 뜻한다. 전통 소줏고리에서 증류되어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습이 이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소주를 노주露酒라고도 부르는데, 참이슬 진로眞露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소주는 추운 지방에서 많이 마신 술이라, 평안도 소주가 한반도에서는 명주로 소문나 있었다. 평양 소주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술이 감홍로였으니, 감홍로는 소주의 최고봉에 오른 술이다.

감홍로 제조장은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 있다. 농림부로부터 농민주 추천을 받아 2006년 초에 주류면허를 받고, 2006년 10월에 감홍로를 처음 출시했다. 술을 빚는 이는 이민형 씨 부부다. 이민형 씨의 부인인 이기숙 씨는 양조장집 딸이다. 이기숙 씨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술로써 인간문화제가 된 이경찬 씨(1918~1993)다. 이경찬 씨가 빚어 국가지정 문화제가 된 문배주는 장남 이기춘 씨에게 승계되어 현재 김포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경찬 씨가 생전에 자주 빚었던 술로 문배주 말고 감홍로가 있었다. 막내딸인 이기숙 씨는 아버지가 문화재로 지정받고자 실험주나 시음주를 빚을 때 곁에서 일손을 많이 도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빠들과 함께 감홍로 빚는 법을 배웠다.

감홍로를 상품화시키려고 처음 시도한 이는 이기숙 씨의 오빠인 이기양 씨였다. 이기양 씨는 농림부로부터 명인 지정까지 받고 신철원에서 감홍로를 상품화시키려고 준비하다가 2000년 8월에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기숙 씨는 감홍로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감홍로를 빚으려다가 세상을 등진 오빠도 생각나고, 감홍로가 영영 잊혀져 가는 것도 가슴 아팠다. 이대로 두면 감홍로가 사라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술을 빚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마침내 남편과 함께 파주에 터를 잡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감홍로는 뜻 그대로 달고 붉은 술이다. 빚는 방법도 문헌에 따라, 빚는 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임원경제지』에 등장하는 판서 감홍로는 멍쌀과 누룩과 꿀과



감홍로를 빚기 위해서 좁쌀 누룩을 만들고 있다



감홍로 누룩을 띄우는 상자

지초로 빚은 소주다. 최남선이 알고 있던 감홍로는 소주에 단맛 나는 재료를 넣고 홍곡으로 발그레한 빛을 낸다고 했다. 이기숙 씨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감홍로는 좁쌀누룩 30%에 땀쌀 70%를 사용하고 약재 8가지가 들어간다.

감홍로는 두 번 증류한 뒤에, 색과 맛과 약효를 내기 위해 약재를 넣어 만드는 약소주藥燒酒다. 소주든 청주든 우리 민족은 약효가 있는 약술을 좋아했음이 감홍로에서도 확인된다. 이기숙 씨의 감홍주에 들어가는 약재를 살펴보면, 용안육은 장을 보호하고, 정향은 정기를 북돋아주고, 계피는 두통을 없애고, 진피는 감기에 좋고, 자초는 피를 맑게 하고, 생강은 혈을 뚫어주고, 방풍은 중풍에 좋고, 감초는 이 모든 약재가 다투지 않고 어울리게 해준다. 감홍로는 가슴을 시원스럽게 뚫고 지나가는 소주의 기운을 잘 담고 있다. 술맛을 보니 감렬하다는 옛사람의 표현이 이해가 된다.

감홍로가 파주에 터를 잡은 것은 실향민들이 휴전선 가까운 파주에 터를 잡고 사는 것과 같은 이유다. 언젠가 돌아갈 날을 꿈꾸며,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감홍로는 감악산 머루주나 파주탁주에 전주면 파주에 입성한 신출내기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홍로의 역사는 머루주나 탁주에 전줄 바가 아니다.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홍로가 새로운 고장에 서 뿌리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황희 정승의 술

파주에 성 권릉집 말고 술맛 좋았던 집안이 또 있다. 황희(1363~1452) 정승 집안이다. 황희 정승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파주의 반구정(鴈亭)에 머물렀다. 반구정은 임진강가에 세워진 정자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황희 정승이 지은 시조 중에 술맛 나는 시조가 있다.

대추 불 붉은 꿀에 밤은 어이 들들으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나리르고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황희 정승을 주당의 반열에 올려줄 만한 멋진 시조다. 의미를 새겨보면 이렇다. “대추 알 붉은 꿀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를 벤 그루터기에 논게는 어찌 내려오는가,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할까.” 풍요롭고 느긋한 가을날의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희 정승의 후손으로 파주에 살고 있는 황의록 씨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시조를 지었던 공간이 반구정 부근이 아니었겠냐고 추정했다. 시조 속에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 시조에 대한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지만, 교하 들판을 지나 파주 반구정에 오르면 이 시조가 떠오른다.

황의록 씨는 예전에는 집집마다 농주를 빚고 제주도 빚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음력 2월 8일에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사당에서 황희 정승의 기제사를 지내고, 음력 2월 10일 황희 정승의 생신에 반구정에서 차례상을 차리지만 특별히 제주를 빚어 올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황희 정승 집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술로는 황희 정승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 문경에 터를 잡은 황규옥 씨 집에서 빚는 호산춘이 있다. 문경 호산춘으로 알려진 이 술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황희 정승이 맛본 술 같지는 않고, 후대에 가문의 명성과 함께 가양주(家釀酒)로 터잡은 술로 여겨진다.

양조장이 없었던 조선시대에 술은 집이나 주막에 빚어졌다. 파주는 조선시대 제1로(路)인 의주로가 지나는 길목이라 군데군데 주막이 자리하고 있었다. 광탄면 신산3리 속칭 신탄막 또는 새술막마을이 주막거리였다. 그리고 문산읍 선유4리에서 적성



황희 정승이 노닐었던
반구정

으로 향하는 길목의 임진 나루를 불과 2km 정도 앞둔 곳이 나루를 건너는 사람들이 모이던 주막거리였고, 파주시 파평면 장마루 부근이 주막거리였다. 판문점이라는 이름도 주막에서 유래되었다. 휴전 회담에 참석하는 중공군 대표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 당시 회담 장소 부근에 널빤지로 만든 문이 있던 널문리 주막을 한자로 적은 것이 판문점(板門店)이다. 널문리는 한양과 개성을 오가던 길손들이 술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던 주막거리였다.

옛 사람의 말에 한 고을의 정치는 술에서 보고, 한 집의 일은 양념 맛에서 본다고 했다. 대개 이 두 가지가 좋으면 그밖의 일은 자연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파주 시민들의 현대사와 함께한 파주탁주, 파주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한 머루 재배와 머루주, 파주에 새로 입주한 감홍로, 그리고 파주에 살았던 선인들의 술 이야기가 함께 넘실거리는 곳이 파주다. 예나 지금이나 파주의 술은 파주 사람만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길과 길을,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조직

오창현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마을 풍경

어느 지역이나 마을 풍경의 변화는 주변의 산을 통해 느끼게 된다. 서울 도심에는 1970년대 이전에 이미 연탄이 보급되었고, 파주와 같은 도심 외곽의 농촌에는 1973년경에나 연탄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이전에 찍은 사진에는 땀감 채취로 예외 없이 험벗은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황폐한 느낌을 줄 정도다.

산림의 황폐는 자주 홍수로 이어지고, 각 마을에서는 수로水路를 내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풍수상 비보裨補를 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교하읍 오도리는 공릉천변에 있으며 일제 시기에 대대적인 개간 작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마을 안쪽에는 내관 신분의 대지주가 거주하였고 그 뒤쪽의 작은 산이 중고봉中高峰이며 그뒤가 장명산이다. 마을 주민들은 산 밑 내관집이 참계 딱지에 해당하고 왼쪽과 오른쪽 양쪽이 엄지 집계발 모양이어서 참계가 두 발로 재물을 모아 쌓는 형국이 내관집이라는 풍수적인 해설을 한다. 동막이 사업을 벌인 후 축동나무를 심은 예는 교하읍 하지석리에서도 볼 수 있다.



탄현면 오금리 전경

1945년경 문산농업학교 교복을 입고 친구와 함께 찍은 구본승 씨(1929년생).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오금리 농경지와 산이 내려다보인다. 구본승 씨는 탄현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였고, 1976~1978년까지 탄현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오금리에는 일제 시기에 50만 평 농지를 운영한 일본 삼정三井 회사가 있었는데, 해방되기 7년 전에 만우리로 이전하였고 면사무소, 지소, 양조장 등도 축현리로 옮기면서 축현리가 탄현의 중심지가 되었다



교하읍 당하리 전경

1961년경 바지저고리를 입은 오명열 씨(1931년생)가 향나무 앞에서 당하리의 마을 전경을 뒤로 하고 찍은 사진으로 마을 집들이 모두 초가다



광탄면 신산리 전경

1960년대 후반 신산리 가운뎃말 전경으로 초가집 뒤로 험뎃은 산이 보인다



문산읍 당동리 전경

1971년경 당동2리 마을 입구에서 성면식(우측) 등 동네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으로 당시의 마을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성면성 씨(1936년생)가 제공하였다

파주 지역에서도 특히 임진강 일대에는 6·25전쟁 때 장단 등 가까운 이북 지역에서 잠시 피난 나왔다가 귀향하지 못하고 5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온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이 많다. 적성면 식현2리에 사는 평산 신씨 신호철 씨(80세)는 고향이 장단군 진동면 초리 춘야동으로 6·25전쟁 당시 피난을 나왔다가 그대로 식현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식현리 외에도 장마루, 금파리, 덕천리 등에 장

단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특히 장파리에 제일 많이 산다.

식현리는 1리와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리는 하동 정씨 집성촌이고, 2리는 신호철 씨가 피난을 나왔을 당시 30호 정도가 살았다. 피난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7~8가구 정도가 더 늘었고 수복 이후로 꽤 들어차서 2리에만 100여 호 넘게 산다고 하였다.

문산천과 임진강이 만나는 포구 일대는 의주대로와 가깝고 포구 교통의 이용



교하읍 오도리 전경

1992년에 찍은 오도리 마을 전경인데, 한가운데에서 있는 소나무가 축동 築桐나무라고 하여 마을 동독을 쌓은 다음 풍수상의 비보로 심은 것이다

이 가능하며 소규모 개간 사업으로 경작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 옛 파주목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파주를 대표하는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파주읍과 문산읍, 그리고 탄현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포리, 금승리, 능산리, 봉암리, 향양리, 당동리, 사목리, 율곡리 등이다. 특히 월릉면의 오봉산은 사족들이 묘역으로 선호하여 동북, 남동, 그리고 남서 방향으로 삼분하여 산 중턱에 각 성씨들의 선영이 조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자손들이 세거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교하 지역은 대개가 저지대여서 마을 조성 시기로만 보면 다른 곳보다 늦다. 그러나 대규모 개간으로 조선 후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말기의 대대적인 개간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한 곳이다. 개간 방식 중에는 굽은 강줄기를 펴서 새로운 물길을 내고 그 결과로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을 농지로 개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로 인해 마을 앞에 새로운 강줄기가 생겨 불편해진 농토 출입을 위해 강 건너로 집단 이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교하 노씨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들은 원래 교하읍 범흥리가 본거지였는데 일제 시기에 벌어진 이러한 지형 변경으로 강 건너 송촌리로 이주하였다.

마을 대동회

마을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은 지역에 따라 마을회의, 마을회, 동회洞會, 이중계里中契, 대동회大同會, 대동계大同契, 동계洞契, 추봉秋捧 등 여러 명칭이 있다. 이중 추봉은 과거 조선 시기에 면리제面里制로 세금을 걷던 제도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칭은 달라도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회의는 과거의 추봉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탄면 신산5리의 마을회도 그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마을에서 정한 정관定款은 다음과 같다.

○광탄면 신산5리 마을회 정관

제1조 본회는 광탄면 신산5리 마을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주사업 사무소는 신산5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3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신산5리 주민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목적은 신산5리 마을 발전과 더불어 주민 간의 화합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본회의 사업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시 사업 계획 및 결의에 의한다.

제6조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리장 1인, 새마을지도자 1인, 감사 2인, 총무 1인, 개발위원 6인

제7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통제 및 임원과 협의하여 지출 결재한다. 단, 공적인 소액 지출은 임원과 협의 없이도 지출 결재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는 리장을 보좌하고 리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며 연말 총회 시 감사 보고한다.

총무는 회무를 담당하고 재정을 관리 지출한다.

개발위원은 마을의 발전과 주민 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단, 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선출은 추천으로 하고 무기명 투표로 최다 투표자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본회는 임원회, 임시총회, 연말총회로 구분한다.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연말총회는 매년 12월 끝주 일요일에 한다.

제11조 신산5리에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입주 세대는 입주금 명목으로 〇〇원을 납입한다.

제12조 본회를 운영하다 재정 부족 시 상황에 따라 리세를 각출할 수 있다.

제13조 마을기금 대출은 1인 보증으로 일백만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은 2인 이상 보증으로 오백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율은 연 8%로 정하고 연말 결산총회 전에 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4조 적십자 회비와 주민세 등 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성금은 마을기금에서 지출하며 군 장정비는 오만 원으로 정한다.

제15조 리장의 수고비는 년 〇〇원으로 정한다.

제16조 총무의 수고비는 년 〇〇원으로 정한다.

제17조 본회의 재정 관리는 마을 명의 통장에 보관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18조 본회의 회칙은 2004. 5. 2.부로 시행하며 매년 연말총회 시 수정 보완한다.

제1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습에 준한다.

정관 제13조와 같이 마을 조직에서는 마을기금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넣는데,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한 규정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자금 사정을 위해 사채보다 이자율을 낮추어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위 정관은 후자에 해당한다.

다음은 마을회 결산총회 서류인데, 이를 통해 마을회 운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결산총회 서류(2007년 12월 30일)

수입 내역

일자	내역	금액
2007	전년도 이월액	22,322,286
1. 3.	전진오 리 세입금(2006년도)	50,000
	공채 만기(94. 10. 28.~99. 10. 28.) 상하수도	20,000
2. 15.	방민현 리세 입금(2006년도)	50,000
2. 26.	척사대회 수입-지출	2,952,210
4. 12.	공채 만기(96. 8. 27.~01. 8. 27.) 상하수도	20,000
6. 24.	예금 이자	1,068
6. 30.	예금 이자	6,857
7. 27.	전병배 모친 장례	1,121,500
11. 8.	대출이자 1,000,000(6. 17.~11. 18.) 154일	33,750
11. 17.	정기예금 이자	172,538
11. 26.	폐비닐 수거 수입액	67,100
12. 10.	대출금 이자 5,000,000(2.14~12.10) 299일	330,000
12. 11.	리세(38명)	1,140,000
12. 17.	송철호 모친 장례	1,280,000
12. 24.	대출이자 5,000,000(1. 8.~12. 24.) 350일	383,561
	대출이자 4,000,000(2. 7.~12. 24.) 320일	280,547
	전년도 이월 금액 : 22,322,286원	
	07년도 순수입 금액 : 7,909,131원	
	총계	30,231,417

지출 내역

일자	내역	금액
07. 1. 2.	2006년 복사비	16,000
1. 3.	전 부녀회장 퇴임(금1돈)	88,000
2. 2.	적십자 회비	170,000
3. 20.	국기봉	7,300
3. 5.	척사대회 외부 찬조	820,000
3. 23.	전진호 군입대	50,000
4. 2.	파주시 체육대회 부담금	500,000
4. 26.	칠죽(100주)	150,000
5. 8.	관광(부여) 지출(3,070,112)-수입(1,690,000)	1,380,112
5. 14.	국기대(스텐 교체)	80,000
6. 7.	방역비	200,000
6. 22.	애플선 교체	100,000
7. 19.	복놀이 지출(1,302,480)-수입(930,000)	372,480
9. 17.	예초기 날	75,000
	도로변 풀깎기 간식대	31,710
	언덕 정비(포크레인)	200,000
11. 27.	이장 해외견학	100,000
	폐비닐 수거 시 새마을지도자 식대	100,000
12. 3.	관광(아산 온천) 지출(2,538,969)-수입(1,610,000)	928,969
	상수도(1~11월)	30,370
	전기료(1~11월)	295,400
12. 24.	이장, 총무 수고비	1,500,000
	총계	7,195,341

주요 행사 수입 · 지출 내역

행사 내용(일자)	수입(찬조)	지출	잔액(순수입 · 순지출)
척사대회 (07. 02. 25.)	동네 찬조 : 3,230,000 외부 찬조 : 2,120,000 표 판매금 : 296,000 1등 찬조 : 100,000 소계 : 5,746,000	음식대 외 : 1,007,220 상품대 : 812,850 사은품 : 753,720 영남(쌀) : 220,000 소계 : 2,793,790	순수입액 2,952,210
관광 부여-인천 (07. 05. 05.)	동네 찬조 : 1,640,000 외부 찬조 : 50,000 소계 : 1,690,000	동네 준비 : 524,112 현지 지출 : 1,796,000 버스(안내) : 750,000 소계 : 3,070,112	순지출 -1,380,112

행사 내용(일자)	수입(찬조)	지출	잔액(순수입·순지출)
북놀이 (07. 07. 15.)	마을 경로회 : 500,000 마을 부녀회 : 200,000 외부 찬조 : 230,000 소계 : 930,000	음식 외 : 822,480 개(60근) : 480,000 소계 : 1,302,480	순지출 -372,480
관광 영남-(현대)온천 (07. 12. 03.)	동네 찬조 : 1,210,000 외부 찬조 : 400,000 소계 : 1,610,000	동네 준비 : 898,969 현지 지출 : 1,010,000 버스(안내) : 630,000 소계 : 2,538,969	순지출 -928,969
계	9,976,000	9,705,351	270,649

문산읍 당동2리 당골은 도당굿이 행해졌던 마을로 유명하다. 2006년 마을회관 준공 때 마을회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을회 규칙을 만들었다. 마을회 규칙은 다음과 같다.

○문산읍 당동2리 마을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산읍 당동2리 마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당동2리 마을 회원의 화합과 단결, 마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문산읍 당동2리 423번지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당동2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상실)

1.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였을 때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회는 마을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행사
2. 회원 상호간의 경조, 상조 행사
3.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개발위원회) 마을회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1. 마을 각종 사업 구상을 위한 회의
2. 마을회 중요한 사업 결정 의결
3. 마을 이장 선출에 관한 사전 조율
4. 개발위원 〇명을 둔다.
5. 위원장은 이장이 겸직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제9조(임원 선임) 본회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 재무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잔여 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개발위원회는 수시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말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3조(총회 의결 사항)

1. 회칙 개정
2. 이장 선출
3. 임원 선출
4. 개발위원 선출
5. 기타 중요 사항 토의

제14조(의결 방법) 본회에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본 회의 회칙은 2007. 00. 00.부터 시행한다.

유학계

마을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황은 마을에 상궐이 났을 때다. 주검에 대한 처리는 해당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성원이면 누구나 성의를 다한다. 그런데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차별로 상민이 양반 상여를 뺏어도 반대로 양반은 상민의 상여를 메지 않았다. 즉, 상호간의 호혜가 원활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사였다. 이러한 반상 차별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마을 조직의 하나가 ‘유학계’다. 유학계의 유학은 ‘유학_{幼學}’으로, 또는 ‘유학_{儒學}’으로 표기되는데,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탄현면 금산리에서는 전자로, 교하읍 동패리에서는 후자로 표기한 것이 그 예다.

파주읍 봉암3리에도 유학계가 있어서 상주들이 낸 돈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유학계에서는 상이 날 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상여 수리 등에 지출하였다. 원래는 유학계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장이 함께 관리를 한다.

탄현면 금산리는 두레 농악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은 해방 이후 창녕 성씨와 타성들이 각각 별도의 상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유학계_{幼學契}라고 불렀다. 이 마을은 유학계 외에도 1958년에 조직한 정미소 조합계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금산 농업협동조합_{錦山農業協同組合}’이다.

유학계는 따로 입회비는 받지 않았고 초상이 나면 일손을 서로 돕고 쌀 한 식대, 즉 한 뒷박을 가져갔다. 회다지 때 나오는 돈은 그대로 유학계 기금으로 돌



금산 농업협동 조합원
명부 및 금전출납부

려 기금으로 마련했다. 이 돈은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물품이나 상여 등을 구입하고 수리하는 데 썼다.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결산 보고를 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새로 이사 온 주민의 가입 여부도 결정하였다. 현재 기금은 500만 원 정도 되고 회원은 25명이다.

유학계를 운영하는 직책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부총무 3인, 감사 22명으로 계원 모두가 직책을 맡고 있다. 유학계가

확보하고 있는 유물 명록은 다음과 같다.

스텐레스 양푼	40개	가래	3개
주전자	大 5개	곡괭이	6개
주전자	小 2개	삽	5개
평식기	50개	개량 곡괭이	2개
스텐레스 접시	500개	야전삽	1개
대접	350개	천막지	30마
쟁반	10개	상여	일절
우유통	4개	곡괭이	2개
밥통	2개	도끼	1개
막걸리잔	80개	소방 호스	1개
소주잔	100개	반하	2개
수저	150개	양은술	2개
평풍	1개	스텐레스 평식기	50개
천막	5개	삽	5개

탄현면 오금리에서도 과거 상여를 메는 사람과 부리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난 후 유학계가 만들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동원되어 다 같이 상여를 메게 되었다. 유학계는 마을 사람 전원이 가입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가마를 메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이들은 가마를 메주는 땃가로 돈을 받았다. 오금리에는 대동계도 있었는데, 마을 주민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친목계와 같은 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즉 오금리 대동계는 ‘큰일이 있을 때 돈이든 쌀이든 같이 쓰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했다고 한다.

상포계

교하읍 송촌리에는 친분 있는 마을 사람들끼리 쌀 한 가마씩 태워주는 상포계도 따로 있었지만 마을 전원이 대동으로 가입하는 상포계가 있어 상이 나면 모두 와서 도와주었다. 상여는 같은 집안사람들끼리 메다가 대동으로 합쳐졌다. 예전에 집안사람들끼리 메던 계를 친족계라고 불렀다. 박 씨의 경우는 호수가 적어서 호수 적은 집안들끼리 모여서 친목계를 조직했었다. 그러나 기씨, 노씨, 이씨 등 토박이 성씨들은 호수가 많아서 같은 집안끼리 뭉 수 있었다.

계 모임은 통문통문을 이용하여 알린다. 송촌리는 9개 마을과 신촌리 일부가 같이 계를 조직하였다. 통문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 위에 표시하여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한다. 부조는 마을 사람 전부가 술 한 동이, 묵 한모, 국수 등 종류별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한장되 쌀을 가져간다. 한장되라는 것은 ‘한 되 반량’의 되를 말한다.

파평면 울곡1리에는 유사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1970년대까지 유지되다가 없어졌다. 유사계 계원들은 상이 나면 쌀을 모아서 서로 태워주었다.

마을 공동재산

광탄면 용미1리에는 마을 재산으로 공동 상여와 이를 보관하는 상여독이 있다. 상여는 동네 사람 중 멜 만한 사람이면 아무나 맨다. 상여 멜 때 나오는 돈을 모아 마을 자금으로 적립한다. 저금통장은 석 달마다 동네 총회에 보고한다. 기금은 마을 공동비용으로 쓴다. 예컨대 공동 수도를 팔 때 280만 원을 썼다. 상여를 수리하거나 새로 장만할 때도 비용을 쓴다. 이곳에도 마을 규약이 있다. 부녀회에서는 엿공장을 운영하여 마을기금을 마련한다. 이것으로 체력 단련실도 만들고 마을 정자,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의 시설도 마련하였다.

용미2리도 마찬가지로 마을 소유의 공동 상여가 있다. 마을회관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상여를 멜 때 나오는 돈은 부인회와 노인회에 일정액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부락 기금으로 쓰고 있다. 이곳에도 또한 마을 규약이 있다.

파평면 율곡리의 마을 공동 물품은 상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 상이 났을 때 상주로부터 받은 돈을 마을 공동자금으로 활용하였다. 마을 공동재산으로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1987년에 건립하였다. 건물을 지을 때 약 800만 원 정도 정부 돈을 지원받았고, 땅은 농협 땅을 임대받아서 지었다. 따로 농협에 도지를 내지는 않는다.

새마을운동

김혜진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용미4리는 마을 제사인 진대고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봉 이씨 이영복 씨(1937년생)의 일기가 수집된 마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을 민속 조사와 함께 1980년대 이장을 보면서 이영복 씨가 기록한 일기 내용에서 읽어낼 수 있는 새마을운동과 이장으로서의 임무, 개인의 농업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용미4리 마을 개관

용미4리는 영모통이, 진따배기[陣地洞], 달구니 등 세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다. 용미4리의 거주 호수는 해방 전후에 약 80호 정도였고, 1978년 마을로 이입하여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을 당시 100여 호 정도였으며, 현재는 180호가 거주하고 있다.

용미4리에는 파평 윤씨, 한양 조씨, 밀양 박씨가 대성으로 해방 이후 80호 중 파평 윤씨는 15호 정도였다. 이영복 씨 일가가 마을에 거주하게 된 것은 이영복 씨 할아버지 대부터로 일산 원당 근처에서 살다가 마을로 들어왔다. 이영복 씨는 우봉 이씨 참판공파로, 이주 이후 할아버지 산소부터 용미리에 쓰고 있다. 마을에서 우봉 이씨는 이영복 씨택 한 집뿐이다.

용미4리 새마을운동의 전말

이영복 씨는 마을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1962년까지 군생활을 하였다. 이후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9년부터 광릉 임업시험장과 서울 본장에서 근무 생활을 마치고 1978년 고향으로 왔다. 이후 1979년부터

터 4년간 이장을 보았고, 이어 새마을지도자 3년을 지내고 1986년 다시 이장을 1년 보았다. 그후부터는 계속 새마을지도자 일을 맡아서 1986년에는 광탄면 이장단 회장, 1997년에는 파주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까지 역임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력 때문에 그의 일기에서는 1980년대의 새마을사업과 이장으로 추진한 마을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활발히 추진되고 1980년대에는 주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용미4리의 경우 이영복 씨가 1970년대 후반에 마을로 들어와 1980년대에 이장으로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새마을사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집된 일기는 1974~1975년과 1980~1987년에 걸쳐 있지만, 이중 주로 1980~1981년의 2년간 일기 내용을 참고하였다.

치도^{치도} 사업

이영복 씨가 이장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업은 치도 사업이다. 이영복 씨는 “남들은 돈 받아서 길 닦는 것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나는 일 년에 두 번을 했다”고 하면서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하였다. 1979년 마을 일을 시작했을 때도 치도 사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장을 하면서 길의 확장과 포장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치도 사업 중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80. 11. 28.~81. 3.)과 5개 마을 공동으로 특공연대 들어가는 길을 놓은 것이다. 전자에서는 당시 마을 내에서 치도 사업을 할 때의 기술 정도와 인력 동원 방식 그리고 어려움 등이 후자에서는 몇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의 어려움과 마을 사업과의 차이점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부락 진입로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들어오는 길로 거리가 600m 정도였다. 이 길이 비포장도로라서 포장을 한다고 했더니, 면에서 300m를 작업할 시멘트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을회의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왕 할 거 600m 다 깔아야지 하다가 마느냐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600m를 전부 포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시멘트는 국가 무상 지원이었지만 마을에서도 10% 정도는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모래, 자갈 등은 동네에서 직접 마련해야 해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하천에서 경운기로 모래와 자갈을 퍼와야 했다. 가을 농사 끝나고 자갈을 퍼서 도로변 남의 밭에다가 쌓아두었다. 그런데 봄이 되자 밭주인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자

갈을 치워달라고 야단이었다. 그래서 면장을 찾아가 600m 도로를 확장·포장할 수 있는 시멘트를 지원해 주지 않아, 자갈을 치우지 못하면 부락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면장에게 군수를 마을로 한 번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마을을 방문한 군수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300m 추가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때 600m를 모두 포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1980년 겨울과 1981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고, 1980년에는 170m, 1981년에 530m를 작업하여 끝마칠 수 있었다. 일기에는 1981년도 사업 결산보고가 적혀 있는데, 도로포장 연장 530m, 정부 지원 268만 3000원, 자부담 100만 원, 기타 노동력 동원 700만 원 등이 그것이다.

지금은 업자에게 의뢰하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레미콘도 있어서 쉽게 시멘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부녀자들이 시멘트를 직접 발동기에 붓고 기계를 “탕탕탕” 돌려서 반복한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 했다. 시멘트를 개는 발동기는 마을 돈을 주고 업자에게 임대하였다. 그때는 기술이 미숙해서 모래와 자갈을 기계에 넣다가 ‘다라’가 깨지고, 경운기를 끌고 오다 다리가 걸리거나 경운기가 쓰러져서 다치는 수도 있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이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도 해주어야 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모래와 자갈은 마을의 하천에서 가지고 왔다. 동네 지리를 다 알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자갈은 어디가 많고 모래는 어디에 있는 것을 펴오면 된다고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 하루 날을 잡아서 집집마다 경운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다 같이 가서 펴왔다. 마을 경운기가 모두 동원되어 울리는 “탕탕탕” 소리는 정말 대단했었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는 약 100여 호가 있었는데, 이중 경운기가 있는 집은 30호 정도였다. 결국, 경운기를 마을 일을 하는 데 빌려주는 것이었지만 마을 차원에서의 보상은 없었다. 이영복 씨는 이는 봉사 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기름 값도 본인 부담이었다고 하였다. 모래와 자갈을 공급할 때, 경운기 운전은 남자들이 했지만 모래를 퍼담는 것은 여자들이 했다.

출역은 먼저 회의를 하고 작업 날짜를 정한 뒤, 당일 아침 이장이 모이라는 방송을 하면 한 가구당 한 명씩 나오는 것이 기준이었다. 작업에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남은 작업은 안 나온 사람을 불러다가 하고, 그래도 못 끝마치면 또다시 나와야 했다. 이영복 씨는 출역을 공평하게 배분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안 나오면 그 이튿날 다시 불러서 작업을 해야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만 나올 것을 이장은 사나흘씩 나와야

했다. 일기에서는 “부역 노동은 부인들이 열심히 나와 일한다”는 구절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부역 노동에서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노동력 없는 노인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부역 노동을 할 때 식사와 식사 사이에 국수·막걸리 등 간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성의껏 내라고 했다. 일기에도 “새마을사업에 부족되는 자산을 메우기 위하여 미출력과 각 공장으로 다니면서 찬조 형식으로 받기 위해 부락 몇 분과 같이 다녔다. 그런대로 성과가 있어 다소 찬조를 받기로 했다(81. 4. 3.)”는 내용이 있다.

치도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토지 희사^{喜捨}였다. 도로를 개설하든지 확장하든지 땅이 들어가야 했는데, 지금이야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 그때는 보상 없이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그래서 이 경우 이장이 찾아다니며 설득을 해야 했다. 이영복 씨는 “십사일반 양보해서 합시다”, “경운기가 들어가면 당신들도 농사짓기 편하지 않느냐”, “부락에서 다 같이 내놓는데 당신도 협조를 해야지”, “길이 나면 땅값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완곡하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당신 땅을 빼고 길을 닦아놓을 테니, 그 길은 다니지도 말라”고 협박도 하면서 동의를 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개는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땅값이 별로 안 비싸서 땅을 내놓더라도 길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고,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길을 내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이영복 씨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치도 사업은 1982년도에 마을 위쪽으로 1.5km 올라간 곳에 위치한 특공연대로 들어가는 길을 개설한 것이다. 마을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4000만 원을 주고 길을 닦으라고 했다. 알고 보니, 군부대가 들어서기 전에 길을 내야 하는데 국방부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무부 예산을 사용해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닦으려는 것이었다. 당시 시에서는 전술도로를 닦아 피난을 나갈 때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0만 원이었는데 정부에서 한 개 마을에 1000만 원 밖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개 마을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전체 예산은 45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도 500만 원이 필요하여 용미3·4리, 영장리, 마정3·4리 5개 마을이 참여하여 협동 사업을 하였다. 새마을사업을 하려면 각 마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합의를 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면에서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불러서 회의를 열어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을에서

는 주민들이 도장을 찍는 대가로 무엇이라도 주기를 바라서 어려웠다.

교량 가설 및 공동화장실 설치

1980년 일기에 처음 등장하는 새마을사업은 교량 가설이다. 당시 설치한 교량은 세 개로 이중 하나는 철교였다. 철교의 자재는 새마을사업용 철근을 수급하였다. 시멘트 500포대를 받아 교량과 철교, 공동변소를 설치하고도 시멘트가 남았다(80. 7. 8.). 당시 놓은 교량은 '모테다리'와 '본말다리'로 각각 김복진과 조정배 두 사람이 일을 맡아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다. 당시 가설한 교량은 교주를 세우지 않는 조그마한 다리였다. 교량을 놓기 전에는 돌다리(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장마가 지면 다리를 걷어올리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용변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1980년 3월 15일 일기에서는 "100여 호 되는 마을 주민들의 화장실이 없어 내가 결국 주관했다"고 사업 추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기 가설

1980년 새마을사업 중 문제가 있었던 사업 중 하나는 전기가설이다. 1974년 일기를 보면, 당시 용미4리의 중심 마을인 진지동에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달구니에는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어두운 초롱불(74. 11. 15.)'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달구니의 전기가설 사업은 이영복 씨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분수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여 이미 어느 정도 진척된 사업이었다. 전기가설 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달구니 마을까지 호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이때 분수리와 타 마을에서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달구니를 제외시키고 자기 마을에만 전기를 놓으려고 하였다. 달구니까지 전기가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왜 제외시키느냐며 따졌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자부담으로 전기를 놓아야 했다. 당시 달구니 거주 호수가 7호였는데 한 집에 8만 원씩 들여 전기를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80년 9월 28일 전주 공사를 하고 10월 17일 전기가 개통되었다.

지붕개량

1980~1981년 일기에는 지붕개량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슬레이트를 구입하고(80. 6. 26.), 지붕개량 용자금을 갚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80. 12. 16.).

이영복 씨는 1978년 7월에 고향으로 와서 1979~1980년경 지붕개량을 하였다. 이 주했을 당시 마을에서는 지붕개량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지붕개량은 마을 사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가구에 자금이 없으면 지붕개량을 하기 가 어려웠다. 돈이 없는 가구의 경우, 농협에서 저리 용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나 기와로 했는데, 기와가 좀 더 비싼 자재였다. 1980년 6월 26일 일기에는 당시의 슬레이트 구입 가격이 나와 있는데, 창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슬레이트 2장의 구입 총액은 6000원으로 한 장에 3000원이었다. 슬레이트는 공동 구입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구입하였다.

지붕개량은 주민들이 선호했던 사업이었다. 매년 짚으로 이영을 엮어서 지붕을 이어야 하는 귀찮은 일과 품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남은 벼짚을 가축 먹이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음령고개 우물파기 사업 및 학교 턱 낮추기 사업

1981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는 '시험령(해음령) 고개 우물파기와 학교 턱 낮추기 사업이 있다. 해음령고개는 현 서서울 골프장 올라오는 고개를 말하는데, 이 고개 마루터기에는 전부터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과 관련하여,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붙들려 간 여자들이 정조를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음부를 씻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우물 사업의 목적은 산꼭대기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해음령고개가 변화하지만 예전에는 동떨어져 있었고, 또한 지금보다 몇 미터가 더 높았다고 한다.

학교가 있던 고개의 이름은 군웅고개이다. 1981년 12월 14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7일부터 3일간 주민들이 출역하여 작업하였다. 겨울철이라 “추운 데 사업한다고 덜덜 떨면서 불을 피워놓고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학교 턱 낮추기 사업은 학교 정문과 높이가 같은 고개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낮추는 사업을 한 것이다.

퇴비 사업

1980~1981년까지의 일기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퇴비 독려와 퇴비증산 대회이다. 퇴비 독려는 마을 공동퇴비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퇴비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1981년 7~8월에 걸쳐 산업계장 등이 마을을 방문하고 이장인 이영복 씨도 퇴비를 독려했지만, 주민들이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면에서 풀깎기 대회를 한다고 각 부락 2명씩 차출되는데 우리 부락에서는 비가 온다고 다들 가지 않는(80.7.22)’ 일도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 퇴비를 독려한 이유는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농작물이 잘될 뿐만 아니라, 풀을 깎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면 모기가 적어지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는 이미 비료가 공급되었지만 아직 귀할 때여서 퇴비를 뿌리면 전답에도 도움이 되고, 주위의 환경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탓에 근면성이 길러지는 등 이점이 많았다. 하지만 농사일도 바쁘고 퇴비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야단맛을까 봐 형식적으로 해놓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우수 새마을부락’ 지정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한 결과, 용미4리는 1981년에 ‘우수 새마을부락’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관계 부처, 즉 내무부와 다른 마을에서 견학(81. 7. 4.)을 온다고 하여, 마을에서는 손님맞이를 위해 도로 주변의 풀을 깎고(80. 7. 1., 8. 19.), 부락 안길에 코스모스를 심는(81. 7. 4.) 등 마을 정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81년 5월 16일 일기에는, “새마을사업 해놓은 것이 군과 도에서 우수 새마을부락으로 뽑히여 내무부에서 견학을 온다는 계획이 있어 더욱 잘 정비해 놓아야 했다. 진대도 오늘 잘해 세우고 고사도 지냈”으며 같은 날 ‘포장도로 주위 정리 작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기에서 실제 견학이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없으며, 이영복 씨도 견학을 온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우수 새마을부락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 지원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새마을지도자 정신

이영복 씨는 4년간 이장 생활을 하고 이후에도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 일에 가담하면서, “저 넘어 큰 부락(진파배기)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영복 씨는 새마을지도자 정신으로 설명한다.

이영복 씨는 새마을지도자는 우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맡아도 사업을 안 맡으면 되지만, 이영복 씨는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을 하면 농사는 밀리고 개인에게는 손해였다. 마을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 농사일이 쫓기자 이영복 씨는, “면사무소에서는 대통령 하사금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새마을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 바쁜 때 어떻게 새마을사업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공연히 원망스럽기만 하다(80. 10. 14.)”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을 일을 했던 이유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개인 일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영복 씨는 1980년 3월 18일 일기에서 교량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오늘이 7일, 이제는 입술이 타고 고달푸(프)기만 하다. 새마을사업은 정말 희생정신(희생정신) 없이는 안(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고생은 되어도 해놓고 나니 보람은 있다. 이 보람을 바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1980년 4월 7일 일기에는 “부락 이장을 보기란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되는 노릇이다. 그래도 모든 귀찮을 들어야 한다” 적기도 했다.

이영복 씨는 마을 일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지만 자기 생업에만 매달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며 다 자기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하였다.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일은 개인적인 성취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문중과 제사

이상균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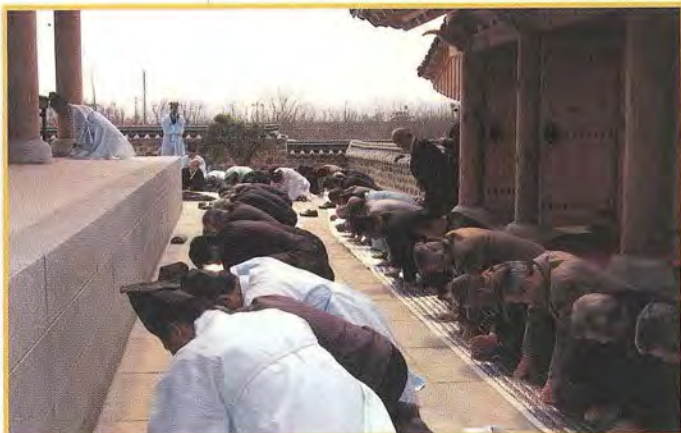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이르면 향촌사회의 지배세력 대부분은 부계 혈연에 바탕을 둔 문중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 시기에 있었던 지배층들의 이거移居와 입향入鄕에 따른 것으로, 이후로는 향촌사회 내에서의 분가分家와 분기分岐 현상으로 이어진다. 지리적 인연에 근거를 둔 문중 조직의 형성은 바로 이 입향조入鄕祖의 입향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문중 조직의 정점 또는 구심점은 부조不祧의 묘廟, 즉 사대봉사四代奉祀 이후 계속 기제사로 모시는 조상이거나 아니면 입향조의 묘墓가 된다.

부계 친족이 문중으로 조직화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기제사, 또는 묘제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곧 그 결합 범위가 기제사 단위인 당내堂內, 즉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종법宗法상으로는 소종의 대중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부단히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소종의 경우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인 조직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나아가 문중 조직의 형성은 곧 문중계門中契의 출현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일 년에 한번, 또는 그 이상 갖게 되는 제사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문중 재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파주를 대표하는 주요 성씨 중에서 문중 조직을 통해 파주 관내

에서 세일제歲一祭, 즉 시제를 행하는 몇 집안을 사례로 파주 지역 성씨들의 문중 활동을 들여다보았다.

교하읍 일대 파평 윤씨 문중



2008년 파평 윤씨
한식 절사 1



2008년 파평 윤씨
한식 절사 2

파평 윤씨의 내력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글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다. 중시조中始祖인 5세 윤관尹瓘이 고려 중엽의 인물이어서 분파가 일찍 시작되어 파주 내에서만 여러 파가 존재한다. 교하읍에는 당하리·와동리·야당리·연다산리에, 문산읍에는 윤천리·선유리·마정리에, 적성면에는 식현리 등 파주 곳곳에 윤씨 문중이 분포되어 있다.

이중 14세 승례承禮의 후손들이 번창하였는데, 이를 판도공파版圖公派라고 한다. 윤승례의 아들 중 3남 변藩은 교하에 입향한 이후 그 후손들이 많아져 이들을 정정공파貞靖公派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3남 양평公襄平公 사흔士昕의 후손이 주를 이루어 양평공파가 교하 지역 파평 윤씨를 대표한다. 이 집안에는 아직도 문중 운영 방식과 그 성격을 일러주는 많은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에는 묘역墓域 관리와 추수기秋收記

등 묘전墓田 경영에 관한 것도 있다.

중가에서 지키는 절사節祀는 동지, 한식, 유두, 중양으로 이중 문중 성원들이

모여 지내는 제사는 중앙절이었으나 한식으로 옮겼다고 한다. 10월 묘제, 즉 시제 때 산신제사는 없다고 하며 일일이 묘를 찾아 제를 올리면 아침에 시작해도 달밤에 끝날 정도였다. 그러나 재실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포함되면서 새로 지은 재실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어졌다.



2008년 파평 윤씨
한식 절사 3

탄현면 금승리, 문산읍 사목리의 장수 황씨 문중

파주의 장수 황씨는 사목리와 금승리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방촌 황희(黃喜, 1363~1452) 사후 받은 사방(四方) 십 리(十里) 규모의 사패지(賜牌地)를 터전으로 삼았다. 황희와 3남 수신의 묘가 있는 금승리와 광탄면에 1남 호안공(胡安公) 치신(致身, 1397~1484)의 차남 사장(事長)의 후손들이 누대를 살고 있는데, 이들을 호안공파라고 하고, 사목(里)에 사는 2남 보신(保身)의 후손들을 소운공파라고 한다. 금승리에 있는 재실 이름은 원모재(遠慕齋)다.

종중 땅 관리를 위해 일제 말기 때 '장수 황씨 묘하대종중회(長水黃氏墓下大宗中會)'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2003년도에 제정된 종중 회칙(宗中會則) 중 1장 총칙과 2장 회원만 소개한다.

○장수 황씨 묘하대종중회칙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장수 황씨 묘하대종중이라 칭한다.

2조(목적) 본회는 장수 황씨 중 방촌 선조의 장파 후손으로서 승조의 이념 하에 선조의 업적을 추모하며 종중의 번영과 종친 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의

유산을 영구히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92번지 소재 원모재에 둔다.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 묘소의 수호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봉제사에 관한 사업
3. 선조의 업적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
4. 종중 재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5. 종중의 변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6.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2장 회원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장수 황씨 중 방촌 선조의 후손으로서 금승리 묘하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자(세대주)와 그 8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생업을 위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세대주)로 한다.

6조(입회원의 제출) 본회의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8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회칙,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목리에는 방촌 황희의 영정影幀을 모신 '방촌 선생 영당'이 있어서 매년 음력 2월 10일과 음력 8월 8일로 날을 정하여 유림 향사를 지내고, 영당 옆 부조묘不祧廟에서 후손들이 불천위 제사를 지낸다.

문산을 내포리 창녕 성씨 문중

파주의 창녕 성씨는
이헌(怡軒) 성여완(成汝完
(1309~1397)의 세 아들
이 각기 파조를 이루
는데, 그중 2남 석용(石
瑤)의 회곡공파(檜谷公派)
와 3남 석연(石琰)의 상
곡공파(桑谷公派)가 파주
에 근거를 두었으며,
특히 상곡공파 후손들
이 파주에 많아 문산
읍 내포리와 당동리,

파평면 울곡리 등에 거주하며 문중을 형
성하였다. 문산을 내포4리 안골마을에
는 상곡공파 선영 묘역과 재실이 있으며
30여 호를 이루었고, 문산읍 당동2리 널
다리마을에는 상곡공파 중 진일재공(眞逸
齋公) 성간(成侃)(1427~1456)의 후손20여 호가
산다. 울곡2리 빙곡동마을에는 우계 성
훈의 후손들 11호가 산다.

사진은 2008년 11월 2일(음력 10월 5
일)에 있었던 창녕 성씨 문중 시제다. 용
재 성현의 사당은 없고 재실을 새로 지었다. 음력 8월 중에 날을 잡아 별초하며,
바로 전에 문중회의를 한다.



2008년 창녕 성씨
문중 시제 1



2008년 창녕 성씨
문중 시제 2

월릉면 도내리 청송 심씨 공숙공파 문중



청송 심씨 공숙공파
종가와 마을 전경



청송 심씨 공숙공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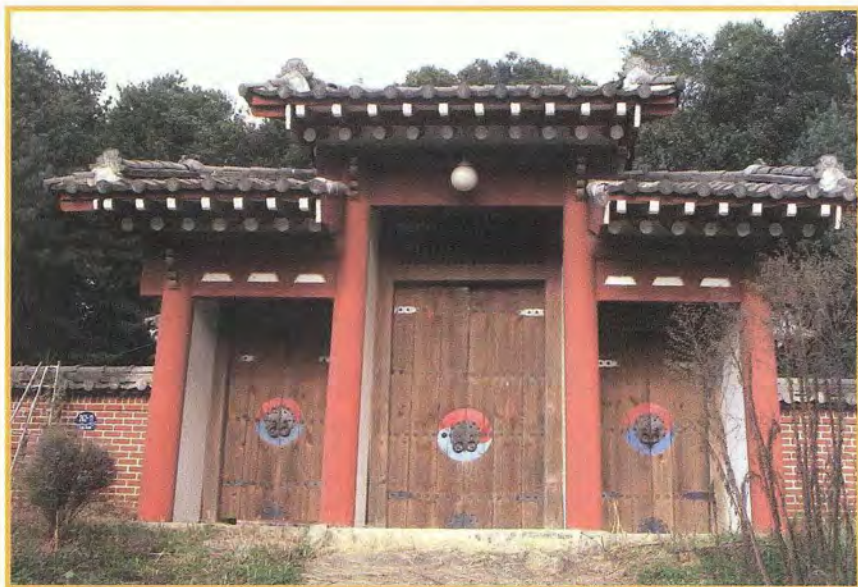


2008년 청송 심씨
추석 절사 중 산신제

파주의 청송 심씨는 월릉면 도내리와 광탄면 신산리 등에 분포한다. 월릉면 도내1리에서 영태리로 가는 길목에 청송 심씨 선산이 있고 그곳에 공숙공(恭肅公 회유(1418~1493))의 신도비와 청송 심씨 분묘들이 들어서 있다. 원래는 광탄면 마장리 올리동에 있었는데, 1504년에 폐비 윤씨의 일로 묘의 석물을 모두 철거하게 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공숙공 회는 안효공 심온의 둘째 아들이다. 심회의 현손 종원(宗元)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순후(純祐)와 셋째 용(龍)의 자손들이 월릉면 도내1리와 2리에 70여 호를 이루고 산다.

공숙공에 대한 제사는 불천위 제사로 음력 1월 11일에, 배위는 5월 10일에 별묘에서 지낸다. 절사(節祀)는 정월에는 종가에서 차례를 지낸 후 별묘(別廟)에 인사만 하고, 단오 때는 지내지 않으며 한식과 추석 때는 묘 앞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음력 10월 보름을 전후하여 시제를 지낸다. 공숙공 절사가 끝난 후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그의 유모(乳母)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특이하다. 제물은 육적(쇠고기), 어적(북어), 소적(두부) 등 삼적을 쓰고 느름적을 큰 전으로, 갈랍을 작은 전으로 찬줄에 놓는다. 과줄은 조율(이시)梨栗梨柿 순으로 놓는다.

월릉면 도내리 전주 이씨 임언군파 문중



임언군 별묘

도내1리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는 정종의 8남인 임언군 林堰君(字 祿生)을 파시조로 하는 임언군파와 자손들이다. 이들은 원래 장단 진동면 초리 내창동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다가 6.25전쟁으로 20가구가 함께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다. 전쟁 전에 도내리에는 조상 묘소만 있어서 묘지기를 두고 관리하다가 시제 때만 제사를 위해 오던 곳이라고 한다.

임언군 사우(祠宇)는 임언군 묘 하단 우측에 있는데 1633년(인조 11) 3월 임인일(壬寅日)에 지은 것이다. 1929년 3월 23일에 부평 문중과 장단 문중이 종종 회의를 통해 각 문중별로 소요 자금을 각출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2750원이 모금되어 사우를 중수하였다. 이때 잔여금이 있어 종종산 임목을 벌목하여 매각한 대금을 합쳐 그 다음 해인 1930년



임언군 신주



2008년 함안 조씨 시제 1



2008년 함안 조씨 시제 2

에 초가 한옥으로 약 10평 크기의 묘사
墓舍를 신축하였고, 1969년 3월에 현재
의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1980년 5월 18
일에 이사진을 구성하여 묘역 정화사업
을 벌였다. 1994년 3월 15일에는 승모재
崇慕齋를 건립하고 그해 10월 9일 낙성식
을 가졌다.

시제는 음력 10월 10일에 지내왔는
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10월
음력 첫 주 일요일에 지내기로 하였다.
종중 위토는 임야 4만 평, 논 5000평, 밭
3000평이다. 일제 시기에 연명으로 소
유권 등기를 하였다가 40년 전에 종중
법인 명의로 돌려놓았다. 현재 종중 간
부는 회장, 총무(각 15개 파 임원 40명),
이사, 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는 시
제를 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기 때
문에 그 때 재실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최근 임언군 시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수는 매년 50~60명 정도다.

월릉면 능산리 함안 조씨 문중

파주의 함안 조씨는 참판공파로 능산리1리 아가피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아가피마을은 당산리棠山里로 표기한다. 1960년대에 함안 조씨가 50호 중 30호
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37호 중 18호를 이룬다. 아가피 중턱에는 조씨의 분사墳
寺, 즉 문중절이 있고 그 아래에 재실이 있다. 함안 조씨는 파주읍 연풍3리에도

여러 집 있다. 참판공파 조순趙舜의 손자 조감趙堪(1530~1586)은 휴암 백인걸에게 학문을 배웠고 그의 사위가 되면서 이곳 조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1995년 현재 중중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유사 1인, 이사 6인, 감사 2인이다. 다음은 1995년도에 있었던 문중 자료로 당시 지불한 시제 비용 내역이다.

월일	품명	수량	금액	누계
11. 24.	청육	70근	805,000	
	어물	10개	273,000	
	명태	5근	20,000	
	돼지고기	12마리	17,500	
	닭		66,500	1,238,000
	중식	10갑	22,000	
	담배	8개	10,000	
	부탄가스		4,000	
	숙채		3,000	
	택시	1개	14,000	
	물통	3되	3,000	
	술, 참쌀	3되	60,000	
	술, 멧쌀		40,500	
	술, 약	6병	15,000	1,695,500
	밀술		6,000	
	술, 노임		50,000	
	마이크		150,000	
	주전자, 쟁반		136,000	
11. 26.	가래떡, 쌀	6되		
	밥, 쌀	4되	135,000	90,000
	우기, 쌀	4되	5,400	2,000
	인절미, 찹쌀	4되	90,000	100,000
	두부, 콩	2되	50,000	8,000
	녹두	3식되	15,000	3,000
	팥	1*	3,000	
	LPG	2통	20,000	
	플라스틱 그릇	350개	10,000	
	소계		318,400	203,000
	누계			521,400
	수고료, 쌀	5섬[畝]	675,000	
	총 누계		1,196,400	

월릉면 능산리 강릉 김씨 문중



2008년 강릉 김씨 시제

파주의 강릉 김씨가 사는 곳은 문산을 내포1리, 월릉면 능산리, 파평면 두포리 등지다. 감무공監務公 김윤남金允南(1361년생)이 조선 개국 후 파주 오리꽃면 장포리로 들어왔는데, 이곳이 그를 파시조로 하는 감무공파 강릉 김씨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 국사봉 남쪽의 내포리와 능산리 일대다. 개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묘터를 잡으라는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현재 능산리에는 후손들이 2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포1리에는 45

호 이상이 살다가 대부분 외지로 나갔다. 적성면 두포리 밤고지마을에도 한때 30여 호 이상의 강릉 김씨 집성촌이 있었으나 지금은 6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집안에는 각기 1726년과 1788년에 당시의 4개 군 지역 유림儒林들이 대거 참여하여 작성한 등장等狀 문서가 있는데, 30세 김성중金聖重(1665~1728)과 31세 김규金渠(1699~1739)에게 효자 정려를 내려달라는 소장訴狀이다.

제물 차림은 제사자 위주로 서쪽을 높여 조율이시, 서두동미, 좌포우혜, 외탕 내적, 4적 3탕으로 진설하되 과일은 짝수로, 동물은 홀수로 놓는다. 시제일은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로 정했으며, 시조인 한림공翰林公 김굉圖의 제사는 강릉에서 4월 20일에 지낸다.

월릉면 덕은리 수원 백씨 문중

휴암休菴 백인길白仁傑을 파시조로 하는 파주의 수원 백씨 문경공파文敬公派는 파주읍 부곡1리 가마울에서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예전에는 35호가 있었으나

지금은 15호가 살고 있다. 곡산 부사를 지낸 휴암의 증손 홍일弘一(1603~1684) 때 분파하여 곡산부사공파가 생겼다. 종가는 월릉면 덕은3리에 있다.

2004년에 곡산부사공파 문중에서는 백홍일 이하 24세 조상의 시향제를 재실에서 봉행하도록 결의하였다. 곡산공파 종중 재산은 임야 6만 평, 전답 1200평 정도가 있었는데 500평은 길이 나면서 토지보상 받았고, 700평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500평 토지보상을 받고 나서 재실, 신도비, 치산治山 비용으로 썼다. 종중이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나 지출은 시제 때 100만 원 정도, 재산세가 연간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2004년 정비된 수원 백씨 묘역

파주읍 봉암리 거창 신씨 문중

거창 신씨가 파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송제공松濟公 신자건愼自建(1443~1527)에 의해서다. 그는 64세 때인 1506년에 벼슬을 사임한 후 뗏목을 타고 한강 하류인 십악산 아래로 내려와 살 만한 곳을 가려 정했다고 한다. 그곳이 그의 묘와 재실이 있는 교하읍 산남리 고산굴 마을이다. 예전에는 40여 호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으나 지금은 약 10여 호만 남았다. 파주읍 봉암리에는 15세 동추공同樞公 신선경先庚의 후손들이 산다. 그외에도 금촌2동 금능동, 문산읍 운천리, 파주읍 백석5리 등에 분포되어 있다.

봉암리 입향 계기는 동추공의 손자인 교위공校尉公 신극효愼克孝가 외가가 사는 이곳으로 오면서부터다. 그의 손자인 19세 낙금당樂琴堂 신제현愼齊賢은 용주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봉암리에는 낙금당의 묘와 재실 봉암재縫岩齋가 있다. 문중

재산은 위토 전답 6000평, 임야 6만 평 정도가 있었는데 산림에 대한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와 2000년에 4만 평을 매각하여 치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기록을 담은 헌성비(獻誠碑) 내용이다.

○헌성비(獻誠碑)

이곳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산 71번지 임야 1만 2000평의 월룡산은 거창 신씨 종중 소유 종산으로, 17세조이신 교위공(校尉公)(휘諱 국효(克孝))을 위시하여 누대 선영을 모신 세장지(世葬地)이다.

후손들은 선조의 음덕을 경모하여 정성을 모아 묘역을 치산하고 묘하 부지 230평에 한옥 목조 와가(瓦家) 30평을 신축하고, 적벽돌 담장에 사모문(思慕門) 12평을 세워 봉암재(巖齋)라 현판(懸板)하였다. 서기 2000년 9월 30일 착공하여 2001년 4월 30일 상량(上梁)하고 2002년 10월 27일 준공하니, 건축비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성동고가건축사가 축조하였다.

이 재실을 축성함에 있어 착공에서 준공까지 성심껏 봉사하여 주신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승조의 성금을 헌납하신 종현의 명단을 이 비에 새기노니 후손들이 승조 정신(崇祖精神)의 귀감(龜鑑)이 되기를 바라노라.

서기 2000년 8월

거창 신씨 덕용종중(居昌愼氏德容宗中) 건립

봉암3리 거창 신씨 세장지



덕용종중이란 낙금당의 둘째 아들인 20세 신덕용(愼德容)에서 분파된 소종중을 말한다. 재실을 건축하면서 봉암리 덕용종중 하위 문중에서 돈을 헌납하였는데, 파주 문중에서 1억 1000만 원, 해주 문중과 동추공파 종친회에서 각각 2000만 원, 수원 종중에서 100만 원을 희사하였다. 6·25전쟁 전까지 종중의 위토는 묘

지기를 두고 관리하였다. 위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덕용 묘감치'와 '극효 묘감치'로 각각의 묘지기를 두었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 소작 얻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위토 소작을 얻고자 하는 종중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묘지기를 없애고 종중원이 돌아가면서 직접 위답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광탄면 신산리 전주 이씨 문중

전주 이씨 참의공파參議公派는 중시조인 성종成宗 4남 완원군完原君의 8세손 이한웅李漢雄을 파시조로 한다. 후손들은 배양동培養洞 분토곡分吐谷에 참의공 부자를 선황당先皇堂에 모시고 묘소를 수호해 왔다고 하는데, 위토가 부족해지자 자손들의 성금과 월릉면 덕은리 임야와 밭을 처분하여 위답 2000여 평을 마련하고 그간 궐사闕祀하던 선조까지 시향時享을 받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1984년 음력 10월 10일 시향 때 있었던 문중회의 종계자료로 제시된 결산내역이다.

갑오년甲午年 시향시時享時 종계宗契

연월일	내역	수입	지출	잔액
1984년	1983년도 시향시 이월금	15,500		15,500
	대지 임대료 조○재(80근)	24,200		39,700
	대지 임대료 이○몽(30근)	9,620		49,320
	83년 김○만씨택 백미(1섬)	56,500		105,820
7. 5.	종중 구비 서류대		6,800	99,020
	종중 측량 시 경계 표시 페인트대		3,000	96,020
7. 20.	중군공 할아버지 묘비 문대		40,000	56,020
6. 7.	종중산 임대료(서울 태형)	1,000,000		1,056,020
	일백만 원 이자	50,000		1,106,020
	종중산 임대료(서울 태형)	500,000		1,606,020

· 총 수입금 1,655,820원 · 지출 금액 49,800원 · 남은 금액 1,606,020원

갑자년甲子年 10월 10일 시향시時享時

종중 회장 이○○ / 감사 이○○ / 감사 이○○

적성면 식현리 하동 정씨 문중

적성면 식현리의 식현食峴은 우리말로 밥재라고 한다. 이곳의 하동 정씨 문성 공파는 16세기 중반에 학역재學易齋 정인지鄭麟趾(1396~1478)의 현손인 14세 정기문鄭起門(1520년생)이 1571년에 입향하면서 집성촌을 구성하였다. 일대의 5개 마을이 이 집안의 밥을 먹고 살아서 밥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원래 살던 터전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데다가 종전 후에는 군부대가 들어와 그 아래로 주거지를 옮겨 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규약을 만들어 풍족한 문중 재산을 장학과 경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밥재 판서동 종중判書洞宗中 규약規約 중 일부

제1조(명칭) 본 종중은 하동 정씨 판서동 종중(河東鄭氏밥재判書洞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사무소는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54-1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은 선조를 숭배하고 종족의 융화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경영한다.

1. 종중 재산의 관리와 조성
2. 시제의 거행
3. 종족의 융화와 단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 ① 본 종중의 회원은 증贈 영의정領議政(기문)공의 후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종중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으로서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 및 부정 행위가 있을 시는 총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정수)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2인
4. 이사 10인
5. 고문 약간 명

- 종략 -

제14조(자산의 구성) 본 종중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종중에 속한 동산과 부동산
2. 사업의 수입
3. 본 종중에 속한 동산과 부동산의 소득
4. 종원의 거출 금품
5. 기타 수입

제15조(자산의 종류) 본 종중의 자산은 기본 자산과 부동 자산으로 하고 기본 자산은 이것을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 자산이란 자산 목록 중 기본 자산으로 기재된(전, 답, 임야, 건물) 및 이사회에서 기본 자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자산을 말한다.

제16조(자산의 관리) ① 본 종중의 자산은 회장 및 총무가 관리한다. 그 관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종중 자산의 잠식, 감축을 초래한 종원은 물론 직계 존비속 형제까지 발언권 및 의결권을 박탈한다.

제17조(경비 지출) 본 종중의 경비는 보통 자산에서 지급한다.

제18조(현금의 보관) 자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그 관리는 회장과 총무가 장부에 기록 정리하고 총회 때 결산 보고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자산에 편입시키든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0조(문서 및 장부) 다음과 같은 문서 및 장부를 비치한다.

1. 회계장부
2. 종원 명단 및 임원 명단
3. 회의록
4. 재산 목록
5. 금전 출납부
6. 기타 필요 증빙 자료

제22조(부칙) ① 본 종중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본 종중의 회칙은 서기 2001년 음력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2001, 11, 2.

교하 동패리 진주 류씨 문중

교하 동패리 진주 류씨는 17세기 중반경 호은壺隱 유동량柳棟梁(1620~1687)의 입향 이후 정착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동량은 소북파 집안으로 인조반정 이후 벼슬길이 막혀 파주로 들어왔고, 이후 후손들이 보막이 등 선진 농업의 시행을 통해 기반을 잡아나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아래쪽 논을 가로질러 저수貯水할 수 있는 보를 쌓았는데, 이를 문중보門中湫라고 불렀다. 1979~1980년까지 경지 정리를 하면서 문중보는 무용한 시설이 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진주 류씨 문중보

마을 성씨 조사표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세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문산읍	운천1리 대덕골	파주 염씨 坡州廉氏	1 (3)	동정공파	홍방 (1304~1382)	수동 (23대조, 1899~1968)	문산읍 당동리	10월 17일
	운천1리 대덕골	파평 윤씨 坡平尹氏	11 (16)	소정공파	곤	석후碩厚 (9대조)	문산읍 당동리	10월 4일
	운천1리 대덕골	김해 김씨 金海金氏	5 (9)	도종공파		18대조	문산읍 운천4리	10월 4일
	운천4리 대덕골	교동 인씨 喬桐印氏	12 (22)	통훈공파	성국	성국(16대조)	문산읍 장산2리 산91-5호	10월 7~15일
	이천2리 지내울	창녕 조씨 昌寧 曹氏	4 (10)	감무공파 만호공파	창한 昌漢	유인由仁(17대조) (1370~1434)	파주읍 봉암3리	10월 1일
	문산리	풍양 조씨 豐壤趙氏	5 (50)	언양공파	면沔	면沔(11대조)	진동면 초리	10월 15~17일
	문산4리	여흥 민씨 驪興閔氏	10 (50)	문도공파	민재	역(6대조)	법원읍 웅담리	양력 11월 둘째 일요일
	내포1리 장포	강릉 김씨 江陵金氏	9 (45)	장포공파 長浦公派	행行 (1532~1588)	윤남允南 (20대조, ?~1361)	문산읍 내포1리 24-10	10월 15~17일
	내포2리 오목동	광주 안씨 廣州安氏	6 (15)	사간공파 思簡公派	성省 (1352~1421)	시윤 (10대조, 1614~1661)	문산읍 내포2리 산12번지	10월 2~9일
	내포4리 안골	창녕 성씨 昌寧成氏	15 (30)	상곡공파 桑谷公派	엄掩 (1375~1434)	엄조念祖 (19대조, 1398~1450)	문산읍 내포리 안골산	음력 10월 5일
	당동2리 널다리	창녕 성씨 昌寧成氏	20 (40)	상곡공파 진일제공파	성석연	성간 (19대조, 1427~1456)	내포리	10월 5~13일
	선유리	안동 김씨 安東金氏	30 (60)	칠정문중파 七井門中派	토산공 삼로	겸謙		
	선유리 독서	파평 윤씨 坡平尹氏	7 (20)	판도공파 정정공파	승례	성만(10대조)	문산읍 선유리	10월 둘째 일요일
	선유4리	부평 이씨 富平李氏	7 (15)	통덕공파 세구파	세구世龜 (戊寅~丙寅)	홍원(21대조, 임술壬戌~병인丙寅)	문산읍 선유4리 새능	10월 2~3일
	사목1, 2, 3리	장수 황씨 長水黃氏	46 (60)	소윤공파	보신保身	희흠 (1363~1452)	탄현면 금승리	10월 5일
파주읍	부곡1리 가마울	수원 백씨 水原白氏	15 (35)	문경공파	인걸仁傑 (1497~1579)	인걸(16대조)	양주 남면 효촌리	10월 1일
	백석리 우건	남평 문씨 南平文氏	20 (35)	순질공파		희원希元(10대조)	파주리 미아동에 있다 가 실전됨. 열녀문에 단을 모셔 제사 지냄.	양력 11월 셋째 일요일
	백석리	교하 노씨 交河盧氏	1 (150)	창성군파	한뫼 (1376~1443)	한 (1376~1443)	백석4리 산54-3	9월 마지막 일요일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파주읍	백석5리 봉서리	영월 신씨 寧越辛氏	8 (15)	부원군파	온蘊	태동泰東(12대조)	문산읍 이천리 산95-23	양력 11월 첫째 일요일
	파주6리 오가돈	진주 류씨 晉州柳氏	15 (20)	이판공파	차달車達(46世)	지선之善(5대조)	법원면 금곡리	10월 1~17일
	봉서1~4리 검은돌	고성 이씨 固城李氏	15 (70)	사암공파 思菴公派	사암공 지堦 (1420~1486)	채塚 (11대조, 1558~1624)	봉서리	10월 13일
	봉암3리	거창 신씨 居昌愼氏	15	동추공파	선경先庚	자건自建	교하읍 산남리	
	봉암4리 새마을	김해 김씨 金海金氏	8 (12)	석성공파	희민希敏	희민(12대조)	파주읍 봉암리 선산	10월 1~15일
	봉암4리 새말	단양 장씨 丹陽張氏	5 (10)	청계공파 淸溪公派	하夏	령齡 (12대조, 1700~1750)	파주읍 봉암4리	10월 10일
	봉암5리	신평 호씨 新平曺氏	20 (20)	병사공파 兵使公派	종국從國 (1352~1418)	천상天祥 (11대조, 1605~1675)	봉서4리	양력 11월 셋째 일요일
법원읍	갈곡리 침울	경주 최씨 慶州崔氏	6 (15)	화숙공파 和肅公派 금위공파 禁衛公派 유검파 有儉派	유검有儉	시립始立 (20대조, 1550~1603)	법원읍 오현리 산62번지	10월 셋째 일요일
	갈곡리 침울	여흥 이씨 驪州李氏	8 (15)	상서공파 尙書公派 여흥공파 여흥공파 효자공파 孝子公派 덕원공파 德源公派	고阜 (1339~1420)	추鍾 (13대조, 1533~?)	법원읍 갈곡리 산28번지	10월 15일
	웅담리 곰시	의령 남씨 宜寧南氏	12 (12)	노성공파		덕훈德訓(9대조)	웅담1리 남산	양력 11월 8일
	대능1리	정선 전씨 旌善全氏	40 (80)	임하군파 臨河君派	선宣 (700~755)	수복壽福 (12대조, 1636~1687)	법원읍 법원리 44번지	10월 15일
	직천리 설원	고성 이씨 固城李氏	5 (12)	사암공파 思菴公派	사암공 지堦	양철良喆(고조부)	법원읍 직천리 산11번지	10월 초
	법원리 초리동	단양 우씨 丹陽禹氏	12 (35)	정평공파	우인열 (1337~1403)	7대조 (1835~1865)	문산면 내포리 당륜 낙원 우능	
	법원리 삼성동	사천 목씨 泗川睦氏	11 (11)	괴산공파	철경哲慶 (1440~1471)	성중 (1701~1786)	장단군(이북)	10월 15일
	가야2리 샘재	광주 노씨 光州盧氏	18 (35)	이천공파	수의守誼	한문漢文 (13대조, 1506~1544)	법원읍 동문1리 못말 산	양력 11월 둘째 일요일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郷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법원읍	금곡리 샘말, 님말, 웃말	평산 신씨 平山申氏	35 (50)	사간공파	신호	신민일申敏一 (1576~1650)	금곡리	10월 1일
	동문리	전주 이씨 全州李氏	18 (50)	덕천군파 신종군파 학성군파	후생厚生	11대조	광탄면 발랑리	10월 8~10일
교하읍	와동리 당하리 야당리	파평 윤씨 坡平尹氏	200 (600)	정정공파 貞靖公派	번璠 (1384~1448)	번璠(19대조)	교하읍 당하리 산4	10월 3~13일
	송촌리 아랫마을	밀양 박씨 密陽朴氏	6 (21)	밀성대군파 언침파彦忱派	언침彦忱 (919~979)	증휘增輝 (11대조, 1626~1672)	금촌면 야동리 산39-1	10월 1~14일
	신촌리	양천 허씨 陽川許氏	40 (70)	교위공파	추鍾	물慄(10대조)	장단군 대강면 우건리	9월 마지막 일요일
	하지석리 큰마을	전주 이씨 全州李氏	7 (15)	봉안군파	사공공	5대조	교하읍 하지석리 산5-2	10월 4일 ~11월 10일
	하지석리 썩은밤	이기계 유씨 杞溪俞氏	2 (3)	진사공파	대숙大淑 (1526~1581)	병덕炳德(14대조)	탄현면 금승리 산45	10월 12일
	하지석리 썩은밤이	창녕 조씨 昌寧曹氏	3 (7)	병사공파 兵使公派	대곤대坤 (1400년대)	병연秉淵 (3대조, 1900년대)	교하읍 하지석리 54번지	10월 11일
	연다산리 연다피마을	경주 정씨 慶州鄭氏	1 (1)	제안공파 齊安公派	효상孝常 (1430~1481)	명조 (1920~1985)	연다산1리	10월 첫째 일요일
	연다산리	파평 윤씨 坡平尹氏	7 (수십)	판서공파 判書公派	리莅		고양시 송산면	11월 첫째 일요일
	연다산리 연다피마을	인동 장씨 仁同張氏	2 (5)	태상경공파	백	5대조	연다산리 신촌리 산52	
	연다산리 황금들마을	파평 윤씨 坡平尹氏	6 (15)	판서공파	리莅	주임周任 (12대조)	다율리 산12번지	10월 둘째 일요일 10월 1일
	연다산리 거문동	전주 이씨 全州李氏	11 (16)	해안군파 海安君派	해안海安 (1511~1573)	정우廷宇 (9대조, 1700~1748)	맥금동 산16번지	10월 13~15일
	문발리	경주 이씨 慶州李氏	50 (70)	국당공파 菊堂公派	거명居明	언灣(29세- 병자호란 때 입향)	교하읍 산남리 심학산	10월 첫째 일요일
	송촌리 감골마을	행주 기씨 幸州奇氏	40 (60)	정지공파 廷芝公派	중수공仲修公 (?~1317)	정지廷芝 (16대조, 1461~?)	교하읍 다율리 산104-1	10월 13~16일
	송촌리	전의 이씨 全義李氏	11 (30)	웅공파 熊公派	도焯	웅熊 (17대조, 1472~1532)	교하읍 목동리 산26번지	10월 8일
	송촌리 새터골마을	교하 노씨 交河盧氏	15 (80)	공숙공파	한闢 (1376~1443)	신길 (12대조, 1500~1550)	금촌읍 맥금동 동리 산50	10월 15일
	송촌리 샘말마을	순창 조씨 淳昌趙氏	3 (12)	승지공파 承旨公派	이려爾呂 (1642~1693)	헌겸憲謙 (5대조, 1762~1816)	교하읍 송촌리 산67	10월 11~13일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교하읍	오도1리 큰마을	개성 내씨 開城乃氏	10 (15)	선략장군파	장호章浩	득균得均(10대조)	교하읍 오도1리 선산 묘역	10월 15일
	동패2, 3리 양지	창원 황씨 昌原黃氏	20 (80)	이창군파 義昌君派	림琳 (1517~1597)	서澈(12대)	광탄면 용미리 31번지	10월 12~15일
	동패3리 밤골	문화 류씨 文化柳氏	15 (3)	검한성공파 檢漢城公派	원현元顯(13세)	시화時華[13대조, 1564(명종19) 갑자생]	동패리	10월 초
	동패3리 서패리 송골 묵동리	문화 류씨 文化柳氏	10 (2)	좌상공파 左相公派	만수曼殊(13세)	원영元永 (4대조, 1882~1927)	동패리 가좌동	10월 3~15일
	동패4리 두일	진주 류씨 晉州柳氏	31 (74)	시윤공파 호은공파	호은公壺隱公 동량棟梁	동량棟梁 (10대조, 1620~1687)	교하읍 동패리 두일동	10월 8일
조리읍	산남리 고산골	거창 신씨 居昌愼氏	10 (40)	백파伯派 (참판공파)	기幾 (?~1493)	자건自建(1443~1527) 1506년에 입향	교하읍 산남리 산41	양력 4월 둘째 일요일
	축현1리 맹골	한양 조씨 漢陽趙氏	3 (3)	양절공파 현주공파	찬찬	조부(2대조)	축현리 산121	10월 3일
	오산리	상주 박씨 尙州朴氏	1 (1)	정절공파 貞節公派	광우光優(14대조)	린璘(15대조)	오산리에서 청주로 이장	10월 1~5일
	대원리	교하 노씨 交河盧氏	1	창성군파 공숙공파	노한盧閑 (1376~1443)	노한(20대조)	파주읍 백석4리	9월 마지막 일요일
	대원리	흥해 배씨 興海裨氏	50 (40)	지평공파 참봉공파 배태보파	전詮 (1311~1361)	용택龍澤	고양시 사리현동 산51번지	10월 15일
	등원리	전주 이씨 全州李氏	20 (30)	해안군파	이환	윤조(11대조)	뇌조리 산5번지	양력 11월 마지막 일요일
	등원리	경주 김씨 慶州金氏	10 (20)	계림군파	계림군	수근(13대조)	조리읍 등원리 옹록골	10월 10일
	뇌조리 선여울	연안 이씨 延安李氏	20 (30)	삼척공파	말沫	말沫 (17대조, 1400년대)	뇌조리	10월 15일
	뇌조1리 조산組山	배천 조씨 白川趙氏	10 (10)	숙의공파		조완벽(7대조)	조리읍 뇌조리 산42	10월 10일
	뇌조3리 고창마을	함열 남궁씨 咸悅南宮氏	4 (8)	모현파	원정 (991)			10월 14~15일
	능안1리	남평 문씨 南平文氏	10 (15)	강성군파	문다성文多省	5대조	조리읍 능안리 산186	
	장곡2리 늘미	여산 송씨 礪山宋氏	18 (37)	충정공파	거신居信	익저翼寧(21대조)	광탄면 신산리 산19	양력 11월 첫째 일요일
	장곡3리	청주 한씨 淸州韓氏	14	문열공파			장단군 진서면 금능리	10월 초하루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세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월롱면	덕은4리 덕고개	밀양 박씨 密陽朴氏	10 (31)	도사공파	정원楨元 (1541~1616)	정원(14대조)	덕은4리 산109번지	10월 2일
	농산리 아가씨	함안 조씨 咸安趙氏	20 (40)	참판공파	순舜 (1465~1556)	감堪 (13대조, 1550~1586)	농산리 아가씨 산31-1	10월 첫째 일요일
	농산리	강릉 김씨 江陵金氏	26 (45)	감무공파	윤남允南 (?~1361)	윤남	문산읍 내포리 산24	10월 첫째 일요일
	도내리	청송 심씨 靑松沈氏	46 (100)	공숙공파	희澮 (1418~1493)	종淙	월롱면 영태리 산34	10월 15일
	위전리	청주 사씨 靑州史氏	49 (60)	파주파	사요	사요(25대조) 600여 년 전	월롱면 위전리	10월 첫째 일요일
	영태리 도내리	창녕 조씨 昌寧曹氏	14 (20)	병사공파	대곤大坤	조광원曹光遠 (1492~1573)	월롱면 도내리	10월 6일
탄현면	갈현리	정주 최씨 慶州崔氏	5 (10)	화숙공파 和肅公派		4대조		
	갈현리	밀양 박씨 密陽朴氏	5 (7)	공랑공파			갈현리	
	낙하리	안동 권씨 安東權氏	13 (30)	추밀공파		10대조	연천군(납골묘)	10월 3일
	문지리	문화 유씨 文化柳氏	10 (13)	좌상공파	차달	3대조	탄현면 낙하리	10월 1~11일
	성동리 큰마을	김해 김씨 金海金氏	16 (25)	경파	영서	수승壽承 (12대조)	탄현면 범흥리 155-2	10월 10일
	범흥3리	평산 신씨 平山申氏	10 (15)	풍천공파 豐川公派	경리景檣	경리景檣 (10대조)	검산동 산92-3	10월 10일
	오금리	영광 김씨 靈光金氏	13 (50)	경파	윤형胤亨(11世)	울(14대조)	오금리 신선산	10월 첫째 일요일
	오금리	진주 강씨 晉州姜氏	5 (6)	통계공파	희중	19대	벽제면 관산리	10월
	오금2리	밀양 박씨 密陽朴氏	44 (80)	규정공파	현鉉 (1253~1340)	사오당四五堂 희瞻(1571~1651)	장흥면 일영리	양력 10월 3일
	오금리 오목마을	능성 구씨 綾城具氏	3 (7)	도원 수공파	구존유購存裕	경운敬云 (27대조, 1875~1944)	탄현면 금산리 산56	10월 둘째 일요일
	축현리 상골	순흥 안씨 順興安氏	5 (5)	찬성공파 贊成公派	경曙	시건時健	탄현면 범흥3리 산50	10월 5~7일
	축현1리 현덕마을	정주 이씨 慶州李氏	7 (30)	백사파	이항복	경선(6대조)	탄현면 축현리 태봉	10월 30일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탄현면	축현1리 배나무골	경주 김씨 慶州金氏	5 (5)	제림군파	균桓	길상吉商(5대조)	탄현면 금승리 열무니	
	축현1리 맹골(맹동)	한양 조씨 漢陽趙氏	3 (3)	현주공파	찬한 (1572~1631)		축현리 산121	10월 3일
	만우리 은계, 양지마을	단양 우씨 丹陽禹氏	29 (70)	정평공파 靖平公派	인열仁烈 (1337~1403)	식湜 (9대조, 1632~1666)	만우리 보현산 시금동	10월 1~10일
	대동리	연안 차씨 延安車氏	10 (40)	창주공파		덕천(7대조)	탄현 금산1리 산 22	
	대동리	창녕 조씨 昌寧 曹氏	3 (10)	지중추공파	지경之敬 (1395~1492)	원봉元鳳 (19대-지경의 부친)	탄현면 대동리	10월 15일
	금산1,2리 사잡동樹洞=새재비	창녕 조씨 昌寧曹氏	36 (60)	지중추공파	지경之敬	흥원興遠(11대조)	탄현면 금산리	10월 15일
	금승리 쇠파리	장수 황씨 長水黃氏	11	호안공파	치신致身	희禧 (1363~1452)	금승리	10월 3일
광탄면	방축1리 검정리마을	여흥 민씨 驪興閔氏	10 (20)	위양공파		14대조	방축리	10월 10일
	신산1,2리 동골이, 양수원마을	단양 우씨 丹陽禹氏	10 (20)	안정공파			양주군 백석면	10월 10일
	신산5리 외화산마을	전주 이씨 全州李氏	9 (10)	성종파 원원군파(大) 창의공파(小)	한필(8世)			10월 첫째 일요일
	영장리 대고령마을	경주 정씨 慶州鄭氏	11 (30)	충장공파 석성공파			고양시 뒷박고개	
	용미1리 양짓말마을	밀양 박씨 密陽朴氏	12 (15)	청제공파		청제공의 장남 (8대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4월 5일 9월 9일
	용미2리 옥계동마을	대구 서씨 大邱徐氏	5 (11)	도의공파	미성	15대조	광탄면 신산1리 시궁굴산	10월 1~16일
	용미4리 진파배기	한안 조씨 咸安趙氏	12 (20)	참관공파	감堪 (1530~1586)	5대조(능산리에서 130여 년 전에 분가함)	용미리 공원묘지 (납골묘)	양력 10월 첫째 일요일
	용미4리 진파배기	평산 신씨 平山申氏	10 (10)	정언공파	효 (시조의 14세손)	9대조(고양시 목암리에서 들어옴)	용미4리	10월 3일
	창만리 송라동 소래울	죽산 안씨 竹山安氏	5 (19)	송암공파 松巖公派	종수宗洙 (1758~1811)	여징汝澄 (11대조, 1567~1611)	광탄면 창만리 산82-2	10월 4일 후 첫째 일요일
	창만리 두만이마을	밀양 박씨 密陽朴氏	16 (30)	사문진사공파		만영	황해도 황주 (창만리에 부인묘만 있음)	10월 11일
	창만리 송라동 소래울	죽산 안씨 竹山安氏	5 (19)	송암공파 松巖公派	종수宗洙 (1758~1811)	여징汝澄 (11대조, 1567~1611)	광탄면 창만리 산82-2	10월 4일 후 첫째 일요일
	창만리 두만이마을	밀양 박씨 密陽朴氏	16 (30)	사문진사공파		만영	황해도 황주 (창만리에 부인묘만 있음)	10월 11일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파평면	율곡2리 빙곡동	창녕 성씨 昌寧成氏	11 (17)	상곡공파 桑谷公派	석인 (1377~1414)	세순世純 (16대조, 1463~1514)	파주읍 향양3리 안능 안6-3	10월 1~12일
	금파1리 새마을	전주 이씨 全州李氏	39 (102)	담양군파 潭陽君派	거 (1553~1577)	명필命弼 (담양군의 7세손)	파평면 금파리 능안산 26-1	10월 1일
	두포리 밤고지	강릉 김씨 江陵金氏	6 (30)	한림공파 모암공파 파주파 (병사공파)	덕승 (1373~1448)	언경 (15대조, 1443~1501)	파평면 두포리 산 3번지	10월 11일
적성면	율포리 전암동	동주 최씨 東州崔氏	30 (60)	정안공파 靖安公派	6세世 당諱	동설(9대조)	적성면 율포리	10월 7일
	마지리	여산 송씨 礪山宋氏		원윤공파 元尹公派	송시열 자子 송선宋璿	영무 (26대, 1922~1992)	적성면 구읍1리	
	마지리	연안 이씨 延安李氏	20 (50)	충민공파 정랑공파	충민공 기설基崙 정랑공 돈서惇敍	지남至男 (14대조, 1529~1577)	마지리	10월 초
	마지1, 2리 퇴골마을	하음 봉씨 河陰奉氏	11 (15)	강성군파	봉우奉佑(30대조)	명정命徵 (20대조)	적성면 마지2리	10월 9일
	어유지리 봉화촌	제주 고씨 濟州高氏	7 (20)	문충공파 文忠公派	고도高度	치웅致雄 (16대조)	어유지리 산28	10월 15일
	어유지리 봉화촌	전의 이씨 全義李氏	3 (7)	대사성공파 大司成公派	도棹	업業	적성면 어유지리 산28-4	10월 15일
	어유지리 봉화촌	파주 염씨 坡州廉氏	1 (4)	동정공파	홍방興邦	의만義萬 (14대조)	적성면 어유지리	10월 15일
	식현리 밥재	하동 정씨 河東鄭氏	43 (50)	문성공파 文成公派	인지麟趾 (1396~1478)	기문起門 (13대조, 1396~1478)	적성면 식현리 산29-2	10월 10~15일
	식현리	파평 윤씨 坡平尹氏	10 (15)	소부공파	암諱	정길(11대조)	두지리	10월 12일
	식현2리	안동 장씨 安東張氏	15 (50)	희양공파 僖襄公派	사길思吉 (?~1418)	소남昭南 (12대조)	장파리	10월 15일
	식현2리 장파리	현풍 곽씨 玄風郭氏	13	남계공파	곽득강	곽인수 (13대조)	답곡리	10월 첫째 일요일
	구읍리 관골마을	청주 경씨 淸州慶氏	19 (40)	철성공파	섬溫 (1562~1620)	유후有後 (1585~1646)	적성면 구읍리 산16-2	
	구읍3리 읍내	울산 김씨 蔚山金氏	2 (10)	백암공파	덕지德執		적성면 마지리 9번지	10월 1~2일
	설마리	김해 김씨 金海金氏	4 (6)	한림공파 용파勇派 오회五回	김수로왕	창현昌鉉		

지역(마을명)		성씨	호수(최대)	파派	파시조派始祖	입향조入鄕祖	입향조 묘소	시제時祭(음력)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	경주 김씨 慶州金氏	35 (60)	계림군파 도사공파	균	도사공 김인길金仁吉	적성면 객현리 감악산 산155	10월 9일
	가월리 가루리	안동 권씨 安東權氏	12 (30)	정순공파	상좌	옹운(12대조)	가월리 버지미 산	10월 둘째 일요일
	장파리 봉우재	청주 한씨 淸州韓氏	20 (20)	참판공파	한계선韓係善	한내문韓乃文 (11대조)	답곡리	음력 10월 10일 근처 일요일
	장현리	능성 구씨 綾城具氏	11 (40)	도원 수공파		구옹서具龍瑞, 구성서 具星瑞 형제(7대조)	장현리	10월 10일
	장현리	순흥 안씨 順興安氏	4 (30)	참판공파	옥項	약 390년쯤 전 입향		
금촌1동	야동동 풀무골	나주 정씨 羅州丁氏	40 (50)	고암공파 願庵公波	윤희胤禧	시백時柏 (12대조)	야동동 풀무골 은봉산	10월 보름
	야동동 풀무골	은진 송씨 恩津宋氏	8 (16)	추파공파 秋坡公派	송기수宋麒壽 (1507~1581)	송도제宋道濟 (12대조)	야동동 산78	10월 5일
금촌2동	금능동 쇠재마을	거창 신씨 居昌愼氏	10 (40)	양간공파 襄簡公派	수修	자건自建 (16대조, 1450~1520)	교하읍 산남리	10월 10~20일



관혼상제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전통적인 가례家禮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보면 ‘관혼상제’, ‘일생 의례’, ‘평생 의례’, ‘통과 의례’ 등으로 각기 쓰는 용어가 다르다.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했을 때는 관례冠禮를 통해 개인의 사회 생활이 시작되며, 죽은 후에도 제례祭禮를 통해 자손들과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혼례婚禮는 이를 통해 부계적 가계 계승을 이루려는 집안이 그 중심에 있고, 상례喪禮 역시 죽음으로 인한 세대의 교체를 복구하려는 집안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출생보다는 관례 등 성년식을 행하고 나서부터인데 상투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의 전통 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 가장 먼저 사라졌다.

혼례 조사는 혼속婚俗에 관한 조사와 통혼권通婚圈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혼례는 특히 전안례奠雁禮와 초례醮禮를 분리해서 행하는가, 혹은 같은 곳에서 하는가에 따라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전안례는 처가(또는 친정)에서, 초례는 본가(또는 시댁)에서 하는 것이 주자가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실제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각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혼례복으로서 사모관대紗帽冠帶의 착용은 후기로 올수록 민간의 예식에도 나타난다. 파주 지역에서 수집된 사진을 보면 관복의 흉배를 옆으로 달아 격식 자체가 변칙

임을 표시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유교식 상·장례에서의 상장(喪葬)과 절차는 상을 당한 사람들의 슬픈 감정과 효(孝) 가치관뿐 아니라 특히 오복 제도(五服制度)를 통해 본종(本宗) 위주의 친족 관계 등 유교에서 지향하는 사회 질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례 절차는 그 차체로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흥(興)의 상태에서 길(吉)의 상태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가(家)의 질서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례는 특히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각 집안마다 그 형식을 달리할 정도로 다양하나 대개 이것도 시기별, 지역별, 당파별로 차이를 드러낸다. 독립된 건물로 된 사당에 신주를 모셔온 집들이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면 집안 대청 북벽으로 벽감을 만들어 모시거나 지방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즘은 아파트 실내에 벽감을 설치하여 신주를 모시기도 한다.

첫돌

아래 사진은 문산읍 마정2리에 거주하는 남○우 씨(1935년생) 조카의 돌사진이다.



돌사진 1(1960년, 문산읍 마정2리)

오른쪽 사진은 금촌읍에 사는 청주 한씨 한○용 씨(1935년생)의 장남 돌사진이다. 100원 지폐를 상 앞에 올려놓았으며 그 위로 수저를 놓았다. 수수팥떡, 백설기, 인절미, 송편, 과일, 과자 등도 차렸다.



돌사진 2(1964년, 금촌읍)

중매

경기도 지역에서 간혹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경기도 청년과 전라도 처녀와의 집단 결혼 주선이다. 1960년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일제 시기까지도 올라간다. 파평면 금파리의 경우가 그렇다. 전라도에 흥년이 들면 그곳 여자들을 모집해서 장가 못 가고 어려운 이곳 청년들과 짝을 맺어주는 것이다. 신부는 빈손으로 오다시피 하고 중매쟁이 수고비는 신랑 집에서 지불한다. 금파리에는 소달구지를 가진 집이 5~6집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딸을 시집보내려면 달구지 가진 집에 보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한다.

약혼

한○용 씨와 윤○순 씨는 1958년에 약혼했다. 5남 4녀의 장남인 한 씨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고 윤 씨는 문산을 마정이 고향이다. 한 씨가 마정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제대 3개월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나 약혼하였다. 제대 후 고향에 가 있던 부인을 데리고 임진면 마정리 처갓집에서 살림을 차렸다. 군 복무 중 알게 된 미군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여 미군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사진은 박○섭 씨 아들 박○구 씨와 며느리 이○숙 씨의 약혼 사진이다. 양가 친지들과 대문 앞마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약혼 사진 1
(1973년, 교하 연다산리)



약혼 사진 2
(1967년, 교하 야당리)



약혼 사진 3(1978년, 교하 오도리)

상단 왼쪽은 양복을 입은 윤○덕 씨와 치마저고리를 입은 이○자 씨의 약혼 기념사진으로 1967년 10월경에 찍었다.

상단 오른쪽은 김○기 씨의 작은딸 김○임 씨의 약혼식으로 1978년 사진이다. 오도리에 있는 집에서 사돈어른(왼쪽)과 일가친척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찍었다.

혼례

신랑 일행을 태우고
사처에 도착한 택시
(1963년, 탄현면 문지리)



혼례는 원래 납폐 다음에 행해지는 절차인데 두 행사가 같은 날 행해지기도 한다. 탄현면 축현리 한양 조씨 조○옥 씨(1936년생)와 부인 광산 김씨 김○자 씨(1936년생)는 1963년 겨울에 신부의 집이 있는 같은 면 문지리에서 혼례식을 가졌다.

혼례 당일 문지리에는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신랑과 일행이 타고 온 택시 4대가 사처[下處]로 정한 집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신부 집보다 두서너 집 앞에 정해놓은 사처, 또는 사처방에서 신랑은 대례를 올리기 위해 의관을

갖춘다. 문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신랑의 직업을 반영하듯 당시 파주 전체에도 몇 대 되지 않던 택시들이 마을 입구로 줄지어 들어오자 주변 마을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결혼하나 보다” 하며 구경 나왔다.

함을 등에 멘 함진아비를 신부 집에서 맞았다. 이어 신랑이 나타나자 동네 청년들과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까지 물러와 재뿌림, 또는 재끄름을 하였다. 재를 번과 섞어 뿌려대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만 신랑의 얼굴과 예복도 바로 지저분해진다.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에게 액을 물린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도 하고 대문 앞에 피워놓은 짚불을 넘고 들어가게 하기도 했다.



신부집에 도착한 함진아비
(1963년, 탄현면 문지리)

하님과 위요

하님은 시집가는 신부를 돕는 여자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위요(圍腰)는 장가가는 신랑을 따라 온 일행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위’, ‘우유’, ‘위요’ 등으로도 불렸다. 조선 선조 때인 1583~1584년까지 추연 우성전(禹性傳)이 쓴 일기인 『계갑일록(癸甲日錄)』을 보면 “파주 혼례 때 위요(爲腰)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1919년에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한 할머니는 고향이 문산을 임진리인데 14살 나이에 연풍(連風)리로 시집왔다. 어렸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바느질과 저고리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손재주가 뛰어나 혼인 후에는 남편과 마을 아낙들의 저고리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다음은 하님에 대한 할머니의 설명이다.

“화장 같은 거 시방은 잘 하지만 그때는 못했잖아. 화장하는 데 날 불러요. 여기 털 다 뽑고, 분홍 물감 갖다 연지 요렇게 찍고. 나중에는 연지 찍는 게 손에 익어서 내가 얇은 분홍 종이 고걸 사다가 오려서 붙여줬어.



신랑 재뿌림
(1963년, 탄현면 문지리)



전안례를 행하는 신랑
(1969년, 광탄면 청안리)



부조로 들어온
음식을 처리는 과방 모습
(1970년초, 금촌 금촌리)

해달라고 나를 부른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다가 썼거든. 뭐냐 하면, 그게 하님이라는 거야. 부잣집에서는 하님을 불러다가 색시 시집가는 데 따라가게 했거든. 그런데 하님이라는 소리, 그게 천한 소리거든. (정나미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야. 하님 허는 사람 부르러 왔다고 그러기에 그때부터 안 했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하님 데리고 갔다 이러면 부잣집에서 색시에게 하님을 붙여 보내는 거야. 색시 수발을 하라고. 시방으로 치면 도우미지.”

재끄름이 심하여 신랑 일행 중 한 사람이 나서 우산을 받쳐 신랑을 보호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무명 천 여덟 자로 된 ‘함질끈’을 마련하여 석 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봉치’ 또는 ‘봉채封采’라고 한다.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함진아비’, ‘함잡이’라고 하며, 초행 전날에 신부 집으로 보내거나 전안례를 올리기 전에 보낸다.

재끄름을 통과하고 신부 집 대례 장소에 이르면 신랑은 병풍으로 가린 전안상(簾床)에 기러기를 바치는 전안례를 행한다. 옆 사진은 광탄면 창만리에서 1969년에 있었던 전안례 모습이다. 마당에 차양을 치고 명석을 깔고 병풍을 친 쪽에 놓여 있는 전안상 앞에 신랑이 서 있다.

과방(果房)은 혼례 때 각 집이 부조로 싸온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는 장소다. 1970년대 이후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르게 된 뒤에도 얼마 동안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다.

금촌에 사는 김○자 씨(1939년생)가 친목 회원의 자제 결혼식에 갔을 때 찍은 사진에는 과방에서 친지들과 파란색 치마저고리를 맞춰 입은 친목 회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잡채, 홍어무침, 김치, 떡

등 집에서 만들어 들통에 담은 음식들을 그릇에 나눠 손님을 대접했다.

광탄면 신산리에서는 잔치 때 부조로 국수 2~3봉지와 묵 한 함지박을 가져갔다고 한다. 묵은 녹두묵이나 메밀묵이었다. 초상 때 부조는 액막이 의미로 팔죽을 쑤어갔다. 팔죽 부조를 받은 상주는 나중에 부조한 사람의 상 때 팔죽으로 갚는다. 문산을 당동리에서도 잔치 부조는 떡, 묵, 막걸리 한 말, 국수 한 관을 하면 잘 하는 부조라고 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전통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예식장 결혼이 유행하면서 과방 일은 남았지만 이러한 전통은 곧 사라졌다.

신랑이 대례를 마치고 당일 신부와 함께 집에 오는 당일우귀當日于歸도 경기도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으로 파주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있다. 우귀, 즉 신부가 시댁으로 올 때 신랑에게 했던 재끄름과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에게 물어왔을지도 모를 부정한 것을 없애는 의례가 행해지는데, 그 하나가 부뚜막에 먼저 들러 한 발을 올려놓거나 신부가 대청으로 들어올 때 양푼에 숟가락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냄으로써 부정을 쫓는 방식이다.

파주읍 부곡리에는 대례를 치르고 온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잡 뒤편으로 데려가 왼발을 굴뚝에 올려놓게 한 다음 국수를 먹여주는 풍속이 있었다. 발을 굴뚝에 올려놓는 것은 부뚜막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당살周堂煞을 막거나 잡귀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국수를 먹이는 것은 명이 길기를 바라는 뜻이다. 사진은 1968년에 부곡리에 사는 신랑 최○원 씨에게 이웃집 할머니가 국수를 먹이는 모습이다.

이와 유사한 벽사辟邪 행위를 신부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진은 1960년경에 상지석리에 사는 신부 강○영 씨가 족두리에 활옷을 입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굴뚝 옆에 서 있는 모습이다.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왼발을 굴뚝에 올려놓고 국수를 먹는 신랑(1968년, 파주 부곡리)

굴뚝 앞에 선 신랑 신부 (1960년경, 교하 상지석리)



신랑다루기 1(1970년경, 문산 당동리)

신부 측 동네 청년들은 대례 다음 날 모여 ‘신랑다루기’ 또는 ‘동상례’를 행하는데, 신랑이 혼례 당일로 돌아가는 경우는 재행^{再行}, 즉 신부 집으로 다시 올 때 이러한 의식을 행한다. 문산을 당동리 마을 청년들이 재행 온 성○성 씨 사위의 발을 묶어 발바닥을 때리는 신랑다루기를 하고 있다.



신랑다루기 2(1970년경, 탄현 금산리)

또 하나의 사진은 1970년경, 탄현면 금산리에 사는 신랑 추○옥 씨가 신부 집에 가서 치른 동상례로 동네 청년들이 신랑에게 술을 먹인 후 나뭇가지를 젓가락 삼아 안주를 먹이는 장면이다.

예식장 결혼

신랑 안동 권씨 권○철 씨(1938년생), 신부 박○금 씨(1941년생)의 결혼식이 1965년 12월 13일에 금촌예식장에서 열렸다. 신부가 부친의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 들어오고 있다.



결혼 사진
(1965년, 교하 상지석리)

회갑

우리 나이로 61세가 되면 그해에 생일을 넘기지 않는 날을 잡아 회갑연을 갖는다. 회갑을 맞이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회갑상을 같이 받게 되는데, 당사자의 위치에서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즉 하객의 위치에서 볼 때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자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진에서도 그렇듯이 좌우가 바뀐 경우도 많으며, 이때 이를 두고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지내는 제사, 즉 '산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오른쪽 사진은 파주읍 부곡리에서 1960년 9월 3일에 있었던 회갑 잔치 사진이다. 집 대청 북쪽 벽에 병풍을 치고 회갑을 맞이한 주인공과 부인이 좌우로 앉아 있고, 양쪽에 지화紙花를 놓았으며 앞줄에 건과류와 사탕, 떡 등을 고배로 쌓아올렸다. 회갑상 앞 마룻바닥에는 모제비 세 개에 떡을 가득 쌓아놓았다.



회갑 사진(1960년,
광탄 신산리)



회갑 잔치(1963년, 광탄 창만리)

광탄면 창만리 김○남 씨의 회갑 잔치가 1963년에 있었다. 초가 바깥마당 차양 아래에서 잔치 음식을 먹은 남자 어르신들이 텅실텅실 춤을 추는데, 징과 북이 동원되었다.



불당 앞에서의 회갑연
(1973년, 광탄 창만리)

에 걸린 거울로 마이크를 든 사회자 모습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방문한 것 같다.

사찰의 대웅전 법당 불상 앞에서 회갑연을 갖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1973년 5월에 박○병 씨의 회갑 잔치에서 주인공 부부와 친지들이 불상을 등지고 앉아서 고배상을 앞에 두고 자손들의 절을 받았다. 이날 잔치를 위해 부른 기생들이 기다란 광목천을 맞잡고 회갑을 맞은 어른 앞으로 길게 드리우고 장수를 기원하는 ‘베가름’ 의식을 하였다. 주인공 부부는 가른 베 위로 돈을 올려준다. 뒤

생신 잔치

생신을 맞이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마을의 큰 잔치이다. 1960년대 적성면 어유지2리의 이준재 씨의 부친이 생신을 맞이하였다. 동네 노인들이 집 마당 어귀에서 간단한 술상을 받고 있다. 나무그늘 아래서 명석을 깔고 주전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뒤에는 벼짚으로 이은 지붕이 보인다.



생신 잔치
(1960년대, 적성
어유지2리)

백수연 白壽宴

백수연은 우리 나이 99세 된 분에게 자식들이 해드리는 잔치다. 문산 당동2리에 사는 탐진 최씨 할머니가 백수, 즉 99세가 되어 1994년 3월 6일 동네 널다리 향우회 주최로 백수연 잔치를 벌였다.



탐진 최씨 할머니 백수연 1(1994년, 문산 당동2리)



탐진 최씨 할머니 백수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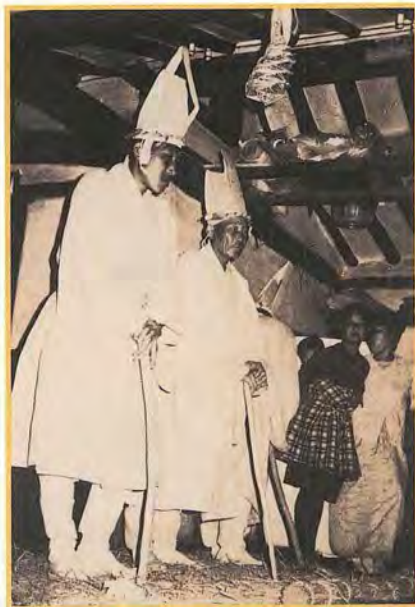
상례

상이 나면 상주들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대신하고 잡귀도 쫓는 의미로 팔죽을 끓여 손님을 대접하기도 한다. 상주들이 상복을 입기 전에 정회수를 떠놓고 상을 돌면서 사방에다 절을 하는 성복제(成服祭)도 행해진다. 발인제 전날은 조문객들과 발인을 도울 일꾼들로 붐비며 호상인 경우 상여놀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1970년대 상례 모습은 교하읍 상지석리에 사는 강○영 씨 모친 장례식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전례(奠禮, 즉 잔을 올린 후 상주들이 절을 하고 있다. 상주들은 대청마루에 거적자리를 깔고 짚베개를 앞에 두고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조문을 받는다.



상주의 전례(1970년대, 교하 상지석리)



조문을 받는 상주(1970년대, 교하 상지석리)

파주 지역은 출상할 때 대개가 꽃상여를 쓴다. 매장할 때는 관을 함께 넣는가 아니면 관을 빼고 시신만 넣는가에 따라 입관(入棺) 방식과 탈관(脫棺, 또는 퇴관(退棺)) 방식이 있는데 대개가 탈관 방식이기 때문에 상여 무게가 입관하는 곳에 비해



출상 1(1970년대, 교하 상지석리)



출상 2
(1970년대, 교하 상지석리)

털 나간다. 그래서 상여꾼을 구하기 힘들 때는 상여를 8명이 멘다. 위에 실은 사진은 1970년경 교하읍 상지석리 출상 장면이다.

파주를 포함한 경기도 상례 풍속의 하나로 시집은 여자들의 상복은 친정에서 마련하는데, 이를 ‘거성옷’이라고 한다. 거상(居喪)에서 나온 말이다. 대개 거성옷은 광목으로 만든 한복 한 벌로 시대가 내려오면서 ‘뽀빠린(포플린)’ 천으로 바뀌었다. 그외에도 친정에서는 북어 한 코, 즉 20마리와 고무신, 창호지 1권 등을 보낸다. 과거에는 5일장이 대세여서 친정에서 대강 만든 거성옷은 성복제(成服祭) 전에 도착했다.

친정에서 보내는 여자 복인(服人)의 거성옷은 저녁 5시경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래야 바로 성복제로 들어갈 수 있다. 복을 입을 사람들은 어깨를 내놓고 물독을 올려놓은 상 주위로 둘러서서 왼쪽 3번, 오른쪽 3번을 돈다. 그런 다음 상과 물독을 치운다.

교하읍 문발리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부조는 거의 물물교환 수준으로 행했다고 한다. 잔치 때는 국수, 감주, 약주, 청포묵 등으로 부조를 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받은 대로 해준다. 초상 때는 초상계가 있어서 계 규정에 따라 부조를 하며, 조문하러 갈 때는 쌀 한 되를 가져가는데 식구 모두가 가서 식사를 하므로 결국 자기가 가져간 쌀을 다 먹고 오는 셈이다.

부조한 사람과 액수는 부의록(賻儀錄)에 기록한다. 사진은 1972년에 교하읍에서 모친상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의록이다.



부의록, 1972년 9월 9일(교하읍)

먼례緇禮

보통은 이장移葬이라고 칭하는 먼례緇禮는 과거에는 풍수상의 이유로 행해졌으나 요즘은 묘역이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불가피하게 행해진다. 파주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간에는 오래 묵은 산송山訟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청송 심씨가 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아 2008년 4월 20일 오후 2시에 이를 위한 청송 심씨 고유제告山祭가 광탄 분수원 묘역에서 열렸다.



2008년 청송 심씨 먼례 고유제

상·장례와 관련된 마을 조직

상계喪契, 상포계喪布契, 연반계[延燔契] 등의 계조직은 어느 마을에나 있다. 직업적인 상두꾼 조직이나 상여도가의 이용은 특히 6·25전쟁 이후 반상 관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상여를 매는 일에 상민들을 동원할 수 없게 된 양반층이 주로 이용하였으며, 양반층 스스로가 유학계 등의 계를 만들어 직접 상여를 매는 경향도 동시에 생겨났다.

제례

앞서 인용했던 추연 우성전의 『제갑일록』에 제례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온다. 추연은 1584년 한식 때 시제時祭를 지내야 하는데 병으로 산소를 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당시는 거의 모든 가문이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한 세일제歲一祭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는 당내친堂內親을 중심으로 4대조 이하에 대한 한식 절사節祀를 의미한다. 추연은 고모부와 고종사촌, 그리고 장인 집안 제사에 참석하였고, 이들 또한 추연 집안의 제사에 참석했다. 그가 외관직에 임명되어 현지로 떠날 때는 사당에 고유제를 지냈다.

2008년 4월 5일 오전 10시에 파평 윤씨 문중의 한식 절사가 열렸는데, 2007년에 새로 건립한 재실인 교하향사交河鄉祠에서 처음 갖는 제사였다. 제사 대상은 정정공貞靖公, 양평공襄平公, 공양공恭襄公, 판관공判官公, 정평공靖平公 등 5위다. 절사는 원래 동지, 한식, 유두에 각 소종 종손 집에서 가졌고 중앙절에 종중 모두가 모여 불천위 묘사를 지내다가 날씨가 추운 때여서 한식으로 옮겼다고 한다. 새 재실을 지으면서 불천위를 합사合祀하는데, 먼저 정정공 제향을 먼저하고 수조례受昨禮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위차는 동시에 진행한다.



2008년 파평 윤씨
한식 절사

사진은 2008년에 있었던 문산을 내포리 창녕 성씨 종가인 성○현씨택 추석 차례다. 순서는 먼저 고조부모와 증조부모 내외를 같이 지내고, 다시 분향하여 조부모와 백부모 및 부모 내외를 지내는 식으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지낸다. 백부모 제사를 지내는 것은 큰집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것이다.

내포리 창녕 성씨
성○현씨택
추석 차례 1



추석 차례 2



추석 차례 3



추석 차례 4

제사의 특징으로 축祝이 없고 모사기茅沙器를 놓지 않으며 지방紙榜만 태운다. 제물로는 갈랍으로 동그랑땡을 놓으며 소적素炙으로 두부전, 전으로 동태전, 그리고 느름적을 올린다. 과줄은 조율이시 순으로 놓는다. 집안의 당색은 소론으로 증조모가 유명한 소론 집안인 함양 여씨다. 파주에서의 통혼은 주로 과거 교하현 구역권으로 남양 홍씨, 해주 최씨, 연일 정씨, 전주 이씨 등이다.

덕수 이씨인 율곡 이이의 종손 이천용 씨는 현재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방 한 벽에 감실을 만들어 신주를 모시고 있다. 자운서원 제향과 묘제로 행하는 제사와는 별도로 불천위로서 모시는 제사는 음력 1월 16일 저녁에 50~6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해진다. 원래는 15일 밤에 지내던 것이라고 한다. 홍파동에 사당이 있었을 때는 후손들과 유림들 200여 명이 몰려와 3~4일간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 음력 5월 12일에 부인 제사가 있고, 한식과 추석의 절사가 있으며 동지 때 동지팔죽으로 벽감 앞에서 차례를 지낸다.

파평 윤씨 한 종가의 사당이던 모반재사(慕班齋祠)가 운정지구 택지개발로 없어지고 그곳에 모시던 신주가 종손이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한 방에 설치된 것도 덕수 이씨의 경우와 같다. 이러한 추세는 파주 지역이 아파트단지 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각종 용도로 개발되면서 더욱 나타날 전망이다.



아파트 내 벽감-덕수 이씨



모반 재사(파평 윤씨 사당인데 운정지구 택지개발로 없어졌다)



모반재사 편액



아파트 내 벽감사당-파평 윤씨



민간신앙

정승모_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의 신앙 현상을 가정신앙, 마을신앙, 그리고 무속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가정신앙의 경우는 지역별로 수집된 사례를 통해 신앙 대상별로 정리하였고 신앙 행위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마을신앙은 읍면 단위로 살펴보았다. 2008년도에 조사한 지역은 문산읍 당동리, 광탄면 신산리·용미리, 조리읍 장곡리 등이고 기존 보고서 중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가정신앙-경기도편』(2005년)을 주로 참조하였다.

가정신앙

1. 신앙 대상

1) 성주신

성주신은 대개 집안의 으뜸신으로 모신다.

당동2리 성주

성○성씨댁의 거실 대들보 위에 무명 흰실과 한지로 베를 짠 성주가 없혀 있다. 시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매우 오래된 것으로, 지금 사는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송촌리 아랫말 · 새터골 성주

성주는 대주라고도 하며, 집을 짓고 나면 제일 우선으로 모신다. 신체神體는 주로 마루의 대들보에 위치하지만 주택이 개량되면서 마루의 천장과 벽면이 마주하는 곳에 위치하기도 한다. 주로 베를 접거나 말아서 한지로 싸고 실로 묶어 못에 걸어놓는다. 권○오씨(65세) 댁의 성주도 베를 돌돌 말아 한지로 싸고 마루의 천장과 벽면이 마주하는 곳에 걸어두었다. 한지는 매년 갈아준다고 한다.

2) 대감신

대청마루 등 특정 장소를 정해 '대감옷'과 '대감모자'를 둘 다, 또는 하나만 상자에 모셔두는 신앙 행위는 파주의 가정신앙 중에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다.

문산읍 당동2리 대감상자

성○성씨댁에서는 대감을 모신다. 마루 장식장 위 압력밥솥 종이 상자 안에 대감상자를 보관해 왔다. 대감상자 안에는 붉은 색 두루마기와 검은 갓을 넣어 두었다. 종손 집이고 조상의 의관을 해두면 좋다고 해서 20년 넘게 모시고 있다. 상달고사나 굿을 할 때 바람을 쏘이곤 했는데 요즘은 안 꺼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 남편인 성○성 씨는 내막을 잘 모르고 부인인 김○순 씨(71세)가 모신다고 한다.



문산읍 당동2리
성○성씨댁 대감상자

문산을 당동2리
김○순댁 대감옷



문산을 당동2리 김○순 씨가 모시는 대감. 붉은 색 두루마기와 검은 갓을 한 지에 싸서 압력밥솥 종이 상자 안에 보관하여 모신다.

야당2리 이간난댁 대감



야당2리 이간난댁
대감옷

야당2리는 운정지구로 편입되어 지금은 아파트 택지로 변한 지역이다. 2002년 지표 조사에서 이 댁의 대감신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감의 신체는 병거지와 도포인데, 건넌방 뒤꼍 모퉁이 기둥에 매단 선반 위에 얹혀 있었다. 시어머니 생전에 무당굿을 하고 난 결과물이다.

교하읍 송촌리 아랫말 · 새터골 대감항아리

대감항아리는 주로 광이나 마루에 위치한다. 노○남 씨(71세)는 예전부터 안방구석에 대감항아리를 두었다. 농사를 지으면 먼저 대감항아리에 햇벼나 햅쌀을 부어놓는다. 대감항아리의 벼나 쌀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6·25전쟁 중에도 대감항아리를 함부로 헐지 않았다고 한다.

교하읍 송촌리 아랫말 · 새터골 겨장대감

노○남 씨(71세)는 집에 ‘겨장대감’을 모시고 있다. 겨장대감은 노○남 씨의 6대조 할아버지가 풍랑으로 돌아가셔서 그 원혼을 풀어주고자 굿을 하고 모신 것이라 한다. 그 신체는 대감모자와 대감옷이다. 대감옷은 헤져서 불태워 없었고 현재는 대감모자만 한지로 싸서 모시고 있다. 가을에 고사를 지낼 때 팔떡과 막걸리, 과일, 복어, 무나물을 올린다.

광탄면 용미4리 대감항아리

대감항아리는 광이나 집안에 있으며, 가을에 햇곡이 나면 햅쌀을 채운다. 대감항아리의 쌀은 음력 3월 그믐께 헐어서 먹기 시작한다. 쌀을 오래 두면 바구미가 생기기 때문에 바구미가 생기기 전에 쌀을 허는 것이다. 대감항아리의 쌀을 헐면 밥을 해서 물과 함께 대감항아리에 올린다. 정○순 씨(78세)와 양○득 씨(75세) 집에서는 대감항아리를 ‘몸주대감’이라고도 부른다.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채우는데, 예전에는 벼를 넣었다고 한다. 대감항아리의 쌀은 이름 가진 날 헐어 먹는다고 하는데, 삼짇날 · 초파일 · 단오 · 유두 · 칠석에 헐어서 밥을 하고 식구들끼리 먹는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대감

조○자 씨(84세)는 안방 다락에 몸주대감을 모셨다. 작은 항아리 3개에 쌀을 담았다고 한다. 항아리의 쌀은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햅쌀로 갈아준다. 서○례 씨(84세)의 집에는 살롱대감과 안대감이 모셔져 있다. 살롱대감의 신체는 뒤꼍에 짚으로 주저리를 해놓은 모습인데, 안에는 대감옷과 대감모자가 들어 있다. 살롱대감의 주저리는 선달그믐께 갈아준다. 안대감은 대감모자와 대감옷을 선반 위에 모셔놓은 것이다.

금촌2동 장○석 씨택 ‘대감의관’

장○석 씨(1932년생)의 어머니가 54년 전에 새말의 만신에게 굿을 한 후 며느리들에게 만들어준 대감의관이다. 병거지 모자와 상자와 옷감(빨간색과 남색 두

갑)을 함께 보자기에 싸서 시렁 위에 올려놓고 모신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상자에다 톱툰이 돈을 모아 가을에 햇곡식과 술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 예전엔 곡식을 넣어둔 대감항아리가 있었다.



금촌2동 장씨택 병거지와 대감옷



금촌2동 장씨택 대감의관



금촌2동 장씨택 돈과 상자

3) 진동항아리

법원읍 오현리 진동항아리

권○상 씨(80세)에 따르면 쌀을 담아놓은 진동항아리를 모시는 집들이 있다. 이러한 집의 안방에는 대개 고깔 모양의 지석(제석)을 놓았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진동항아리

조○자 씨(84세)는 집에서 진동항아리를 위한다고 한다. 신체는 옷방에 자리 하며, 그 위에 제석을 모셨다. 항아리 안에는 쌀을 넣어두었으며, 가을에 햇곡이 나면 햅쌀로 갈아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쌀을 먹으면 죄를 받는다고 해서 집 안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쌀을 갈면 묵은 쌀로 밥을 해서 먼저 진동항아리에 올린다. 진동항아리의 쌀은 식구들만 먹어야지 그렇지 않

으면 탈이 난다고 한다. 예전에 이웃의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진동항아리의 쌀로 밥을 해먹은 뒤, 감박산(감악산)에 올라가 나물을 캐다가 그만 벌을 받고서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한다. 칠석이나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진동항아리에 술을 올리지 않고 물을 떠놓았다고 한다.

4) 제석

송촌리 아랫말 · 새터골 제석

제석은 ‘제석할머니’라고 하여 경우에 따라 삼신의 기능을 하며 아기를 점지해 준다고 한다. 노○남 씨(71세)는 집에서 항아리 형태의 제석을 위하고 있다.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제석항아리에 고한 뒤에 먹었다고 한다. 가을에 가장 먼저 쪼은 것을 제석항아리에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대감항아리를 채운다.

광탄면 용미4리 지석(제석)

지석(제석)은 안방구석에 자리한다. 그 신체는 주머니에 쌀을 담고 한지로 고깔을 씌운 것이다. 제석의 쌀은 가을에 고사를 지낼 적마다 햅쌀로 갈아준다. 그러나 제석의 쌀을 매년 갈지 않고 만신을 불러 굿을 하면서 만신이 갈아주는 집도 있다. 윤덕한 씨(51세)는 안방 문 위쪽으로 제석을 모시고 있다. 제석은 쌀주머니에 고깔을 씌운 모습으로, 고깔 위에는 실타래를 감았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제석 앞에 백설기와 청수를 올리며, 또한 쌀 한 주발을 떠놓는다. 쌀 주발에는 숟가락을 꽂고 실타래를 걸어놓는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제석

제석은 안방에 자리한다. 그 신체는 바가지에 쌀을 담아두고 사고지로 덮어두었거나 쌀주머니에 한지로 고깔을 씌운 것이다. 바가지에 쌀을 담은 것을 일러 흔히 ‘제석박(제석바가지)’이라고 부른다. 제석의 쌀은 가을에 햅쌀로 갈아주며, 이전의 것은 고사를 지낼 때 백설기를 찌서 식구들끼리만 먹는다.

5) 불사

용미4리 불사

불사는 안방에 자리하며, 대개 제석과 나란히 한다. 최○순 씨(81세)는 현재 안방구석에 선반을 만들고 불사와 제석을 모시고 있다. 불사의 신체는 아이들 기저귀감으로 쓰는 무명 1필을 한지로 감싼 것이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불사·제석 앞에 백설기와 청수를 놓고, 쌀 한 주발을 떠놓고 손가락을 꽂아 실타래를 걸어놓는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불사할머니

서○례 씨(84세)는 집에 불사할머니를 위했는데, 신체는 쌀주머니에 고깔을 씌워놓았다고 한다. 불사할머니의 쌀을 헐어 밥을 하면 먼저 밥과 물을 불사할머니에게 올린 다음 식구들이 먹는다고 한다.

6) 삼신

용미4리 삼신

삼신할머니는 아이가 열 살까지 돌봐준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밥과 미역국을 대문 밖에 내놓는다. 버릴 밥을 먼저 해서 놓는 것이다. 그리고 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을 아기의 머리맡에 놓고, 삼신할머니께 “애기 젓 달라고, 산모 밥 잘 먹게 해달라”고 빈다. 첫 국밥은 산모가 먹는다. 백일이나 돌에는 수수팔떡과 백설기를 하고 삼신메를 차려준다. 양○득 씨(75세)의 집에서는 ‘지석’을 가리켜 ‘삼신’이라고도 한다. 가을 고사에 백설기 한 접시와 청수 한 잔을 올린다.

7) 조왕

장파리 장마루마을 주왕(조왕)

부엌의 부뚜막을 주왕(조왕)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부뚜막에 잠시 두었다가 조금 떼어서 밖에 던지고 먹는데, 음식을 따라왔던 잡귀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뜻이다.

8) 터주

광탄면 용미4리 터주

터주는 짚으로 주저리를 해서 씌워놓은 모양인데, 대개 집 뒤꼍에 자리한다. 주저리 안에는 쌀을 담은 항아리를 놓거나 아니면 그냥 막대기만 꽂아놓는다. 최○순 씨(81세)는 지금도 집에 터주를 모시고 있다. 집을 새로 지으면서는 집 현관문 옆에 터주항아리와 그 앞에 짚가리를 두었다. 터주항아리는 ‘바깥대감’으로, 그 위에는 대감옷과 대감모자를 상자에 담아 올려놓았다. 이를 가리켜 ‘터줏대감’이라 하고, 그 앞에 있는 짚가리를 ‘터줏가리’라고 한다. 터주항아리 안에는 벼를 채웠으며, 벼가 누렇게 되면 찢어서 먹는다. 터줏가리의 주저리는 가을에 고사 지내기 전에 아들이 새것으로 갈아준다. 이렇게 주저리를 갈아주는 것을 “터줏가리 옷 입힌다”고 하며, 이전의 주저리는 불사른다. 과거에는 주저리에 원새끼를 둘러매고 한지를 접어서 걸었으나 지금은 원새끼만 두를 뿐 한지를 걸어놓지는 않는다. 터줏가리 안에는 항아리에 쌀을 담아두며, 이 쌀은 고사떡을 하는 데 섞고 햅쌀을 채운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터주

터주는 집 뒤란에 자리하며, 그 신체는 짚으로 주저리를 해놓은 모습이다. 터주를 가리켜 ‘텃대감’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따라 한 개를 모시기도 하고, 두 개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두 개를 모신 집에서는 ‘남대감’, ‘여대감’이라고 해서 부부로 인식한다. 주저리 안에 들어 있는 신체도 가정에 따라 다른데, 주저리 안

에 터주항아리가 있기도 하고, 대감병거지를 놓기도 하며, 그냥 막대기를 쪼개 주저리만 씌우기도 한다. 터주항아리에는 버나 쌀을 채우며,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서 햇곡으로 갈아준다. 터주항아리의 버나 쌀로 밥을 하면 먼저 터주에 올려 고한 후에 식구들이 밥을 먹는다. 터주의 짚가리는 매년 가을에 새것으로 갈아주며, 이전의 주저리는 깨끗한 데서 불사른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팔떡, 막걸리, 삶은 돼지고기로 상을 차리고 터를 위한다.

9) 업, 업영

용미4리 업영

업에는 긴업(뱀업), 족제비업, 돼지업, 터주업 등이 있다. 업은 3년에 한 번씩 굿을 할 때 만신이 받아준다. 이중 터주업을 일러 '업영터줏가리' 라고 하는데, 짚가리 안에 콩을 채운 항아리가 들어 있다. 콩은 썩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둔다. 최○순 씨(81세)는 집에 돼지업을 모시고 있다. 신체는 집 현관 문 옆에 터주와 함께 있는데, 항아리 안에 검은콩을 담고 짚으로 주저리를 씌워놓았다. 주저리에는 터줏가리와 마찬가지로 원새끼를 둘렀다. 돼지업의 콩은 고사를 지낼 적에 갈아준다. 묵은 콩은 밥을 할 때마다 넣어서 먹는데, 다른 사람은 주지 않고 최○순 씨만 먹는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업

업에는 구렁이업, 돼지업, 족제비업, 인업 등이 있다. 사람마다 그 업이 다르다고 하며, 대개 광이나 뒤란에 자리한다. 신체도 항아리 안에 콩이나 쌀을 넣고 주저리를 씌우거나, 업주저리라 해서 주저리만 해놓고 돈이 들어오면 항아리 안에 넣기도 한다.

10) 칠성

광탄면 용미4리 칠성

장독대를 칠성이라고 한다. 칠성은 자손을 위해 준다고 하는데, 칠석맞이를 하는 것은 자손들이 잘되도록 칠성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칠성을 위하는 집에서는 장독대에 백설기와 청수를 올린다. 김○씨(70세)는 안방에 선반을 달고 명다리를 모시고 있는데, 이를 ‘불사’ 또는 ‘칠성’이라고 한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칠성

장독간에 칠성이 있다. 칠석날 칠석맞이를 하는 것은 칠성을 위하는 것이다. 장독간의 제일 큰 항아리 위에 밀전병과 청수를 떠다 놓고 칠성을 위한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백설기와 청수를 올리고 가정에 따라 과일을 놓기도 한다. 홍○자 씨(70세)는 높은 산의 칠성에게 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11) 문신門神

송촌리 아랫말·새터골 문신(수문장)

대문간에는 ‘수문장守門將’이라는 문신門神이 있다. 잡귀 들어오지 말라고 엄나무를 걸고 향나무를 같이 걸어놓기도 한다. 권○오 씨(65세) 집에서는 향나무를 엄나무와 같이 걸어두었다가 제사 때 사용했다고 한다.

용미4리 문신

대문에도 신神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수문장 또는 ‘수문장대감’이라고 한다.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팔떡, 막걸리, 북어, 삶은 돼지고기로 상을 차리고 문신을 위한다. 술은 대문간에 뿌리고 떡을 떼어 사방으로 던질 때 같이 뿌린다. 이렇게 떡과 술을 뿌리는 것은 귀신들 먹으라는 것이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문신(수문대감, 걸립)

가을에 고사를 지내면 팔떡과 술을 놓고 수문대감을 위한다. 놓았던 제물은 “집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축원하면서 대문 앞 사방으로 떡을 떼어버리고 술을 뿌린다. 조○자 씨(84세)의 집에는 대문간에 ‘걸립’이 있었다고 한다. 걸립의 신체는 배 조각인데, 대문간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2. 신앙 행위

1) 정월맞이

광탄면 용미4리 정월맞이(정월 불공)

정월에 만신에게 ‘홍수맥이’를 하러 간다. 이 마을에서는 최영 장군 터에 살던 만신을 찾는 집이 많았다. 만신에게 갈 때에는 쌀, 과일, 술, 초, 돼지고기, 만수향 등을 가져가며, 이때 과일은 세 가지를 맞춰서 가져간다. 대개 배·사과·굴 또는 배·사과·감을 가져가며, 술은 소주를 가져간다. 최○순 씨(81세)는 지금도 홍수맥이를 하러 선도암에 간다. 선도암에 가면 보살이 식구들의 1년 수를 봐주고 주의해야 할 달을 알려주면서 조심할 것을 이룬다고 한다.

2) 용왕제

요왕(용왕)제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찰밥을 해서 창호지에 한 손갈씩을 떠서 종이로 싸고 우물에 3개, 개울에 7개를 군데군데 띄운다. 개울이나 우물에 놓는 것은 아이들이 물에 가도 조심해 달라고 요왕에게 비는 것이다. 이렇게 요왕님에게 고기밥 주는 것을 가리켜 ‘용왕제’라 한다.

3) 못자리고사

용미4리 못자리고사

못자리를 낼 때 밥을 해서 나가면 토지신土地神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상에 는 간단하게 밥과 국을 한 그릇씩 놓고 술도 한 잔 놓는다. 고사를 지내면 밥은 주인이 먹고 술은 논에 뿌린다. 농수로에 물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행한다.

4) 칠석맞이

송촌리 아랫말·새터골 칠석맞이

칠성은 참외와 밀전병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칠석에는 밀전병을 해서 칠 성을 대우한다. 아랫말의 신○옥 씨(79세)는 칠석날 '색부름'이라는 꽃을 뜯어 다가 밀전병을 부치고 참외와 함께 집안 신령들을 위하였다. 안방의 제석할머니 부터 마루의 성주, 안마당의 지신할머니·지신할아버지, 광의 대감항아리, 대문 의 수문장 등 집안 곳곳에 밀전병과 참외를 놓고 위한다. 이때 가을에 고사를 지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을 놓는 곳과 청수를 올리는 곳을 가려서 술과 청수를 올린다.

광탄면 용미4리 칠석맞이

칠석에는 만신집에 가서 칠석맞이를 하거나 집에서 밀전병을 부치고 집안 신 령들을 위한다. 밀전병을 부치면 가을 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물을 놓는 곳과 술 을 놓는 곳을 구분해서 상을 올리는데, 술은 막걸리를 사용한다. 최○순 씨(81 세)는 밀전병을 부쳐서 가을에 고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놓는다. 이때 불 사·제석에는 호박채를 넣지 않고 밀전병만 해서 놓고, 다른 신체에는 호박을 채썰어 밀전병을 부친다. 청수 3잔, 술 3잔은 가을 고사와 동일하다. 만일 집에 서 밀전병을 부치지 않으면 선도암에 가서 칠석맞이를 하고 밀전병을 가져와서 보물대감과 터줏대감에게만 올린 다음에 먹는다.

5) 상달고사

고사는 1년에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이를 '시월상달고사'라고 한다. 만신을 불러 고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집안의 안주인이 떡을 갖다 놓고 비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신을 부를 때에는 경사굿과는 달리 단골 만신 한 명만 와서 축원을 해준다.

송촌리 아랫말 · 새터골 상달고사

권○오 씨(65세) 댁에서는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성주시루, 터주시루, 안시루 이렇게 팔떡 세 시루를 찌고 성주시루 위에 백설기 세 무더기를 얹었지만, 지금은 팔떡 한 시루에 백설기를 얹어서 찌고 있다. 고사를 지내면 제일 먼저 마루의 성주부터 위한다. 성주시루를 시루째 놓고 막걸리, 북어 한 마리, 삶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머리를 놓는다. 성주시루에는 백설기 세 무더기가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에는 터주를 위한다. 터주시루를 시루째 놓고 막걸리, 북어 한 마리를 놓는다. 요즘은 팔시루를 한 시루 찌기 때문에 성주에 먼저 시루째 올렸던 것을 갈라서 터주에도 놓고 집안 곳곳에 놓는다.

다음으로 안방의 삼신을 위한다. 삼신할머니에게는 성주시루 위에 얹어 찢 백설기 2개를 놓는다. 백설기 한 무더기는 그냥 성주시루에 둔다.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2개를 놓는 것이다. 청수 3잔을 놓고 과일은 사과, 배, 밤을 놓는다. 삼신할머니에게 올린 청수는 버리지 않고 식구들이 마신다. 삼신할머니까지 위한 다음에는 집안 곳곳에 떡을 갖다 놓는다. 방마다 다 놓고 화장실, 우물, 장독간, 짚단에도 갖다 놓는다. 마지막으로 대문간에 막걸리와 떡을 갖다 놓는다. 떡은 거두어 식구들이 먹고 막걸리는 갖다 놓은 곳마다가 뿌린다.

노○남 씨(71세) 집에서는 크게 성주시루를 한 시루해서 나눠 놓는다. 시루에 한지를 깔고 백설기 세 무더기를 놓는다. 백설기는 제석항아리에 2개 놓고 하나는 장독간에 놓는데, 이것은 칠성의 뿔이다. 현재 성주는 집을 반자해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전의 성주는 베를 한지로 싸고 실로 묶어놓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떡을 하면 제일 먼저 성주가 있는 자리에 시루를 먼저 올린다. 막걸리 1잔, 청수 2잔, 삶은 돼지고기, 과일, 북어를 놓는다. 성주를 위한 다음에는 제석항아

리와 대감항아리를 위한다. 제석항아리 바로 아래에 대감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리는 제물을 한 상에 같이 차린다. 북어, 청수, 무나물, 백설기 2무더기, 팔떡 3조각을 1접시에 올린다. 청수와 백설기는 제석항아리를 위한 것이고, 팔떡은 대감항아리에 올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장대감에게 간다. 과일, 북어, 팔떡 3조각, 무나물을 놓는다. 그런 다음 집안 곳곳에 떡과 막걸리를 올린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뒤꼍에 터주가 있었는데, 저장대감을 위한 다음에 터주에 팔떡을 갖다 놓았다.

6) 동지고사

광탄면 용미4리 동지고사

팔죽을 쑨는 집에서는 먼저 마루나 대청에 팔죽을 한 그릇 떠서 올려놓은 뒤, 솔잎으로 팔죽을 떠서 대문간에 뿌리고 액을 쫓는다. 마마(염병)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쑨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는 조씨네가 팔죽을 쑨지 않는다고 한다. 최○순 씨(81세)는 동지에 선도암에 가서 팔죽을 쑨고, 만일 가족 중에 삼재든 이가 있으면 삼재풀이도 한다. 풀이를 위해서 삼재든 사람의 옷 한 벌, 북어 1마리, 삼색천, 오곡(흰콩, 팥, 좁쌀, 수수, 보리쌀), 좁쌀 1홉을 가져간다. 풀이를 한 다음, 팔죽을 집에 가져와서 보물대감과 터줏대감에게 먼저 고한 뒤에 먹는다.

파평면 장파리 장마루마을 동지고사

동지에는 팔죽을 쑨어서 고사를 지낸다. 그러나 동지가 초승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이때에는 팔죽을 쑨지 않고 팔떡을 한다. 팔죽을 쑨면 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팔죽을 떠다 집안 신령에게 먼저 고한다. 조○자 씨(84세)는 팔죽을 쑨면 성주와 터주에 먼저 팔죽을 떠놓는데, 이는 성주대감, 터줏대감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솔가지로 팔죽을 떠서 집안에 뿌려 나쁜 액을 몰아낸다. 그러나 조상 중에 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 집에서는 동지에 팔죽을 쑨지 않는다.

마을신앙

1. 문산읍

문산포 도당굿

문산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음력 3월에 뱃사람들이 주도하여 도당제를 열었다. 대개 봄에 배가 처음 출항하기 전에 날을 잡는다. 도당굿은 뱃사람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배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었다. 도당굿은 3~5일 정도 했다. 당집은 현 장안아파트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었다.

굿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형편대로 추렴하였다. 상인들은 모두 내야 해서 구장이 점포마다 다니면서 현금으로 각출했다. 장사를 안 하는 주민들의 경우 어려운 사람은 조금 내고 잘 사는 집은 많이 냈다. 도당굿을 하는 날은 씨름도 하고 활도 쏘고 무동놀이도 보며 놀았다. 그러나 남사당패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2002년 조사 기록에 따르면 문산 도당굿은 6·25전쟁 이후 2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동네에 우환이 생기자 1977년경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도당굿

문산읍 당동리에서는 10년 전까지 3년마다 한 번씩 도당굿을 했다. 공동 마을 기금으로 도당굿 비용을 충당하였다. 지금은 마을기금이 없어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더러 마을 부녀자들이 주최가 되어 집집마다 돈을 거두어 한두 번 하기도 하였으나 비용난으로 그만두었다. 산에 당나무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부스러지고 죽어서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새로 심었다.

도당굿을 할 때는 보통 3일에 걸쳐 하고, 4~5명의 무당이 왔다. 당주는 동네 유식한 노인이 책을 보고 그해 운수와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날을 받게 되면 부정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당주는 목욕제계를 하고 정갈한 상태를 유지하며 지낸다.

제물은 통돼지로 한다. 시루떡, 백설기, 콩떡도 해서 올렸다. 아침부터 제물을

준비하여 저녁에 산에 올라갔다. 그날 밤부터 시작하여 이튿날에는 하루 종일 하고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저녁에 내려왔다.

내포1리에서도 과거에 도당굿을 지냈다. 비용은 호당 형편대로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마을회관 옆 느티나무에서 굿을 하였는데, 2~3일 계속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능산1리, 내포3리도 따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노인들이 돌아가고 나서 생기복덕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가 끊어졌다고 한다.

마을 노제

내포4리 안골마을에서는 격년마다 노제路祭로 마을제의를 지낸다. 음력 7월 사일巳日이나 묘일卯日 중 길일에 개를 잡아 하당 신목인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는데, 호미씻이와 산치성을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저녁 찬이슬이 내릴 때쯤에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동네 수호신이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제물로 쓴다고 한다. 술은 조라술 3되를 해서 항아리에 넣어서 여러 날을 놔두었다가 제사에 올렸다. 개고기, 사과, 포도 등을 제물로 구입한다. 수호신목으로 마을에 큰 아름드리 느티나무 고목이 있었는데 6·25전쟁 와중에 불타 그 옆에 새로 느티나무를 심고 이를 수호신목으로 삼고 있다.

제관으로 현관 3인(초헌, 아헌, 종헌관)과 축관 1인을 생기복덕을 살펴 뽑는다. 이들은 노제 일주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부정 타는 일이 없도록 근신한다. 일주일 전에 통문하면 절대로 여자한테 가서도 안 되고 짐승을 죽여서도 안 된다.

제사에는 남녀노소가 전부 참석한다. 노제날 오전에는 느티나무 아래서 씨름판이 열리고, 또 줄다리기도 했다. 마을제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군부대의 군인들도 인사를 온다.

2. 법원읍

마을 도당굿

가야2리에서는 산치성과 도당굿을 모두 지낸다. 산치성의 제장祭場은 산꼭대

기 참나무 밑이고 도당굿의 제장은 마을 앞 느티나무다. 산치성은 음력 10월이나 동짓달에 드리고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정월로 미루지만 봄에는 지내지 않는다. 산치성은 해마다 지내지만 도당굿은 격년으로 추수 후에 택일하여 지낸다. 이곳에서는 향아리 안에 쌀을 넣고 주저리를 덮어씌운 터줏가리를 부군대감 신체로 모신다. 요즈음은 쌀을 넣지 않아 빈 향아리이다. 도당굿의 제물은 쇠족을 쓰는 데 반해 산치성 때는 쇠족을 쓰지 않고 북어를 놓는다.

산신제

법원5리에서는 6·25전쟁 이후 더 이상 산신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이전에 제를 지낼 때는 음력 10월 2~3일에 지냈다. 생기복덕을 가려 축관과 도가를 선정하였다. 조라는 제주 집에서 준비하여 산에 올라가 담그고, 축관을 비롯한 3~4명의 남자들이 큰 시루떡을 산에 가지고 갔다. 법원5리에서는 산신을 ‘고비신’이라 칭했다.

법원읍 평안기원제

법원읍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읍 단위 제사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명칭은 법원읍민 평안기원제로 법사 안성근 씨가 주관한다. 법원 읍내의 산을 자웅산^岵



법원읍 평안기원제 1

법원읍 주최로 2008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법원읍 평안기원제'를 지냈다. 사고를 당한 청년들의 넋을 위로하고 읍민의 평안을 기원할 목적으로 작년(2007년)부터 제를 지내왔다



법원읍 평안기원제 2

'제2회 법원읍 평안기원제'에서 초헌하는 모습. 평안기원제는 무속식과 유교식을 절충하였다

雄山이라고 하는데, 봉우리 두 개가 각기 암산과 수산으로 구분된다. 원래 읍내 마을제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끊겼다. 그러다 작년에 시내 부근에서 법원읍의 핵심 청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횡액이 많아 ‘비나리’ 굿을 가졌다. 올해 2008년이 제2회로 중양절을 맞아 읍 간부들, 유지들, 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3. 교하읍

산신제

동패리 일대 주민들은 부근의 심학산(또는 심악산)에서 산신제를 지내왔다. 심학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곳이라 소문이 나서 3년마다 못자리가 끝나는 음력 3월에 택일을 해 밤 12시에 제를 지냈다. 산의 상봉에 있는 넓적한 바위를 북바위라고 하는데, 이곳을 제단으로 하였다. 심학산 산신제에서는 소머리를 바친다. 제를 지내기 전 동네 노인들 중에서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목욕 재제하고 부정 타는 일이 없게 근신한다. 산신제는 5개 리에서 합동으로 지낸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각각 차일을 치고 동네별로 장만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어울려 논다. 이때 무당들이 3일간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 소원성취를 빌며 굿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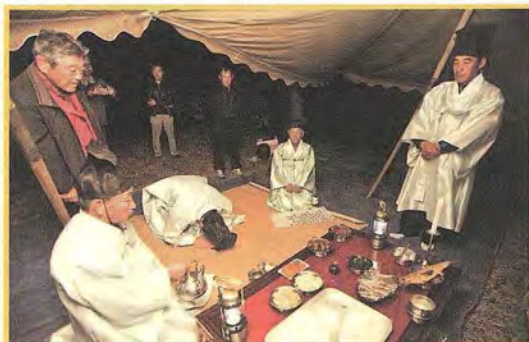


아당4리 산신제 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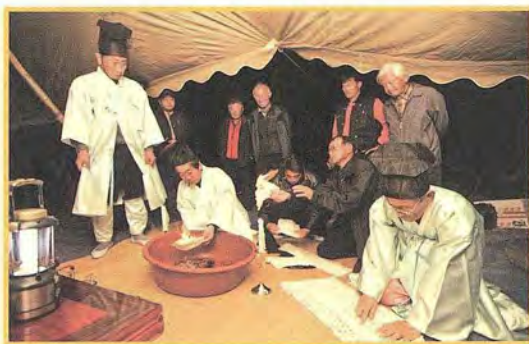
야당4리에서는 산신제를 음력 10월 1~3일 중 택일하여 저녁에 지낸다. 산신제를 위한 특별한 시설은 따로 없고 터에서 천막을 치고 지낸다. 제관 등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의관을 갖춘다. 제물은 떡, 술, 복어, 대추, 밤, 나물 등을 올린다.



2008년 야당4리 산신제 1
산신제 상을 차리고 있다.
상에 올릴 조라술을 거르고 있는 모습



야당4리 산신제 2
초헌을 하고 절을 하고 있다



야당4리 산신제 3
소지를 올리고 있다. 산신제에 정성을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부르면서 소지를 올린다

신촌리에서는 해마다 책임자인 산주를 정하고 동네에서 추렴을 해서 제비를 마련하여 산제를 지냈다. 조그맣게 집을 지어놓고 제를 지내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6·25전쟁이 나서도 얼마 동안 지내다가 제를 지내던 자리에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더 이상 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오도리에서도 예전부터 해마다 지내오던 산신제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80년도에 다시 부활되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무당들이 와서 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동네가 편안치 못할 때는 도당굿을 하였다고 한다. 산신제 비용은 추렴하는데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거둔다. 수호신목으로 상나무를 모시는데 나무가 삭아 새로 상나무를 심었다. 10월 초에 제삿날을 잡는다.



오도리 산신제 1
(1980년도)
고산왕대감이라고 부르는
나무 앞에 떡을 시루째
놓았다.

동네에서는 정태익 씨가 택일하는 일을 보았다. 지금은 그가 돌아간 후에 미리 남겨준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당주와 시주가 선정되면 하루 전에 목욕재개하고 조라술을 담근다. 당주는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았다. 생기복덕을 보아 안 맞으면 다른 사람과 순서를 바꾼다. 시주는 돈을 걷는 등 제사 진행을 돕는다.

상나무 앞에 있는 평평한 돌을 제상으로 쓴다. 상나무 왼쪽으로 주저리와 향나무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나무가 있다. 왼쪽 것은 '고산왕대감' 또는 대신이라고 하고 떡을 시루째 놓는다. 오른쪽은 호랑이대감이라고 부르고 쇠고기를 날로 놓는다. 중앙 제상에는 돼지머리와 백설기 시루 등을 차린다. 미리 주저리를 씌워 익혔다가 걸러둔 조라술을 제주로 쓴다.



오도리 산신제 2
상나무 앞 바위에 상을
차려 산신을 모신다

대동굿

상지석2리에서는 대동굿을 지낸다. 이 마을은 장단군에서 피난을 나온 신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장단군에 거주하던 시절부터 단골이던 만신 박호분 씨(파주시 거주)가 여전히 굿을 맡아 진행한다.

송촌리 제사는 어업과 관련되어 있다. 오두산 전망대 있는 곳에 당이 있었고 예전에 어업을 할 때 고깃배가 나가기 전에 당에 가서 돼지, 떡 등을 올려놓고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는 날은 당부리에서 ‘지네발’ 이 달린 깃발 여러 개가 펠럭이며 올라갔었다고 한다.

4. 조리읍

산신제

장곡리는 일제시대 이전에는 기곡동基谷洞이라 불렸다. 그래서 지금은 터골이라고도 하며, 마을에서는 매년 터골 산신제를 지낸다. 주변에는 돌봉, 갈매봉, 매봉이 있는데, 터골 산신제는 매봉에서 지낸다. 해발 50여 미터 정도의 산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한 평지가 나오는데, 이곳을 매봉대臺라 하고 여기서 산신제를 지낸다. 당집이나 다른 시설은 특별히 없고 매년 차양을 치고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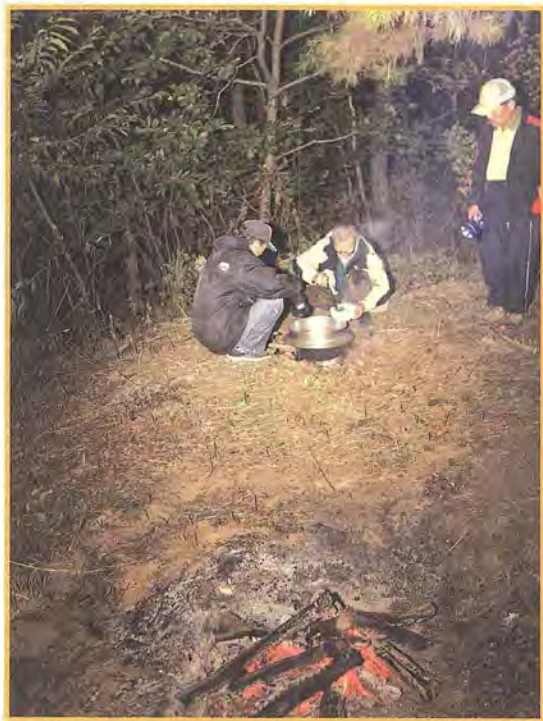
산신제 날짜는 음력 9월 15일로 자정을 넘기고 바로 시작된다. 준비는 9월 11일부터 하고, 제상에 올라갈 조라술도 이때부터 빚는다. 산신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제관과 임사任事로 제관은 음력 9월 11일부터, 임사는 9월 9일부터 몸 관리를 한다. 물고기, 육류, 심지어 새우젓도 먹지 않고 부부 생활도 따로 한다. 제관은 현재 이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임사는 음력 9월 초이레에 두 명을 선정한다. 예전에 임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마당쟁이’ 라고 하였다. 임사들이 매봉대의 풀을 깎곤 했으나 풀을 깎다가 피를 보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마당쟁이가 이를 맡아서 하였다. 산신제 경비는 예전에는 장작 하나라도 공출을 하였는데, 지금은 마을 회비로 충당한다.

장곡리는 전쟁 중에도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난리 때도 산

신제를 지냈다. 옛날에는 소를 잡아서 걸어두었고, 제를 지내고 나면 “국 타러 오셔”라고 외쳐 이를 듣고 올라온 주민들이 함께 제를 지낸 자리에서 국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일제 말엽에는 형편이 어려워져 그때부터 돼지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돼지머리를 올렸다가 호랑이가 나타난 뒤로는 다시 소머리를 썼다고 한다. 예전에는 도당굿을 3년마다 한 번씩 했다. 만신과 재인을 합쳐 대여섯 명이 마을에 와서 이틀에 걸쳐 굿을 했다.

올해 산신제에는 제관 등 모두 다섯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오후 3~4시부터 산신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제물은 소머리, 탕, 편, 조라술, 삼색과실, 소금을 올린다. 소머리는 하얗게 다듬어 올린다. 탕은 연육질 소고기 닷 근을 구입하여, 당일 사람이 쓰지 않은 물을 떠서 매봉대에서 직접 끓인다. 일체 간을 하지 않고 물만 부어 산신제 직전까지 끓인다. 떡은 방앗간에서 찌다가 손으로 주물러서 고물이 없이 편으로 만들어 총 11개를 올린다. 조라는 11일 저녁에 누룩으로 산에서 담가 주저리를 해서 썩어놓는다. 삼색과실로는 배, 밤, 감을 쓴다. 터골 산신제에서는 특이하게 소금을 올린다. 탕에 일체 간을 하지 않는 대신 산신을 위해 따로 굵은 소금을 사기그릇에 소북이 담아올리는 것이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산할아버지와 산할머니, 토지신 등 세 분의 신을 모신다. 제상의 왼쪽에 산할아버지, 오른쪽에 산할머니를 위한 제물을 진설한다. 산신 제상의 왼편 조금 떨어진 소나무 앞에 토지신을 위한 제상을 간소하게 차린다. 우선 토지신에게 술 한 잔을 올려 높은 쪽을 보고 지낸다. 그런 다음 산할아버지와 산할머니에게 제를 지낸다. 모두 삼배를 한다. 장곡리는 영감님, 오산리는 마나님으로 한날 산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오산리는 지내지 않고 장곡리만 지내고 있다.



2008년 장곡리 터골 산신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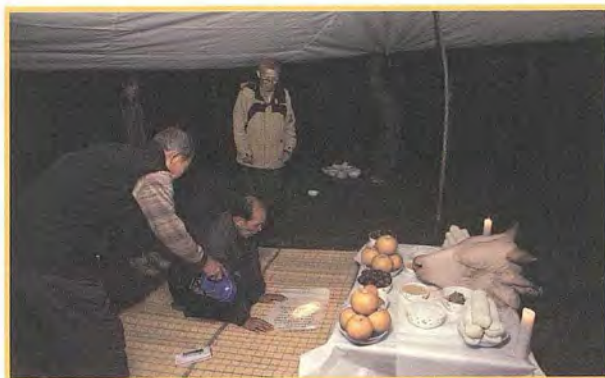
자정을 넘기면 바로 산신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기 직전 매봉대에서 직접 끓인 탕을 뜨고 있는 모습. 탕은 모두 세 그릇을 준비한다



장곡1리 터골 산신제 2
산신제가 시작되면 먼저
토지신에게 제를 지낸다.
탕, 편, 조리술, 소금, 배,
밤, 감을 간소하게 차려
올린다. 제관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고 있다.
올린 술은 토지신이
드시라고 땅에 붓는다



장곡1리 터골 산신제 3
왼쪽에 산할아버지,
오른쪽에 산할머니를 위한
제상을 한 상에 차린다.
제관이 절을 하고 있다.
제관은 현 이장이 맡아서
하고 있다



장곡1리 터골 산신제 4
초헌을 한 후 제관이
축문을 읽는다

오산리 오릿골 산치성은 제액, 풍농을 목적으로 하며 유교식으로 지낸다. 당제봉의 제일 높은 봉인 고들봉 나무 밑에서 지낸다. 제물로는 소를 쓴다. 젃날은 매년 음력 9월 14일로 자정에 지낸다. 9월 3일에 회의를 하여 책임자인 당주 1인, 제관 1인, 축관 1인, 돈을 걷고 심부름을 할 주비 4인 등 모두 7인을 선정한다.

각 마을에 한 명의 주비가 집집이 돈을 추렴하며 보통 2000원 내지 3000원씩 걷는다. 부정이 있는 집은 지난해 냈다 하고 내지 않는다. 제물로 잘생긴 붉은 빛의 소를 사되 흥정하지 않는다. 소는 산 밑 우물 앞에서 잡았다. 14일 아침나절에 소를 잡아 저녁에 당제봉으로 가져가 삶는다. 쇠머리를 따로 제상에 올리고 나머지는 끓여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후 나누어 먹는다. 20여 년 전부터는 통소 대신 쇠머리만 삶아 제상에 올리고 있다. 제상 차림은 다음과 같다.



산치성 담당자가 결정되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당주 집에 금줄을 매고 황토를 대문턱 두 군데에 놓는다. 생선 같은 비린 것을 먹지 않았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여 자고 갔다. 저녁에 제관 7인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고들봉에 올라가서 자정에 제사를 지낸다. 익일 주비들이 집집이 제물을 나누어주고 낮에 당주 집으로 모여 결산을 한다. 이때까지 동네에서는 농악을 하다가 산치성 드릴 때 그친다.

5. 광탄면

산신제

용미1리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만신을 불러 3년마다 굿을 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요즘은 제사 형식으로만 지낸다. 산치성에 참여하는 전체 가구는 50여 호 정도이다. 호당 1만 원 이상씩 거두어 보통 50만 원이 모이는데, 이것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놓는다. 산치성은 마을 성황당 나무에서 올린다. 산치성 날을 받으면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신산2리에서는 3년마다 만신을 불러 산치성을 지냈으나 약 10년 전에 끊어졌다. 제는 청송 심씨 종중산 위 오래된 소나무 앞에서 지냈다. 우물도 있었다. 비용은 호당 1만 원 이상 추렴해서 충당했다. 제물로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삼지창에 꿰어서 걸어놓았다. 요즘은 동네에서 당주를 선정하여 지낸다.

신산5리 외화산 마을에서는 신산4리와 합동으로 산치성을 지내고 있다. 음력 3, 4월경에 지낸다. 4리와 5리가 번갈아 가며 제수를 마련한다. 집집마다 1만 원 이상 성의껏 낸다. 예전에는 만신을 불러서 3년에 한 번씩 밤에 굿을 했다. 1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지내기 시작했는데, 낮에 제사 형식으로 지낸다. 제물도 가정집 제사 음식처럼 삼색나물, 고기적을 놓고 지낸다. 산치성을 지내는 성황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굿당도 있었으나 없어졌다.

방축1리 검전마을은 매년 음력 10월 1일 밤 9시경에 산치성을 올린다. 9월 27일의 대동회의에서 제비, 제관(당주 1인, 축관 1인) 등을 결정한다. 제비는 1991년도부터 각 호마다 2000원을 걷어왔는데 이전에는 쌀 두 되씩을 걷었다. 마을 공동기금이 있으나 산치성 비용으로는 쓰지 않는다.

당주는 제의 전날 산제터에 올라가 제장을 정리하고 조라술을 담가두고 온다. 젃날 아침 이장이 제물(쇠머리, 쇠고기 1근, 감 10개, 배 10개, 밤 5홉, 사고지, 향, 초)을 사다가 당주 집에 가져다준다. 당주 집에서 백설기 시루를 찌고 쇠머리를 삶아 제물을 준비해 두면 저녁 8시경 제관과 이장, 각 반장들과 젊은이들이 당주 집으로 모여 산에 올라갈 차비를 하여 횃불을 든 사람을 따라 산제터로 향한다.

제장에 도착하여 제상이 차려지면 제관이 유교식으로 제를 진행한다. 분축이 끝나면 쇠머리에서 고기를 세 조각 떼어 “일 년 내내 부락이 무사하고, 발전 번영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멀리 던진다. 백설기도 세 번 떼어서 던진 후 제관이 물러나면 쇠머리를 안주로 조라술을 나누어 마시며 음복한다. 조라술 항아리는 물로 씻어낸 후 제기를 담아 다시 묻고 새 터줏가리를 씌운 다음 창호지를 길게 접어 묶어두고 하산한다. 산에서의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진대고사

용미4리 진지동 또는 진파배기 마을에서는 진대고사를 지내는데, 파주에서는 유일한 형식과 명칭이다. 예전에 최영 장군 영당이 진지동 해음원사지 삼거리에서 왼쪽 길 산 쪽으로 100m 위에 있었으나 군사정권 때 미신을 타파한다고 부숴 버렸다고 한다.

고사 날짜는 음력 10월 3일이다. 자금은 집집마다 1만 원씩 거둬 충당한다. 현재 180호 정도 되지만 모두 참여하지는 않고 오래 살던 가구 80호 정도만 돈을 낸다고 한다. 부근에 있는 공장에서도 돈을 내고 소지도 올린다.

제의 방식은 유교식이 아닌 무당을 불러서 지낸다. 그래서 축을 읽거나 하는 것은 없다. 무당은 마을 단골무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원래 있던 단골무당이 죽은 후 외부에서 무당을 부르고 있다. 올해 2008년에는 의정부 무당이 징을 담당하는 신아버지와 함께 왔다.

고사는 부정거리, 성주거리, 솟대거리 순으로 하루 종일 지낸다. 먼저 마을회관 현관 안에서 무당이 부정거리를 한다. 방, 부엌, 화장실, 문지방에 시루떡을 한 접시씩 놓고, 현관 안 큰상에 시루떡판을 판째로 올리고 술을 부으면 부정거리가 시작된 것이다. 무당은 오방기(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흰색)를 들고 마을회관 안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부정을 쫓는다.

부정거리를 마치면 바로 산에 올라가 성주거리를 시작한다. 먼저, 상을 차리고 소머리를 올린다. 무당이 오방에 절을 하면 굿거리가 시작된다. 굿거리의 마지막에 무당이 소머리를 삼지창에 꽂아 신이 제사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성주거리가 끝나면 솟대로 와서 고사를 지낸다. 솟대는 할아버지 솟대와 할머



용미4리 진대고사 1
마을회관 현관 안에서 무당이 부정거리를 한다. 부녀회 회원이 시루떡 위에 돈을 바치고 절을 하고 있다



용미4리 진대고사 2
진대고사의 둘째 거리인 성주거리 장면이다. 성주거리가 시작되자 무당과 신아버지가 신에게 인사를 고태고 있다



용미4리 진대고사 3
성주거리에서 무당이 소머리를 삼지창에 꽂자 부녀회원이 절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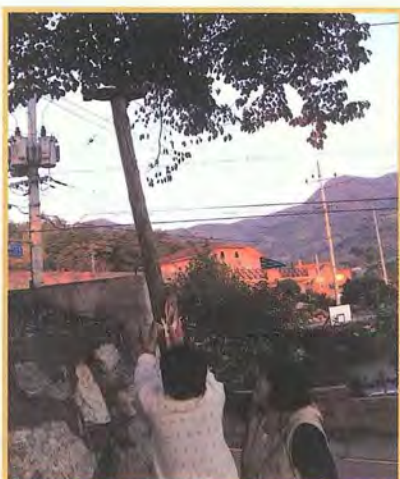
용미4리 진대고사 4

진대고사의 마지막 거리인
숫대거리를 지내기 위해
제상을 준비하고 있다. 큰
상은 할아버지 진대 앞에
차린다



용미4리 진대고사 5

할아버지 숫대 앞에서 진대고사를 지내는 동안 부녀
회원 두 명이 할머니 숫대에 가서 간소하게 제물을 진
설하고 빌고 있다



용미4리 진대고사 6

할머니 숫대에 복어를 메고 있는 모습

니 숫대 두 개가 있다. 할아버지 숫대는 마을회관 앞에 있고, 할머니 숫대는 마을 교회 맞은편 계단에 있다. 두 숫대의 머리는 모두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무당과 부녀 회원들은 할아버지 숫대 앞에 고사상을 차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과실, 팔시루떡, 복어, 술 등을 올린다. 각 가정의 식구들 이름을 적은 소지를 올리고 불태우며 평안을 빈다. 그 사이 부녀회 회원 두 사람이 할머니 숫대에도 간소한 상을 차리고 고사를 지냈다.

용미4리 진대고사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고사 절차가 부녀회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다. 남자들은 부정거리, 성주거리를 구경은 하지만 직접 빌거나 하지는 않고, 진대고사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다. 대신 부녀 회원들은 음식 준비에서부터 무당과 직접 접촉하고, 진대고사에서는 소지를 올리며 비는 데 적극 참여한다.

6. 탄현면

산신제

금산리 주민들은 1, 2리가 함께 보현산에서 격년으로 동짓달에 산신제사를 드린다. 금산1리는 120여 가구이고, 2리는 30~40가구 정도다. 제관, 축관 등 선발된 사람들만 제사에 참여한다. 밤 12시 전후로 제를 지낸다. 제물은 황소 한 마리를 올리는데, 소의 '내세목(갈비 안쪽)'은 신령님에게 바치고 '외세목'은 호랑이에게 바친다. 소는 점이 없고 누런 소를 골라 현장에서 잡는다. 제기 보관과 겨울 추위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제사 지내는 곳에 놓아두었다.

날을 받으면 조라술을 만든다. 제관, 축관, 감례(監禮), 상·하 집사 등 선출된 5명은 조라술을 담은 이후로 도가집에서 합숙을 한다. 냉수 목욕도 한다. 날이 정해지면 도가대문 양편에 황토를 뿌려 잡인 및 잡귀의 접근을 막으며 육식을 금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관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철저히 관리한다.

우물을 파 제수 용수를 확보하고 제단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불을 놓아 온도를 높인 다음 술독을 묻고 제주미 7되 7홉을 깨끗이 씻어 누룩과 혼합하여 3일 전에 술을 빚어 넣는다. 당일 망태기에 그릇, 소금, 수저 등을 담아 산으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올라간다. 헌관과 축관만 제사터로 올라가고 집사가 그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중계한다. 한편 미리 선별해 놓은 작포자 5~6명이 제사 소를 잡아 고리에 고기를 걸어둔다. 제사를 지내고 분육을 마치면 새벽 5시 정도가 된다.



갈현리 산신제 1 제관이 초헌을 하고 있다



갈현리 산신제 2 산신제에 참여한 일동이 절을 하고 있다



갈현리 산신제 3 제관이 축문을 읽고 있다. 오른쪽으로 절개된 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갈현리 산신제 4 마을 이장이 종헌관으로 잔을 올리고 있다



갈현리 산신제 5 산신제 후 음복하는 모습

갈현1리에서는 2008년 음력 10월 15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6·25전쟁 이후 마을이 거의 불타 지내지 않다가 최근 마을에 불상사가 자주 생기고 주민들 사이에 당산이 잘려나가 악운이 들어 그런 것이라는 여론이 돌자 2006년에 법사를 불러 돼지를 잡고 경사굿 고사를 올린 이후로 3년째 되었다. 원래 갈현리 3개 마을이 같이 지냈으나 지금은 1리만 지낸다.

도당제

성동리 큰말에서는 예전에 봄(음력 3월)과 가을(가을걷이 후)로 만신에게 날을 받아 3~4일 굿을 했었다. 모시는 신은 산신으로 호랑이다. 마을 뒷산 아래쪽의 평평한 곳에서 제를 지내는데, 젓날에 금산이나 금촌에서 온 5~6명의 만신 일행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굿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숙식하였다.

만신은 생기복덕을 가려 제의 책임자 당주 1인을 선정했다. 제비는 집집이 성의껏 낸 쌀과 돈으로 충당하며 제물을 준비하고 남은 경비는 만신에게 모두 준다. 제물로는 통돼지, 쇠머리, 쇠족, 팔시루, 백설기, 인절미, 약과, 사과, 배, 꿀, 밤, 대추, 산자, 다식 등을 마련하며 당주는 특히 떡과 조라술을 정성껏 준비한다. 제물로 육류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도당제를 지내는 산이 육산(肉食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일도 생것으로 꼭지 달린 것을 쓴다. 젓날이 되면 조라술과 떡으로 당주 집 고사를 먼저 지낸 다음 도당제로 올라가서 당주가 절을 한 후 이어서 만신이 굿을 벌인다. 과거 대동굿이 열리면 엿장수 등 장사꾼들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큰말 도당제는 8.15해방 후 중단되었다가 1979년경에 큰말로 이사 온 김학순 보살에 의해 부활되었다. 김 보살은 처음에는 자비로 봄과 가을 두 차례 치성을 들어왔는데 요즘은 마을 사람들도 일부가 가을 치성에 참여한다. 1991년 음력 10월 4일의 치성에는 20여 가구가 참여하여 제비로 약 40만 원이 들었다. 봄에는 떡시루 하나와 술만 준비해서 김 보살 혼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있다. 김 보살은 호랑이 산신뿐만 아니라 칠성과 천존을 함께 모신다.

성동리 요풍동에서는 격년으로 음력 2월 1일에 여변양이라고 부르는 산치성

과 대감굿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왕에 소개된 곳이 많아 여기서는 간략히 소개한다. 여변양에서는 제석신과 번양신, 덕물산의 최영 장군과 문수산의 산신 및 성동리 서낭고개의 서낭나무도 함께 모신다. 예전에 이곳 사람들은 덕물산이나 문수산에 치성을 드리러 다니고는 했었다. 대감굿에서는 살롱대감과 호대감을 모신다. 살롱대감은 원래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대감이며, 호대감은 전주 이씨 집안의 사연으로 인해 모시게 된 대감이다.

7. 적성면

산천제

어유지리에서 지내는 동제 이름은 산천제(山川祭)다. 격년마다 음력 3월 초 새벽에 어유지1, 2리가 합동으로 대동산 꼭대기 빈터에서 지낸다. 예전에는 부군당이 있었는데 6·25전쟁 후 없어졌다. 부군당에서 부군굿을 했으나 10년 전부터 굿은 하지 않는다. 굿을 할 때는 5~6명의 만신이 와서 부락의 안녕을 위해 3~4일 간에 걸쳐 굿을 했다.

제물은 모두 생것으로 올린다. 소머리, 백설기(그 자리에서 쌀을 서 되 서 흡을 찢어서 찐다), 청정미(차좁쌀), 황정미(기장쌀), 백정미(백미), 소금, 술을 올린다. 쌀은 씻지 않고 생쌀로 올린다. 근래 들어 밥과 대추도 올린다. 술은 예전에는 조라술을 담아 썼으나 요즘에는 제주(약주)를 사다 쓴다. 제물을 살 때는 일체 흥정을 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주고 산다.

제관을 선출할 때는 생기복덕을 봐서 선정했으나 요즘은 생기복덕을 볼 사람이 없어 산천제 회장이 맡는다. 산 아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산에 올라갔다. 추울 때라 대충 씻고 간다. 연못은 지금 양어장이 되었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처음 기금을 마련할 때는 각 호당 쌀 한 말씩을 거두어들였으나 지금은 집집마다 비용을 걷지 않는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양을 내야 하지만 이사 가는 사람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 마을기금으로 산천제 비용뿐 아니라 농자금도 대출해 준다. 어유지리에서는 산천제와

관련된 산천계 장부, 문서, 축문을 보관하고 있다.

산천계(山川契)는 어유지1, 2리 주민들의 가장 대규모적인 공동 활동이다. 어유지리 산천계는 대동계로 산신제사뿐 아니라 상례, 공동 물품 구입, 계 자본 대출까지 담당했다. 산천계장은 이장과 별도로 정해졌다. 산천계의 자세한 운영 방식과 함께 제례 절차, 제수, 진설방법, 축문이 어유지리 '산신제향봉행규약(山神祭香奉行規約)'에 잘 드러나 있다.

어유지리 산천계(魚遊池里山川契) 산신제향 봉행 규약(山神祭香奉行規約)

산신봉향 제규약(山神奉香祭規約)

- 一. 각칭(各稱) 본산신계(本山神契)는 어유지리 산천계라 칭한다.
- 一. 본 계는 이십 인의 대의원을 두고 모든 의결은 대의원회의에서 한다.
- 一. 회 및 계를 운영키 위하여 회장 일 명, 문서와[及] 재무를 담당할 서기 일인을 둔다.
- 一. 회장은 계를 대표하며 대의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 一. 타지에서 이주하여 온 가구는 하시라도 본 계에 규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다.
- 一. 본 계 회원으로서 타지로 이거 시는 회는 일체의 환급금 없이 자동 제명된다.
- 一. 회장과 서기의 임기는 이 년으로 하며 제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거주별로 사 개조로 분담(봉화촌, 어유지일리 일반 마을, 삼반 마을, 이반 연대 앞)하여 회장 임기 시 인계인수한다.



적성면 어유지리 산신제향 봉행 규약

- 一. 제향은 이년에 일회로 정하되 음 삼월 일일 자정에 행하며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 산사십사변지 산신제단에서 거행한다.
- 一. 본 계 총회는 매년 음 십월 말일로 정하고 계통문에 의하여 소집하고 모든 추봉을 당일 결재한다.
- 一. 본 규약은 제정한 날로부터 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며 계전원은 본 규약을 영구 준수한다.
- 一. 산신제향은 별도로 정한 제례에 의하여 거행한다.

진설도



축문

維歲次 三月 朔 初一日

幼學○○○敢昭告于

紺岳山東北 月羅山下 台日洞 機陽洞

뒤골 平天洞 四個洞 魚遊池里 大小人民一同

山川之神 天作高崗 敢謁卑○伏祝鎮此一方

天地化音 陰陽調和 風不鳴條 雨不破壞

五穀豐登 育畜繁殖災害日去福祿日至
 人人自足 家家和樂 愛○愛耕 惟山庇之
 此山之下 惟我洞民 宿日齋成 簡我丁吉
 敢將牲酒 以表懲誠 伏乞神明
 酒肴雖薄 感厥誠意 格思洋洋尚
 饗

8. 파평면

산신제

율곡1리 산신제 제관 선정은 마을 어른 격인 영좌가 주관해서 부정 타지 않은 깨끗한 집을 정해서 도가집으로 삼았다. 도가를 정하면 붉은 진흙을 대문에 뿌려두어 마을 사람들이 도가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출입을 금했다. 음력 8월 그믐날에 낱짜를 잡고 도가집과 소임을 정해서 음력 9월 9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을 타게 되면 10월 초에 다시 산신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산신제 날에 개를 잡아놓고 거리제사를 지냈다. 임진강에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무사안녕을 빌기 위함이었다. 외부에서 무당을 데려오지는 않고 제관이 거리제사를 먼저 지내고 밤에 산신제를 지냈다. 과거에는 까다로워서 털이 검은 돼지만 제물로 썼다. 당시에 돼지는 3마리를 잡았다. 워낙 마을 호수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로는 부족했다. 쌀은 마을 사람들이 각 집마다 한 되 5홉씩 모아서 냈고, 떡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나누었다. 제물 비용은 각자 정성과 형편대로 알아서 냈다.

산치성 경비 목록 : 1986년 9월 9일(음)

1) 시장에서 치성 제물 구입비	9,670원
2) 떡 수수료	15,000원
3) 차비	1,000원

4) 고춧가루	3,000원
5) 소주 2병	8,000원
6) 막걸리 1병	5,500원
7) 면도날 3개	1,000원
8) 마늘 1사발	1,000원
9) 나무 값	10,000원
10) 노트 값	100원
11) 창호지	100원

총 수입 67,000원 - 경비 총계 49,820원 = 17,180원

참여 총 호수 : 40세대

거출 금액 : 백미 5합, 현금 1,500원

희사하신 분 : 이재철 씨 돼지 1마리, 이재억 씨 10,000원

치성 경비 내역 : 2006년 10월 24일(화)

소임 : 유홍진, 송금순

통돼지	300,000원
떡 20kg	102,000원
막걸리	2,000원
택시비	12,000원
큰 다라이	7,000원
가스 2통	52,000원
줍쌀 소지종이	6,000원
하모지 잡비	132,640원
풍풍	8,300원

산치성 회비(730,000원) - 지출(613,940원) = 110,000원

산치성 잔액(110,000원) + 전년도 이월금(270,000원) = 380,000원

9. 월릉면

산신제

능산리 산신제는 원래 마을 입구에서 지나다가 30여 년 전에 조상 묘 위에 터를 잡았으나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국사봉 아래 현 위치를 정해 3년 간격으로 지낸다. 음력 7월 초에 택일한다.

10. 금촌동

산신제

검산1리 마을제의 장소는 은봉산 봉우리에 있는 산제터이며 제의 때는 광목으로 된 차양을 치고 그 안에 제상을 차린다. 터 아래에 우물이 있다. 젃날은 매년 음력 10월 2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상이나 화재 등 동네에 부정이 생겼을 때는 꼭 한 달을 연기한다. 제의 3일 전에 생기복덕을 가려 당주와 소당주(소임)를 정한다.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특히 쌀 등이 나가는 것을 막았다. 제의 이틀 전에 당주와 소당주는 집집이 쌀 1되씩을 걷는다.

제물은 예로부터 메도 없고 고기는 북어뿐인데, 산을 소산(素山)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정에 산치성을 지내며 여자들도 참관할 수 있다. 제관들은 제장으로 가는 길에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간다. 광목 차양 안에는 당주, 축관, 소당주 등 몇 명만 들어가 제를 올린다.

제관이 재배하고 잔을 올리고 독축 후에 축문을 태운다. 이어 대동소지, 당주소지, 우마(牛馬)소지를 올린다. 당주소지는 “당주소지입니다. 일 년 열두 달 몸 건강하게, 무사하게 해주십시오”하고 빈다. 우마소지에선 우마가 병 없이 잘 번식하기를 빈다. 동네에서 올려주는 개인 소지는 따로 없다. 제장에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지를 올린다. 음복은 당주 집으로 내려와서 하며 시루떡을 잘라 집집마다 돌리고 나면 보통 새벽 3시경이 된다.

아동1리 아골 산신제는 학령 산록에 있는 제사(祭舍)에서 매년 음력 10월 14일

자정에 지낸다. 제관으로는 제관 2인과 소임 4명을 뽑으며 여자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제의관들은 제의 일주일 전부터 문 밖 출입을 금하고 음식도 가려먹으며 근신한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살생이 금지된다. 동네 우물을 청소하고 제사 지낼 우물물을 떠가지 못하게 금줄을 친다. 제비는 동민이 분담한다. 제물로는 내장만 빼낸 통돼지를 바친다. 산제 후 마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다음은 1905년에 작성된 산신제 향약과 산신축, 제물 품목 및 진설도다.



학령산 제당

아곡동 산신제 향약 衙谷洞山神祭鄉約

아곡동민의 안녕과 재해환난을 면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신제 향약을 정함.

- ① 산신제단은 학령산록에 설함.
- ② 산신제는 매년음 10월 14일 자정에 시행함.
- ③ 산신제에는 산신축 제물 품목 설음도에 의함.
- ④ 산신제에는 제관 2인 소임 4인을 제일 〇일 전에 정함.
- ⑤ 산신제 기간 중에는 제관 및 동민이 일체의 부정과 살생을 금하고 치성에 전력함.
- ⑥ 산신제에 소요 경비는 동민이 분담함.

서기 1905년 을사년 시월 십사일 최범구 등록

산신축 山神祝

維歲次 某年某月某日 幼學某敢昭告子

鶴嶺山神靈之前時屆孟冬精 是宜克勤誠禮

式陳 牲酒果祗薦薦子神 神其保佑 無後艱

用伸處告 謹告 尙饗

제물 품목

- | | | |
|-------------|-----------|------------|
| ① 백미 1기 | ② 청정미 1기 | ③ 백미 麥米 1기 |
| ④ 저궤(돼지) 1수 | ⑤ 양주 3헌獻 | ⑥ 과실 3색 |
| ⑦ 호초다胡椒茶 1기 | ⑧ 백염白塩 1기 | ⑨ 대구포 1首 |

산제 용품

- | | | |
|----------------|---------------------|--------------|
| ① 모사茅沙 | ② 향로香爐, 향香 | ③ 병풍屏風 1오件 |
| ④ 수포건水布巾 1자[尺] | ⑤ 축지祝紙 1매枚, 소지燒紙 1매 | |
| ⑥ 황촉黃燭 1쌍雙 | ⑦ 시저匙箸 1오 | ⑧ 양장仰帳 1부浮 |
| ⑨ 휘장揮帳 1부 | ⑩ 접시 8개 | ⑪ 사불기沙佛器 1좌坐 |
| ⑫ 목엽木葉 8개 | ⑬ 주잔酒盞 1좌 | ⑭ 등잔燈盞 1개 |

진설도



11. 고랑포

임진강 고랑포 도당굿

고랑포는 행정구역으로 원래 장단에 있다가 지금은 연천군에 속해 있는데, 파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포구다. 고랑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도당굿을 열었다. 당집은 윗고랑포에 있었고, 아랫고랑포에는 큰 당나무가 있었다. 윗고랑포에 있던 당집은 강 옆의 석벽 위에 위치하였는데, 석벽 아래는 고랑포 나루터였다. 이곳의 굿을 도당굿, 또는 고창굿이라고 하는데, 윗고랑포에서 먼저하고 나서 아랫고랑포에서 했다.

도당굿이 있기 한 달 전부터 마을에서 팽과리를 치고 호적을 불고 놀지만, 굿은 무당 3~4명이 하루 동안 했다. 도당굿은 동네 번영회에서 지내는 것으로 무당도 고랑포번영회에서 불렀다. 번영회는 윗고랑포와 아랫고랑포가 따로 있어서 무당도 각각 불렀다고 한다. 추렴은 굿이 있기 전 동네 사람들이 농상기를 들고 풍악을 두드리고 놀면서 상인을 찾아다녔는데, 쌀 한 가마니 정도를 건을 수 있었다.

도당굿을 하는 날 상인들은 자기 가게 앞에 농상기를 만들어 놓고, 무당이 말을 타고 윗고랑포에서 아랫고랑포로 이동하면 농상기를 들고 아랫고랑포까지 함께 걸어갔다. 당시에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당굿을 할 때면 고랑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무척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흥하던 굿판이 벌어지지 않게 된 것은 일제 시기 말부터였다고 한다. 해방 후에 한 차례 더 굿이 있고 난 뒤에는 삼팔선으로 장남면이 둘로 갈라지고 또 다시 6·25전쟁으로 갈라진 마을들이 고착되면서 더 이상 굿은 열리지 못했다.

파주의 무속

진철승_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파주의 무속은 크게 보아 경기 북부권에 속한다. 이는 개성 무속의 영향과 서울 무속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한강 이남의 세습무와 달리 한강 이북의 강신무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치상으로도 파주는 고려 이래로 개성에서 한양(남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개성을 거쳐 의주로 가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파주의 무속은 개성과 서울 무속의 지대한 영향하에 형성되고 전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무속 일반이 그러하듯 파주 무속의 역사와 전개에 대해 일러주는 문헌 기록이나 역사 자료는 거의 없다. 조선 시기 각종 읍지 등의 자료나 일제시대 총독부 측탁들의 여러 조사보고 서류에도 파주 무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1960~1970년대 이전의 파주 무속에 대한 자료 또한 거의 없으며, 설령 있다 해도 무당이나 계보 및 무속 행위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마을굿(도당굿류)의 제차(第次)가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더구나, 현재는 파주 토박이 무당들이 거의 사망한데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개발로 인해 외지 무당들의 유입이 급증하여 파주 무속이라는 조사 범주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 보고는 확인할 수 있는 파주 지역의 무당들에 대한 개별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2~3명의 파주 토박이 무당과 2~3명의 외지 유입 무당을 함께 조사하여 2008년 현재 파주 지역 무속의 한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파주 무속에 대한 본격 조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말미에 마을굿에 관여한 현지 무당들의 구술과 이전 기록들을 정리하고 현전하고 있는 광탄 용미리 대동굿을 살펴 파주 무당과 마을굿(도당굿, 고창굿, 대동굿)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보고자 한다.

파주 무당

파주 지역은 1914년에 있었던 일제의 행정구역 변경과 해방 후의 6·25전쟁, 그리고 분단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애매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파주 무속에는 문산이나 파주읍 등뿐 아니라 예전의 적성현, 교하현, 개풍군 장단면에 본디 양주 지역이었던 광탄 지역까지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전의 무풍을 일러줄 수 있는 무당들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옛 무속을 기억하고 있는 몇몇 무당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편린을 짐작해볼 수밖에 없다.

1. 파주보살(한애옥, 63세, 병술생, 문산 임진리)

장단 고랑포에서 태어났다. 피난을 연천 백학으로 갔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풍파가 많았다. 인간 풍파가 많아 돈, 술로 집안이 거지가 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하도 먹을 타령을 하여 엄마가 개구리를 구워주기도 했다. 집안이 어려워 7세에 서울 신촌 어딘가에 애기식모로 갔다. 고생 끝에 동상에 걸려 3년 만인 10세에 파주 외가로 갔다. 12세에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하문을 하고 진안걸립을 했다. 주내 대추골(용주골)로 손뼉을 치고 나가니 어느 할머니가 저길 어찌나 하다가 저기 온다 해서 보니 신아버지였다. 신아버지 김창주(81)는 본디 충청도 사람으로 서울곳을 하는 박수였다. 17세에 인천에서 내림굿을 했다고 한다. 마침 신아버지가 진적굿을 하던 때라 걸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진적굿 걸립을 했다. 신아버지 진적굿이 내 곳이었다. 엄마도 같이 내림굿을 했다. 엄마는 송복순(83)으로 떡 장사, 그릇 장사로 온갖 고생을 다했다.

나에게 내린 신은 벼락대신이었다. 외할머니가 큰 만신이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내린 것이다. 외할머니(김간난이)는 동네 큰 만신으로, 일제 때 고랑포 등 파주의 큰 도당굿(고창굿)에서 말 타고 당맞이를 갈 정도였다. 그 외할머니 김 씨 할머니가 몸주로 내린 것이다.

내림굿 하고 나서 신아버지에게는 사설이고 장구고 일체 배우지 못했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 그냥 따라다니며 눈썰미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도 얘기만신 소리를 들으며, 작두 타고 공수도 주고 했다.

굿은 주로 재수굿을 하고 진오기나 우환굿도 한다. 재수굿은 예전에는 지방에 따

라 주당물림을 밤 12시에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했다. 요즘은 잘 안 한다. 이어 한 밤중에 밖에서 물동이 타고 쌀 마련해서 불사맛이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까 셋별맛이라 했다.

아침에 부정 치고 본향, 가망, 도당, 군웅, 신장, 대감 놓고 성주(읍) 모시고 성주 곳을 한다. 초대감 놀 때는 조라술 마련해서 떡도 팔고 놀았다. 서낭, 말명, 제석, 조상 모시고도 초대감 놀았다. 이어 상산(장군), 별상, 창부거리를 하고 뒷전을 한다. 별상거리에서 작두를 타고 공수를 준다. 뒷전에서는 터주, 지신, 업, 맹인, 영산(죽은 조상), 말명, 상문수비 모두 다 풀어야 한다.

진오기는 상문 퍼지고 장님이 하문해 주면 한다. 예전에는 장사 당일 무당이 반혼제에서 자리것이를 했다. 진오기는 49재 때 하기도 하고 백일 때 하기도 했다. 본디 남자는 3년 여자는 1년 탈상 때 했다. 49재 진오기에서는 군웅에 먼저 해치고, 가망 놓고, 영실 놓고 만다. 서울곳에서는 상산에 물고받기도 한다.

우환곳은 병곳인데, 조라를 먼저 준비한다. 생조라는 술을 안 빚고 쌀과 물만 준비하는 것이고, 중조라는 밥하고 물을 준비한다. 술을 빚을 때는 나이대로 밥 준비해서 누룩 버무려 술 따라 빚는다. 군웅조라는 각성받이 7집에서 받아 대문 밖에 놓아둔다. 혹은 머리맡에 술, 잡밥, 북어를 놓고 대주의 생기복덕 보아 상문 걸어달라고 비손이나 간단한 푸닥거리를 한다. 곳을 할 때는 산곳인데, 호주를 부엌칼이나 신장칼로 버리버리 뱃긴다. 미친곳일 때는 복숭아로 뱃긴다.

해마다 정월에는 홍수맥이를 하고, 초파일과 칠석에는 신자들을 법당(신당)에 모아놓고 축원을 해준다. 신당에는 소당으로 대신할머니, 불사할머니, 삼불제석, 칠석님을 모신다. 이어 글문도사, 산신도사, 최영 장군(최일), 장수별상, 호구별상, 오방신장, 여별상, 대신할머니, 성관대신, 옥황상제, 상제부인, 일월성군, 선녀, 팔선녀, 칠공주를 차례로 모신다. 약사, 관음, 지장보살도 모신다.

2. 선녀보살(안병철, 57세, 법원리)

서울 마포 공덕동에서 태어났다. 30여 년 전 파주로 와서 장사를 하다가 돈 장사, 인간 장사에 실패했다. 남편도 없고 할렐루야 기도원도 다녀보았지만 재산만 날렸다. 신아버지는 김유식(76)인데 법원 대능리 사람으로 금촌, 문산 등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의정부에 산다. 신자식이 많기로 유명하고 진오기 바리공주를 잘한다. 신

내리기 전에는 눈으로 병이 와서 영등포 김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선몽도 있었는데, 큰 강가에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 건너오는데 엄마가 있었다. 아버지는 “파평산 미륵님에 가서 무당 받아라, 입적해라” 했다. 무당 안 되면 5대 독자 아들 낚는다는 소리를 듣고 신아버지한테 가서 내림굿을 했다. 백호산 신령할아버지가 왔는데, 최영(일) 장군, 옥황상제, 삼불제석도 모셨다. 이때 말문이 열려 불사 입히고 인왕산 산신각 가서 인사하고 나자 단돈 17만 원이 남았다. 그러나 이후 할아버지가 잘 불러줘서 사업이 잘됐다. 신아버지한테 굿이나 사설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1년에 한 번 3월에 진적굿을 하는데, 먼저 상산 파평산과 봉서산에 가고, 이어 축령산 본향 돌고 다음에 강화도로 간다. 강화도 마니산에서는 바다 보고 허공에서 할아버지 옥수를 받는다. 굿당 같은 데는 안 간다. 축령산 산신은 여산신으로 친정할머니다.

내림굿 하고 불사, 명두, 방울부채, 동전 들고 독립했다. 7일 만에 친구한테 첫 점을 쳤는데, 할아버지가 오셔서 애기가 뭘 알아 산에 가서 밥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영검했다. 이후 점과 재수굿을 많이 했다. 점쌀은 15년 된 것으로 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초파일에는 연등맞이를 한다. 금강산 약사할아버지도 오셔서 아픈 사람 많이 낫게 했다.

재수굿은 바깥에서 주당 물리고 마당에서 본향 모시고, 부정 친 다음 불사, 칠성, 제석, 천왕, 호구(별상), 대신, 조상, 장군, 이어 대감 놓고 창부에 이어 뒷전으로 마무리한다. 각 거리마다 부인이 있는데, 쪽두리에 당의를 입는다. 지금은 대부분 하지 않고 약식으로 불사, 칠성, 호구, 천왕거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병긔의 경우 대문 밖에서 술, 과일 놓고 신장옷, 남괘자, 산신복, 산신모자, 방울부채, 본향기 다 뿌리고 들어오는 것이 옛날 방식이다. 고사안택은 따로 잘 안 한다. 괜히 집에서 하면 돈만 든다. 정월 보름까지 운받기 바쁘나 홍수맥이는 내려준다.

신당에는 왼쪽부터 대신할머니, 오방신장, 천하장군, 계백 장군, 별상동지동녀, 별상, 최영 장군, 팔도명산 신령, 축령산 신령, 백호산 신령님을 모시고, 이어 옥황상제, 일월성신 등 외에 이씨대신 어머니를 모셨다. 축령산 산신령은 친정할머니고, 이씨대신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다.

3. 주연암 보살(함 씨, 55세, 조리읍 오산리)

금촌에서 봉일천으로 시집왔다. 불교 법회 가서 마음 착하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속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특별한 신병은 없었으나, 상술이 없어 사업이 망했다. 한번은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았는데, 병실에서 어느 할머니가 병명도 모른 채 해소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해서 미역국과 10원짜리 7개 준비해서 사거리에서 바가지채로 버려라 했더니 기침이 멎었다. 퇴원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오기 구경 갔다가 선생들이 신기가 있다고 해서 앓은거리 법사들 법문하는데 신대를 잡았다. 충청도 법사한테 경문 배우고 말문 열려 삼각산 전씨네 굿당에 가서 내림굿을 했다. 20년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잘 안 주셔서 피알을 안 하고 조용히 인연 있는 신도만 봐준다. 간판도 안 하다 최근 깃대를 올렸다.

앓은거리는 점 보고 일하지 재주는 안 부린다. 문서는 손가락 다섯이 다 틀리듯 다 다르다. 법사님도 굿청 타령 문서를 주지는 않았다. 엄불에는 7경, 21경이 중요하다. 요즈음 법사들은 인기가 없다. 3일 굿을 금방 끝낸다. 악기는 양고장하고 징을 쓴다. 큰 굿에서는 악기잡이들을 쓰기도 한다. 혼자서 할 때는 징하고 북하고만 쓴다.

본디는 양택 기운을 돌우려 사는 집에서 해야 하지만 요즘은 신당에서 주로 한다. 집에서 할 경우 가증 8신 터주에 고해야 한다. 8신은 성주, 조왕님, 제석님, 삼신, 대감, 터주신, 별상마마, 업신이다. 정월이나 10월에는 동티난 옷이나 물건 젖혀달라고 고사를 한다.

점 볼 때는 먼저 신수 본다 하면 그때 할아버지를 청한다. 조상, 부모, 동기간 등 7사주를 보고, 같은 성인데 딴 성인지 여부를 본다. 양쪽 조상 중 성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모든 우환, 재수는 조상님 묘에 있기 때문에 선산을 본다. 산은 성격대로 지랄쟁이도 있고 미친 산도 있다. 이는 묘, 산, 머리, 오장을 건드려서 동티가 난 것이다. 이럴 경우 묘를 파헤친 적도 여러 번 있다.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명당이 없다고 하신다. 화장을 극히 싫어하셔서 차라리 산골을 권하신다. 또 합장도 한날 한시 죽은 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 이장을 할 경우엔 여자는 미루나무, 남자는 밤나무로 나무 위패를 7치나 5치로 만들고 가루만 써야 한다. 합장을 할 경우 부부라도 각자의 혼은 따로 있으므로 산신에 고해 받아주길 청해야 한다. 이때는 산신경, 천수경 등을 묘 구멍이에 부적으로 같이 묻어야 한다.

4. 봉황정사 보살(최혜숙, 50세, 금촌)

14년간 신을 거부하다 인달이로 남편도 잃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살아났다. 병원에서 반신불수였는데도 신을 안 받다가 재물 다 날리고, 구설수 오르고, 일 거리도 없었다. 병원 퇴원 후 태릉 쪽을 가다가 우연히 보살집 들러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다 맞는 얘기였다. 특히 신을 안 받으면 아들이나 딸에게로 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 5년 전에 서울 법사(구정회)를 찾아가 날을 받았다. 비용은 오빠나 친구들 도움을 받았으니 걸립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울 법사님은 나이가 어렸지만, 신의 법은 엄격해 신부모로 모셨다. 신아버지는 앓은 고장 사람으로 일체 경문을 모두 다 잘했다. 신아버지의 신할머니로부터 내린 경문도 있었다. 신국은 내림하고 나서 삼산을 찾았는데, 계룡산에서는 천문지리도사님과 글문도사님과 부적도사님이 내렸다. 지리산에서는 용궁불사와 칠성님이 내렸고, 태백산에서는 군웅(단군)님이 내렸다.

앓은곳에는 신국, 병국, 해원, 안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심경, 육신주, 태을보신경, 부정경을 기본으로 읽고 시작한다. 안택 성주굿에서는 조왕경이 제일 중요하고, 해원에서는 육갑해원이나 청송해원(결혼 전 죽은 이)을 선택한다. 재수굿에서는 제석풀이와 삼신풀이가 중요하고 병국에서는 육갑경이 중요하다. 신국에서는 여러 신명을 봉청한다.

점을 볼 때는 상 위에 쌀, 동전, 오방기를 놓고 보며, 경문 독축 시에는 양고장, 북, 팽가리를 쓴다.

신당에는 소당, 중당, 육당의 삼당을 모셨는데, 소당에는 천신으로 여자 시댁부리를 모신다. 중당에는 외조부 쪽 조상신을 모신다. 육당에는 친정 부리로 장군, 신장주력을 모신다. 원신이 오는 경우에는 큰 신령이 지켜봐 주시고, 명패잡고 오는 경우에는 조상신이 부려주신다. 신장주력인 경우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다. 조상은 음식에 눈을 뜨고, 신은 소리에 눈을 뜬다는 얘기처럼 모시는 법도가 다르다.

소당의 용궁불사의 경우 무척 까다롭고 글문할아버지가 오신다. 중당에는 산왕대신이 오시고, 육당에는 군웅신장, 최씨(최영)부리, 단군할아버지가 오신다.

5. 안성근 대표(55세, 서도소리보존회 파주지부장)

증조부(안영규, 80여 년 전 사망)가 강원도 홍천 사람으로 택일과 지관과 복술을 다 잘하였다. 30여 년 전 파주로 옮겨와 뿌리를 내렸다. 증조부님 장사 때 좌향과 몇 자 몇 치 파고 까마귀 날 시간에 하관하라는 유언에 따라 장사 지내니 자손이 많았다. 이에 절대 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주에 와서 기동순찰대장도 하다가 어느 날 감악산 친구가 밧 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는데, 친구의 경상도 어른이 사진관 사진과 같이 내려 신장축원을 했더니 친구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이후 주변 회원들에게 고사 축원을 해주게 되었다. 본디 조상님에게 받은 고문서와 위목, 경문이 있고, 법당에 조상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배뱅이굿 이수자로 2004년에는 서도소리보존회 파주지부를 설립, 지부장을 맡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법원읍에서 추수감사제 비나리, 축원을 하기도 했다. 무속인으로서의 의식보다는 전통 문화예술가로서의 의식이 강한 편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일정한 종교적 기능을 행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6. 김산월(90세 전후, 사망)

경기도 의정부 출신이다 외동딸로 태어나 개성으로 출가하여 3형제를 낳았다. 19세에 신이 내렸다. 1·4후퇴 때 피난 갔다가 이후 파주로 들어와 오랫동안 법원읍에서 무업에 종사했던 무당이다. 신이 내릴 때 어떤 무당이 죽은 산소로 가서 신물을 파와 개성에 소문이 났다. 양반가에 이런 일이 났다고 강물에 띄워 보낸 것을 낚시꾼이 건져 살았다. 이후 성도 이름도 같고 무업에 종사했다. 일이 있으면 감악산 당으로 갔다. 집엔 굿당을 차리지 않았다. 서울식 굿을 하되 굿거리를 더 길게 했다. 목소리를 띄우려고 식초를 먹다가 사망했다. (『파주군지』, 1994)

7. 백복순(1934년생, 사망)

일본에서 출생, 마산으로 이주, 김천을 거쳐 13세에 탄현면 오금리로 왔다. 19세에 법원리로 시집갔다가 32세에 신을 받았다. 신 받기 전에 독장사를 하다가 감자를

심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물어 보니 신이 온다고 하였다. 병굿을 하다가 뛰어나가 시주를 받아와 내림굿을 하고 다음 해 작두를 탔다. 내림굿은 문산 도당굿을 지은 조 씨에게 받았다. 신당 차리기 전에는 뒷산 절이나 명산으로 다니며 명기를 받았다. 집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았고, 마을 탄현면 금산리에서는 금산리 농요민속경연대회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신팔로는 이영순 등이 있다. (『파주군지』, 1994)

마을굿과 무속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도당굿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문산 하리의 도당굿도 사라졌고, 최근 전통 문화 차원에서 복원 움직임이 있는 정도이다. 문산 하리의 도당굿도 예전 문산포의 성세를 되찾을 길은 없다. 더 위쪽 고량포(연천군 정남면 원당)의 고창굿도 일제시대 이후 전승이 끊긴 상태이다. 문산포와 고량포의 도당굿(고창굿)은 임진강 최고의 대동굿으로서 대단한 곳이었고, 마을 주민들과 무당들의 역할도 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강변 포구의 도당굿이 아니더라도 파주 내륙 곳곳 마을에서는 단골 토박이 무당들이 각종 도당굿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제는 그 전승이 거의 끊겼다. 이는 전통 무당들의 소멸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산포 인근 마정리에서도 10여 년 전까지 마을굿에서 무당(임진리 파주보살)이 당주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전승이 끊긴 상태이다.

파주에서 그나마 마을 주민의 참여하에 지속되고 있는 대동굿은 광탄면 용미4리의 진대굿 정도이다. 2008년 10월 상달 3일에 진대굿이 열렸고, 그 곳에 무당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어 여기 그 과정을 신는다.

용미리 진대굿에 참여한 무당은 김영근 박수(66, 의정부)와 그 신팔 김익순(59, 일산 거주)이다. 용미4리에는 본디 토박이 무당 바위엄마(박정순, 21년생, 마을에 최영장군 사당을 모시고 있었다)가 있었으나 사망한 후 타지의 무당들을 불러 굿을 진행해 왔다. 광탄 신산리의 돼지엄마나 문산 임진리의 파주보살 등이 그들이다.

진대굿은 점심 이후 시작되었다. 먼저 마을회관에서 부정치기를 하고 성주굿을 하고 공수를 주었다. 굿과 공수는 신팔이 하고 신아버지는 주로 잭이 역할을 했다.

팔시루를 회관 곳곳에 놓고 부정거리를 행했다. 상차림에는 팔시루와 북어 및 명다리 등이 차려졌다. 서낭을 위해서는 날고기와 오곡 볶은 것이 따로 준비되었다. 무당은 성주굿을 하고 오방기로 공수를 주었다.

이어 마을 뒷산 제당으로 각종 제물을 들고 이동했다. 옛날의 울창한 소나무는 사라지고, 작은 소나무를 신체로 하고 그 앞에 제물을 진설했다. 예전에는 육산도당(고기 제물)과 소산도당(고기 제물을 쓰지 않음)의 구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다. 제물에 7순가락을 곁는데, 이는 부락민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다. 굿은 부정치기, 산신축원, 산신불사, 장군, 별상, 신장, 대감, 창부, 걸립, 뒷전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부정치고 산신축원에서 남정네는 절을 하고 여성들은 대추 산받기를 했다. 득남의 기원이다. 이후 장군거리에서 삼지창을 소금단지 위에 세우고 소머리를 세우고자 했다. 통사슬 서리서리 내리소서라는 만신의 축원이 있었으나 소머리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후 삼지창에 소머리 대신 시루떡 한판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았다. 만신에 의하면 소머리가 잘 삶아지지 않아 노여움을 산 것이라 하였다. 예정한 굿거리를 다 마치지 못하고 5시경 하산하여 할아버지 진대 앞에서 소지를 올리고 굿을 마쳤다. 예전 참여했던 다른 무당의 말로는 진대할아버지가 무서워 잘 서지 않는다고 한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타지 무당을 2~3년 간격으로 바꿔 굿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정네들 중심의 대동굿이라기보다 마을 부녀자들이 주도하는 기도 치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어

파주 무속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 파주굿의 실제 과정과 사설을 서울굿이나 개성굿, 혹은 양주굿과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작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파주의 토박이 무당들도 대개 서울굿이나 장단굿(개성굿)을 나름대로 변형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서울굿에 비해 파주굿(개성굿)이 사설이 길고, 문서가 발달해 있으며, 무겁지 않고 유머러스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은 가능하겠다. 아마도 임진강 포구의 도당굿(고창굿)이 갖는 연희 오락

적 성격 탓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또 충청도 앓은곳이나 여타 지역 곳이 상당수 들어와 있어 파주 무속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파주에 신령한 감악산 등이 있는데도 굿당이 없는 이유다. 여러 무당은 파주의 산세가 서쪽으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형상이고, 동두천, 연천, 양주 쪽 산세가 기가 세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경업 장군의 훈련터가 그쪽에 있다고 한다. 예전에도 산에는 건물 굿당보다 자연 제당이 많았지만, 최근에도 감악산에 굿당이 없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가 자료

※한에옥 만신 소장 무가 중 사설 일부를 전재한다.

별상

부리별상 신에별상 이나라에 이씨별상
저나라에 홍씨별상 김포통진 여별상님
강화에 이씨별상 남수원 대모관에 두주대왕
부리별상 창덕궁 창혜궁 경덕궁 경복궁
종경석경 종묘사직을 위패 바더 계시옵든
양전별상 이씨월전에 양마마님 세자동군
새별상님 강남대한국 호구별상 만신몸주
장군별상 안저삼철리 서서구말리 원경만리를
지척가치 구버살피시니 일월이 밝다한들
별상님만 하오리카 강남대한국을 나시며는
원소머리에 큰칼꼬자 홍굴레씨위 바드실제
영두병주 놀러바드시는 별상님 소소현
정성이오나 태산갓치 여기시고 태산갓치 도와주옵소사
(공수는) 태산갓치 도와주시마

대감공수

설명도라 대신대감 사위삼당 제당대감
한우물에 용궁대감 솟우물에 용신대감
기연에 상산대감 안사대감 밧산대감
육보삼부 부군대감 남관암 동관암에
증전시위 신장대감 배웅남산 불사대감
침갑씨대감 지갑씨대감이 아니시랴
설상에 매화본 정성이로구나
귀럽꾸 반가시다 여러대감님이 화이바드시고
놀구나신 자취에는 양위에 남녀자손
열액대액 삼재팔난 관재구설 다저차고
신사떡 얹혀주시마
그렇치만 이것만 생겨주고 요것만 도왔느냐
여러 대감님 수이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시리
서위하고 섭섭하시다
그렇치만은 네 이 정성을 위성혈제
의논만쿠 공논만은 정성이라
소례를 대례로 바드시고 구진일다저차구
재수문 여러주어 만사가 대통히게 행겨주고 여러주시리니
잇태말미 삼면실력 있지마라
... 있지맙소 ...

성주는대주공수

업성주님 복성주님 와가성주 초가성주
혈막성주 공장성주 회사성주 명당성주
천년대를 느낄성주 만년대를 느낄성주
열일곱에 초년성주 스물일곱에 이년성주
서른일곱에 삼년성주, 마흔일곱에 대가성주
원일곱에 덕성주님 예순한나에 한갑성주
일흔일곱에 노재성주 성주로는 대도감 사살군웅
표골성주 성주왕신 이정성을 바드시니
귀엽구 반가시다 설상에 매화본 정성이로구나
이번 나드리에 성주님 수이에서 놀구나신 자취에는
일년이 무고하고 삼년이 태평허게 도우서서
우환기환 다저차고 재수소망 생겨
안과태평허게 도와주시마...

산마지군웅님공수

어허꾸자 살안전 활안전에 흑각양각 가루백이
만하대진에 상살바더 오신 군웅님이 아니시리
길하에 삼천군사 길우에는 오천병마
마는대진을 느려오신 군웅님 수이시라
이번 나드리에 이정성 바드시니 귀엽구 반가시다
으마군웅 뱅마군웅 사살군웅님 수이에서 하위바더
놀구나신 자취에는 우환기환 요귀잡신 다저차고
소원을 성취허게 도와주시마

맹인

부리맹인 신에맹인 애삼석삼 피삼에 가구
외다락지 쌍다락지 마른안질 진안질에
개씨바리에 가신맹인 이정성 바드시구
가시는 길에 신수점을 잘 보시면
돈을 만이 벌수 잇읍니다
참 그도 그럴거이 외이리수위...
외이리수위 나좀보시오 우리 신수좀 보외주소
네그러시오 뭘봐달나요
금년신수가 어떨는지 잘좀 봐조요
몇쌀이요 찹쌀이요
나는 찹쌀신수까지는 아니봐요 외이리수위
여보장님 이러와서 신수좀 봐주세요
네 그리하시오 몇쌀이심니까 네 설혼살이에요
네 그래요 천하언재시며 지하언재시리요
아무동 아무씨가 금년신수를 미리미리 알고자 하오니
천지신명은 물비소시하소사
(점을 보외주고 재답도 하고) 마음대로 하슈...



세시와 놀이

편찬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설이나 추석처럼 잊었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시풍속이다. 아무리 옛 것을 잊고 사는 세태라지만 명절 때만큼은 과거의 풍속이 화제가 된다. 세시를 다룬 기록들이 아직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세시풍속들이 농경사회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 또한 세시와 더불어 가는 시대적인 풍속의 일부이다. 놀이의 지역적 차이도 결국은 절기 또는 세시의 차이에 서 비롯된 바가 적지 않다.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에는 농사력 주기와 그에 따른 민중들의 생활이 묻어 있다. 파주 지방에서 예로부터 행해지고 도시화된 근년까지도 이어져오는 세시와 놀이의 특징을 계절별로 묶어보았다.

봄

봄철 세시로는 3월의 삼짇날, 청명, 한식 등의 행사와 4월 초파일 행사가 있다.

농가에서는 청명이 지나면 논갈이를 시작한다. 이 무렵이면 날씨가 온화해져서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마른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한다.

① 삼진날 화전놀이

부녀자들은 삼진날을 전후로, 또는 진달래나 국화가 필 때쯤 여럿이 모여 그 꽃을 따서 적을 부치거나 떡에 넣어 먹으며 봄맞이 꽃놀이를 즐겼다.

② 난장놀이

문산을 문산2리는 초파일 무렵 문산장에서 난장을 열어 신사굿 놀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 읍면 대항으로 송아지를 상품으로 걸고 씨름을 하였고, 그네뛰기, 활쏘기, 광대줄타기 등 여러 가지 놀이와 장기대회가 벌어졌다. 마치 다른 지역에서 백중날 벌어지는 광경을 연상케 한다.

③ 소풍·야유회

공릉 관광은 1970년대 초 이후 야유회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숲이 울창하고 나무그늘이 많아 앉아서 식사하고 놀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었다. 남자들, 부녀자들, 학생들, 연인들이 공릉을 찾았다. 특히 바쁜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일터를 타서 마을 부녀자들이 단체로 나들이를 가는 것은 당시 종종 볼 수 있는 풍속도였다.



부녀자들의 공릉 야유회
(1970년대 초)

교하읍 당하리 오○열 씨의 부인 유 씨는 열댓 명의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공릉으로 야유회를 갔다. 점심으로는 챙겨간 밥과 반찬을 먹었다. 당시 부녀자들은 주로 한복을 입고 야유회에 갔는데, 거추장스러운 옷고름 대신 브로치를 달고 소매가 짧아져 활동하기에 편한 일종의 개량식 한복을 입었다. 긴 머리를 뒤로 감아올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젊은 부녀자들은 파마를 하기도 했다.

1957년 4월 27일, 교하국민학교에 다니던 교하읍 오도1리의 내○규 씨가 장릉으로 봄 소풍을 갔다. 사진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어울려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다. 전쟁 후 힘든 시절이었으나 자녀들의 봄 소풍에 한 번씩 동행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즐거움이였다.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가지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함께 어울려 준비해온 도시

락을 먹거나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사진은 장릉의 대표적 음식 중 하나인 매운탕을 끓이고 술자리를 벌인 모습이다. 남자들은 간소한 바지저고리 차림이거나 중절모에 양복 차림이고, 여자들은 개량 한복을 입고 손목시계를 찼다. 봄철 야외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을 피워두었다.

1971년 5월 8일 파주읍 부곡3리 마을 부녀회원들이 공릉으로 야유회를 갔다. 모두 한복 차림인데, 장구와 카세트를 가지고 갔다.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5월 8일 어머니날을 맞아 야유회를 간 듯하다. 당시에는 주로 한복 차림으로 야유회를 갔으며 웃고름 대신 브로치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장릉에서의 봄 소풍
(1957년 4월)



파주읍 부곡3리 부녀회원의
공릉 야유회(1971년 5월)



백석리 강변 야유회
(1970년대)

1970년대에 파주읍 연풍3리의 최○수 씨 등 마을 남자들이 백석리로 야유회를 간 모습이다. 강여울에 돛자리를 깔고 술을 곁여 음식을 해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여름

파주에는 “4월 망종엔 밥보리 내고, 5월 망종엔 죽보리 낸다”라는 농사와 관련한 속담이 있다. 늦게 심은 보리일수록 덜 여문다는 뜻이다. 보리 수확을 끝내면 여유롭게 각종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① 단오

조리읍 장곡리에서는 단오 때 ‘그네뛰기를 하는데, 4월 초파일에 줄을 매서 뛰다가 5월 단오 때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네뛰기를 한 후 바로 줄을 끊는다. 마을 주민들은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4월 8일 시작해서 5월 단오 때 끊는 것이다. 여기는 큰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마을회관 옆에 하나, 다른 하나는 약간 고사(枯死)가 되고, 그네를 만들 때도 동네사람들이 다 모였다. 단오는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네에 매달려 있으면 일에 지장이 있어서 끊어버린다”고 하였다.

② 칠석맞이

음력 칠월칠석날을 맞아 밀떡을 부쳐 먹는데, 기름 냄새를 피우면 좋다는 속설도 있다(문산읍 문산2리, 광탄면 신산리, 용미2리 등지에서 하는 말). 법원을

법원5리에서도 이날 밀가루에 채를 썬 호박을 넣고 밀떡을 부쳐 광, 부엌 등에 놓고 밀떡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두레를 모심기 때 안 하고 김매기 때 한다. 양력으로 7월 말경 김매기가 끝날 때 농상기를 세워놓고 논다. 파주읍 연풍리에서는 칠석날 칠석맛이를 만신을 찾아가서 하는데, 가족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한다.

③ 호미걸이

광탄면 용미2리에서는 호미걸이를 백중이나 초복 때 했다고 한다. 문산 당동2리에서는 백중과 칠석 때 절에 간다고 하였다.

④ 호미씻이

탄현면 금산리에서는 예전부터 농악놀이가 전해 내려왔다. 사진은 1970년대 초의 것으로 김매기를 끝내고 호미씻이 하는 날 농악대를 불러 탄현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한바탕 크게 놀았다. 장구, 북, 징, 바라 등이 보인다. 농악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으나 6·25전쟁 이후 불타 없어져 다시 마련했다고 한다. 지화(紙花)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가사를 양 어깨에 돌렸다. 농악대 뒤편으로 흰 천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상기가 보인다. 농악을 할 줄 아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청년들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도 적어 매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베로 천막을 친 정자나무 아래 노인들의 모습과 나무로 만든 미끄럼틀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탄현면 금산리 농악대
(1970년대 초)

⑤ 두레

법원읍 오현1리 동두라지 마을은 세 개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황발동은 김신조 사건으로 없어졌다. 1반 30여 호와 2반 30여 호가 각기 다른 두레를 구성

하였다. 1반은 동두라지 절골, 샘골 합쳐 15명 정도가 두레를 이루었다. 모내기과 김매기 때, 음력 백중 즈음에 낱을 잡아 호미씻이를 하고 밀전병을 부쳐 먹는다.

⑥ 복놀이

광탄면 신산5리에서는 복놀이를 한다. 2007년에는 7월 15일에 했다. 마을의 경로회·부녀회에서 주도하고 마을 회원들 모두가 참여한다. 비용은 마을 경로회와 부녀회의 회비 및 마을 찬조금, 외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도내리 식당에서 개고기를 주문하고 그외 떡, 콩, 부추, 쌀, 고춧가루, 야채를 마련한다. 물품 찬조는 소주와 음료수가 주를 이룬다.

가을

음력으로 8월에는 가장 큰 명절인 추석秋夕이 들어 있다.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서늘하여 생기가 절로 도는 때이다. 특히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친다. 그러나 '시월상달'이란 말이 있다. 음력 10월은 1년 중 가장 좋은 상달上月이라는 뜻이다. 10월의 보름달이 1년 중 가장 밝아 '상달'이라고 한다는 해석도 있다. 파주는 분묘가 많은 곳이다. 음력 10월 늦가을이 되면 여기저기서 성묘와 시제 행사로 바쁘다. 조상 제사에 관해서는 '관혼상제' 편과 '문중과 제사' 편에서 다루었다.

① 교하읍 송촌리 아랫말·새터골 상달고사

고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이를 시월상달 고사라 한다. 만신을 불러 고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대개 집안의 안주인이 떡을 갖다 놓고 비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신을 부를 때는 경사굿과는 달리 단골 만신 한 명만 와서 축원을 해준다.

노○남 씨(71세)의 집에서는 크게 성주시루를 한 시루해서 나눠 놓는다. 시루

에 한지를 깔고 백설기 세 무더기를 놓는다. 백설기는 제석항아리에 두 개 놓고 하나는 장독간에 놓는데, 이것은 칠성의 뿔이다. 현재 성주는 집을 반자해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전의 성주는 베를 한지로 싸고 실로 묶어놓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떡을 하면 제일 먼저 성주가 있는 자리에 시루를 올린다. 막걸리 한 잔, 청수 두 잔, 삶은 돼지고기, 과일, 복어를 놓는다. 성주를 위한 다음에는 제석항아리와 대감항아리를 위한다. 제석항아리 바로 아래에 대감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리는 제물을 한 상에 같이 차린다. 복어, 청수, 무나물, 백설기 두 무더기, 팔떡 세 조각을 한 접시에 올린다. 청수와 백설기는 제석항아리를 위하는 것이고, 팔떡은 대감항아리에 올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겨장대감으로 간다. 과일, 복어, 팔떡 세 조각, 무나물을 놓는다. 그런 다음 집안 곳곳에 떡과 막걸리를 올린다. 전에 살던 집에서는 뒤꼍에 터주가 있었는데, 겨장대감을 위한 다음에 터주에 팔떡을 갖다 놓았다.

신○옥 씨(78세)의 집에서는 팔시루떡 한 시루만을 준비한다. 그리고 팔시루떡 위에 한지를 깔고, 쌀가루를 수북하게 두 무더기를 놓고 백설기를 찐다. 먼저 안방의 제석할머니부터 위하는데, 백설기 두 무더기와 청수 두 잔을 올린다. 청수는 잔대에 받쳐둔다. 제석할머니를 위한 다음에는 성주를 위한다. 팔떡시루를 통째로 놓고 복어 한 마리, 막걸리 두 잔, 청수 두 잔을 놓는다. 복어는 시루 위에 올린다. 성주를 위한 다음에는 성주에 놓았던 떡을 갈라서 집안 곳곳에 놓는다.

앞마당에 있는 지신할머니와 지신할아버지에게는 팔떡 두 접시, 막걸리 두 잔, 청수 한 잔, 복어 한 마리를 올린다. 이때 복어는 성주에 놓았던 것을 다시 사용한다. 만일 산에 가서 자식을 빌어서 낳았으면, 고사를 지낼 때 장독대의 제일 큰 독 위에다가 팔떡 네 접시와 막걸리 넉 잔을 올린다.

② 광탄면 용미4리 상달고사

마을 행사로 진대고사를 지내고 난 후 각 가정에서 상달고사를 지낸다. 예로부터 고사를 지내는 데는 떡 찌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부정이 들면 떡이 잘 찌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근래에는 대개 방앗간

에 가서 떡을 찌오는 관계로 그에 따른 금기도 많이 약해졌으며, 떡을 먹는 사람도 없어서 양도 많이 줄었다.

김○순 씨(70세)의 집에서는 전에는 안시루, 성주시루, 대감시루 이렇게 세 시루를 찌고, 터주시루 위에 백설기 네 무더기를 얹어 찼다. 그러나 지금은 팔떡한 시루만을 찌고 있으며, 백설기도 세 무더기만 놓는다. 이는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업을 시어머니가 죽은 후 없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위하던 업은 시어머니가 시집을 때 따라온 것이라고 하며, 그 신체는 뒀란 쪽의 추녀 아래에 검정콩이 들어 있는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짚으로 주저리를 씌웠다. 업항아리는 시어머니가 죽은 뒤 만신이 고사를 지내면서 없앴다. 주저리는 내다가 태우고 항아리는 깨끗이 닦아서 장독간에 얹어놓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백설기는 불사, 제석, 업영에 한 무더기씩 놓는데, 현재 업영은 허공으로 모시고 있다. 떡을 하면 제일 먼저 백설기를 불사와 제석에 놓는다. 각각 백설기 한 접시와 청수 한 잔을 놓는다.

성주에는 팔떡시루를 통째로 놓았으나, 지금은 떡을 갈라서 한 접시만 올린다. 막걸리 한 잔, 북어 한 마리, 삶은 돼지고기도 놓는다. 만신을 불러 고사를 지낼 때에는 과일과 무나물을 올리지만 만신을 부르지 않고 고사를 할 때에는 올리지 않기도 한다. 성주를 위한 다음에는 대감항아리를 위한다. 대감항아리에 올리는 것은 성주와 같다. 북어는 성주, 대감, 뒀꼴의 몫으로 세 마리를 사서 한 마리씩 놓는다. 안에 있는 대감항아리를 '몸주대감' 이라고 하고, 뒀꼴의 대감을 '틔대감' 이라 한다. 대감항아리 위에는 대감옷과 병거지가 있다. 전에는 대감시루를 찌서 몸주대감에 놓고 틔대감에 놓았으나, 지금은 한 시루만 찌기 때문에 떡을 갈라서 한 조각씩 놓는다. 몸주대감을 먼저 위하고 틔대감을 위하는데, 이때 백설기와 청수를 놓고 업영을 같이 위한다. 시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는 추녀 아래 시어머니가 위하던 업가리에도 백설기와 청수를 놓았다.

다음으로 집안 곳곳에 떡을 한 조각씩 떼어다 놓는다. 시루를 별도로 찼던 예전에는 안시루를 갈라서 놓았었다.

③ 파평면 장파리 장파루마을 상달고사

10월을 상달이라고 하여 고사를 지낸다. 고사 날은 만신이 식구들의 일진을 보아 손 없는 날로 좋은 날을 잡아주거나, 예로부터 말날이나 돼지날이 좋다고 해서 그중에 택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뱀날이나 호랑이날은 좋지 않다고 해서 피한다.

홍○자 씨(70세) 집에서는 떡을 할 때면 시루 위에 백설기 두 무더기를 놓고 찐다. 떡을 찌면 제일 먼저 마루의 성주부터 위한다. 성주에는 팔떡시루를 통째로 놓고 막걸리 두 잔, 북어, 삶은 돼지고기, 삼색 과일을 차린다. 성주를 위한 다음에는 안방의 애기삼신과 장광을 위한다. 각각 백설기와 청수 한 잔을 올리는데, 만일 집안의 대주가 수가 사납다고 하면 대주의 밥그릇에 쌀을 담고 청수 한 잔과 함께 안방에 차려놓는다. 애기삼신은 특별한 신체가 없는 허궁이며, 그날 손이 없는 방향으로 상을 차린다. 다음에는 성주에 올렸던 떡을 떼어서 방, 부엌, 화장실, 우물 등 집안 곳곳에 놓는다. 현관 문턱에는 양쪽으로 떡과 술을 놓고 바깥 대문에도 양쪽으로 떡과 술을 놓았다가 떡은 떼어서 던지고 술은 뿌린다.

겨울

우리의 민속은 아직도 과거 농경사회의 특징에서 비롯된 관행들을 담고 있다. 그 특징의 하나는 농한기에 각종 세시놀이와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날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입춘절, 설부터 보름까지의 각종 세시풍속이 그러하다.

① 고기밥주기(어부심)

파주에는 특히 임진강변을 따라 정월 보름을 즈음하여 ‘고기밥주기’ 또는 ‘어부심’이라는 제액(除厄) 행위를 행하는 집들이 많았다. 방법은 한지(韓紙)에 식구들

이름을 쓰고 흰밥과 나물을 조금씩 썬 다음 임진강 하천에 떠내려 보내는 것이다. 교하쪽 한강변에도 이러한 민속은 있었다. 연다산리에서 들은 ‘어부심’ 액막이 방식은 창호지에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를 쓰고 오곡밥과 무나물을 함께 넣어 어둑어둑한 저녁 개울에 띄우면서 집안의 무고와 재수를 비는 것으로, 최근까지 행해졌던 제액 방식이다. 한편 교하강, 즉 공릉천 다리 밑에 가서 촛불을 켜고 용왕에게 집안의 평안과 재수를 비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부심과 내용은 같지만 강가에서 먼 마을인 경우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름에 용국바치기’라고 하여 정월 보름날 무당집에 신수를 보러 갔다가 그해 액운이 있다고 하면 흰 종이에 식구들 이름을 쓰고 밥을 담아 샘물에 넣는다. 두 민속 모두 용왕을 위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제웅치기나 ‘홍수맥이(횡수橫數막이)’도 제액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부심과 같지만 용왕을 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제웅치기나 홍수맥이나 방식은 유사한데,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 동전을 넣고 밭에 버린다. 법원을 법원5리에 서는 홍수맥이를 정월 보름 전에 무당집에 가서 한다. 파주읍 연풍리에서는 정월 14일 저녁에 그해 직성直星이 든 사람을 위해 제웅을 만들어 삼거리 길에 버린다. 제웅 속에는 동전을 서너 개 넣는다. ‘어부심’도 한다.

② 정월 보름날 액막이

정월 보름에 찌리나무로 불을 지피면 튀는 소리에 액막이가 된다고 믿는다. 보름에 달맞이를 할 때 화나무를 동여매서 한 길 반 정도 쌓은 깍짓등을 만든다. 달이 뜰 때 불을 지르고 화를 아이들 나이대로 묶어 불을 붙인 다음 절을 하라고 시킨다. 액막이 행위이다. 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절을 시키고 소원을 빈 다음 나이 수대로 화를 뛰어넘게 하는 곳도 있다. ‘갓불켜기’라고 하여 정월 14일 밤에 꼬챙이에 꿰 갓을 불태우면서 식구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도 있다.

법원읍 법원4리 초리골에서 이○만(75세)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정월 14일 오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밥과 나물을 담은 키를 외양간 소구유에 올려놓고 소가 무엇을 먼저 먹는지 보아 풍년을 점친다고 한다.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예측한다.

광탄 신산리의 한 주민은 정월 보름 때 오곡밥을 아홉 번 먹고, 잠을 아홉 번 자고, 나무를 아홉 번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그대로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귀밝이술은 정월 보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마신다고 한다. 용미2리의 한 주민은 어느 집이나 오곡밥을 많이 해서 정월 14일부터 보름날까지 먹었다고 한다. 오곡밥을 아홉 번 먹는다는 말도 있었다.

③ 척사대회

광탄면 신산5리에서는 매년 척사대회를 개최한다. 신산5리의 척사대회는 규모가 무척 큰 마을 행사이다. 동네 찬조는 주로 개인들이 하고, 외부 찬조는 신산4리 마을회, 광탄 이장협의회, 용미3리 마을회, 파주축협, 광탄농협, 광탄 기동순찰대, 광탄 부녀회 등에서 한다.

2007년에는 2월 25일에 척사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네 찬조금 323만 원, 외부 찬조금 212만 원, 표 판매금 29만 6000원, 일등 찬조금 10만 원 등 총 574만 6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음식비 100만 7220원, 상품 대금 81만 2850원, 사은품비 75만 3720원, 쌀값 22만 원으로 모두 279만 3790원이었다.

문산읍 문산2리의 경우 척사대회는 정월 10일부터 시작하여 보름까지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당동리와 문산리가 짙레 개울을 사이에 두고 돌싸움, 즉 석전(石戰)을 6·25전쟁이 나기 전까지 했다고 한다.

④ 널뛰기

광탄면 창만1리에 사는 부녀자들이 한복을 입고 널뛰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1986년 1월의 광경이다. 널뛰기는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세시놀이이다. 광탄면 창만1리에서는 1월에 널뛰기와 옷놀이를 했다. 부녀자들은 마을회관 앞에 긴 나무판자로 만든 널판을 놓고 널을 뛰었다. 더러 한복을 입고 뛰기도 했다. 어린 여자아이들도 구경하러 나왔다.



부녀자들의 널뛰기
(1986년, 광탄면 창만리)

사계절 행사

다음은 특정 계절과 관계없이 사계절 볼 수 있는 세시와 놀이다.

① 생신 잔치

1960년대 적성면 어유지2리. 이○재 씨의 부친이 생신을 맞아 한쪽에서는 동네 남자들이 술상을 들고, 그 앞에서는 아낙네들이 춤을 추며 놀고 있다. 술상 후 벌어진 춤판 같다. 한복을 입은 한 할머니는 등에 바가지를 넣고 꼬추 흥내를 내며 춤추고 있다.



생신 잔치(1960년대, 적성 어유지2리)

② 운동회

1970년대 초 적성면 어유지2리의 적암국민학교에서 열린 운동회 모습이다. 운동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학교 축제였다. 운동회 한 달 전부터 무용과 악대부가 단체 연습을 한다. 운동회 당일에는 경주와 놀이와

응원이 끊이지 않는다. 운동장에는 솜사탕 장수를 비롯하여 장사꾼들이 모여든다. 학교 밖 가게가 가장 붐비는 날이기도 하다. 학부모들은 점심을 싸와 자녀들과 함께 먹은 후 학부모를 위한 놀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진에서는 네 부녀자가 놀이시합에 참가하고 있다.



적암국민학교 운동회 중
마당극 공연 모습
(1970년대 초,
적성 어유지2리)

③ 공기놀이

1970년대 문산을 당동2리의 성○숙 씨와 성○민 씨가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당시 어린 여자아이들의 놀이 중 하나가 공기놀이이다. 보통 다섯 개의 공깃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한다. 어린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코고무신을 신고 있다.



공기놀이
(1970년대, 문산 당동2리)

④ 상여놀이

마을에서 상여를 새로 장만하면 장수하기 위해 상여놀이를 하였다. 사진은 1976년 5월 파주읍 봉서2리에서 마을 남자들이 상여



상여놀이
(1976년, 파주 봉서2리)

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가마 모양의 검은색 지붕이 위에 있고, 용과 연꽃으로 장식된 상여 몸체가 보인다. 한 명이 위에 타고 네 명이 앞에서 끌고 여덟 명이 옆에서 뿔 규모의 상여이다. 주변으로 슬레이트를 얹은 집들이 보인다.

⑤ 궁도대회

1957년 7월 25일 인천시 주최 제10회 전국 궁도대회가 파주 금능동 금호정에서 열렸다. 이날 고문 최학주 씨를 위한 송별 기념회를 겸해 활과 화살을 들고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금호정은 파주에서도 유명했던 활터인데 파주 공설운동장이 들어서면서 운동장 위쪽으로 장소를 옮겼다. 뒤에 기와를 얹은 1950년대 후반의 금호정 광경이 인상적이다.



금호정 앞에서의 송별 기념회(1957년, 파주 금능동)



설화와 민요

편찬실

김은자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파주의 설화

파주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인지 무대는 산, 강, 들 등 다양하며 시조나 조상 등 인물에 대한 신화적인 내용도 많다. 이미 별도의 설화집이 방대한 분량으로 나온 상태여서 여기서는 그중 많이 회자되는 설화와 새로 채록한 것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1. 조상, 인물 관련 설화

① 고려 현종과 용상사龍床寺

고려 제8대 왕인 현종이 거란에게 패할 당시 월룡산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 등으로 거란을 몰아내자 현종은 국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숨겨준 월룡산을 잊지 못해 현재의 월롱면 덕은리 산117번에 암자를 세웠다. 암

자는 임금이 머물렀다는 뜻에서 용상사라 이름 지었다. (월릉면)

② 오금리와 박중손의 묘

세조 때 우참찬이었던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의 뗏자리를 까마귀가 일러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박중손이 55세로 세상을 떠나자 가문에서는 이름난 지관에게 뗏자리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런데 지관이 좋은 뗏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았다. 바로 앞에 최상의 뗏자리가 있었다. 지관은 까마귀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고 그곳에 묘를 쓰게 하였다. 이런 연유로 후일 호피산 아래에 있는 부락을 질오목(叱吾目)이라 하고 매봉재가 있는 마을을 오고미(烏告美)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질오목은 지관이 제 눈을 원망하다가 까마귀 소리를 듣고 돌아섰던 자리이며, 오고미는 까마귀가 울던 곳이다. 훗날 두 부락의 이름을 합쳐 오금리(吾今里)가 되었다. (탄현면)

③ 이유길 장군과 의마총

본관이 연안(延安)인 무관 이유길(李有吉, 1576~1619)과 그의 애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광탄면 발랑리 백경 저수지 근처에는 의마총(義馬塚)이라는 말 무덤이 있다. 이유길이 전쟁에서 죽자 그가 아끼던 말이 3일 밤낮을 달려 주인의 고향인 광탄면 발랑리에 돌아와 주인의 죽음을 알리고 슬피 울면서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충직한 말을 그 자리에 묻고 비석을 세워 뜻을 기렸다. (광탄면)

④ 유관과 양미골 연자방아

조선 초기의 문신 유관(柳寬, 1346~1433)이 아끼던 연자방아에 관한 이야기이다. 죽기 전 유관은 홀로 남은 아내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경상도 관찰사 이희에게 연자방아를 고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다. 평소 유관 선생을 존경하던 이희가 유언을 받들어 동대문 밖의 연자방아를 현재의 위치인 파평면 덕천리 양미골로 옮겨주었다. 이 연자방아는 일제와 6·25전쟁을 거치며 훼손되어 지금은 자취만 남았다. (파평면)

⑤ 요풍동 호대감

성동리 요풍동 사람들이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잠시 쉬면서 돌을 산 밑으로 굴리며 장난을 쳤다. 공교롭게도 전주 이씨가 굴린 돌이 굴러가 산 중턱의 호랑이굴을 건드렸다. 그러자 놀란 호랑이가 굴 밖으로 뛰어나와 사람들을 쫓아왔다. 모두들 기겁하여 나뭇짐을 놔둔 채 달아났다. 기진맥진하여 도망가기를 포기할 즈음에 호랑이가 쫓아와서는 돌을 굴린 이씨의 발뒤꿈치를 물어 죽인 뒤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요풍동 대감굿에서는 죽은 이씨의 혼을 위로해 주고자 호대감을 놀리게 되었다. (교하읍)

⑥ 은아전 銀娥傳

이 내용은 구봉 龜峯 송익필 宋翼弼의 『구봉집 龜峯集』 권 3에 실려 있으며 뒤에 나오는 『우계집』 속집 권 3의 「송운장 宋韻長에게 보내다」에도 언급되어 있다. 『구봉집』에 “파산 坡山에 사는 성호원 成浩原이 교하 交河와 접경이므로 은아의 일을 자세히 듣고 나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으며 「은아전」을 초해서 나에게 보여주며 다시 지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의 집은 교하와 더욱 가까웠으며 수성수 壽城守의 손녀는 내 형의 처족 妻族의 부인이다. 그리하여 더욱 그녀의 일을 자세히 들었으므로 성호원이 지은 전에 의하여 다만 두서너 줄을 고쳤을 뿐이다.” 하였다.

아가씨의 이름은 은아 銀아니 누구의 딸인지는 알 수 없고 양주 楊州 사람이었다. 종실 宗室인 수성수 壽城守가 교하의 남촌 南村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루는 집안에서 전해오는 말에, 종이 양주에 있는 양가 良家의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장차 아내가 없는 사람에게 시집보내려 한다고 하였다. 수성수가 그녀를 불러다 옷을 지어 입히고 음식을 주었는데, 이때 은아의 나이가 13세였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첩으로 들였다. 수성수는 일찍이 두 명의 첩을 두었는데, 은아를 얻은 뒤부터는 오직 그녀만을 총애하였다.

은아는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하여 수성수를 매우 공손히 받들어 섬겼으며, 10여 년 동안 집안 살림을 주관하였는데 집안일을 다스리고 아랫사람들을 어루만짐에 대해 칭찬이 자자하였다. 수성수가 나이가 더욱 많아지게 되자, 젊은 여자가 싫어하고 권태하는 마음이 있을까 의심하여 그녀에게 “내가 죽으면 너는 개

가하겠느냐, 아니면 정절을 지키겠느냐?”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 번 물었으나 번번이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수성수가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자,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지쳤으나 은아는 곁에서 간호하되 약을 드릴 때는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한밤중이라도 한 번 부르면 즉시 대답하고 달려가서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성수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죽을 때에 문서를 만들어 토지와 재산을 주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의리를 지켜 시집가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생계를 꾸려 일생을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에게 주고 가라.” 하였다.

수성수가 죽자, 은아는 슬피 통곡하고는 머리털을 자르고 손가락을 잘라 장례할 때에 함께 넣게 하였다. 3년상을 치렀고 제사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였다. 수성수가 남긴 옷과 침구들을 옛 자리에 진설하고는 그 옆에서 지키면서 상이 끝날 때까지 치우지 않았으며, 슬퍼하는 생각이 더욱 돈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 또 가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날마다 옛집을 지키며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새 종이로 문을 발라 반드시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철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귀연(几筵)에 올리고 절하였다.

이웃집 할머니가 봄철 화창한 때에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기를, “남자가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뜻으로 홀로 빈방을 지키니, 덧없이 지는 꽃과 같아 매우 애석하다.” 하였으나, 은아는 불쾌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후 여러 번 와서 누차 설득하였는데, 말이 간절할수록 은아는 더욱 싫어하였다. 나중에는 술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 병을 핑계 대고는 문을 닫고 거절하였다.

몇 해를 홀로 살다 보니, 생업이 더욱 어려워져 때로는 보리밥과 나물 뿌리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혹자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 토지를 팔아서 스스로 윤택하게 살지 않는가?” 하니, 은아는 대답하기를, “나는 농가(農家)의 딸이니, 거친 밥을 먹는 것이 나의 분수이다. 지금 어찌 차마 나리께서 주신 토지를 남에게 팔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수성수의 여러 손자 중에 은아를 공손히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혹자가 또 그

녀에게 이르기를, “어찌 이 사람에게 의지하여 받은 재산이 전해지도록 하지 않는가?” 하니, 은아는 대답하기를, “내 마땅히 여러 손자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나리의 뜻이다. 어찌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물려주어 나의 사적인 은혜를 삼겠는가.” 하였다.

은아는 천성이 명민(明敏)하여 문리(文理)를 통달하였는데, 항상 『열녀전(列女傳)』을 읽어 모범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전에 수성수가 손님을 부르면 은아는 반드시 술자리 옆에 몸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수성수의 주량(酒量)에 맞게 친히 술을 따라주어 조금도 틀림이 없었으니, 사람을 섬김에 정밀하고 정성스러움이 모두 이와 같았다.

수성수의 상증에는 머리를 한 번도 빗지 않고 채소도 입에 넣지 않았다. 너무 슬퍼하다가 몸을 해친 것이 병이 되어 마침내 피를 토하는 증세까지 생겼다. 9년 후에 죽으니 나이가 39세였다. 죽는 날에 붓을 가져다가 자신이 죽은 뒤에 관槨과 염습(殮襲)을 합당하게 해달라는 것과 군자를 따라 묻어달라는 뜻을 적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남긴 의복과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갖추어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한 뜻은 삼가 지키고 전수해 주려는 데에 있었다.

여러 손자들이 들어가서 상을 치를 적에 서책과 책상이 평상시와 같고, 크고 작은 집안 살림살이가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 탄복하여 감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고 선인(先人)의 곁에 부장(附葬)하였다.

아, 은아는 유리(流離)하고 어려운 때에 태어났는데 천부적으로 아름다운 자질과 바른 마음을 지녀 그 올바른 성품을 온전히 보전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양순한 부인이라도 이보다 크게 낫지는 못할 것이다. 이 어찌 부덕(婦德)이 드높아서 군이 수행하지 않고도 절로 선(善)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가령 그녀가 일찍부터 여스승을 통해 예법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역사책을 보아 덕(德)을 진전시켰더라면 성취한 경지가 어찌 이 정도에 그칠 뿐이었겠는가.

병란이 일어나 경황이 없을 때에 강개한 마음을 품고 목숨을 버려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조용하여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물정(物情)과 이해(利害)의 사사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법인데 정조와 신의를 지켜 몸소 의리를 지키다 죽었으니, 어찌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 세상

의 군자들은 양강(陽剛)의 자질을 타고나서 책을 읽고 도를 말하지만 몇몇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덕(德)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지조를 잃고 있으니, 또한 부끄러워할 만하며 또한 감동할 만하다. (『우계집牛溪集』 제6권 『잡저雜著』 중 「은아전銀娥傳」-고전번역원 번역문 인용)

⑦ 가재골 채동지 전설

덕암산 아래 가재골에 살던 장사(莊士) 채동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채동지는 본시 떠돌이로 가재골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가에 이르러 움막을 짓고 살았다. 밥을 양동이에 담아 먹을 정도로 천하장사와 같이 힘이 세나 미련하기는 또 소와 같았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는 병도 잘 고쳤는데 이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고개 너머로 사라졌다고 전한다. 채동지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를 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사람들이 생매장했다는 설도 전한다. (조리읍)

⑧ 임진나루 뱃사공

임진나루의 뱃사공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나그네들을 상대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양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척척 알아보았다. 이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뱃사공이 양반 행세를 하였지만 그 사람의 생김새와 자세를 보고 바로 알아맞췄다는 이야기이다. (문산읍)

2. 지형, 지명 관련 설화

① 포수바위에 얽힌 전설

짐승을 잡아 생활하던 포수가 멧돼지를 죽였는데 멧돼지가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쳐 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법원을 웅담리 사거리에서 적성 방향으로 약 500여 미터쯤 가다 보면 왼쪽 길옆으로 우뚝 솟은 바위절벽 두 개를 볼 수 있다. 이 바위가 포수바위

이다. (법원읍)

② 여음탄 전설(如飲灘傳說)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尹莘達)에 관한 전설이다. 성장한 윤신달이 임진강을 건널 때마다 물이 갈라져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다. 사람들은 윤신달이 물결을 끊고 마시듯 강을 건넜다 하여 그가 건넜던 강어귀를 여음진(如飲津)이라 불렀다. 후에 여음진은 음진(飲津)으로 발음이 변하였고, 다시 음이 변하여 임진강(臨津江)이 되었다고 전한다. (파평면)

③ 웅녀와 웅담리 이야기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尹莘達)의 5세손인 윤관(尹瓘)(1040~1111)과 그를 사랑한 여인 웅녀에 얽힌 이야기이다. 윤관이 여진과 전쟁을 벌일 때 여진이 피를 써 부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웅녀를 윤관에게 보냈다. 윤관은 웅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다가 죽었다. 사랑하던 윤관이 죽자 웅녀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 3일을 슬피 울다가 연못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웅녀가 빠져 죽은 이 연못은 웅소(熊沼)라 불리다가 이후 웅담(熊潭)으로 고쳐 불렸으며 마을 이름도 웅담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④ 장좌못 전설

장좌리 장좌못마을에 한 거부가 살았다. 어느 날 도사가 내려와 거부의 며느리에게 자기를 쫓아오라고 하였다. 도사를 쫓아간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도사의 말을 잊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거부의 집이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현재의 장좌못이 생겼다고 한다. 장좌못에 소를 매어놓았더니 이무기가 나와서 소를 잡아먹고 코뚜레만 연못에 둥둥 떠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이러한 전설의 무대가 되는 장좌못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무서운 곳이어서 낚시를 하거나 근처에 가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⑤ 용머리 전설

두지리(두지^{斗止} · 頭者) 앞강에 마치 말이 머리를 물에 대고 있는 듯한 형상의 용머리[龍頭山] 이야기가 전한다. 어떤 중이 용머리 근처에 살던 구두쇠 노인에게 시주를 하러 왔다 거절당했다. 그러자 중은 용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켜 명당이니 묘를 쓰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을 믿은 구두쇠 노인이 그곳에 묘를 쓰자 혈을 끊게 되어 핏물이 솟아오르고 노인은 망하고 말았다.

⑥ 어느 부자와 갯바위 전설

부자가 바위를 잘못 깨뜨려 망했다는 이야기이다. 감악산 동북맥 준령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산골짜기 마을에 이씨들이 정착하여 수십 호의 마을을 일구었다. 그중 수백 석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인심이 후덕하여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아 스님에게 대처할 방도를 물었다. 스님은 갯바위를 깨뜨려 없애면 1년 안에 손님이 끊이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갯바위를 깨뜨리니 피가 흘러나와 부자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마침내 부자는 파산하고 집도 폐허가 되었다고 전한다.

⑦ 아기장수 전설

강 씨의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시령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아기가 장수라 여기고 우환이 올 것이라 생각해 죽이려 했다. 콩 석 섬을 아이의 배 위에 올려놓으니 용을 쓰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팔 한 가마를 올려다 놓았더니 죽었다고 한다.

⑧ 금촌동 검산리^{檢山里}와 조음발동^{助音鉢洞}의 유래

시조 신성용^{申成用}은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를 역임하고 고령에서 대대로 거주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고령^{高靈}으로 하였다. 그의 7세손 엄헌공^{嚴軒公} 신장^{申樞}(1382~1433)은 1392년(우왕 8)에 탄생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에 능하여 1394년(태조 3) 부시에 장원급제하고 1402년(태종 2)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하였다. 퇴임 후 전라도 나주로 낙향하여 서당에서 유생들을 지도하던 중 1420년(세종 2) 직제학에 제수되자 처와 오형제(맹주^{孟舟},

중주(仲舟), 숙주(叔舟), 송주(松舟, 말주(末舟)를 두고 한양으로 상경하여 공조참판으로 승진되었다. 남산지곡(南山之曲)을 짓는 등 유학에 조예가 깊고 글씨도 잘 써 대제학에 발탁되어 오래 머물렀으나 1433년(세종 15) 52세로 세상을 떠났다.

나주에서 천 리 길이라 치와 아들 맹주, 중주만이 상경하여 장례를 치루고 검산리 조음발이에 모시게 되어 시묘를 마쳤다. 얼마 후, 모친(신장 부인)마저 세상을 뜨니 역시 맹주와 중주 형제가 올라와 쌍분으로 장례를 지냈다. 시묘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궁중이 어수선한 때라 분묘와 묘역을 파헤쳐 흔적을 숨기고 암표만을 남기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맹주와 중주가 일찍 세상을 떠나 묘소의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신숙주가 1439년(세종 21) 등과에 올라 단종 당시 도승지를 역임하던 중, 세조가 등극하자 이를 쫓아 병조판서에 오르고 1457년(세조 3) 좌찬성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단종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모의하던 한명회와 권람의 강력한 주장으로 금성대군이 사사되고 영월로 유배를 간 단종은 자진(自盡)하였다. 그 가운데 신숙주는 1458년 우의정으로 승진했고,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元相)이 되어 남이 장군을 숙청하고 1471년(성종 2)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으로 영의정에 재임되었다.

그후 동생인 송주, 말주를 시켜 말로만 듣던 지역과 선친 묘소에 대하여 대강 일러주고 반드시 찾도록 하였다. 두 형제는 즉시 활을 메고 월룡산을 두루 이 잡듯이 찾다가 어느 날 조음발이 골짜기를 들어갔다. 이때 한 중이 집집마다 팽매기(중 시주 밥그릇)를 치며 시주를 받는 것을 보았다. 중에게 무덤의 위치를 물으니 중은 팽매기를 두드리고 합장하며 “이 산 윗골짜기에 모시었다는 말만 들었다” 하고 사라졌다.

이에 허둥지둥 올라가니 마침 땡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활을 당겨 쏘니 땡이 떨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근방의 산 혈맥을 살펴보니 묘소가 있을 법하였다. 여기저기 흙을 파헤쳐 보니 신장 선친의 묘비가 나왔다. 수십일 동안 고생 끝에 찾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상경하여 형에게(숙주) 사연을 고한 후 즉시 분묘하고 비석을 세워 시향을 만들었다 한다.

그후 신장 묘를 찾기 위해 산 전체를 검색하였다고 해 검산(檢山)이라 불렀으

며, 도승의 팽매기 소리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조음발이助音鉢라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

파주의 민요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한민족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음악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파주 민요론』(1997)을 쓴 이소라에 의하면 특히 파주는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면서도 서도민요의 영향에서 경기 민요의 대표성과 순수성을 지켜준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체로 일상에서 부르던 일노래 등의 향토 민요는 전승이 단절된 지 오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금산리 민요’가 보존회를 중심으로 가창 전승되고 있는 정도이다.

1. 파주 민요 조사 현황

파주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민요 조사는 크게 두 차례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파주문화원 지원의 조사와 2000년대에 이루어진 경기문화재단 지원의 조사이다. 파주문화원 사업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파주 지역 4읍(금촌, 문산, 파주, 법원읍) 8개면(월릉, 탄현, 교하, 조리, 광탄, 파평, 적성, 군내면)의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가창자는 읍면에 따라 인원수가 다른데, 각 촌락의 주요 가창자를 합한 인원이 대략 110여 명에 달한다.

이 연구의 결과물인 『파주 민요론』에는 파주 지역에서 수집된 민요를 노동요, 의식요, 놀이요, 흥민요, 전래 동요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했다. 민요를 채보하여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가 진행되는 배경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삶의 터전에서 노래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파주 지역의 노래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민요권에서 파주 지역 민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조사 자료를 통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가 파주 지역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기민요 채록채보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지역이 포함된 경우이다. 조사 지역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금산리를 포함하여 교하읍 와동리와 파주읍 봉암1리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파주문화원에서 진행한 사업에 비해 조사 지역이 현저히 줄어든 까닭은 경기도 전체를 제한된 기간에 조사해야 하는 사업 자체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1996년 파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도시화의 여파로 제보자를 만나기 어려웠던 점이 더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이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파주 지역의 인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구전 음악 문화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파주 민요의 특징

파주 민요가 과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파악한다면 현재의 변화 양상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파주 민요론』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파주 민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심는 소리는 '열소리'와 '허나기로구나'가 만나는 지대이다

파주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소리가 발달되어 있다. 모심기 소리는 크게 여덟 종류로 나뉜다. 그 가운데 파주에서는 '열소리'와 '허나기로구나'를 찾아볼 수 있다. '열소리'는 주로 경기 중부에서 들을 수 있는 모심는 소리이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또 '새로 하나'

부터 열까지 세기를 반복한다. 가령, 한 사람이 “하나를 심었다 둘이로구나, 둘을 심었다. 셋” 하면 다른 사람이 “셋이로구나 넷이로다, 넷 간데는 다섯일세”라고 이으면서 교대로 부른다. 파주의 열소리는 열까지 세고 나서 새로 하나로 들어가는 사실 구성이 대부분이다. 가창 방식은 메기고 받거나 한 사람씩 번갈아 부르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기로그구나’는 황해도 연백평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기고 받는 형식의 모심는 소리이다. 황해도 연백, 평산,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강화 등지에서 발견된다. 받는소리가 “허나 허나 허나기로그구나”인데 ‘허나’란 수를 셀 때의 ‘하나’와 같다. 파주의 ‘하나기로그구나’는 받는소리 앞부분은 ‘허나 허나’가 지배적이고 뒷부분은 ‘허나기로그구나’와 ‘하나기로그구나’로 대별되며, ‘구나’는 ‘고나’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메기고 받는 선율이 대체로 비슷하고, 음악적으로 ‘하나기로그구나’의 출처지인 연백의 영향을 받아 서도 소리 창법이 묻어난다.

② 헤이리소리와 우야소리의 본고장에 속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논매는 소리는 대략 5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파주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논매는 소리가 수집되는데, ‘헤이리소리’와 ‘우야소리’가 대표적이다. ‘헤이리소리’는 받는소리에서 따온 학문적 명칭으로, 논을 맬 때도 부르지만 회방아 때에도 부른다. ‘헤이리소리’ 메김구에 ‘서산’ 또는 ‘나무꾼 소리’라는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에 “서산 나무꾼 소리”라고도 일컬어진다. 서산은 송추를 가리키는 말로 송추의 나무꾼들로부터 나왔다는 설도 있다. ‘헤이리소리’는 파주를 비롯하여 고양과 양주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파주의 헤이리류는 적성면을 제외하면 대체로 파주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이다.

‘우야소리’의 ‘우야’는 새 쫓을 때의 의성어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논맬 때나 회방아 때 마지막에 부르는 소리로 ‘새 쫓는 소리’라고도 한다. 메기고 받는 형식이며 받는 소리는 “우야 훨훨”이 주류를 이룬다. 파주는 ‘우야소리’의 출처지로, 회방아소리로 부르던 것이 논맬 때도 원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논맬

때는 풍년구가적인 모의 행위이고, 회방아 때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실어 나른다는 민간신앙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③ 회방아소리가 다양하다

회방아소리는 토장을 하는 민족의 독특한 장례 문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특히 회방아소리가 발달되어 있다. 파주에서는 광중에 여섯 명의 달구꾼들이 각자 긴 달굿대(연춷대)를 손에 쥐고 들어가 두 번까지 소리하며 다지고 세 번째는 평토에서 다짐이 일반이다. 더 여러 번 다지더라도 다섯, 일곱 번 등 홀수 번으로만 다진다. 회방아라는 명칭은 달굿대를 쥐고 다지는 모습을, 절굿공이를 붙잡고 절구방아 켜는 데다 비유한 것이다. 파주는 긴 달고 서두, 긴 달고, 잣은 달고, 방아타령계, 헤이리, 상사 및 우야소리를 부른다.

④ 논매는 소리가 다양하다

파주는 호미로 애김을 매는 지대이기 때문에 논매는 소리가 썩소리, 긴소리, 사도소리, 던지소리, 논김 양산도, 헤이리소리, 방아소리, 방아타령, 우겨라방아, 논김 방아타령, 상사, 몸돌 및 우야소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던지소리, 방아소리, 상사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형의 논매는 소리들이다.

⑤ 지경류 지대이다

집을 세우기 위해 집터 닦는 일을 지경다지기라고 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집터를 고른다.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워서 경사진 지면을 고르는데, 메운 땅을 뜬흙이라 부른다. 뜬흙은 큰 돌을 새끼에 맨 달구(혹은 지짐돌)로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다진다. 못터나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에는 지경류, 지점류, 지정류, 상사류, 차류, 망깨류, 달고류 등 다양한데 파주시는 지경류가 나타나고 있다.

⑥ 장원질 노래와 벼타작소리 및 줄맴소리가 없다

장원질 노래는 마지막 논매기인 만두레를 끝내고 농사 장원을 뽑아 소나 걸 채, 팽이말 또는 어깨말에 태우고 춤추며 마을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삼남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마지막 두 레매기를 하고 농악을 울리며 들어올 뿐이다. 충남 지방에서는 벼타작소리가 가장 발달했는데,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벼타작소리가 없고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또 삼남 지방과 경기도 화성, 고양 등지에서 발견되는 줄다리기 소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⑦ 찢네류의 모찌는 소리, 용두레질소리, 겨리소 모는 소리가 수집된다

모찌는 소리는 이앙법 보급과 직결되는 일노래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다. 파주 지역에 나타나는 찢네류는 모심는 소리인 ‘허나기로구나’의 선율에 없어 가사를 바꾼 노래이다. 황해도의 연백, 벽성, 평산, 웅진, 경기도의 파주, 고양, 강화, 김포 등지에서 발견된다.

용두레질소리는 용두레로 논에 물을 퍼올리는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파주의 임진강 지류들은 변성암에서 떨어져 나온 모래들이 강바닥에 깔려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노랫말에는 주로 강물을 푸면서 수를 세는 단위 등이 들어갔다.

이밖에 겨리소 모는 소리가 수집되기도 하였다. 파주의 평야 지대에서는 호리소로 밭갈이 하는 곳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지 밭을 갈 때라도 밭도랑을 넓게 하기 위해 소 두 마리를 사용하여 겨리소로 작업하기도 한다. 겨리소 모는 소리의 경우, 밭을 갈 적에 소들이 잘못 가면 “이라- 어디 어디 어 어루가자- 마라- 마라루. 어디어차, 마라루 돌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 독백하는 말투로 되어 있다.

3. 파주 민요 전승 현황

1) 마산2리 김남현 씨의 민요 전승 과정

김남현 씨는 1933년생으로 조사 당시
나이가 76세였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
고 있으며, 현재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
여 외지에서 살고 부인과 단 둘이 지내
고 있다. 파주시 파평면 마산2리에 거주
하고 있는데, 마산2리 2반은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에서 '새마을'로 부르기도
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
에서 살고 있는 김남현 씨는 강릉 김씨
모암공파이며 마산리는 15대손부터 자
리를 잡은 곳으로 근처에 선영이 있다.



파평면 마산2리
김남현 씨(76세)

김남현 씨는 일제 시기에 소학교를 3년 정도 다니다가 부친이 돌아가시자 농
사일을 시작했다. 어려운 살림을 거두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던 김남현 씨는 소
학교 시절 부르던 일본 노래를 어렵듯이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
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형제들 건사하고 자식들 챙기다 보니 여태까지 온
거지. 소학교 다닐 때는 창가도 배우고 일본 노래도 불렀어. 일본말을 안 쓰
니까 지금은 다 잊었지. 그때 부르던 노래가 '와카이지시오노 요카레온노
나나쇼 보당와 사꾸라니 히까리-' 뭐 이런 노래였어요.”

일제 시기 소학교를 통해 일본 노래를 경험했던 김남현 씨는 농사를 짓기 시
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요를 접할 수 있었다. 일노래나 상여소리 등을 자주 들
을 수 있는 환경에서 목청이 좋았던 김남현 씨는 마을 어른들의 뒤를 이어 선소

리꾼의 역할을 대물림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웃대 노인들이 초상이 나거나 일할 때 노래를 하시는데 들어 보니까 자꾸 귀에 들어오고 구수해. 어른들이 해보라고 해서 몇 번 해보니까 계속 하라고 하셔. 그러다가 웃대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내 차지가 되었지. 초상만 났다 하면 나를 불러들이네. 그러다 보니 염도 하게 되고 상여 나갈 때 요량도 흔들게 되고 산에 올라가 회방아도 놓고 또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게 된 거야. 마을 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짊어서는 목청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김남현 씨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을 일에 참가하여 불렀던 노래는 대개 일노래와 의식요이다. 일노래는 주로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와 같은 논농사와 밀접했다. 의식요는 장례 풍습에서 부르던 것으로, 상여소리와 회방아소리가 있었다.

일노래는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메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소리꾼은 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소리를 메겨줘야 한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계속 바꿔주는 일은 수월치가 않다. 김남현 씨는 마땅한 사설이 빨리 떠오르지 않을 경우 후렴구를 반복하며 노랫말을 생각할 여유를 가졌다고 한다.

현재는 장례 의식이나 농법이 바뀌면서 일노래나 의식요를 부르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다. 모내기소리 같은 일노래는 김남현 씨가 30대였던 30~40년 전에 이미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부르던 일노래를 청하자 노랫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반면에 선소리꾼으로 비교적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상여소리나 회방아소리는 몇 가지 노랫말을 분명히 기억했다.

“노인네들이 예전에 ‘나 죽으면 소리 좀 메겨줘’ 하고 부탁했는데 지금은 없어. 딴 사람들은 소리하는 거 좋다고 하는데 집사람은 듣기 싫고 창피하다고 싫어해. 자꾸 하지 말라고 만류해서 점점 못하는 거지. 이제는 안 하니

까 잊어버려. 올 여름에도 소리 좀 메겨주라고 하는데 76세면 나도 곧 죽을 나이이고 몸이 퇴화되어서 뭘 하겠어.”

김남현 씨의 말에 따르면 마산2리에 농요를 부르던 풍습은 이미 1960~1970 년대에 사라졌다. 그나마 김남현 씨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농사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농요를 어렵듯이 기억한다고 한다. 마산2리처럼 향토 민요가 삶의 현장에서 연행되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다.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었던 파주 지역도 보존회가 있는 ‘금산리민요’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억을 살려 과거의 노래를 알려주는 정도이다.

2) 마산2리의 일노래 및 의식요

김남현 씨가 기억하는 마산2리의 민요는 크게 농사일을 할 때 부르는 일노래와 장례를 치를 때 부르는 의식요를 꼽을 수 있다. 일노래는 모찌는 소리, 모내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 논농사와 관련된 노래들이고, 장례 때는 상여소리와 회방아소리를 부른다. 형식은 대체로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받는 소리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반면, 선소리꾼이 부르는 메기는 소리는 이미 있거나 새로 만든 사설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가져다 메긴다. 김남현 씨의 기억에 남아 있는 마산2리의 민요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노래

① 모찌는 소리

모찌는 소리는 모내기를 하기에 앞서 못자리에서 모를 뽑아내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모심기와 관련된 노래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반면 모를 찢을 때 부르는 노래는 매우 드물게 전한다. 모내는 일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랜 시간 가지런히 치러지지만, 모찌기는 그 작업 자체가 거칠고 재빠르게 치러지는 일이어서 여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작

업이 산만하기 때문에 노랫말도 단조롭고 틀이 잡히질 않으며, 모심기소리와 사설이 교류되기도 한다.

마산2리에서 부르던 모씨는 소리는 ‘찼네, 찼네’라는 노랫말로 시작한다. ‘찼네’ 류의 모씨는 소리는 파주 지역에서도 금촌, 탄현, 파평, 진동 등지의 서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김남현 씨에 따르면 마산2리에서는 모씨는 소리를 잘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선율 없이 후렴구의 노랫말을 한 대목 간 단히 소개했다.

“옛날에는 모를 모판에 심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렸어. 그러면 뽑아야 하는데 모 한침을 쥐면 두 손으로 찌서 이걸 묶어요. 그럴 때 힘이 드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찼네, 찼네 여기도 한침 찼네’ 이런 식으로 말 삼아 노래로 하고 그랬어. 메기는 소리는 이것저것 잡담을 넣어서 간단히 했어. 그런데 모씨는 소리는 잘 안 했어.”

② 모내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내는 소리는 ‘모내기소리’, ‘모노래’, ‘이앙가(移秧歌)’라고도 한다. 농업 노동요의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이며,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을 때부터 널리 퍼져 어디서나 거의 같은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 모내는 소리를 한 줄씩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는데, 일이 오래 계속되는 만큼 노랫말이 다양하다. 노랫말의 선택은 먼저 부르는 패의 선소리꾼이 담당한다.

마산2리의 모내는 소리는 파주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받는 소리의 노랫말은 ‘허나 허나 허나기로허나’이다. 출현음은 솔-라-도-레-미이며 ‘라-도’ 음으로 종지한다. 3분박 4박자의 두 마디씩을 메기고 받으며, 메기는 선율과 받는 선율이 대체로 비슷하다. 메기는 소리를 부르는 선소리꾼은 공동 작업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노랫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모내기소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메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같이 모를

모내는 소리

김남현(남, 76세, 파평면 마산2리)

김은지 제보

♩. = 50

(받) 허 나 — 허 나 허 나 — 기 로 — 구 — 나 —

(메) 노 세 — 노 — 세 절 이 — 젊 어 서 — 노 — 세 —

(받) 허 나 — 허 나 허 나 — 기 로 — 구 — 나 —

(메) 오 날 — 은 — 여 기 서 놀 — 고 내 일 — 날 — 은 — 어 디 — 서 놀 까

(받) 허 나 — 허 나 허 나 — 기 로 구 — 나 —

내면서 부르는 거야. 모내는 사람들이 '허~나 허~나 허나기로허~나' 하면, 메기는 사람은 자기 재량껏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 날은 어디서 놀까'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설설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모를 내며 주거나 받거나 소리를 하면 멀리서 들어나 가까이 들어나 노랫소리가 참 좋지. 메기는 소리는 남 듣기 좋게 꾸려내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했던 거 말고 '해는 저서 어두운데 첩의 집을 갈까나!' 이런 소리를 집어넣기도 해. 메기는 소리가 쉬운 것 같아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주눅이 들어서 잘 안 돼. 사설을 얼른얼른 주워대기가 어려워. 소리 배길 때 생각이 안 나면 후렴구를 반복하는 거야. 두 번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무슨 소리를 메져야겠다고 생각이 나니까. 메기고 받는 사람이 손발이 딱딱 맞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부를 땐 실수도 몇 번 했어."

③ 논매는 소리

논에 김을 매는 것은 대개 세 번에 걸쳐 행해진다. 논매기는 매번 노동의 강도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역시 속도와 사설이 다르다. 논매는 소리는 지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매번 김을 맬 때마다 같은 소리를 부르기도 하고 다른 소리를 부르기도 하며, 지역과 부르는 이에 따라서도 다르다.

김매는 일은 여럿이 함께 치르지만 동작의 통일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노래는 일의 동작과 밀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소리꾼은 작업을 지휘하는 기능보다도 일의 흥취를 북돋우는 일을 맡는다. 사설은 김매는 일을 노래하는 한편, 김매는 일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생각을 구연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즉 논매기 소리는 사설에 구애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부르면 된다.

마산2리의 논매는 소리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받는 소리 초두에 ‘에헤’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김남현 씨는 이 노래를 ‘에헤소리’ 라고 했다. 논매는 소리는 일정한 박자 없이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받는 소리는 ‘에-, 에헤-, 에, 에 에-이-, 일가, 싸아-아, 오호-오-, 에에’ 이다. 김남현 씨는 받는 소리의 앞부분만을 짚막하게 들려주었다.

논매는 소리

김남현(남, 76세, 파평면 마산2리)

♩. = 40 free rhythm

김은지 제보



“논매는 소리는 ‘에헤 에헤’ 하는 소리야. 호미질 하면서 ‘에헤’ 소리를 하면 눈망울이 튀어나올 지경이야. 노래를 여럿이 크게 신나게 불러야 되는데 호미질 하면서 노래하는 일이 쉽지 않아. 논매는 소리는 받는 소리가 ‘에헤- 에헤- 에헤- 에에이-’ 하면, 메기는 소리가 짧게 아무 사설이나 꾸러다 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반복해. 김매는 속도가 느리면 소리가 느려지

고 빨라지면 소리가 빨라져. 해가 저물 때는 노래는 그대로 하고 손을 빨리
 돌려서 일을 마무리해 가는 거지. 그럴 때는 힘을 줘서 소리를 더 크게 해.
 날찬 좋은 호미를 가지고 ‘철서덕 철서덕’ 소리를 내며 우스갯소리나 에헤
 소리를 하며 빨리 빨리 진행하는 거야. 일감이 적으면 노래도 천천히 불러
 가면서 하구. 일노래는 주로 모내는 소리와 논매는 소리를 많이 했어.”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상여소리와 달구소리는 장례 의식과 상여를 메고 운반하며, 또 땅을 다지는
 노동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어 의식요이면서도 노동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
 을 단위로 협동해서 장례를 치르는 농촌 지역에는 현재도 남아 있는 지역이 있
 다. 장례와 관련된 소리는 출상 순서에 따라 서창序唱소리, 행상行喪소리, 자진상
 여소리, 달구소리로 나뉜다. 선소리꾼으로 활동했던 김남현 씨는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행상(상여)소리와 하관 뒤에 무덤을 다지면서 부르는 달구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① 상여소리

상여소리는 일명 만가挽歌, 향도가, 향두가香頭歌, 행상소리, 회심곡回心曲, 옥설
 개, 설소리 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다. 노랫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는 비슷한 내용이 많다. 마산2리의 상여소리는 3분박 4
 박자의 두 마디씩을 메기고 받는 형식이며, 받는 소리는 ‘허-허-허-허- 어거
 령차 어헤’로 부른다. 출현음은 ‘라-도-레-미’이며 메기고 받는 소리 모두 도
 로 종지한다.

“상여소리는 선소리꾼이 처음에 요량을 흔들며 ‘어허’ 하면 상두꾼들이 선
 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어허 어허’를 반복해. 대열이 정비되면 장지로 향하
 는 상황에 따라 소리를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조절하지. 선소리꾼이 계속
 사설을 바꿔가며 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은 ‘어허 어허’ 하며 소리를 받아.

매기는 소리에 이것저것 잡소리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회심곡 같은 곡도
괜찮아."

상여소리

김남현(남, 76세, 파평면 마산2리)

♩ = 40-50

김은지 제보

(받) 허 허 허 허 어-거렁-차어우- 에 헤

3 (메) 오 날은- 여 기 서 놀-고 내 일- 날- 은 어 디 서 놀 까

5 (받) 허 허 허 허 어-거렁-차어우- 에 헤

7 (메) 서 산-에 지는- 해- 는- 지고 싶어- 서 지는 가요-

9 (받) 허 허 허 허 어-거렁-차어우- 에 헤

11 (메) 가는- 님 의- 허 리를- 잡고- 가 지 말 라고- 생 사 정- 허 네-

13 (받) 허 허 허 허 어-거렁-차어우- 에 헤

15 (메) 북 망 산 천 가는 길 이 오- 늘 날 의- 어 기 로- 다-

17 (받) 허 허 허 허 어-거렁-차어우- 에 헤

② 달고소리

달고소리는 달구질을 하면서 회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이다. 장례 풍습이 바뀌면서 현재는 마산2리에서도 듣기 어려운 노래이다. 묘를 쓸 때는, 하관을 마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 주변의 흙을 단단히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늘어서서 노래에 발을 맞추면서 빙빙 돌아 발로 땅을 다지는데, 이때 이 노래를 한다. 회다지는 여러 사람들의 호흡이 맞아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노래와 동작이 일치해야 한다. 사람이 죽어 작별하는 순간이기에 노래의 내용은 초로인생의 허무함과 영이별의 쓰라림을 애절하게 노래한다. 마산2리의 달고소리는 받는 소리가 '에이여라 달고'이며 3분박 4박자의 한 마디씩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출현음이 '도-레-미-솔-라'의 도음계이고 미음으로 종지한다. 메기는 소리의 선율은 대체로 비슷하다.

달고소리

김남현(남, 76세, 파평면 마산2리)

♩ = 60

김은지 제보

에 이 여 라 달 — 고 에 이 여 라 달 — 고
(메) (받)

3
어 제 오 늘 - 성 틈 몸 이 에 이 여 라 달 — 고
(메) (받)

5
저 녁 나 절 - 병 - 이 들 어 에 이 여 라 달 — 고
(메) (받)

7
부 르 - 나 니 - 오 마 니 요 - 에 이 여 라 달 — 고
(메) (받)

9
찾 - 으 나 니 냉 수 로 다 - 에 이 여 라 달 — 고
(메) (받)

한두 살 에-저를 몰라- 에 이여 라 달-고
(메) (반)

부 모-은 공을 모르다가- 에 이여 라 달-고
(메) (반)

이 삼-십을- 당 하 여는 에 이여 라 달-고
(메) (반)

애-육 한-고 생 살 이 에 이여 라 달-고
(메) (반)

에 이여 라 달-고 에 이여 라 달-고
(메) (반)

제보자 : 김남현(남, 1933년생, 농업) | 조사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요일) 오후
조사 지역 : 파주시 파평면 마산2리 | 조사 장소 : 파주시 파평면 마산2리 김남현 씨 자택



구술 생애사

- 파주인의 경험과 삶

김순주_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의 행적을 시간적, 사건적 구조에 따라 살펴보는 생애 이야기이다. 구술자 스스로가 기억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역사만큼이나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의 생애 이야기라는 일차적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 그의 생애 역사는 그가 거주하고 활동해온 지역사회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지역사회의 변동에 작용하고 때로 반작용하면서 그의 삶을 선택하고 실천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의 생애 역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변동의 행로를 가장 경험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오경례(여, 1939년생)는 6·25전쟁 후 파주 일대에 기지촌이 형성되는 초기에 전라도에서 파주로 팔려왔다. 그는 20여 년 동안 '양색시'로, 또 '양색시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였다. 류병석(남, 1926년생)은 대한민국 입법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에서 최연소 민선 면장으로 당선되었다. 주내면장직과 연풍 수리조합장직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한기영(여, 1926년생)은 스무 살에 파주로 건너와 40여 년 동안 파주 서부 일대의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부대의 내부자로서 그는 너무나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의 구체적 삶과 경험이 파주의 지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오경례의 생애사

오경례(吳慶禮)는 금성 오씨로 1939년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도산리에서 태어났다. 3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부모형제를 거의 잃었다. 1951년 즈음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듬해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의 장사(葬事)는 동네 사람들이 치렀지만 법성포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사는 오경례가 맡아서 처리해야 했다. 난리통이라 사람이 죽으면 법성포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고 오경례는 지서를 찾아갔다. 오빠가 순경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지서 측에서 어머니의 장사를 치르게 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뽄뽄이 돌아다녀 이후 어머니의 묘소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일만은 기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오경례가 직접 지내왔다.

이렇게 열두세 살에 전쟁고아가 된 오경례는 두 동생들과 살아가야 했다. 동생들을 친척집이니 남의 집에 갖다 맡기고 그는 식모살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성장했을 무렵인 열아홉에 오경례는 월급 1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술집으로 들어갔다. 그 길로 영문도 모른 채 파주땅으로 팔려왔다고 한다.

“술집으로 들어갔지. 내가 술집에 가서 월급을 그때 돈 만오천 원 받기로 했나? 받기로 하고 갔는데, 거기서 나를 이 파주 땅에다 팔아먹었지. 어렸을 때만 해도 화다가 굵고 키가 좀 크고 날씬하게 빠졌었어요. 어릴 때는 늘 섰했었어. 파주에다 팔아먹고, 난 몰랐지, 와서 알은 거지. 데려와서 사흘 만에 애기 듣고. 무섭잖아요? 그때 열아홉 살인지. 무섭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봤더니 주인이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니가 잘하면 나 그 돈 안 받겠다. 하도 울고 미군들 오면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고. 그러니까는 3일 만에 불러다놓고 얘기를. 내가 운명이 이거라면 이 길을 따라야지 어떻게. 어린 마음에 계산해 보니까 돈 벌겠더라고. 나를 사온 돈은 안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약속도 안 믿는다. 씨라. 씨서 도장 찍어서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거기서 뛰가지고...”

오경례가 주내로 팔려온 것은 1950년대 말이다. 6·25전쟁 후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한국 내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미군부대 주변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는 기지촌이 나타난 직후였다. 오경례는 기지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 그것도 유곽업이 가장 성행한 촌락의 하나인 주내로 팔려온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기지촌 여성들의 수는 1964~1965년에 대략 4300~4500명, 1966년~1968년 사이에는 3600~3800명에 달하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유곽업이 전성기였다. 1970년대 초부터는 미군부대가 철수하거나 이동함으로써 기지촌 역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오경례는 유곽업이 쇠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기지촌에서 '양색시'로 일했다.

기지촌으로 오는 여성들의 배경이야 다양했겠지만, 오경례의 경우 전쟁고아에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으로 먹고살기 위해 술집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즈음, 각 지방의 다방이나 술집들을 통하여 어린 여자들을 미군 기지촌 포주들에게 넘겨다 파는 암묵적 매매 관행이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오경례는 술집들을 전전하다 마침내 파주로 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파주의 기지촌 유곽으로 팔려왔기 때문이다.

“그때 빈 몸덹이 올라온 게, 뭐 있어? 치마저고리 입고 왔는데. 옷이 있어 뭐가 있어? 침대, 목침대 하나 들여놓고, 다이 하나 놓구, 옷 서너 벌 사 입으니까 또 몇 만 원 되는 거야. 이진 니 빚이다, 이거야. 넌 입어야 버니까. 또 주인도 확실하더라고, 터놓더라고. 너는 지금 옷을 입어야지, 이케 치마저고리 입고 유방 감추고 이런 시대가 아니다, 여기는. 그니까 여기 법을 따라라.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 좋다. 옷 달래니까, 몇 만 원 빚을 졌다, 이 빚은 갚되, 네가 만약에 10원을 벌면은 5원은 내가 먹는다. 난 너 방세, 방주고 밥 먹여주기 때문에 5원은 받아야겠다. 그리고 5원 가지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유곽으로 오면 포주와 여성 간에 일방적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성이 번 돈의

반을 포주가 가져가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반을 다시 포주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기 때문이다. 오경례는 이야기 도중 ‘빚’ 문제를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가 주내의 유곽으로 팔려온 그날부터 양색시 노릇을 그만두기까지 빚이 내내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양색시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옷부터 마련해야 했다. 포주들은 단골 양장점이 있었다. 1950년대 말 기성복이 없었던 시기, 오경례는 치마저고리 대신 양장점에서 내리닫이 원피스부터 맞춰야 했다. 보통 한 벌에 5000~6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포주와 양장점 양쪽에서 양색시들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포주들은 숙식, 옷뿐만 아니라 하이힐과 화장품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였다. 이것이 오경례와 같은 양색시들에게 거대한 빚을 남겼던 것이다.

오경례는 주내의 유곽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새벽 2, 3시에 잠자리에 들어 6시쯤 미군을 깨워 보내고 다시 잠을 잤다. 아침 9시쯤 일어나게 되면 포주 집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개 12시쯤에 일어나 점심식사를 하고 그날 영업을 준비하는 반복적인 생활이 계속되었다. 생활이 이렇게 되풀이되었기에 오경례에게는 하루 한 끼의 식사가 보통이었다고 한다.

오경례는 이해 가을쯤 주내에서 연풍3리인 대추별로 왔다. ‘용주골’로 불리는 연풍1리는 한 택시 운전기사의 말을 빌면 한때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녔을 정도’로 양색시촌으로 이름을 떨친 곳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경례가 옮겨간 대추별 일대가 이런 유곽이 형성된 곳이었다. 연풍교(延豐橋)를 건너 대추별로 들어서면 지금도 골목 한쪽에 ‘색시집’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경례는 대추별에서 양색시로 얼마간 일하다가 곧 아리랑클럽으로 옮겼다. 그는 여기서 ‘뎨-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주내에 있을 때) 빚이 얼마를 진 거야. 또 빚을 진 거야, 그걸 지고 요기 용주골로 이사를 오게 된 거야. 파주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연풍리로 왔어요. 열아홉 살에 갔다가, 스물한 살에 빚을 다 갚았어요. 없어요, 빚이. 아리랑클럽에 춤을 조금 배워가지고 뎨-사로 다녔어. 뎨-사로 나가

지고 동생들을 다 찾았어, 돈을 벌어가지고. 찾아다 방을 얻어서 따로 두고 같이 살았어요, 한 3년, 대추벌에서... 미군 홀이야. 미군들만 다니는 홀이야. 클럽이에요, 일종의. 술 먹고, 악사들 12인조 놓고, 장교실 따로, 사병실 따로 있어 가지고, 가운데는 춤추는 데. 미군 퇴근할 시간부터, 여섯 시부터.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여자들 댄-사들이 한 30~40명 됐었어. 춤은 다 났어요. 지루박, 부르스, 탱고, 왈스, 차차차, 맘보, 다 났어요. (난) 33번이었어. 들어오는 대로 적어가지고 번호를 매기더라고. 자기가 원하면 그 여자 데려다 술 사주고 춤추고 노는 거야, 그날 하루 종일. 거기서 100원씩 나오는 거지. 술 한 잔 얻어먹고, 술 한 잔에는 500원. 술 한 잔 얻어먹고 테켓이 나오는데 100원씩 얻는 거야. 나는 아리랑클럽에서 제2의 마를린 몬로라고 했고, 아리랑클럽은 한국의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라고 불러."

아리랑클럽. 일반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오경례와 같은 댄-사와 악사, 그리고 미군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미군 전용 클럽이다. 오경례는 여기서 33번 댄-사로 일하였다. 자신을 선택한 미군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거기에 붙여 나오는 100원짜리 '테켓ticket'을 받는 식이었다. 오경례가 워낙 술을 잘 마시고 춤에 능했기 때문에 미군들은 그를 한국의 마를린 몬로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리랑클럽은 여자들이 떨어지는 폭포와 같이 넘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나이아가라'라 불렀다.

아리랑클럽에서 일하면서는 흠어져 있던 두 여동생들을 데려와 대추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3년을 그렇게 살면서 이들은 삼형제언니로 소문이 났었다. 오경례는 대추벌에서 4·19와 5·16을 맞았다. 특히 5·16 당시는 통행금지로 저녁이면 연풍리 일대가 미군들로 짙 깔려 있었다고 한다.

"막 웅성웅성 했어요, 4·19 때는. 쫓아가서 구경한 사람도 있고. 신문에 이만큼씩 나오는 거야. 사람이 죽어서 등등 떠 있는 이런 거. 8면이면 8면 다 그 기산데. 신문 봐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라디오도 전부 다 그 방송이야. 연속극도 없이, 4·19 때. 이기붕이가 무조건 쏘아라 하니까 박통이 ...

시켰는데, 냉중에 그 시킬 때 신문에 넘죽하게 나왔었는데, 쯤그만 초등학교
생들이 탱크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타 있더라고, 그 안에. 승만이 나가라고.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기 감전 돼서도 죽고.

5·16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 8시만 되면은 꿈짝
도 못해. 밖에 나갔다 볼들리면은 그냥 볼들려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총
살당하고. 이 미국 놈들이 있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 가지고,
5·16 때. 전부 총대 맨 군인들이 짹 깔렸어. 옆집에서 옆집에도 못 가. 장사
도 못하고. 낮에는 나가. 밤에 일곱 시가, 일곱 시만 되면 파란 되는 거야. 그
러면 군인들이 짹 깔려. 대추벌에서 동생들하고, 나하고, 애인하고, 넷이서
갈혀 있는 거야. 아침에 해 뜨면 각자 밥들 해먹고 빨래도 하고 신문을 팔러
다녔어. 쯤급한 아이들이 팔러 다녔는데, 이게 아리랑클럽이라면 쯤급 떨
어진 옆에서 살았거덩. 신문 팔러 와. 고기 근처에서 신문이요 신문. 그러면
문 열고 하나 달라고 그래서."

아리랑클럽의 경기가 좋지 않게 되었을 무렵, 오경례는 충청도 진천에 내려가
서 일했다. 동생을 그곳으로 시집보냈기 때문이다. 얼마 후 경기가 좋아진다 하
여 다시 파주로 돌아와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였다. 이때 나이가 스물
다섯쯤이었다. 그런데 몇 년 후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결국 헤어져야 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오경례는 그것을
결혼이라 생각한다.

1960년대에 들어 파주군에서는 윤락여성들의 위생과 복지를 위한 정책과 시
설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1963년 6월, 현재 금촌의 두
보아파트와 장미아파트가 있는 곳에 설립한 파주 여자기술 양성원이다. 초기 양
성원은 수용 인원이 50명이었다. 기지촌에서 양색시로 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
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여자들이 대상이었다. 양성원은
이들에게 2년여 간 미용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
다. 오경례 역시 열일곱, 열여덟 된 여자아이들이 양색시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
하는 입장이었는데,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양성원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또한 파주군청의 복지관 직원들이 오경례를 비롯한 양
색시들을 위해 공릉 야유회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책으로 오
경례는 파주 여자기술 양성원 옆에 위치한 운전면허장에서 운전을 배워 1972년
이라는 이른 시기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69년 영태리로 이사한 오경례는 양색시 생활을 계속했는데,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약 5년 동안 영태5리의 양색시 회장직을 맡았다. 그리고 1973년부
터 약 3년 동안 파주의 16개 리 부회장직도 맡았다. 그 당시 양색시 대표로 지서
장, 동네 회장, 미군과 함께 군부대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양색시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맡았다고 한다. 그
래서 별명이 ‘변호사’ 였다.

“그때는 색시들이 한 200명 됐을 때니까, 70년대. 그래서 열여섯 개 리의 부
회장도 봤고. 웬만한 경찰관이고, 나 안 거친 사람 없구. 경찰서에 가도 판
사람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잘 들어. 미군 하나가 괜히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피라미를 붙여놔더라고, 출입금지령을 내려놔더라고. 지서에 가서
이런 얘길 했지. 어떻게 나를 출입금지령을 내렸느냐, 그걸 오피라미라고
그러거든? 지서장이 깜짝 놀래더라고. 회의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준 거야. 풀어주고, 그 사람은 쫓아내고. 잘못했다고 빌고, 나한테 보상
해준대. 나를 보상해 주려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보상해 주라. 결론적으로
난 너 쫓아내겠다 그것이야. 저기 앞 부대 에드워드, 왜 이유 없이 금지령을
내렸나구. 같이 회의하고, 지서장, 나, 동네 회장, 미군, 이렇게 회의하구. 나
는 동네 사람도 함부로 못 건드려.”

양색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의로부터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다. 검진
등급에는 ABCD 네 등급이 있었다. A등급은 문제가 없고, B등급은 약을 먹어야
했다. C등급은 주사를 맞아야 하고, D등급은 심한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당시 성병을 검진하던 재미교포 담당의가 약을 빼돌린다고 오경례를 의
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문제 때문에 봉일천 회장, 영태리 노인회장에 수많은

양색시들이 강당으로 몰려와 회의를 벌였다.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군인들이 나서 경계를 설 정도였다. 오경례는 강당으로 들어가 그 의사를 야단치고는 누명을 벗기 위해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을 유지하느니 명예롭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소리쳤다.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다시 선출된다 하더라도 오경례에게는 불명예스럽거나 이미 무의미한 일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오경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미군을 상대하는 양색시 일도 아예 때려치웠다고 한다. 1976년, 서른여덟 즈음이었다.

그후 영태1리에서 술장사를 하고 있을 무렵 중매가 들어왔다. 광탄면에 사는 시부모와 자식이 둘 있는 남자였다. 다시 시부모와 자식,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오경례는 술장사를 하기도 하고 칠순을 뜯으러 다니기도 했으며 초여름 한철 임진강 유역에 뱀장어 잡이도 갔다.

당시 뱀장어 잡이는 불법이었다. 임진강 유역의 군부대와 철조망을 피해 오후 3시에 출발하면 밤 8시쯤에 도착을 했다. 중간쯤엔 싸간 도시락을 먹기 위해 잠깐 멈췄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뱀장어를 잡을 수 있는데, 2시까지 잡고 굴에서 기다리면 4시쯤에 뱀장어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잡은 뱀장어는 그 자리에서 현물로 거래되어 오경례가 알기로는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몰래 군인부대 고개 넘어서 철조망 없는 데를 피해 임진강까지 가야 하는데, 후라시, 뜰때, 아주 가느다란 거, 물만 빠지는 뜰때, 바께쓰 하나 들고 가. 후라시 하나 비추면 딱 실오라기 같애. 밤 여덟 시서부터 새벽 두 시까지는 뱀장어가 나와 있어, 강 가장자리에. 한 차례 네 시쯤 또 한 번 나와 있고. 물이 막 올라가는 데 있으면은 올라와, 물 따라와. 뱀장어는 내려가지 않고 물 위를 막 올라오지. 하나에 10원. 100개니까 1000원 쫘지. 1000원 받아가지고 쌀 한 말 샀으니까.

이 동네서 나하고 우리 신랑하고, 냉중에 거기서 모이면은 한 열댓 명 돼. 네 시에 또 나오는 걸 잡으려고 굴 파고 비너루 뒤집어쓰고 들어가 있어. 두 시 넘어가면 없으니까. 들어가 있다가 한참 있으면 추운 게 없어져, 뜨끈뜨끈 해. 굴 속 같애 가지고. 네 시에 또 나와. 잡고 나서 다섯 시 되면,

몇 마리 하면 그 자리서 돈 주고. 군인들한테 들키면 다 뺏겨. 오늘 쌀 한 말 사면은 내일은 또 보리쌀 한 말 사고. 그렇게 섞어서 다섯 식구, 여섯 식구가 먹고 살았으니까. 발이 부어터져 이려고, 너무 걸어서 여기가 쥐가 나가지고, 이거 자가바람이 나가지고 찢뜩찢뜩하고. 왜냐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나오는 길은 쉬워. 행길로 곧장 올 수 있어. 동이 트고 흰하니까. 통행금지가 네 시 반이면 해제되니까.

근데 거기 갈 때, 산 너머로 가야 돼, 그 길로 못가니까, 보초들이 서 있어서. 산 넘고 또 산 넘고 고개 넘고 미끄러지고 뒤글뒤글 굴르고. 세 시에 밥을 싸가지고 가면은 거기 가면 여덟 시가 돼. 일곱 시쯤 중간에 가다 밥을 한 숟가락 먹어. 거기까지 올라가면 쉼 듯해. 열다섯 명, 열여섯 명 풀어놓으면 어떻게 가다 보면 10리 길도 문제 없이 갔다 왔다 해. 그때 당시 키로에 12만 원이라고 그랬어. 1키로를 달래면은 몇 백 마리가 들어가야 돼.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나봐. 지금 장파리 가면은 뱀장어 잡는 사람들이 많대. 6월, 7월 두 달밖에 없어.”

결혼 생활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해 겨울을 넘기고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내 운이 풀렸다.”

오경례는 이혼을 하고 다시 영태1리로 왔다. 그뒤, 홀로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부천에 있는 가죽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기도 했다. 공장의 식당을 맡아 하거나 포장마차를 차리기도 했다. 포장마차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위가 아파 때려치웠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거나 탈곡기를 가진 이웃을 쫓아다니며 일한 적도 있었다.

“기계 한 뭉, 사람 한 뭉. 기계 가진 사람은 두 뭉, 혼자 온 사람은 한 뭉.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50가마씩 털었어. 탈곡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서 허지, 개는 저기서 가져와야지, 또 갖다 털어야지, 나는 그거 받아야지. 낱 지

을을 딱 100에다가 묶어 놔줬어. 요것만 차면은 끌어내라고. 끌어내면 다시 밀어서 내놓고, 또 받고. 눈 코 뜰 새가 없는 거야. 자동이 돼 가지고. 시간 나면 갈케질 허고. 밀어 넣으면 올려놓고. 올려놓고서 조금 기계 멈추고. 갈케질 해서 또 털면 한 여태 가마, 스무 가마 밀어 넣으면은 또 기계 멈추고,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세 집을 터는 거야.

세 집을 털면 150가마 이상 털어. 스물다섯 가마에 한 가마씩 주기로 하니깐 많이 나오지. 벼가 열 가마면, 가는 사람마다 집주인이 큰 푸대를 쥐가지고 하나 담아가라 그래. 너무 일을 잘한다고. 받으면 100곤이라는 거야. 몇 개 실어도 다 100개거든. 왜냐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적게 받아놓고 가마 수만 셀려고 막 담는 사람 있거든. 자기 가마수가 많으면 가져오는 게 많잖아. 좋으니깐 꼼꼼해 가지고 벼짚 하나 밖으로 안 나가게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 받아 가래. 하나 받고 또 붓고 또 부으면 혼자서도 못 들어. 들이서 들어올리면 하루에 한 여섯 가마씩 버는 거야. 며칠 벌어, 눈 깜박할 새에. 한 열흘 동안 딱 벌면은 몇 십 가마 돼. 불러, 헌 사람들, 마당에다 쏟아놓고 한 가마씩 다는 거야. 어느 때는 세 가마, 네 가마가 더 돼. 한 사람 앞에 짝 나가. 내 앞에 한 가마. 기계 주인한테는 두 가마. 기계 값이 하나가 있으니까. 고런 식으로 가져가면 한 사람 앞에 일곱, 여덟 가마씩 가져가. 농사 몇 마지기 짓는 것보다 낫잖아. 일 년 농사도 실컷 먹고.

기계 가진 사람도 많았지. 근데 특히 우리만 찾는 거야. 꼼꼼하거든. 깨끗하게 해주거든. 저 너머 동리, 거기서 많이 털고, 저 장곡리, 그 안에도 들어갔어. 우리 집에 술 먹으러 들어왔다가 탈곡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한번 털어봐. 몇 마지기에요? 한 열 마지기 되나봐. 열 마지기만 해도 일곱 가마만 해도 70가마잖아. 벼짚에 벼짚 안 넘어가고. 거기다 기계 받쳐 놓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러고 가서 또 아침에 가서 아침 먹고 또 털고. 용사골, 장곡리. 주로 양쪽에 다녔지."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파주로 팔려와 정착하게 된 오경례는 현재 영태1리에 서 홀로 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기가 힘들어졌을 53세 무렵, 다행스럽



수상 기념사진

파주 여자기술 양성원에서
월롱면장이 오경례에게 상
을 주는 모습(1970년경)



수료 기념사진

파주 여자기술 양성원에서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학
생들이 교육원 직원, 시청
직원들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1970년경)

계도 영세민으로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막내 여동생이 세상을 뜨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첫째 여동생 하나뿐이다. 교회에도 가끔씩 나가고 교인들과 교류 하기도 한다. 올해 칠순을 맞아 가까운 친지들과 칠순 잔치를 하였다고 한다.

류병석의 생애사

1926년에 출생한 류병석(柳炳錫)은 진주 류씨로 본적지는 파주읍 연풍3리이다.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류병석이 아홉 살 되던 해인 1934년 어머니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누이가 대신 집안을 돌보았다. 6·25전쟁 중에는 국민운동과 청년운동에 가담, 국민회 부회장과 대동청년단장을 맡아 일하던 둘째 형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류병석은 파주 심상소학교에 다녔다. 원래 중국 사신들이 묵어가던 객사였다는 이 학교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파주에서도 유서 깊은 학교이다. 류병석이 재학 중일 당시 전체 학생 수는 대략 50여 명이었다. 월사금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마을에서는 겨우 한두 명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소학교에서는 조선어, 일본어, 산수, 일본 역사 등을 배웠다. 조선어는 1, 2학년 때 조금만 배웠고 그후 일본어로 일본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배웠다고 한다. 교장도 일본인이었고, 2학년이 되어서는 선생들도 모두 일본인이었다. 수업은 보통 하루에 5시간이었는데, 고학년이 되면 6시간으로 늘어났다. 보통 바지저고리 차림에다 조선의 짚신이나 조리(草履)(일본식 짚신)를 신고 다녔다.

류병석은 1942년에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문산 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문산 농업학교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종의 직업학교였다. 벼농사, 잡곡 농사, 소·돼지·염소 등의 축산을 실습을 병행하며 배웠다고 한다.

문산 농업학교 재학 중인 1943년, 연풍1리에 살던 동갑내기 전경례(정선 전씨, 1926년생)와 혼인하였다. 일제 말기에 일본어를 잘하는 마을 처녀들을 정신대에 차출해 가려 했기 때문에 전경례의 부모는 혼인을 서둘러야 했다.

류병석은 1946년에 문산 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하자마자 취직 시험에 합격하여 파주군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군청에는 내무과와 산업과 두 부서가 있었다. 류병석은 산업과에서 근무하였고 직위는 기사였다.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류병석은 비슷한 시기에 첫아들을 얻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류병석은 그해 10월 선무공작대에 들어갔는

데, 선무공작대는 9·28수복 이후 류병석과 같은 계통의 젊은이들을 행정업무
요원으로 각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함경도로 배정을 받았고, 10월부
터 11월까지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1·4후퇴로 대원들은 임무를 수행할 겨를도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에 류병석은 경기도 지방기사로 임명되어 다
시 파주군청에서 일하였다. 군청 소재지는 애초 문산에 있었으나 전쟁 중이라
금촌에 임시 청사를 차렸다고 한다. 휴전 후 1955년 4월, 육군 첩보부대에 현역
으로 입대하였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은 해 12월 말 수도육군병원에 입
원해 있다가 신병으로 제대하였다. 힘겨운 시절이었지만 딸과 막내아들을 얻은
행복이 있었다고 한다.

제대 후, 1956년 7월에 류병석은 양주군청의 계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임
명된 지 나흘 만에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유당이 판을 치
는 시기에 신익희 선생파라 하여 일방적으로 해임된 것이었다. 이에 반감을 가
진 류병석은 대한민국 입법 이후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 면장 후보에, 그것도 야
당인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고 한다.

“56년 7월에 양주군청 계장으로 임명됐어. 갔다가 나흘 만에 쫓겨났어. 해
직당했어. 그땐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난 신익희 선생파라 해서, 독약 먹
여서 죽였잖아. 사흘인가, 나흘 만에 해임됐어. 그래서 바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거야, 주내면장으로.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를 댈 단위로
처음 실시했거든. 대한민국 입법 후에 지방자치는 있는데 실시한 거는 56
년에 처음 실시했어, 자유당 말이라고. 해공파라 해서 해임됐으니까 민주
당으로 출마를 한 거지. 당 가진 사람은 공천으로 나오고 당 없는 사람은 무
소속으로 출마하고.”

막상 출마를 하였으나 류병석은 선거운동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자금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당 측의 훼방이 심했기 때문이다.

“난 선거운동도 못했어. 운동도 못하게 허고, 활동도 못했지. 대단했지, 자

유당의 행패들이. 다른 사람들은 차도 타고 벽보도 붙이고 하니깐. 난 돈이 없어서 벽보도 신문지에 붓으로 써서 붙이고, 사진도 못 붙이고. 그랬더니 자유당에 있는 내 학교 후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해서, 흰 종이 갖다 줬어. 그런 내 후배도 있어 가지고. 그때 차 타고 선전한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난 뭐 차가 있어. 맨날 불러놓고 댕기지도 못하게 하고. 개표할 때도 개표 방해하고, 불을 끄고 개표 중단시키고 말이야.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내 표가 자꾸 나오니까, 난 집에서 사랑방에다 들어앉아 있었어. 근데 당선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튿날 나왔지. 난 개표 보지도 못했어. 자유당 정권 때 다 그렇게 했다고. 그날 새벽쯤에 들었어, 됐다고. 난 당선되리라 생각도 못했고, 또 저렇게 행패부리고 그러니깐은 안 될 걸 알았고. 기분은 좋지만은 말이야 실감이 안 났지. 저놈들이 하도 행패를 하니깐. 근데 표가 많이 나오니까 부정 개표 할 수가 없지, 해봤자 소용없지."

이때 류병석의 나이는 만 30세였다. 젊은 혈기에 야당 후보로 출마하여 70~80%라는 높은 지지율로 면장직에 당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전국 최연소, 최다 득표였다.

"나이는 적어도 파주군청에 있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환심을 받았는지 나한테 몰표가 왔더라고. 내가 최다수 받았어, 70~80프로. 지방자치 처음 실시한 게 대단한 건데, 입후보자들 중에 자유당 있고, 무소속도 있고. 무소속은 다 고령자들이지. 우리 아버지 친구도 들 있었어. 자유당 출신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모두 해주더라고, 내가 70프로 받았어. 대한민국에서 최다수 득표 받고 최연소였어. 만으로 서른 살 때니까."

민선 면장으로 선출된 류병석은 그해 8월 드디어 주내면장으로 취임하였다. 출마할 당시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그때 주내 별판이 물이 적어서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갈퀴논이니,

물이 없어가지고 다 타죽고 그러니까. 또 노루마당이라 그러지. 갈대가 많아서 노루가 뛰어다니고. 곡식은 안 되고 풀 덩어리고. 그래서 공약을 난 수리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그랬지. 또 미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미군들과 친선하겠다. 그 두 가지 했어. 내가 산업 제통에 있었으니까 물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거 잘 아니까 수리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했지. 면민들이 잘 먹고 편안히 살게 해 주겠다, 그랬지."

전쟁으로 집과 학교가 폐허가 되고 생활이 피폐했던 1950년대 중반, 집을 짓고 학교를 재건하며 생계 수단인 농사를 잘 짓는 것은 당시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었다. 수리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류병석의 공약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주내에 주둔한 미군들과의 친선 관계 수립은 학교를 비롯한 여타 지역 시설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었다. 면장으로 재직해 있으면서 류병석은 무엇보다 수리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보조금을 조성하는 데 진력을 다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날보다 중앙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한다.



주내면장 재직 시 면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류병석인데, 뒤로 '납세 보국'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당선되고 나니까 중앙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더라고. 농림부하고 도청하고. 그땐 면 재정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했으니까. 창고가 하나 있나. 또 면사무소 청사라 봐야 시원치 않고. 보조를 받아서 창고도 짓고 청사도 짓고. 주로 책상에 앉은 날보다 중앙에 올라가서 활동한 날이 더 많았지. 군은 행정의 중간 기관이지, 보조는 없었어. 중앙이 다 재정을 쥐고 있지. 수리조합은 추진해야겠다, 공약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니까. 그 대가로 내가 목숨을 걸고서 추진한 거지. 하도 농민들이 농사를 못 저 가지고 힘들게 사니까. 내 배운 것이 농사학교 나왔고,



주내면장 재직 시
파주향교 제향 참석

내 직장이라는 게 산업 계통에 있었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 신경을 많이 쓴 거지. 다 농업이었어, 전업이.”

미군부대와는 여러 문제들이 얹혀 있었다. 주내의 윤락여성 문제, 부대 내 한국 종업원들의 절도 문제, 가장 절실했던 학교 재건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문제를 대화로 풀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친선회를 만들었다. 한미친선회는 매달

한 번씩 미군 측과 면 측이 돌아가면서 회의와 식사 모임을 가지는 자리였다.

“한미친선회라 해가지고, 한 번은 면에서 하고, 한 번은 미 측에서 주관하고. 전차대대하고 친선을 주로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지. 상호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우리는 원조 받아야지, 지원책. 학교, 우체국, 지서의 면내 기관장, 의장들이 모여 회식하고 회의하고. 한 번은 부대 구내에서 하고 한 번은 우리 측에서 면사무소에서 하고, 또 너머 야외에서 하고. 사적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했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어, 자주 만났지. 협조적이었어. 학교 책상을 해준대든지, 주로 학교 문제였어. 학교가 다 불타고 없는 거 천막치고 하다가 원조 받아가지고. 주로 학교 관계가 많았지. 사회적으로 봐서 미군들 있으니까 여자들 문제. 또 부대에서 도둑질 많이 했잖아, 그런 거 방지해 달라. 부대에서 자꾸 유출되면 한국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 군복도 훔쳐주고 일 시키고 저희들이 그런 거지, 미군들이 저희가 훔쳐다가 여자들하고 노느라고 대가를 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종업원들이 말 없이 훔쳐가지고 나온 거도 좀 있겠지. 주로 미군 측의 요구는 그거고, 우리는 지원 사업. 우리도 조심하고 단속해줄 테니, 여자 문제도 깨끗이 해주고, 우리는 지원이나 잘 해다오, 그랬지.”

그러던 중, 1958년 12월에 각 시읍면의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법률이 새롭게 공포되었다. 종래의 민선, 즉 직선제에서 관선인 임명제로 바뀌면서 면장은 이제 관으로부터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4년에 가까운 면장직 임기가 끝나가고 있기도 했지만 류병석은 이런 선출 방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1959년 면장직에서 물러나 이듬해에 바로 수리조합으로 옮겨갔다. 저수지와 수리조합 설립을 두고 당시 자유당 출신의 국회의원 정대천이 궤방을 놓곤 하였으나, 류병석은 결국 농림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이로써 건설비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조금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 민선이 관선으로 됐어. 지방자치법으로 면장을 선출했는데 관에서 시키는 사람이 하게 됐어, 국회에서 법으로 고친 거지. 자유당 천지니까, 야당은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59년에 임기 마치고 면장직 물러났어. 60년에 바로 수리조합으로 갔지. 내가 추진해서 정부 보조 받아서 수리조합 만들었어. 58년에 공사 시작했나? 중앙에서 결정이 됐



주내면장 재직 시 모교인 문산 농업학교 장학금 전달식에서 찍은 사진
한복을 입고 맨 앞줄에 있다. (9년 동안 총동창회장을 지냈다.) 민선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양복 대신 자유롭게 한복을 입고 다녔다고 한다. 품위도 있어 보이고 특히 겨울에는 따뜻했기 때문이라고...

는데, 연풍 수리조합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국회에서 정대천이라고 자유당 출신이거든? 국회의 자유당 사람인데, 자꾸 훼방을 놓는단 말야. 올라가면 또 뺨건 줄로 쪽 쳐놓는단 말야. 면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면장을 그만둘라. 너희들이 수리조합을 방해 못할라, 규탄대회를 열겠다 하니, 이놈들이 제 발 더 허지는 말아라, 규탄대회는 열지 말아라 해가지고. 규탄대회 열면 저희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반대 안 하기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농림부에 다시 따라다니면서 연풍 수리조합 보조 책임했어. 재임 중에 공사 시작해 가지고 임기 마치고 바로 수리조합장으로 간 거지. 내가 수리조합에 가가지고 완공을 했어.”

동에서 서로 흐르는 연풍천延豊川은 연풍1·4리와 연풍2·3리를 관통한다. 연풍리의 상류에 위치한 연풍 저수지는 류병석(劉炳錫)이 수리조합장으로 이임移任한 1960년에 완공되어 현재도 연풍리 농지에 젖줄을 대고 있다. 당시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류병석에 따르면 280정보町步, 대략 84만 평이었다. 저수지와 수리조합의 운영을 통해 주내면 전체 면적의 반이 넘는 이 농지가 갈퀴논에서 옥답으로 변화되었다.

“대규모는 정부가 관리하고 적은 조합, 예를 들면 김포의 한강 수리조합이 니 이런 큰 조합들은 국가가, 농림부가 관리하고, 그 아래는 도가 관리했지. 수리조합은 말하자면 자치단체야. 정부가 보조 주고 용자 줘가지고 1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야. 보조도 주고 용자도 주고 해서, 정부가 반 보조가 나오지. 그때 3억이면 클 텐데, 보조금 3억에다가 저수지를 맨든 거야. 조합에서 이용하는 면적이 280정보가 되니까. 저수된 물을 물도량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지. 많지. 저수지 이름은 연풍 저수지고, 조합 이름은 연풍 수리조합이고. 개울이 연풍천이거든, 거기 상류. 지금도 있지. 지금 그 물을 이용하는 거야. 갈퀴논이니, 노루마당이니 말했잖아. 아주 옥답 됐지. 주내면 내에 280정보야. 전체 면적의 반이 넘을 거야, 논 면적이. 물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정부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고, 지원금은 차익금이니까 뭘

주는 거니까, 수세 받아가지고, 15년 분할상황이니까. 상환제라고 부담금 내고, 또 나머지는 운영한단 말이야. 그니까 다른 지원 없이 세금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운영하는 비용을 조합원이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완전 자치지. 농민들이 면적에 따라서 물 사용료를 냈어. 보수하고 해야 할 거 아냐, 물또랑도 맥히고 수로 맨들어 주고 해야 하니까. 보조금, 기채금 합해가지고 공사비로 한다구. 저수지 만드는 데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기채금을 줘가지고 일부는 나눠서 줘야라, 그런 거지. 공사 추진이라는 게 추진비 줘야 되고 따라 다니면서 점심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냐, 근데 면민들한테 일체 부담을 안 줬어.”

류병석은 3년 이상 수리조합장으로 일했는데, 1961년 10월 영천·임진·공릉 등의 수리조합이 파주 농지개량 조합으로 통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조합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수리조합이 통합이 됐어. 임진 수리조합이니, 영천 수리조합, 적성 수리조합, 백합 수리조합, 한대 합쳐가지고. 조합이 한대 묶여지니까 해체가 되지. 그게 언젠가면 박정희 씨 군사정부 된 고 다음이야. 연풍 수리조합이 파주 농지개량 조합으로 들어갔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애들 임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난 내놓고 만 거지. 내놓고 농사짓고. 혁명 고 다음인가에 통합이 됐다구. 63년 됐을 거야. 혁명 나고도 1년 몇 개월 있었어. 5·16 나고 1년 몇 개월 있다가 통합이 됐어.”

그때가 서른여덟 즈음이었다. 수리조합장직을 그만두고도 류병석은 농업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과수원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아 과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은 농사만 짓는다. 지금도 가을철이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매일 논에 나가 수확을 기다린다고 한다.



수리조합장직을 내놓고 과수원과 농사에 전념하고 있을 때 과수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과수원 하고 농사졌어. 연풍리에다. 논은 저수지 안에 있고, 과수원은 다 정리했어. 나이도 먹고 인건비 때매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사과, 밤... 밤 수확 하는 거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 농사 시작한 지 5, 6년 돼서겠지. 5, 6년 후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니까. 한 만 평 했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집어줬어. 인건비도 올르고 일들은 꼭 시간 맞춰서 안 해주고 말이야. 10년 더 했어. 농사만 해, 벼농사만. 지금은 기계가 다 해.”



2003년 혼인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큰아들네가 사는 갈현동의 한 예식장에서 올렸다



1961년 음력 1월 류병석의 아버지 장례식 때 파주리 부대 건너 장지로 가는 행렬
아버지가 대추벌에서 인심을 잃지 않아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여를 새로 꾸며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한다. 장례 행렬이 나갈 때 미군들이 교통정리를 해주었다

한기영의 생애사

한기영(韓基榮)은 청주 한씨로 1939년생이다. 충남 온양온천에서 2km가량 떨어진 읍내리에서 육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한기영은 온양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열여덟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그뒤 결혼한 언니가 있는 서울로 상경하였다. 생계 유지를 위해 남대문 공작실에서 일감을 받아서 뜨개질을 했는데, 밤을 새워가며 일주일에 네 개를 뜨면 쌀 너 말(한 말에 350원)이 되는 벌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기영은 스무 살이 되던 해인 1958년에 외숙모의 중매로 신중환과 혼인하였다. 남편은 당시 막 제대한 상태였는데, 물자를 실어나르는 미군 수송헬기를 보더니 장사를 하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수 있을 거라며 한기영에게 고향인 파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전쟁 후 파주 일대의 수용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나이선 패스'라는 것을 발급해 주었다. 신분을 증명하고 거주를 허용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이었다. 외지인인 한기영은 '나이선 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 미 합동근무소를 피해 남편과 함께 한밤중에 선유리로 들어왔다.

"여기 살던 사람은 나이선 패스가 있었어. 여기 주둔해서 사는 사람은 그걸 해줬어요, 수용소에서.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어서 없잖아? 장단 사람하고 여기 사람들은 해줬는데 나는 못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못 들어오니깐 우리 지형 아버지가 3일 만에 갔다 오더라고, 수용소로. 나 수용소다 놓고 날더러 가져. 날 손 붙잡고 오는데, 합동근무소가 있더라고. 미군, 해병대, 육군, 방첩대. 방첩대 피해가지고 저 굴다리로 해서 논두렁으로 오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참게가 이만 한 게 있어. 참게. 간이 조마조마... 숨어서 논두렁에 10월 달인가 오는데. 이럭 히고 켜는 거야. 콧 소리 질렀더니 가만가만 있으래. 그때 워커 신었어. 발로 이렇게 눌렀는데 밤중인가 후라쉬 들고. 게야, 게. 이만 해, 이만 해, 참게가 이만 해.

지현 아버지가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밭 묶고 이렇게 밭 묶고 자기 잠바에다 싸가지고 몰래 들어오는디 붉은발이라고 있어. 그리로 들어오면 질러 들어오는 거야. 문산여상 있는 데. 그때 내가 무슨 치마 입었어? 무주 벼루도 치마 입었어, 무주벼루도 치마. 한복을 입고 오는 거야, 그때. 무주 벼루도 치마에다 연미색 호박단 저고리를 입고서는 허리백을 둘러고 고무 신을 신고 오는데 갈래갈래 다 찢어졌어. 지리발이 있을까 봐, 이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걸 잘 알더라고, 일리는 지리가 없대. 나 스무 살 손 붙잡고, 저는 큰길로 들어오는데 나는 못 들어오잖아, 나이슨 패스가 없으니까. 나를 도망시켜서 들어오는 거야. 그니까 무주벼루도 치마가 걸레야, 걸레야.”

선유리로 들어와서 전쟁 중 죽었다던 시어머니와 막내 시동생, 시누이를 만났다. 시어머니는 피난처 청량리의 남동생네로 가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대구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죽어도 고향에서 죽자는 심정에서 다시 선유리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은 반지하의 병커를 만들어 살고 있었다.

한기영이 선유리에 온 1950년대 말, 파주 일대에는 이미 ‘토인’들과 미군들이 버글버글했을 정도였다. 한기영은 20대 초반의 새댁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파주의 미군들 곁에는 ‘칠성 엄마’와 같이 미군을 상대해 돈을 벌려는 중년 부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전쟁 중 월남한 칠성 엄마는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길로 미군을 상대로 돈이나 벌어야겠다며 파주로 왔다.

“42살인가 먹은 칠성이 어머니래, 애기를 낳는데 칠석날 났다고 그 아이 이름이 칠성이야. 우리가 졌는데, 우리 방에서 났어. 울면서 그러는 거야, 이 애를 뱉려고 절구쟁이로 배를 쳤대. 그래도 안 떨어진 거야. 미군한테 강탈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에이, 돈이나 벌자. 애들이 이복서 셋이 있어. 서울에다 데려다 놓고. 이 애기는 강탈당한 거야, 저 부산 송도에서. 그래서 파

주 땅으로 올라 온 거야. 애들은 서울 갖다 놓고 자기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
지고. 그이는 엄청나게 돈 벌었어. 그때 그 아줌니들은 피난길에 나와 가
고 부산까점 가가지고 아주 미군부대만 쫓아다닌 아줌니들이야. 그니까 여
길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 아줌마가 너이나 있더라고. 그니까 그때 중년
부인들이야.”

이런 부인들은 ‘또아리’와 담요를 들고 하루에 몇 차례씩 집을 나가곤 했다.
돌아와서는 벌어들인 달러를 깡통에 모아두었다. 깡통들이 모이면 군용 ‘센-백’
에 담아 남대문 같은 곳에 가져갔다고 한다.

“그때 잊어버리지가 않아. 해만 요렇게 몇 발 나면은 저 아래 건너편에, 여
기다 동 있는 또아리 두 개를 끼고 담요 하나 끼고 나가는 거야, 우리 방을.
우리 한 집밖에 없었지. 어디 가, 아줌니? 알 것 없어, 문 잠가. 문만 꼭 잠그
고 있었지. 그런 건 보질 못했지. 밤이면 두 번씩, 시 번씩 들어와. 그러면,
지금 말하면 미군 쿼터 깡통, 거기다가 딸리를 벌어가지고 콕콕 넣어가지
고 땅바닥에 묻는 거야, 푹푹 꺼진 쪽격 맞은 땅에. 그것도 공동묘지 밑에
거기다 갖다 묻는 거야. 공동묘지 갈려면 여기서 한 5리는 가야 돼. 거기다
깡통 갖다 묻어. 어느 날 밤중에 한 달쯤 되면 그 돈 모아가지고는 미군 센-
백이라고 있어, 자루 같은 거 요만한 거. 거기다 달러 한 거 넣어가지고. 지
금 말하면 1불, 2불짜리들. 그제 돈 벌러 가는 거야. 남자 상대하러 가는 거
야. 미군들이 산 밑으로 짝 깔렸잖어. 여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밤새 상대하
는데, 그 또아리가 뭔지를 몰랐어. 그거 하고 담요 하나만 그 아줌마가 가지
고 가는 거여. 그런 거 받으면 20~30명을 한대, 잠자리들. 그 아줌마가 그
렇게 돈 벌었어. 미스무스 백화점에 매장이 몇 개가 있더라. 그렇게 돈을 벌
었어.”

칠성 엄마와 같이 미군을 상대해 돈을 번 여인네들에 대한 일화는 파주에는
넘쳐날 정도로 흔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이

유는 그것이 속화(俗話)이기 때문이 아니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미군의 존재는 바로 돈벌이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칠성 엄마는 떠나면서 “불쌍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후송해서 보낸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벌면 신세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 한기영이 첫 아이를 임신해 있을 무렵, 남편은 칠성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전쟁 중이라도 미군 놈 근처만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였다.

1959년 즈음에 첫딸이 태어났고, 3년 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럭저럭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한기영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 사이, 남편은 각지에서 물려든 외지인들과 노름에 빠졌고 장물애비들에게 돈까지 빌려주곤 하였다. 마흔이 채 되기도 전에 남편은 기관지에 병을 얻어 서서히 앓아눕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기영은 미군부대로 들어가 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 1968년이었다.

“에이비에이션(aviation(항공, 군용기))이라고, 낙하산 부대가 있더랬어. 그게 배껴가지고 헬기부대로 됐더랬지. 거기 들어가니까 첨에 날 뭘 하라는지 알아? 스테키 있으면 살라드, 레터스(lettuce(미국식 상추)) 같은 거 있지, 그거 다 쓸어가지고 야채 하는 담당으로 내가 들어갔잖아. 그건 가정주부니까 내가 잘 하지?”

한기영이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헬기부대였다. 부대 내 식당에서 야채 썰는 일을 맡았다. 당시만 해도 기혼 여성에다 노랑 저고리 차림으로 미군부대에서 일한 한국 여성은 한기영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창피한 일이어서 그는 한 동안 뒷골목으로 출퇴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1년을 일한 후, 부대로 왕래하는 택시가 많지 않아 GP 부근으로 옮겼다.

“여다리로 가니까 아주 장자들만 한 1800명이 되는데, 여자가 나 하나야. 그때 피차라는 게, 아주 앵방석만 해. 고급 장교들이니깐은. GP 강 건너, 우리로 말하면 위험한 데 거기를 갔다가, 저녁에는 한국 군인들이 가고, 낮에

는 미군들이 가고, 저녁 때 되면은 미군이 나와. 저녁에 나오면 신나게 먹는 거야, 말도 못해. 피차가 이래. 그때도 우리는 60년대에 피차를 먹었다는 거 아냐? 대령이 아줌마, 애들이 몇이네? 서이. 아들을 데고 간 거야. 부대로 갖다 놓으래.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나오는 거야. 코쟁이 아줌마, 코쟁이들만 있는 거지. 자기 새끼들 갈잖아, 고향에, 동족은 달려두. 그렇게 이빠해 주고 업혀주고 또 부대다 갖다놓고 씻겨주고. 잘 따라 땡겼어, 이게.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나 일하는 데 갖다 놓으면 노름하는 데 따로 있어, 슬랏머신. 그러면 이만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가 밤중에 10시 반 돼 가지고 끝나면 나를 데려다주고 데려다가는 찻차가 있더라고. 쓰리쿼터 차로 데리고 가, 올 때도 쓰리쿼터 차로 데리고 와. 그때는 여자가 없어서.”

방석만한 ‘피차(피자)’, ‘슬랏머신’, 자기를 출퇴근시킨 ‘쓰리쿼터 지프차’ …, 군부대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한기영에게는 새로웠다. 미군들은 GP에 들어갈 때 ‘커스텀 custom’이 있었다. GP에 들어가기 전 다섯 가지의 술을 섞은 이별주를 “롱거 나이트 longer night~”라고 외치며 마신 것이다.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 어린 미군은 이 독한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는 GP가 무서워서 한국에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다. 한기영은 부대에서 일하면서 이런 어린 사병들을 달래는 ‘어머니’ 역할도 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중반이 되면서는 양색시를 비롯해 심지어 명문대 영문과 출신의 여자들도 부대로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에는 ‘미군부대가 여자들에겐 최고의 직장이었다’고 한기영은 말했다.

“한 5, 6년 되니까 양색시들도 들어오고, 서울대학교 영문과 되는 여자도 있더라고. 들이나 됐어. 코주부 언니라고, 그 여자는 그때도 코 시웠어. 그 여자는 이래 영문과 나온 여자야. 그때 나이가 서른두 살인가 먹었더라고. 영얼 잘하더라고. 근데도 같이 일했어. 결국은 미국 갔어. 종업원 노릇했지.

부대 들어가니깐은 전부 다, 누구 말마따나 남편 두고 자식 두고 온 여자는 나 하나뿐이었어. 그때도 따지면 열다섯인가 있더랬어, 우리 부대는 나 하나였었지만. 사무실에 월급 타러 가면 어느 부대 있는 여자, 부대가 여기 강 건너 이쪽으로 다였었어, 어느 부대 뭐 하고 뭐 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때가 있어. 어디서 왔냐고 하면 부산서 있다가 왔다고. 우리는 영어도 못 썼어. 그 여자는 잘 썼어, 필적도, 말만 하면 짹짹 쓰고.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고, 그때. 나 들어오고 양생시 쪼가리, 뭐 쪼가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 가지고 종업원들, 여자들만 양쪽에 한 570~580명 됐어. 서부지검만 얼마 있나 하면 한 70명 됐더랬어. 동두천, 의정부 저 쪽으로는 말고.”

1970년에 한기영은 젓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광탄의 한 농장에서 암소 한 마리를 65만 원에 사들였다. 이놈이 일주일 만에 새끼를 낳았다. 남동생이 거두고 일꾼도 한 명 두어 1988년에는 총 46마리로 불릴 수 있었다. 젓소를 키우면서 군 부대에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남편 병수발까지 도맡아 하느라 하루 2, 3시간밖에 잘 수 없었다고 한다.

한기영은 1973년쯤에는 판문점에서 3년 정도 일했다. 미 제향군인회 소속의 에이슨클럽에서 밥, 술, 담배, 과자를 팔았다. 여기서 교육도 받았다. 하루 4시간씩 영어로 진행되는 종업원 교육으로 아주 엄격했다고 한다.

“판문점에도 가서 일했더랬어. 판문점의 스위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주방장까지 갖고 댕쳐. 거기서도 한 3년 일했어. 개네들 셀빙할 적에는 최고 여자들을 갖다, 경험 있는 자를. 거기 가면 세계 각국 나라 돈이 다 있어. 그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는 다 은이야, 도구가. 포크, 라이프, 스푼서부터 끓이는 커피, 다 은이야, 스위스 사람들. 요만한 거 하나 갖고 나오면 다 돈 주는 거, 그런 거. 고기도 최고 스테이크 좋은 것만 먹어. 아주 그냥 고기가 살살살 넘어가. 우리로 말하면 안심이거든. 바둑 같이 쓸어서 은포크로 딱 지져가지고 먹는 거야. 정말 좋은 구경들 많이 했어.

스위스 사람들은 아주 양반이야, 양반. 다 한 부대야. 부대마다 전속이 있어. 일을 잘하면은, 경험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헤-드head라고 그러거든. 젊은애들 갖다가 순가락들 잘못 놓고 얼마나 실수야. 그런 거를 딱부러지는 사람을 들여보내. 보수도 좋아. 서로 갈라 해서 못 가. 거기는 추천을 해서 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거든. 이 근방에 한 50~60개가 넘어, 그런 데가, 나 같은 일하는 자리가. 그땐 한 70년대 되니까 양색시니 뭐니 별것들이 다 들어왔어, 가정 부인도 좀 들어온 것도 있고, 지배인들하고 싹 싹 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처제라고 델코 들어온 것도 있고, 많어. 여자가 70~80명 됐더랬지, 다 모이면 음식 만지는 여자들은 교육을 시켜, 주로 미국서 많이 와. 글고 일본 아이들은 영어로 다 했거든, 우리 교육을 받는데. 아침 8시서부터 보통 1시까지, 2시 되면 출근해야 하니까. 그럼 8시서부터 차 타고 와가지고 교육받고 부대 들어가고, 4시간씩 시간을 달아줘. 하루 일하는 데 8시간이면, 4시간이면 한낮의 봉급을 다 받잖아.

그런 교육을 받을 직에 그 선생들 막대한 돈을 받고 와가지고서는 태평양 바다 건너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진지하게 들어야 하잖아. 어떤 놈은 꾸벅꾸벅 졸고. 이래리 사람이 한 번은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종업원 청소하는 사람을 연필에다 확 때리더라고, 얼굴을. 화가 짝 나가지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미국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날 보냈다, 이거야. 당신네들 집에서 떠나는 시간서부터 직장에 가는 시간까정 4시간씩을 달아서 불러서 교육을 받는데 좋아? 돈이 그렇게 무섭다, 이거야. 그렇게 철저히 해, 아주.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거 알아들을라고, 앞에 서가지고, 그 듣는다고.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적이 좋지. 근데 알아듣더라도 꾸벅꾸벅 졸고 그래 봐. 술 한 잔 먹고 와서 꾸벅꾸벅 졸고 해봐."

한기영은 미군부대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1960년대 말, 운천리의 기갑사단에서는 비상이 걸린 틈을 타 일하던 한국인 종업원들이 돈을 바가지로 긁어모으거나 창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었다. 한국인 종업원들에 의한 부대 물자의 유출은 사실상 빈번한 일이었다. 공식적으

로는 금지되었지만 담당 미군들과 친분을 쌓으면 물자 창고에 쌓인 깡통 파인에 플, 씨 없는 포도, 미제 그릇·컵·ナイ프·스푼·포크, 양주, 맥주 등을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부대의 전기가 나가 냉동된 고기들이 조금이라도 녹으면 다음날 바로 쓰레기로 처분되었는데, 이는 곧 한국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군용 시레이션(비상 식량)을 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밤중에 벌떼같이 몰려와 삼분의 일은 가져가 버렸다. 할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는 큰 파티가 벌어지곤 했는데, 그러고 나면 온 동네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물자가 흔했다. “미군 한 사람에 한국 사람 7명이 먹고 산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러던 중, 한기영은 그만 교통사고로 막내딸을 잃고 말았다. 이때 26세의 대위였던 해밀턴은 자신이 딸 노릇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심지어는 해밀턴 대위의 어머니까지 미국에서 찾아와 한기영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눌 정도였다. 한국에서 2년 동안 근무한 해밀턴 대위는 ‘살아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장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라크로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기영은 해밀턴 대위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녀가 탄 헬기가 폭격당해 추락한 사진이 신문에까지 났던 것이다.

캠 그리브스에서는 1988년까지 12년 동안 일했다. 유난히도 가물었던 1982, 1983년 무렵, 정문 보초를 서던 박 씨 아저씨가 부대로 들어오는 미군 대령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 씨 아저씨는 이를 동안 코프레이션으로 물을 퍼서 모를 낸 탓에 피곤해서 졸다가 미처 인사를 못하게 된 것이다. 화가 난 대령은 박 씨 아저씨를 바로 해고해 버렸다. 먹고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박 씨 아저씨의 사정이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든 한 씨는 대령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한기영의 얘기를 들은 대령은 사정을 이해했고 박 씨 아저씨는 해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가 미군부대를 다니며 미군이나 한국인들을 도와준 일은 수도 없이 많았다.

캠 그리브스 근무 이후 한기영은 마지막 직장이 될 광탄의 헬기부대로 다시 돌아왔다. 원래 60세이면 퇴직을 해야 하지만, 일도 잘하고 어린 사병들을 잘 다독이는 그에게 특별히 부대에서 6년이나 정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한기영은 자진하여 군인들을 위한 파티를 주선하

였다. 이 파티 후 군인들은 20달러씩 거두어 그녀가 퇴직하기 3일 전에 큰 송별 파티를 열어주었다.

“내가 끝마무리를 잘했어. 나을 무렵, 열흘 앞두고 애들한테 다 인사하고. 우리 어린 것들 다 너희 부대에서…. 내가 연장하고 나가는데 그냥 가기가 싫어서 너네들한테 밥을 주되, 스테이크, 게리온 두 부대거든. 한 1500명 가까이 돼, 한 부대네. 우리는 헬기를 갖다 짓고 여기는 땀을 지점을 하는데, 두 부대 아이들 내가 다 밥을 산다. 그러니까 며칠날, 토요일날 몇 시까지 와라. 세상에 얼마나 좋아할 거야. 아줌마가 정년퇴직하고 나가면서는 우리들한테 밥 한 끼 사준다 그래서. 통돼지 180근짜린가 두 마리를 샀어. 사고, 오비 회사에서, 저저 밀러 회사에서 나오는 거, 거 300불이야, 하나가. 그거 두 개 600불, 돼지 그때 한 마리에 45만 원씩 줬어, 두 개. 부대에서 요리하는 애들, 그거 한다니까 돈도 안 받는 거야, 나한테. 식당에서 거저 다 주고. 통돼지는 지네들이 트럭으로 임진강에 가서 돌을 깨끗한 걸 주워다가 소나무를 찢라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냥 퍼다 먹고는 술 먹고 양쪽 부대가 얼마나 취해가지고 놀고. 말도 못했어. 그래 가지고 일주일이면 나갈 텐데 나가기 3일 전에 내 파티를 더 크게 해준 거야. 파티 참석하는 데 20불씩 거뒀대. 파티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하고 나왔어.”

한기영은 모두 네 곳의 미군 부대에서 일했다. 충분한 월급에다 각종 수당과 의료보험까지, 여자 벌이로는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40여 년간의 미군부대 생활에서 얻은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이다. 그러는 사이 노름으로 속을 썩이던 남편과 막내딸이 차례 차례 세상을 떠났다. 그간 모은 돈으로 남편의 유언을 따라 700평짜리 작은 산을 사서 묘소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한기영은 이것이 지금껏 가장 잘한 일이라고 회고하였다.

생애사 인터뷰 후기

2008년 8월 14일, 파주 공설운동장의 시지市誌편찬실에 들렀을 때 파주읍 연풍1리의 김금녀(김해 김씨, 1919년생) 할머니와 김명복(김해 김씨, 1920년생) 할머니 두 분을 소개받았다. 먼저 김금녀 할머니와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하였다. 이후 월릉면 영태1리의 오경례(금성 오씨, 1939년생) 할머니를 만났다. 오경례 할머니를 만나면서 연풍1리로 다시 가 김명복 할머니를 만났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다. 김명복 할머니의 시아주버니(전복천, 정선 전씨)가 해방 이전 문산에서 화신연쇄점을 했다는 것이다. 김 할머니의 시댁은 재력으로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나 싶었고, 김 할머니의 며느리는 화신연쇄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으려면 봉일천의 시고모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화신연쇄점 사장인 전복천의 여동생(전경례, 1926년생)이 봉일천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후 월릉면 봉일천리의 류병석(진주 류씨, 1926년생) 할아버지를 소개받아 만났다.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909번 버스에서 류병석 할아버지와 김명복 할머니의 며느리가 말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 류 할아버지의 부인이 바로 김명복 할머니의 시누이이자 며느리가 말한 시고모, 즉 전경례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봉일천 작은 아들 집에 머물고 있던 류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부인이 배를 내왔었다.

10월 24일, 류병석 할아버지께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니 전경례 할머니의 큰 오빠가 화신연쇄점을 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 그래서 25일 전경례 할머니와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이 말한 화신연쇄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① 류병석(10월 24일 통화)

화신백화점이 아니라 화신연쇄점이었던 것 같다. 종업원은 10명 정도 됐다. 문산은 파주군청의 소재지였고 문산포는 연평바다에서 잡은 새우젓, 생선이 들

어오는 곳이었다. 6·25전쟁 전까지는 배가 들어왔다. 문산포로 들어온 어물들은 문산시장에서 팔렸다. 문산포는 자유로에서 들어가면 반구정 가는 데와 사이(길)에 있었다. 화신연쇄점은 문산터미널에서 한 1km가 안 되고, 지금 북파주농협 앞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었던 것 같다. 개장은 해방되기 15년 전쯤, 폐장은 해방되기 5년 전쯤에 했던 것 같다. 전복선인 것 같은데 애명이 아닐지... (애명 이어서 그런지 역통에 나오지 않음. 전경례는 전복천이라고 함) 전복선(천)은 일제 때 도 평의원 후보가 될 뻔했으나 일본인 후보 때문에 탈락했다. 부자였는데 일찍 작고했다.

② 전경례(10월 25일 통화, 류병석의 부인, 화신연쇄점 사장 전복천의 여동생, 김명복의 시누이)

문산역에서 조금 들어와서 버스정류장 부근이었다. 화신연쇄점이었다. 전경례의 아버지는 해방 전 파주에서 제일가는 갑부였다. 1층 건물(김명복 할머니도 단층이라고 함)로 종업원 수는 12명 정도였다. 큰오빠 전복천이 결핵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 전경례는 이때 여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복천이 연쇄점을 남에게만 맡겨두기가 못 미더우니 시험을 치지 말고 회계를 보라고 하여 잠시 회계를 보기도 했다. 이때가 열일곱 살 즈음(1942년 무렵)이었다. 전복천이 사망하고 나서 몇 달 간은 그의 동생 전재영(김명복 할머니의 남편)이 맡아서 했으나 경험이 없는 탓에 유지가 어려워 전재영의 아버지가 처분을 하였다. 연풍리에는 할아버지대부터 2대째 살았다. 화신연쇄점은 한 10여 년 했다. 장사도 잘 되었다. 전복천은 일본인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도 협의의원도 했다고 한다. 또 매일신보 파주지국장도 했다. 그 당시 파주에서 가옥세 등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부자였다. 그러나 소작인 앞으로 토지 분배를 해주어 재산을 잃었다. 6·25전쟁 때는 1차 숙청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전경례의 작은오빠인 전재영은 전쟁 당시 삼방리에 숨어 있었는데 내무서에서 끌고 간 이후 소식이 없다. 전경례의 아버지는 당시 돈을 많이 기부하여 현 파주 초등학교의 기성회장직도 지냈다고 한다.